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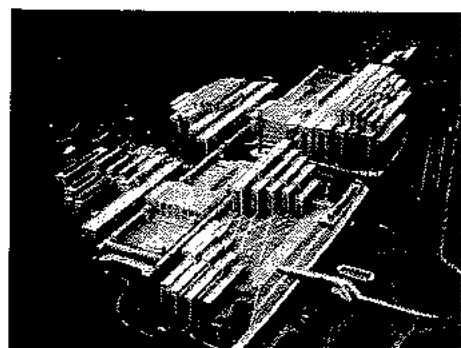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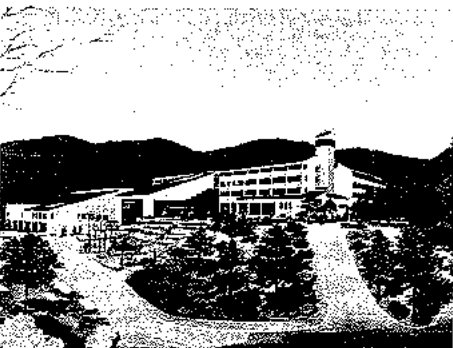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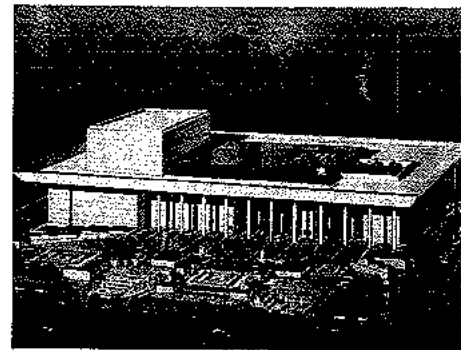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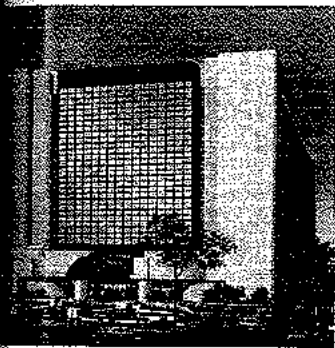
남화학주식

동포구여의도동43(아현빌딩15·17층)
상시성업동 45-25 TEL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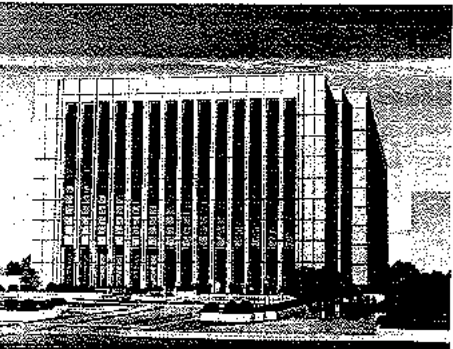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誌 DECEMBER 1984, NO. 189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매적인 주거환경

이는 건축용 단열재
방음, 방습 효과가 뛰어나
큰 역할을 합니다.
요소가 없는 위생적인
한남스치로폴로 아



확인하세요.

스치로폴에는 정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외부 소음을 통제하는
어떤 방음성으로 이
실내분위기를 연출할
있습니다.
* 온난과 절단이 동시에
시공이 간편합니다.
* 우수한 원료로 제조되
유해요소가 없어 안
니다.

스치로폴

스치로폴은 일반 포장도로 상층

“COMPUTER”의 생명은 “SOFT WARE”에 있습니다.

● 좋은 SOFT WARE는
정확한 결과와 빠른 속도와 간편한
사용법에 있습니다.

● 대한 SOFT BANK는
최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좋은 SOFT WARE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한 Soft BANK의 Soft ware는
복잡한 Computer 기능 및 구조계산의 깊은
지식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 대한 Soft BANK의 Soft ware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초현대의 경제성을 보장
합니다.

◎ 철근 콘크리트조 일관계산

1. cover
2. design criteria
3. framing plan graphics
4. design load
5. design of slab
6. calculation of c.m.o.v
7. calculation of column axial load
8. frame analysis

9. design of beam & girder
10. design of column
11. design of footing
12. design of stair
13. design of retaining wall
14. summary for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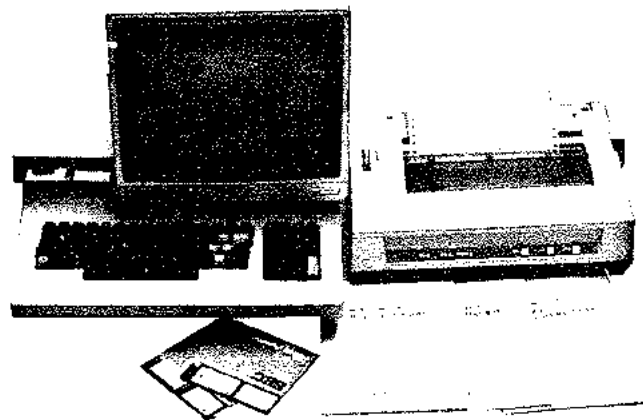
- ㄱ) slab
- ㄴ) beam & girder
- ㄷ) column
- ㄹ) footing

◎ 철근 콘크리트 평면골조 일련계산.
보응력, 강비, 골조해석, 보단면
계산의 연산계산.

◎ 용접 H-형강
BEAM- COLUMN 단면산정

용접 H-형강의 인장, 압축재
및 단축 또는 양측힘을 동시
에 받는 휨인장, 휨 압축재의
단면 산정.

◎ 강성법에 의한 평면골조 해석(1)
절점하중이 작용하는 이형 평면
골조 및 트러스의 부재력과 처짐
계산



본체 : APPLE II PLUS,
주원기기 : MONITOR, DISK DRIVE
PRINTER(MODEL 8510A)

TAI HAN SOFT BANK

서울 강남구 한남동 22-1 한한빌딩 B 103호 TEL. 787-4880, 782-0453, FAX 787-0127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4年12月15日発行

1984.12 NO.189

目次

發行人- 吳雄錫
編輯- 出版事業部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委員 呂鴻九
委員 李揆穆
委員 姜健熙
委員 裴宗明
委員 李榮一
委員 裴哲求
委員 全琪碩
委員 金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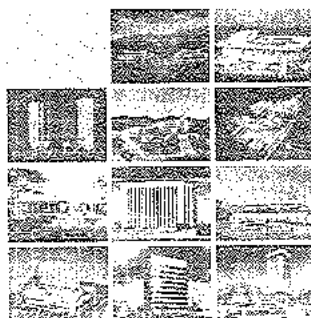
發行=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457-3
郵便番號=135
電話-서울(02)584-0348,
4248, 1098, 9498, 9448, 6198, 0338
登録番號=第1-1251
登録日字=1967年3月23日
U. D. C. 69/72(054-2): 0612 (519)
印刷人=申鍾泰
(汎文精版社/712-2329)

建築士憲章

- 一 建築士는 建築技術을 藝術적으로 創造力을 發揮하여 建築環境을 修造에 이바지 한다.
-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을 環境의 改善를 위하여 建築技術을 誠實히 遂行한다.
- 一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물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專門知識의 研求를 怠慢하지 않는다.
- 一 建築士는 良心과 信義를 基盤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名譽와 品位를 保持한다.
- 一 建築士는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國家의 建設에 協力하여 國家의 發展에 貢獻하는 責任을 負担한다.

大韓建築士協會

建築士



1984. 12

회원계별작품 특점 모자이크

特稿 / 會員計劃作品

- 6● 예술의 전당
김중업 / 김중업건축연구소
- 8● 울산시민회관
한중연 / 금성건축연구소
- 10● 중소기업회관
(주)정림건축
- 12● 언론인 수련회관
최관영 / 건축연구소 일건
- 14● 예술의 전당
김수근 / (주)공간연구소
- 16● 울산시민회관
임장열 / 성림건축설계
- 18● 중소기업회관
이영희 / 희림건축설계사무소
- 20● 강화토산품전시관
김지덕 / 유신설계
- 22● 개포우성상가
윤태웅 / 동인건축
- 24● 우석빌딩
유경철 / (주)종합건축설계
- 26● 올림픽회관
이상수 / (주)선진엔지니어링

30● 送年隨想 / 84년을 보내며

72● 建築士 Plaza

36● 협회소식

40● 분과위원회 활동

41● 사회정화운동추진실적 84년결산

42● 新任市道支部長 就任所感

連載 / 기타

- 46● 특유의 空間演出을 위한 장식소품 / 趙聖烈
- 49● 外部環境의 設計 / 崔杞秀
- 52● CAD를 활용한 建築設計 / 曹鐵鎬
- 60● 既存住宅의 斷熱改修 / 朴相東
- 781● 콘크리트構造物을 위한 비파괴시험법 / 權相水
- 84● 太陽에너지시스템에 관한 研究 / 尹榮在
- 186● 建築構造현장감리 檢事要領 / 구조연구분과위원회

資料

- 94● 건축계뉴스
- 96● 建築士法改正(案) 新・旧條文對比表
- 100● 建築法改正(案) 新・旧條文 對比表
- 102● 각종 改正法令紹介
- 122● 84년도 「建築士」誌 總目次

71● 대화의 廣場 / 金寬旭

59● 인사한마디-淨化칼럼 / 趙哲源

93● 신입회원 소개

127● 회원동정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89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庶務部	



甲子년을 보내면서

金 枝 泰

심아건축연구소 대표



많은 아쉬움과 못다한 숙제를 남긴 채 '84년을 보낸다. 구세군의 자선남비와 종소리든 歲暮의 겨울거라를 더욱 들뜨게 만들고 떠나가는 이해도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역사의 장막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어가는 '84년 모습에서 몇가지 일들을 협회를 놓고 정리해본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창달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였는지? 그 결과는 時空이 흐름에 따라 냉정히 평가되겠지만 그이전에 건축창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연구에 관한 노력이 꾸준히 지불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건축예술창작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하고 그 質이나 水準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로 2개단체에서 연례행사로 각기주관(士協: 회원작품전국순회전, 家協: 대한민국건축대전)하는 작품전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출판된 작품은 평가에따라 우열의 차는 있겠지만 완성한 창작의욕과 造形空間의 처리과정도 보다 깊이있게 인간적인 척도면에서의 空間을 추구한 연출숨씨가 두드러진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작품소화과정에서도 건축계획상의 논리적 전개와, 검토분석 및 종합정리 등이 질서정연하게 다듬어 表出시킨 기법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창작계에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해 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건축문화면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 現代建築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부할 수 있을런지? 약간의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때금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건축물을 놓고 언급할 때 몇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西歐 것을 모방한 건물이 많을뿐더러 천편일률적이며 건물자체의 개성이 없는 국적불명의 건물들이라고 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콘크리트 덩어리니 또는 시멘트 문화니 하고

혹평을 서슴치 않을 때,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어야 할지? 이들을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건축인은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적 발전의 상승무드를 타고 유입된 서구문명의 범람은 우리 건축인으로 하여금 정신없이 뛰게 하였으며 미치 우리나라 현대건축임을 자부할 수 있는 세련된 건축적 言語를 창출해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이점에 관심을 가질때 우리의 건축예술은 부인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라 역사의 증인은 누구인지 몰라도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볼만한 귀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활발한 건축창작활동속에 우리 회원들의 구심체인 士協會도 '83년에 비하여 그 나뉠대로의 실적이 있다고 볼 때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協會創立 이래 성년을 마지한 과정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신념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며 앞으로 제도수정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하겠다. 늙은 丈夫의 변모에서 장래를 기대하는 우리 회원들이 협회의 대한 신뢰도와 거는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협회의 육성과정에서 많은 유관단체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그반면에 오로지 우리회원들이 갖은 곤욕을 인내로써 받아들였고 나아가 단결을 밑바탕으로한 아낌없는 협조로써 이루어졌음도 재언할 필요조차 없지만 '84년에 이를 입증할만한 일들을 協會가 기록해놓은 것이다. 즉 82년 士法改正한 후 2개여년이 흐르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모순을 내포한 일부 조항을 회원의 준법정신양양과 권익수호라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法改正事業을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끝내 목표지점까지 도달한 바 있지만,

참으로 이루 해야될 수 없는 험난한 산길이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단결과 협회의 잠재된 힘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밖에 造形創作의 職能人으로서의 우리건축인들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회원들의 전당이될 協會會館의 준공을 바라볼 때 새심 감회가 깊은 것이다. 온갖 고난을 딛고 마련한 새집을 보고 감상에 젖는 지수성가한 한인간의 의지를 보는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협회 회관의 경우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이 회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회원들인 것이다. 왜? 우리 회원들의 정성어린 기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볼때 우리 회원들의지력을 다시한번 반방에 과시한 것이라 하겠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권익증진에 따른 일들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협회는 국제적인 유대를 맺는 과정에서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국가적 캐치프레이스에 발맞추듯 지난 10월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건축사대회(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에 한국을 대표하여 우리 협회가 참가하여 국위선양은 물론아려나와 민간외교의 몫을 단단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회원국으로서 가입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開會만찬회석상에서의 주최측 국가의 합창단이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뜻에서의 "아리랑"을 불러준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84년을 보내면서 생각나는 것 두서없이 적었지만 우리 회원이 있는한 協會가 존재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반면 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있다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라면서 희망한 새해에 더욱 열심히 책임을 다하도록 각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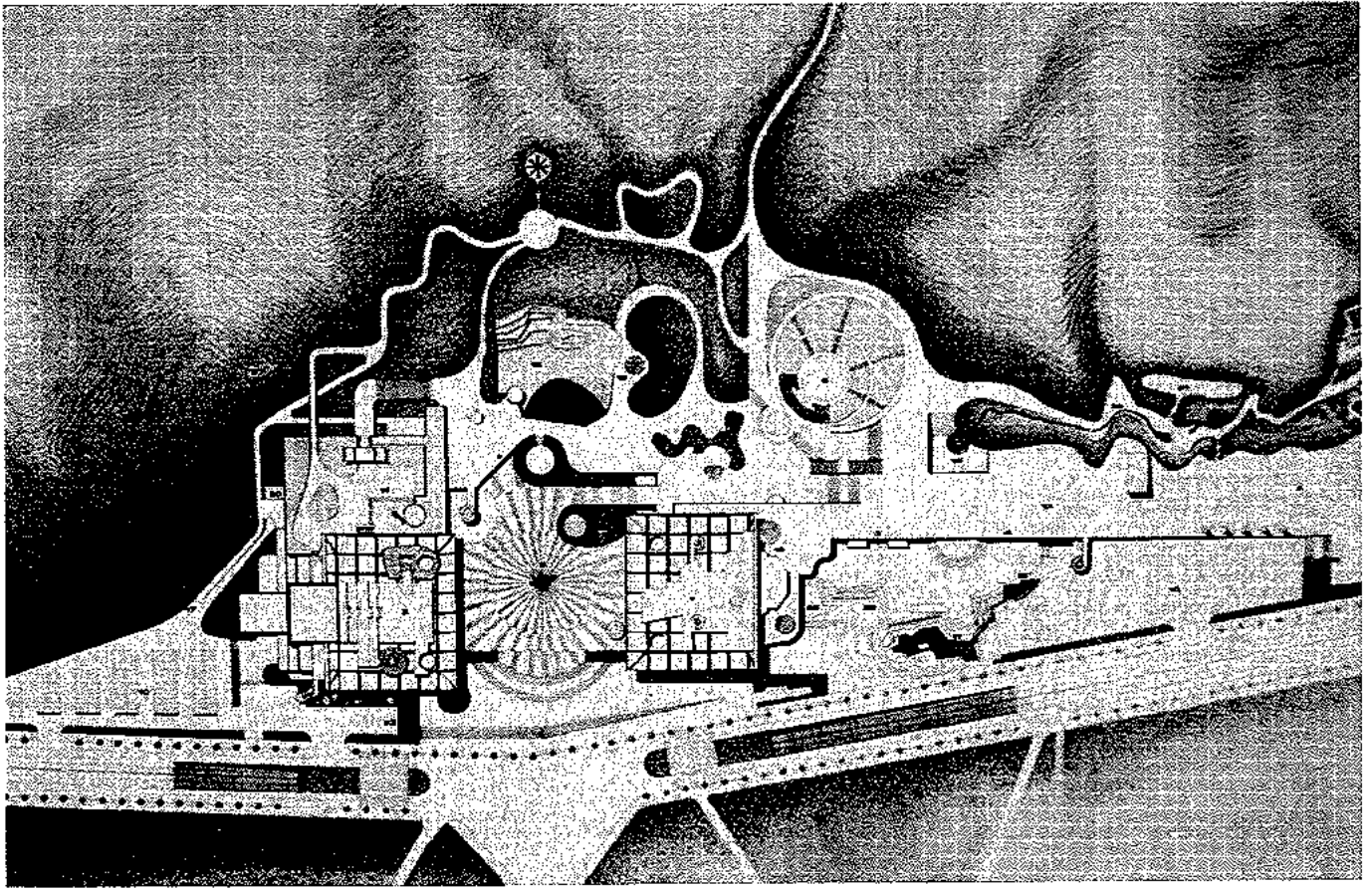
회원계획작품

예술의 전당	김중업 / 김중업건축연구소
울산시민회관	한종언 / 금성건축연구소
중소기업회관	(주)정림건축
언론인수련회관	최관영 / 건축연구소 일건
예술의 전당	김수근 / (주)공간연구소
울산시민회관	임장열 / 성림건축설계
중소기업회관	이영희 / 희림건축설계사무소
강화토산품전시관	김지덕 / 유신설계
개포우성상가	윤태웅 / 동인건축
우석빌딩	유경철 / (주)종합건축설계
올림픽회관	이상수 / (주)선진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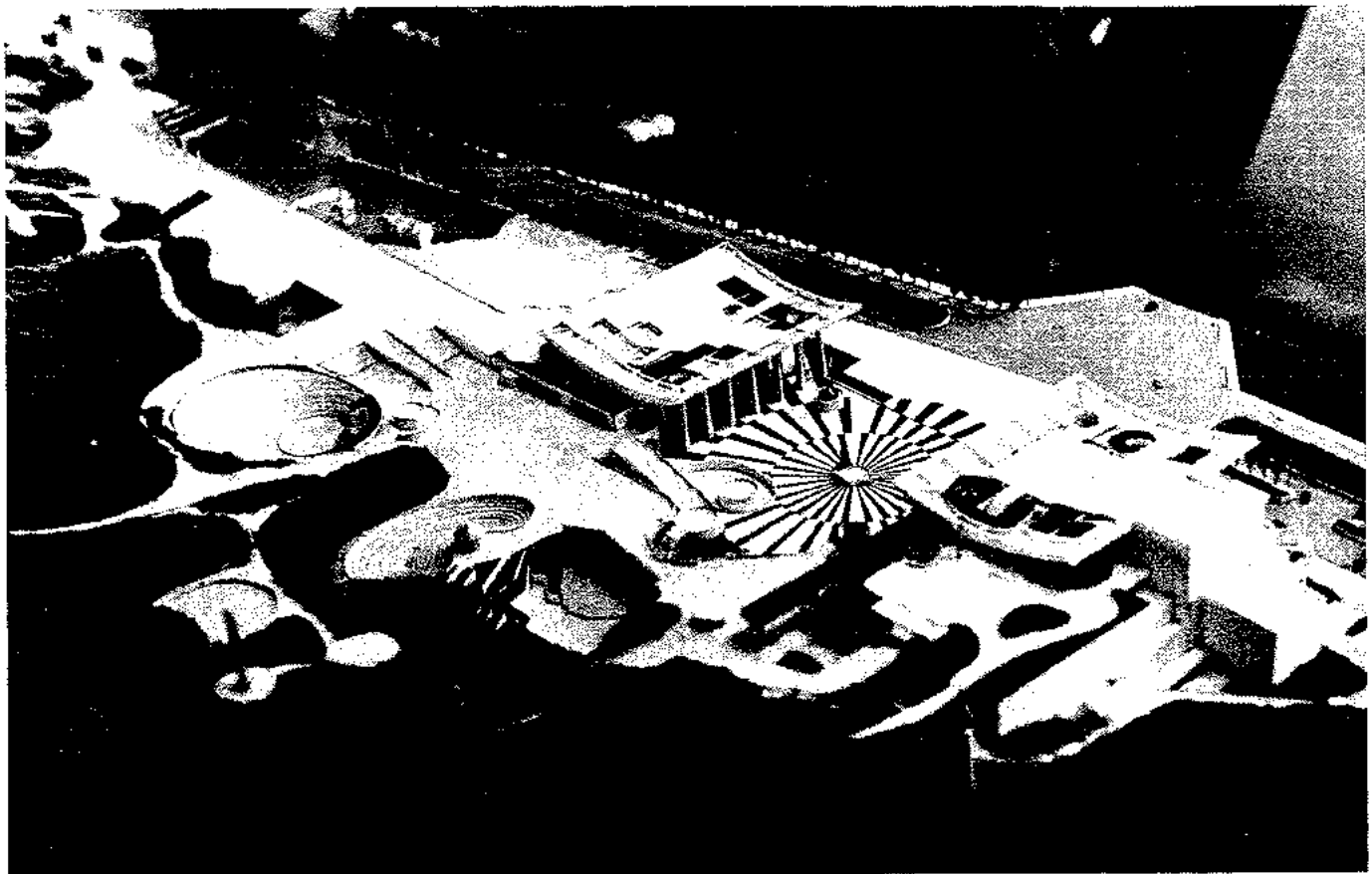
84년은 여러 회원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보냅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발전과 이슈가 많은 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많은 행사와 이에 따르는 건축계의 활력이 기대되는 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4년을 보내며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 혹은 발표된 - 많은 노력의 결정체들을 계획한 자체로 모아서 이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바로 우리 건축계의 뿌리를 살찌우는 밑거름임을 상기하고, 잊거나 도외시해서 사장되지 않게 하려는 뜻으로 이 계획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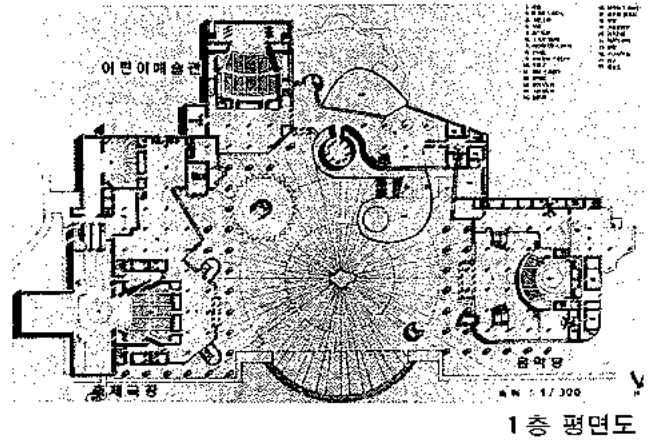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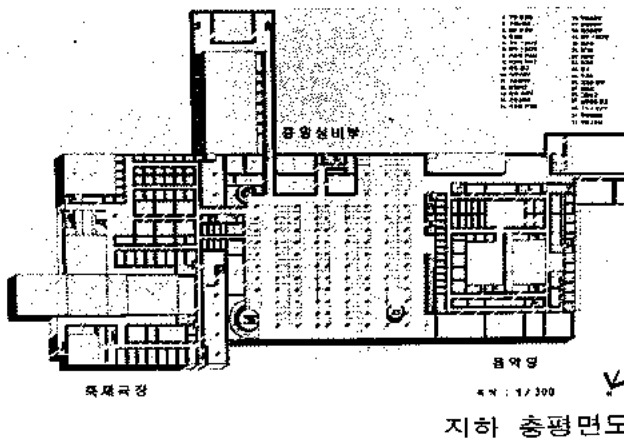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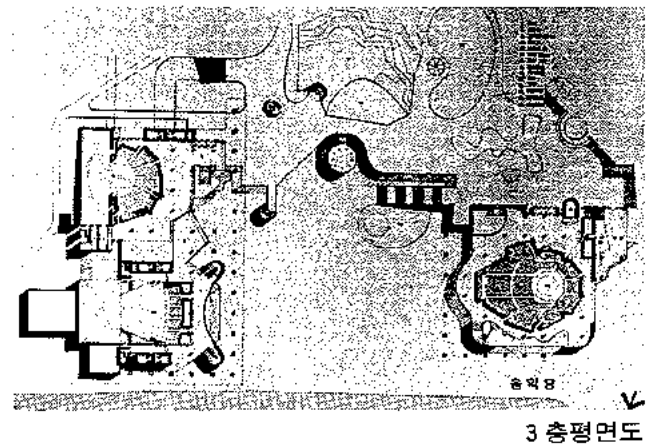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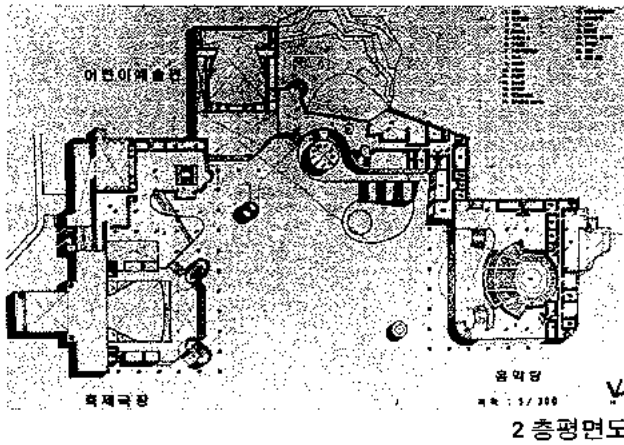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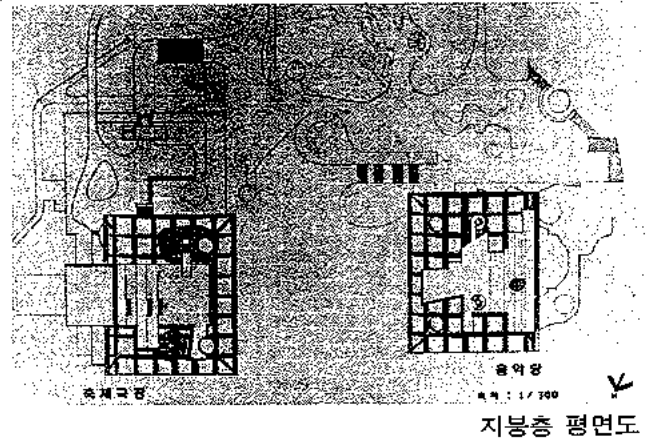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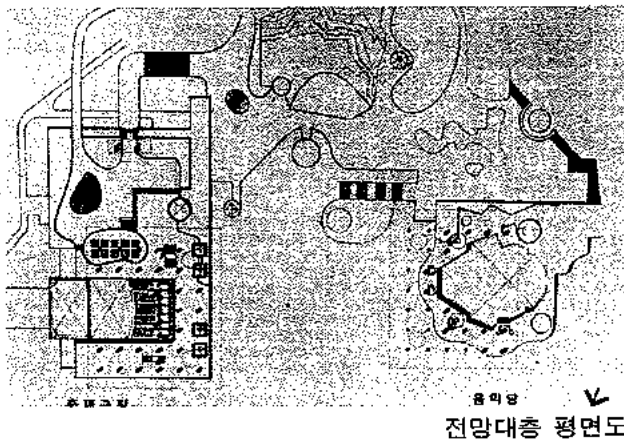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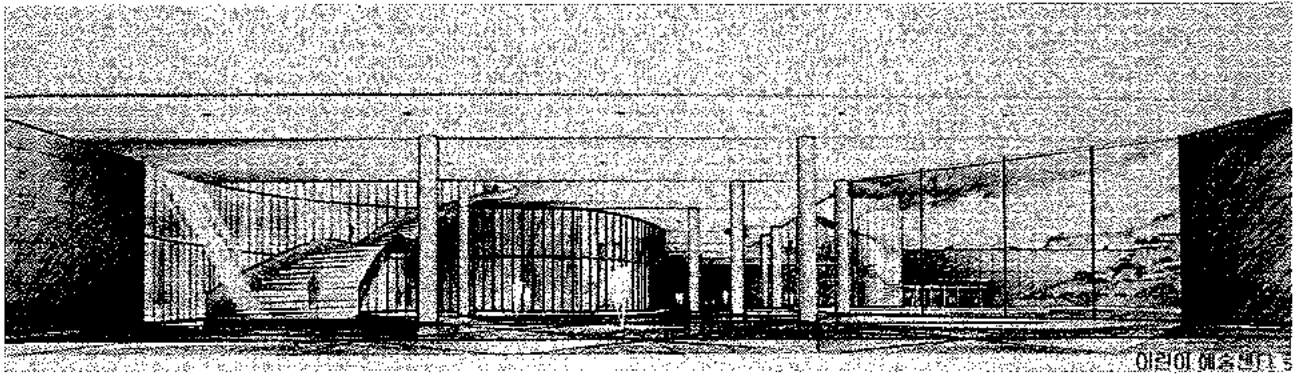
앞으로 보다 분주할 85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성의를 간절히 바라며 작품계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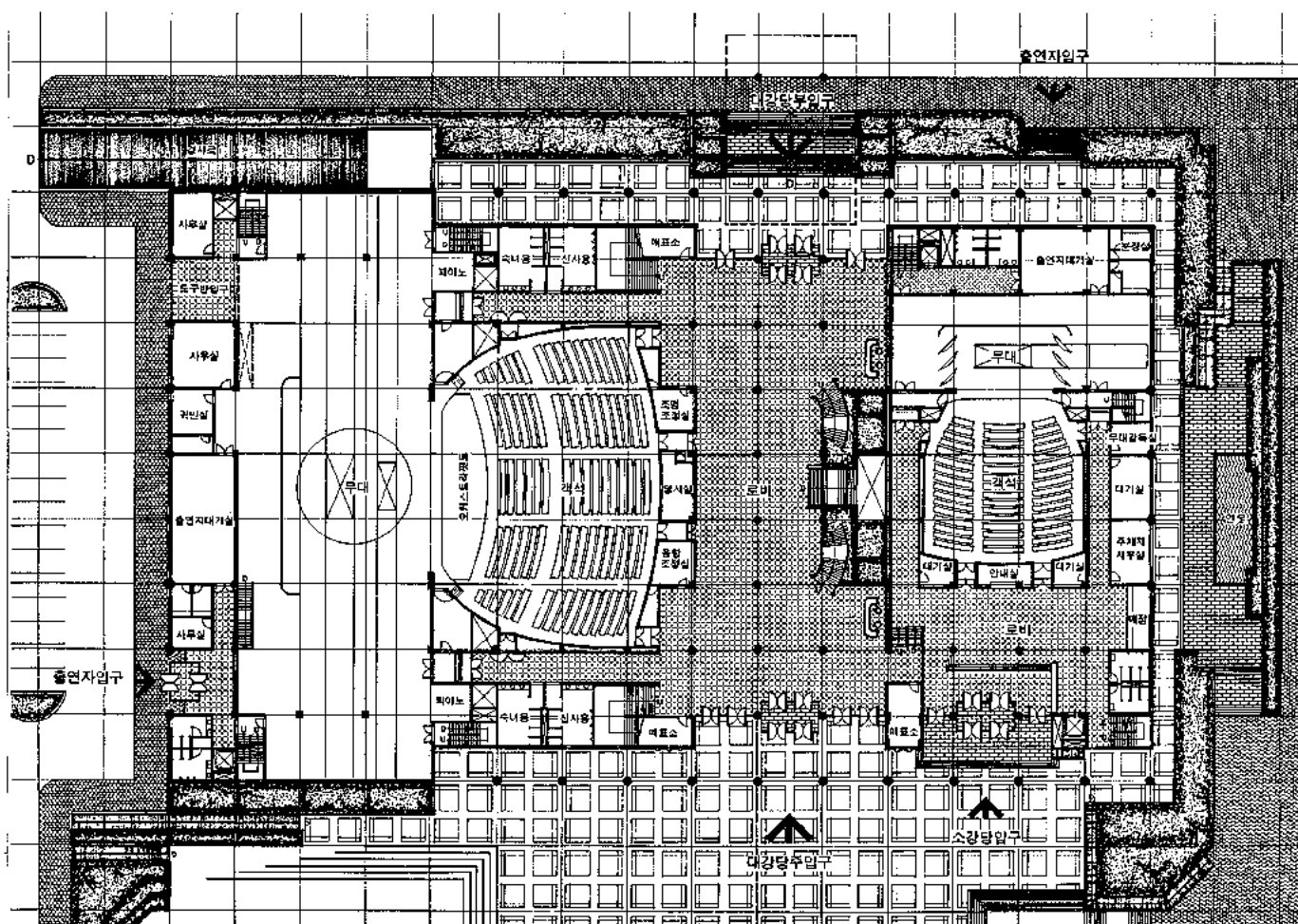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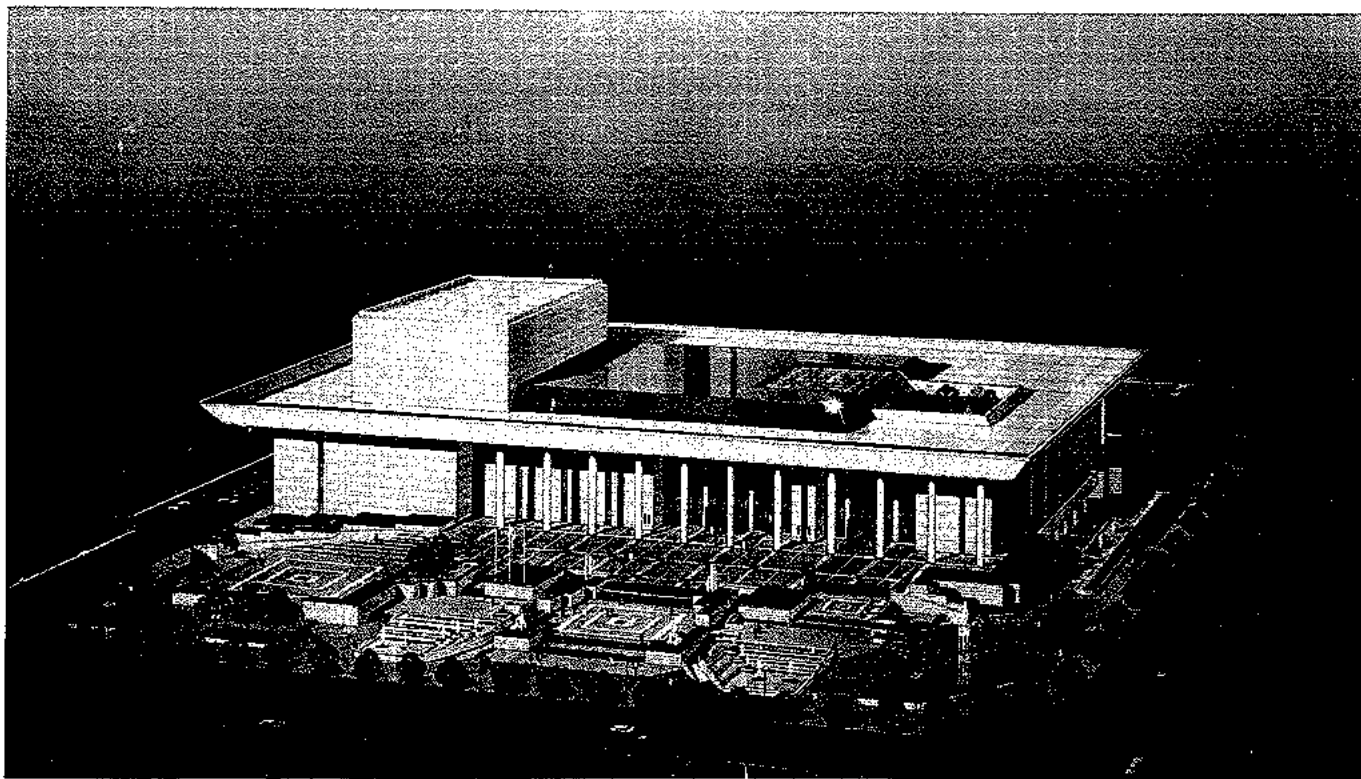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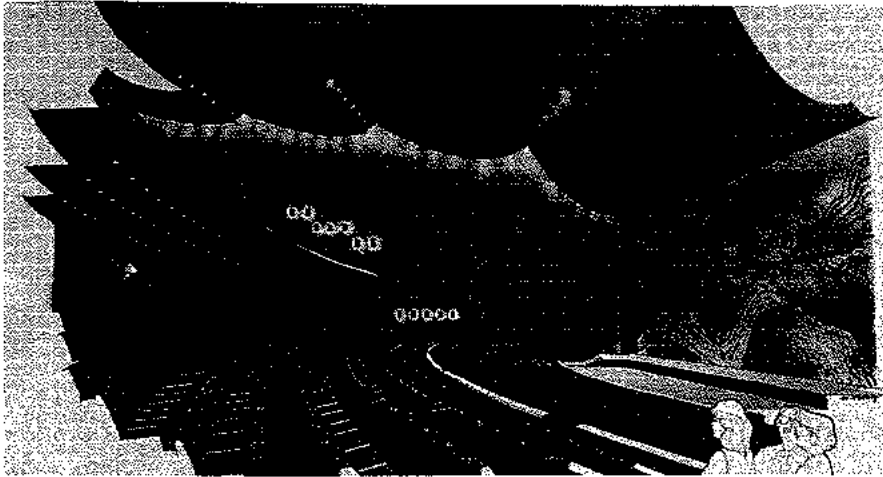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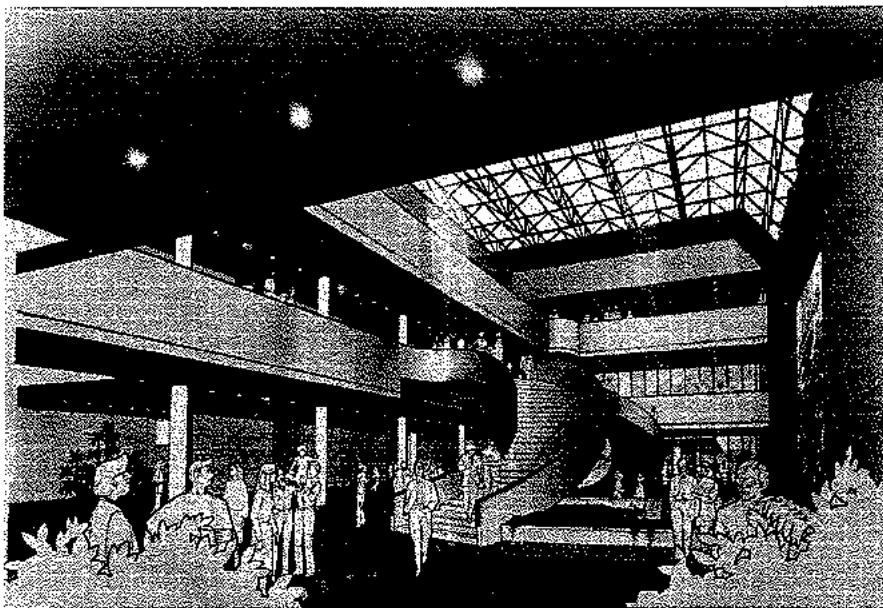
조감도







강당부분 투시도



로비부분 투시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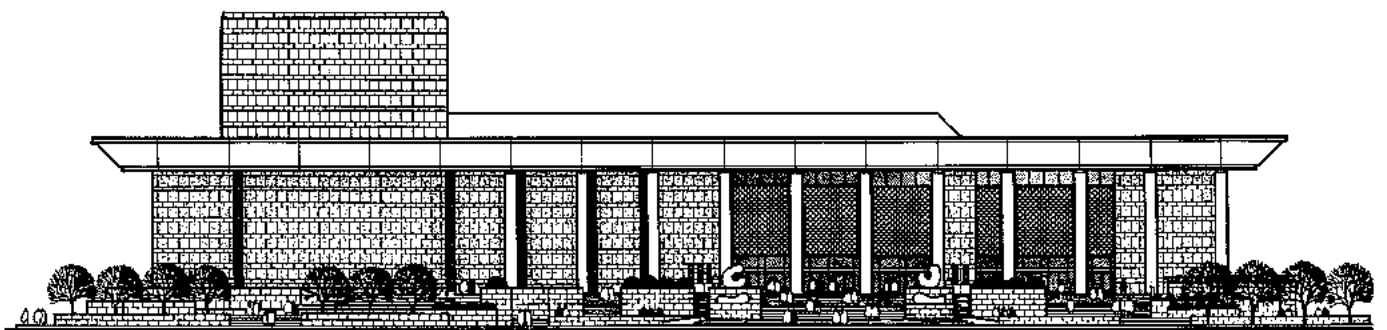
설계자체가 그렇지만, 현상설계는 현상설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역시 가장 어려운 점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성의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없는 것도 감수하면서 작품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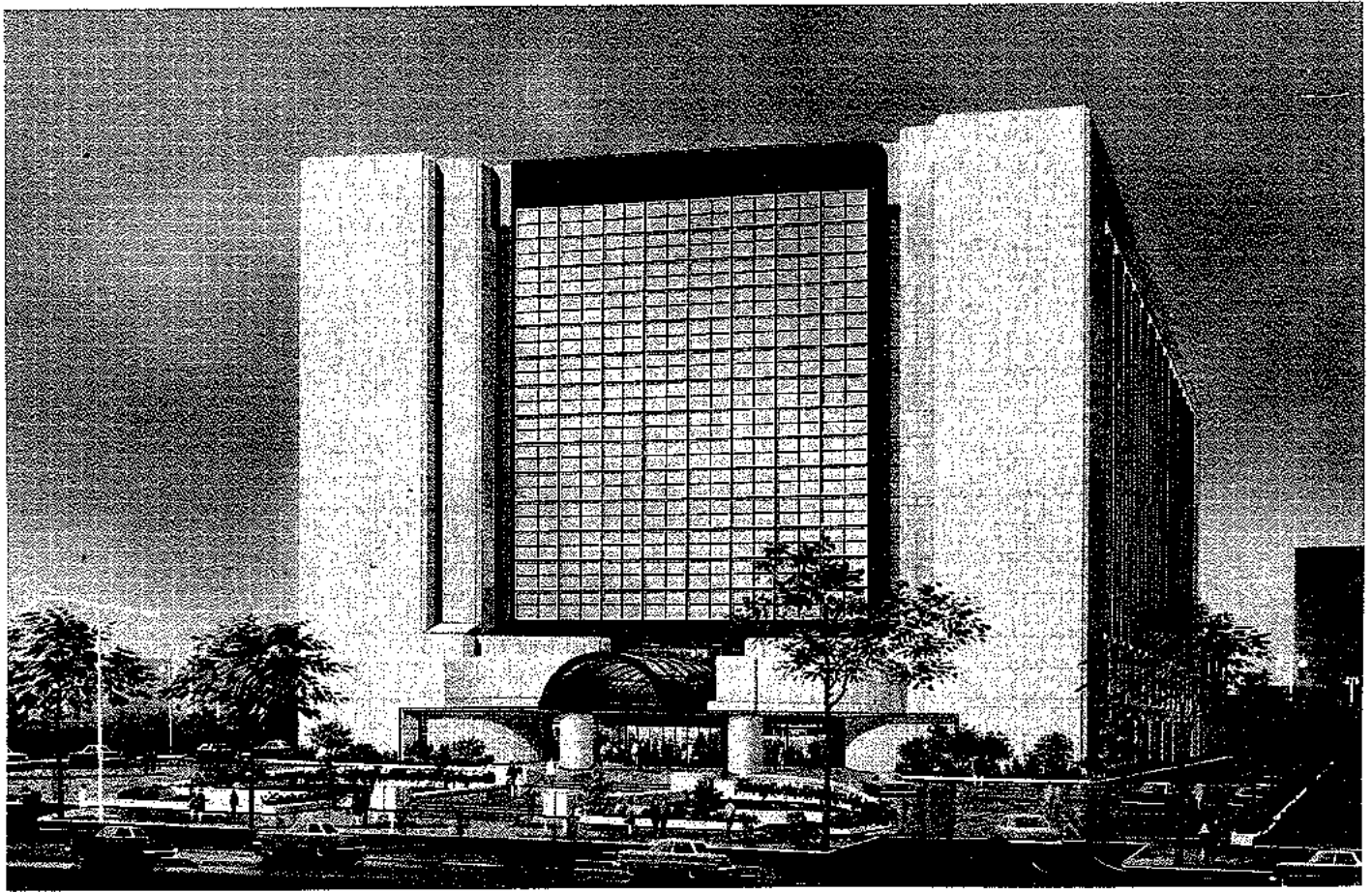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의 건축관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에 대한 상담의견차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리라. 이러한 때 일수록 작품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려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출판번사를 3개월 정도 미루는 동안, 즉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공개방치하는 동안 작품에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없어져야겠고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절이 꼭 있으리라 믿으며 낙선작의 변으로 대신한다.



중소기업회관 계획안 (주)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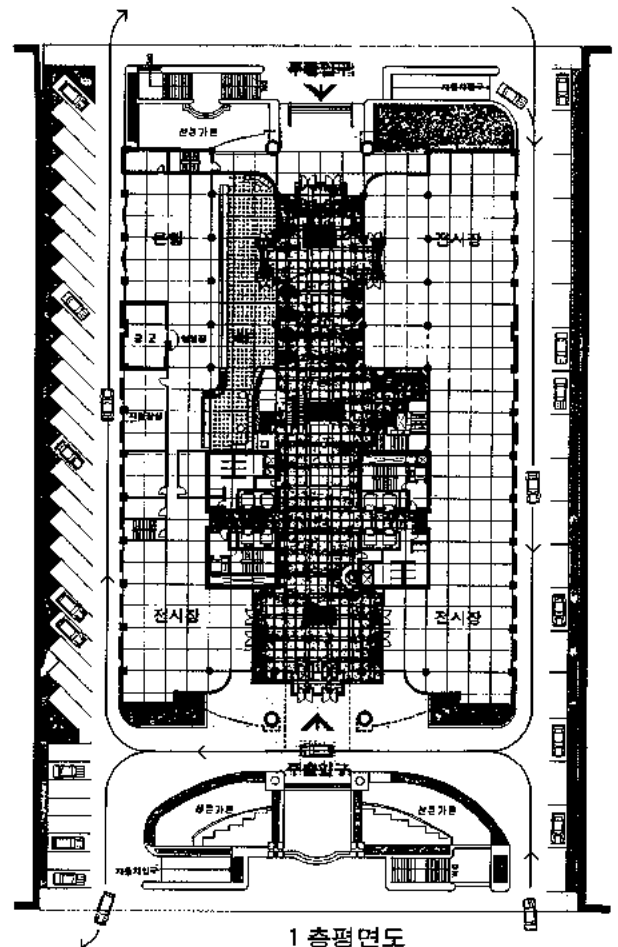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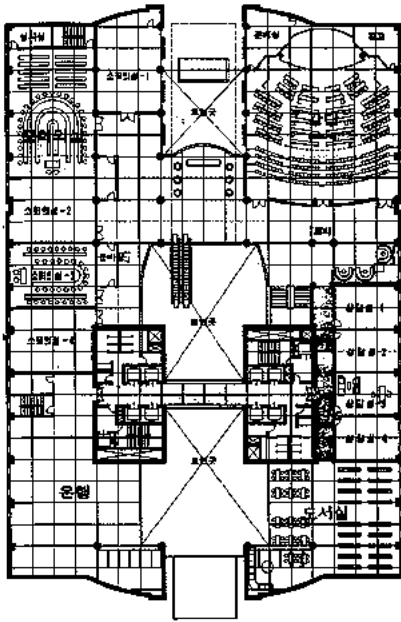
〈설계소요〉

계획대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지의 중앙에 위치 하므로 3 개의 건물은 하나의 BLOCK을 형성 할 것이며, 여의도 광장에 중요한 건물군의 실루엣을 던져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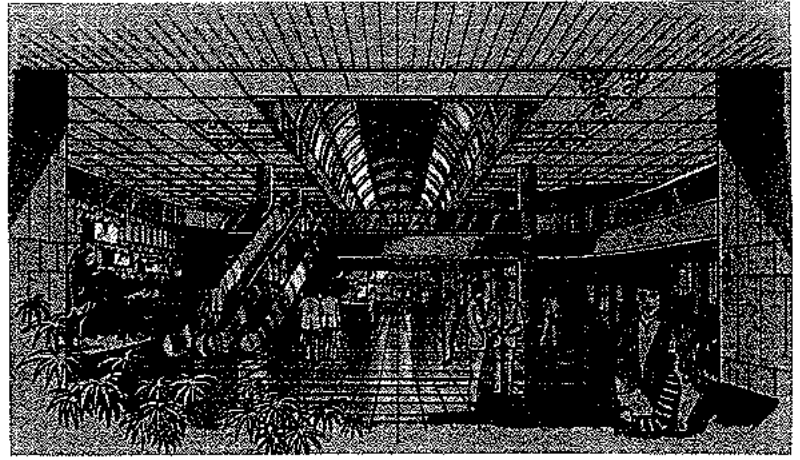
각 건물은 고유한 IDENTITY를 갖추면서도 서로 조화 될수 있는 조형물이어야 하므로 동일한 SCALE과 동질의 조형요소를 구사하여 격조높은 공공건물가를 이룰 수 있도록 시도 하였다.

5. 16광장에 면한 전면도로와 출입 빈도가 높은 후면도로를 지하층과 CONCOURSE LEVEL에서 적극적으로 관통시킴으로써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체계적인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였다. 전시, 회의판매, 업무기능에는 자연 채광을 도입하여 밝고 활기찬 MAJOR SPACE를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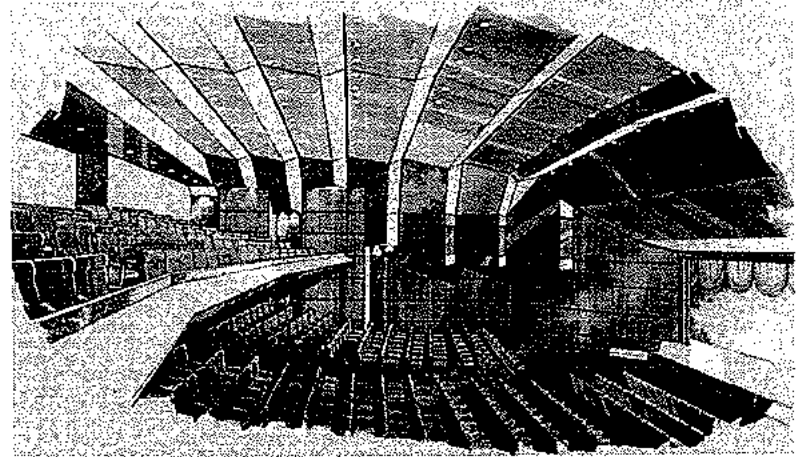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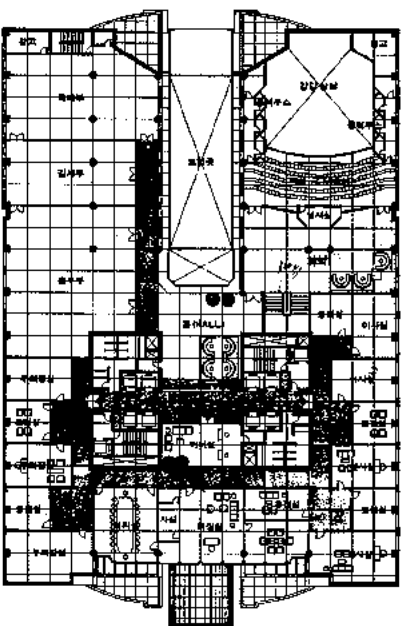
3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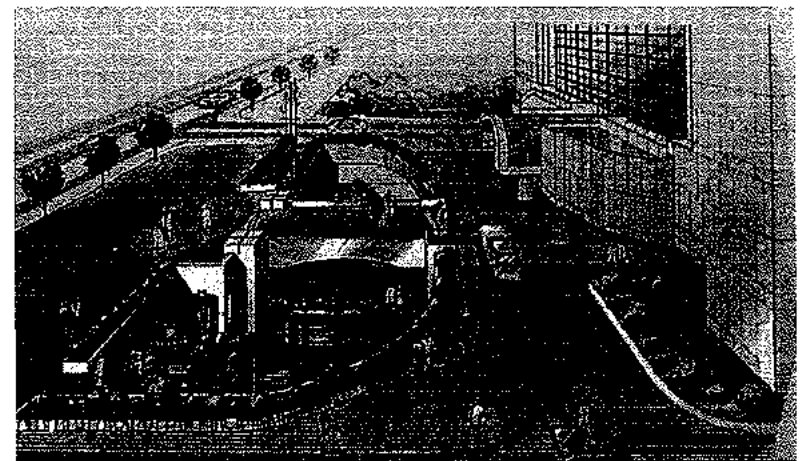
로비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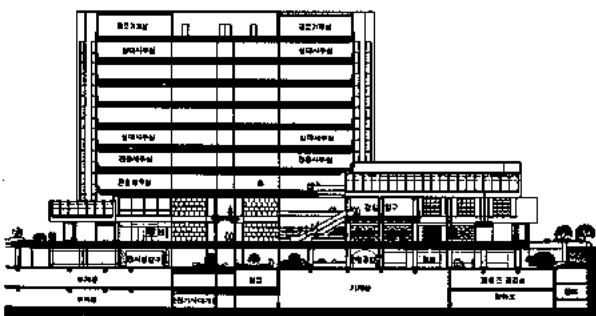
강당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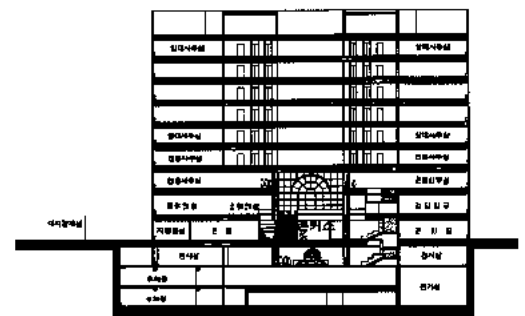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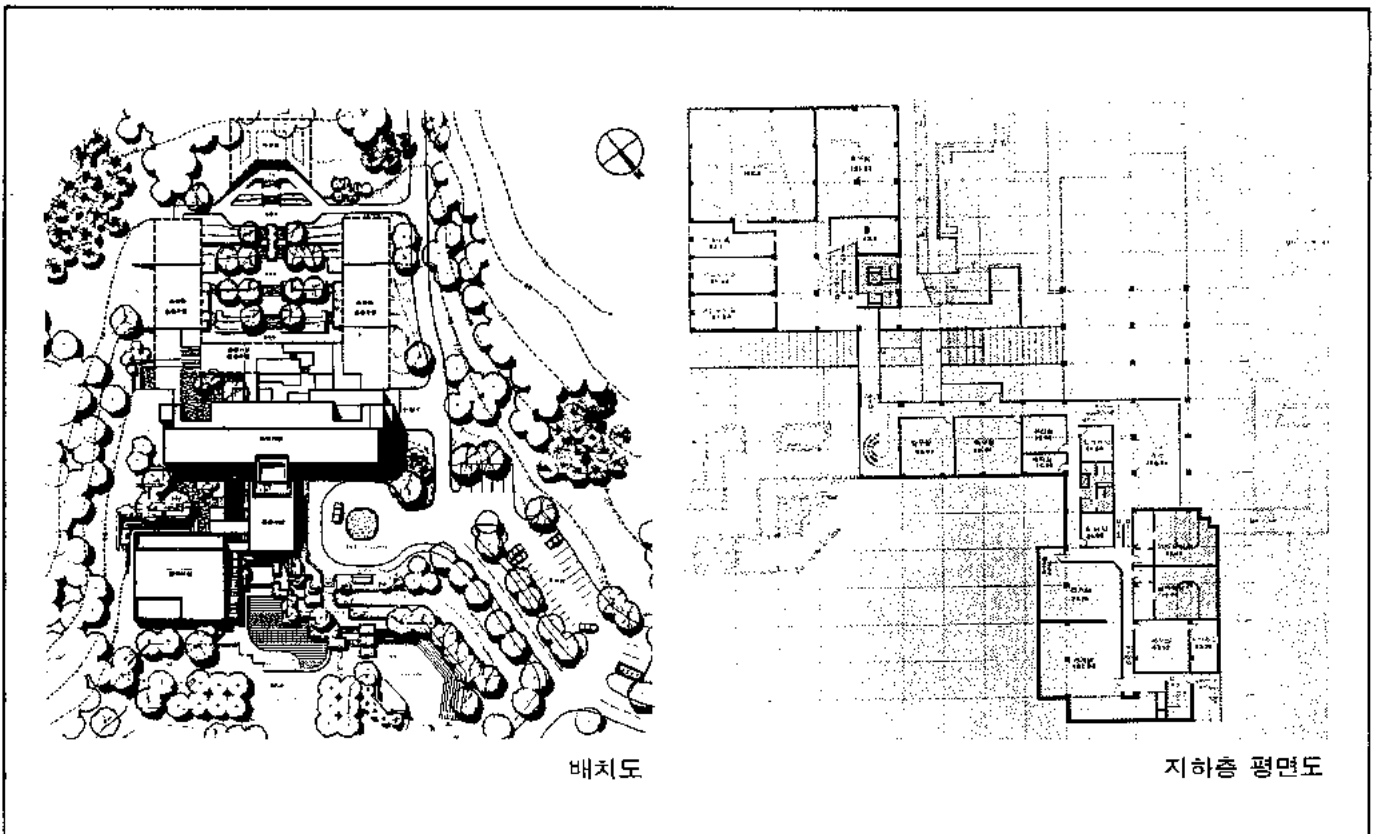
선문가든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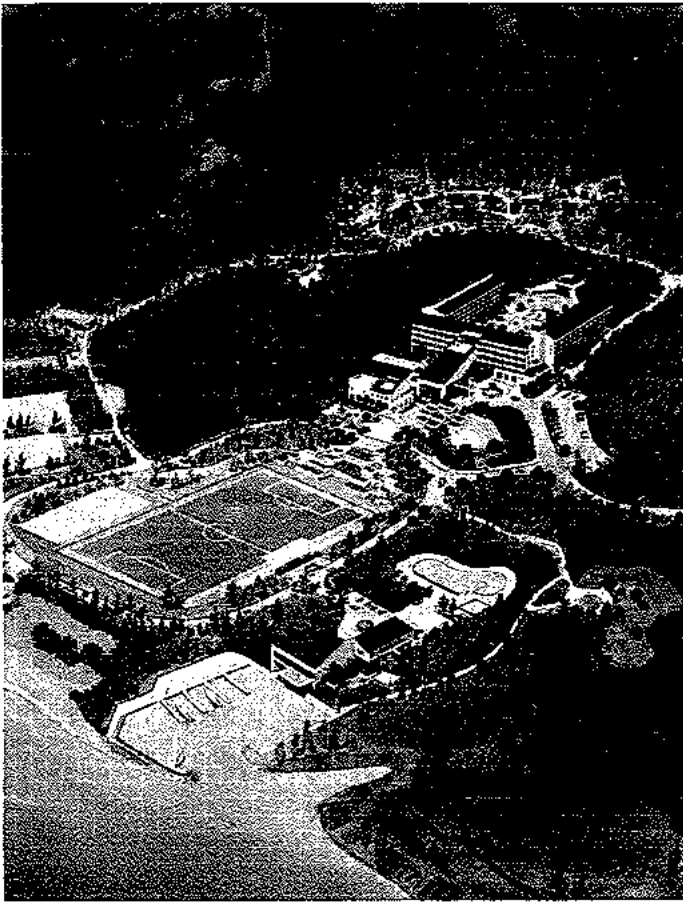


종 단면도



횡 단면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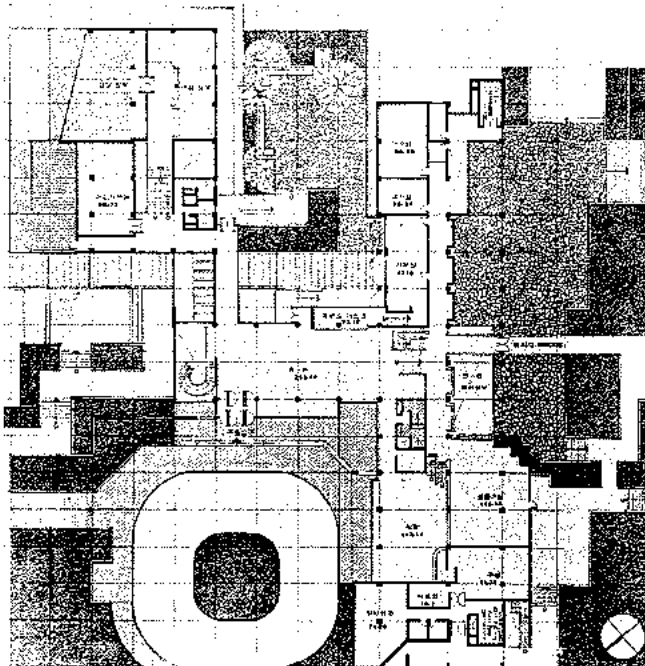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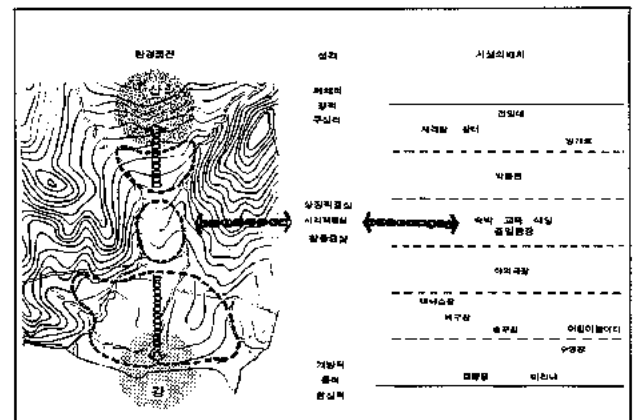
배산 임수의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의 땅에 교육·숙박·운동·위락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시켜야 하는 건축가(특히 조경에 관심이 큰)에게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PROJECT였다.

본 계획의 핵심은 토지이용과 결부된 배치계획에 있음은 물론, 배치계획이 곧 DESIGN의 전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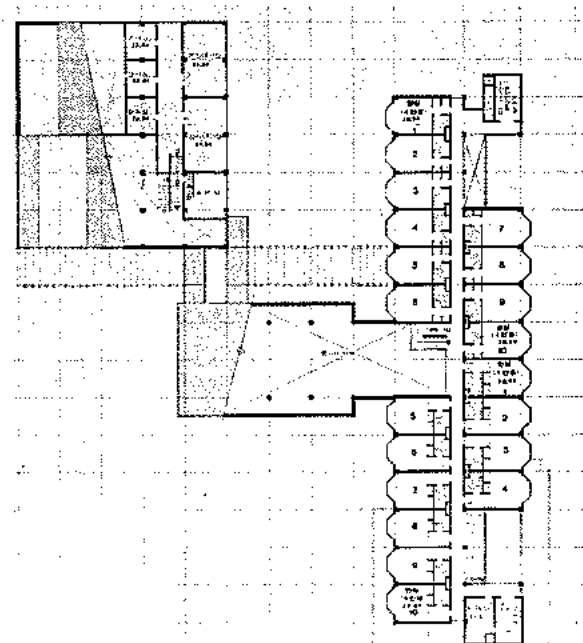
그러나 대지 전체가 북쪽으로 호르는 경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좋은VIEW를 가지고 있어 전망과 일조를 동시에 바람직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으며 이의 해결이 곧 전체 DESIGN의 KEY라 생각되었다.

인접한 남한강은 갈수기 때와 만수기 때의 수위차가 무려7M ~ 8M 정도나 되어 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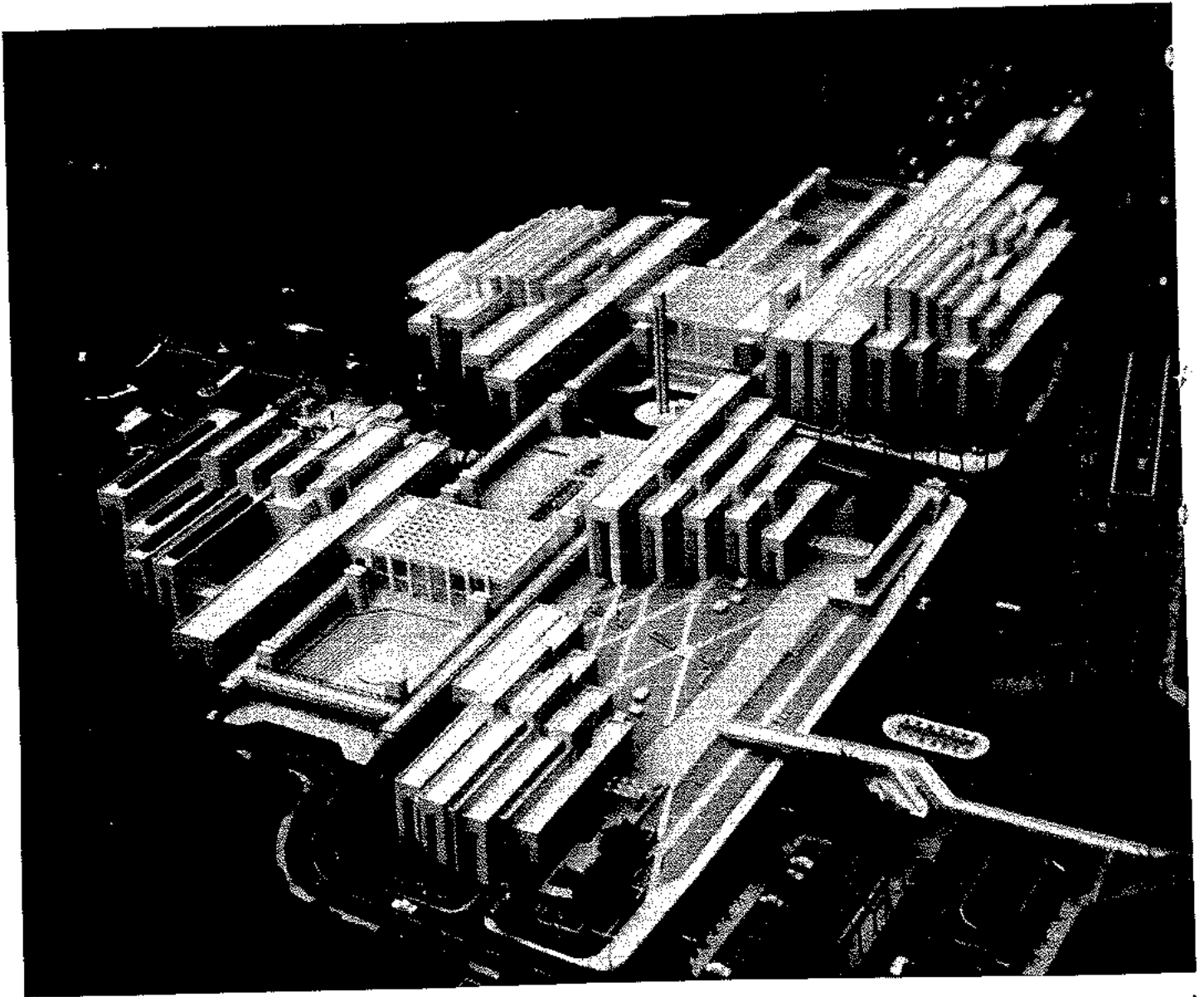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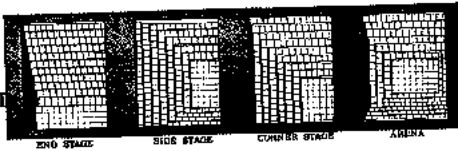
1층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STAGE & SEATS
THEATER 3 in
FESTIVAL HALL
ALL TYPES OF STAGE & SEATS
ARE ADJUSTABLE
MULTI-LEVELLED
FLOOR UNITS OPERATED
BY HYDRAULIC SYSTEM



CHILDREN'S
THEATER

END STAGE & CENTER STAGE
CONVERTIBLE



ACOUSTIC CEILING, STAGE & SEATS

CONCERT
HALL

ARENA STAGE &
END STAGE
CONVERTIBLE



ACOUSTIC CEILING & SEATS

THEATER 1 in
FESTIVAL HALL

DOUBLE BALCONIES &
SINGLE BALCONY



STAGE OPENING

THEATER 2 in
FESTIV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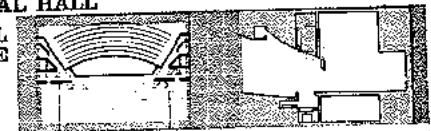
VARIABLE OPENING BY WIDTH &
DISTANCE FROM SEATS
CONVERTIBLE



PROSCENIUM, PORTAL, ORCHESTRA PIT & FLY TOWER
THEATER 1 in FESTIV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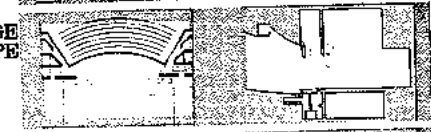
NORMAL
TYPE

END PROSCENIUM & MAIN STAGE -
ORCH. PIT & MAIN FLY TOWER
OPERA - BALLET AVAILABLE



EXPANDED STAGE
TYPE

END PROSCENIUM & MAIN STAGE -
ORCH. PIT & MAIN FLY TOWER -
FORE - FLY TOWER
PLAY - CEREMONY AVAILABLE



ADDITIONAL SEATS
TYPE

END PROSCENIUM & MAIN STAGE -
SEATS WAGON & MAIN FLY TOWER
PLAY CEREMONY AVAILABLE



EXHIBITION HALL (CEILING H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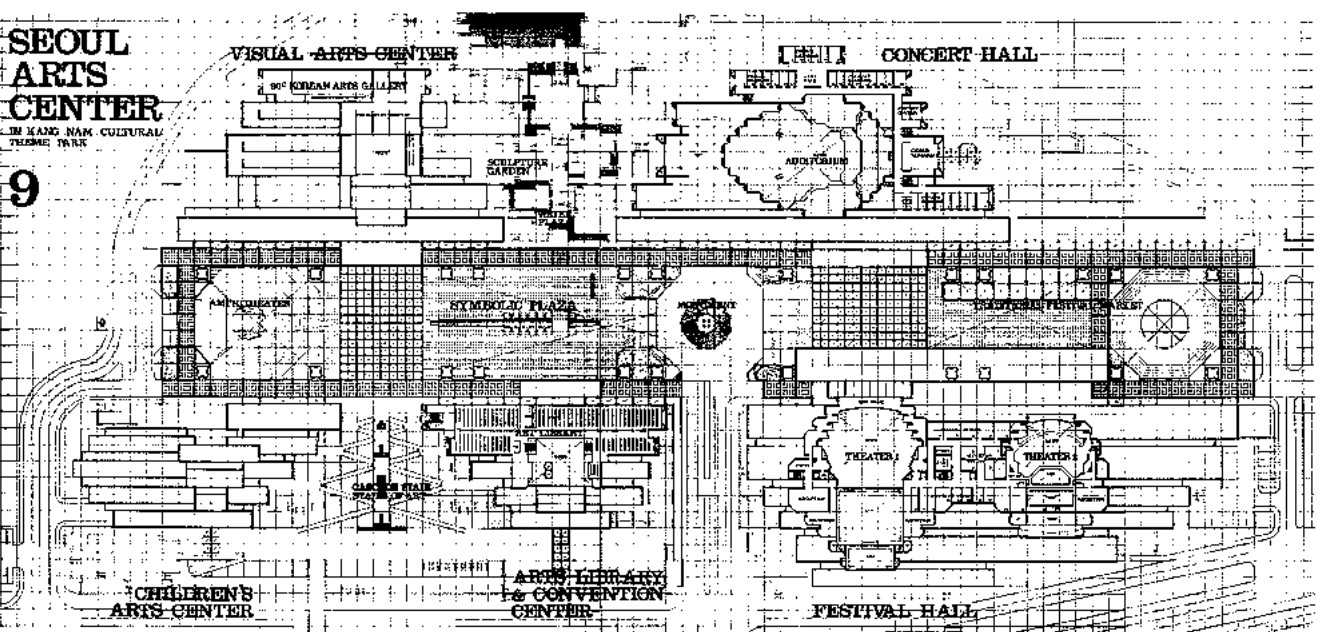
TEMPORARY EXHIBITION HALL in VISUAL
ARTS CENTER : THE CEILING
HEIGHT VARIED BY MOVABLE FLOOR



SEOUL ARTS CENTER

IN KANG NAM CULTURAL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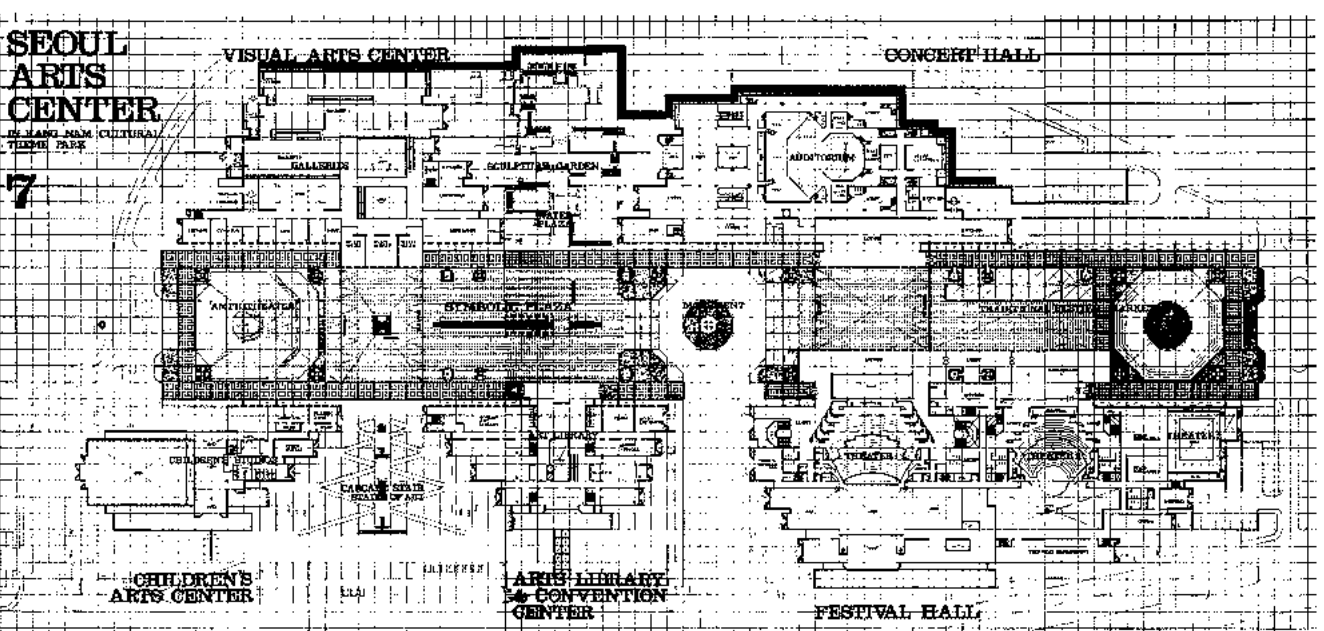
9



SEOUL ARTS CENTER

IN KANG NAM CULTURAL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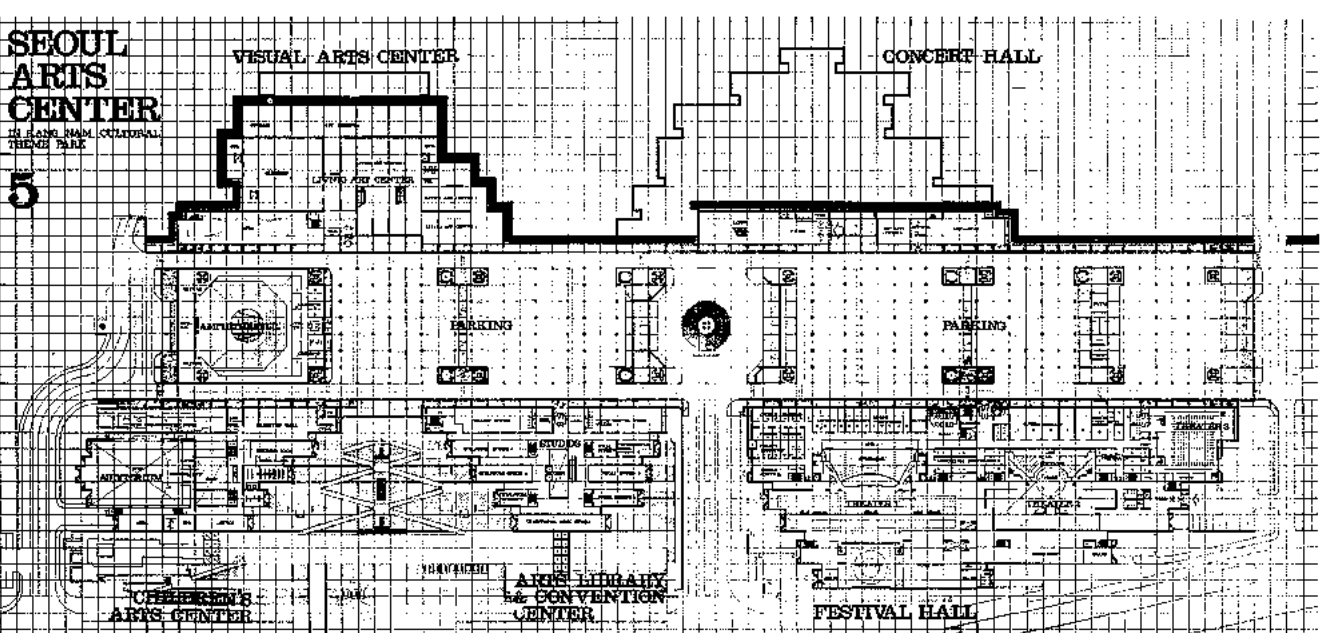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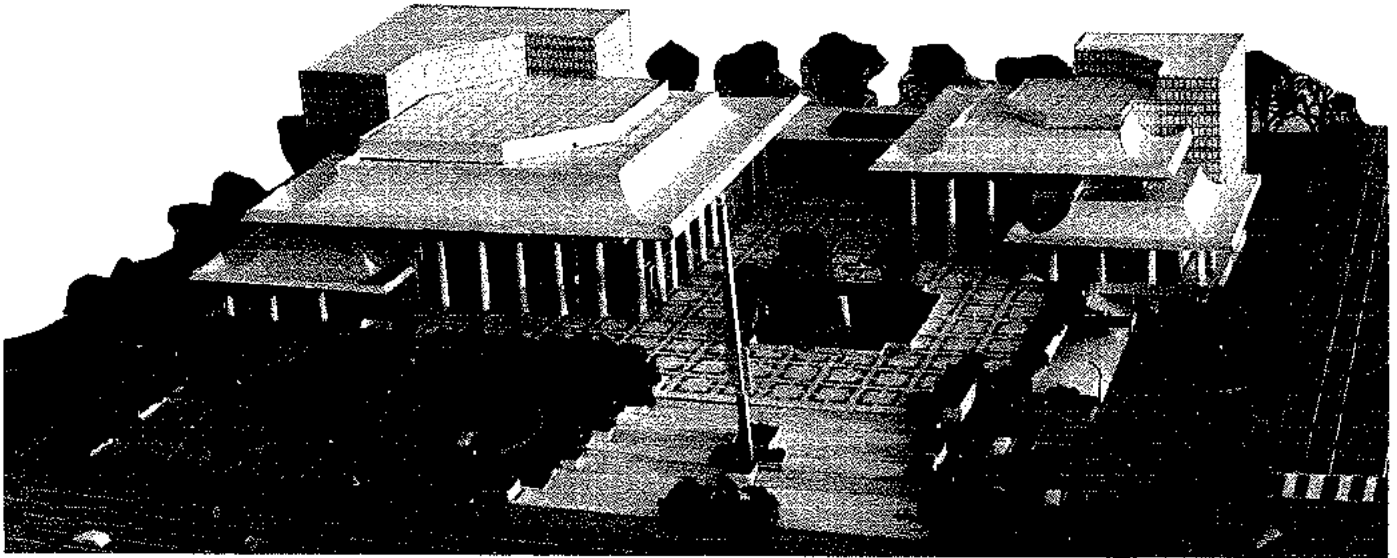


SEOUL ARTS CENTER

IN KANG NAM CULTURAL TOW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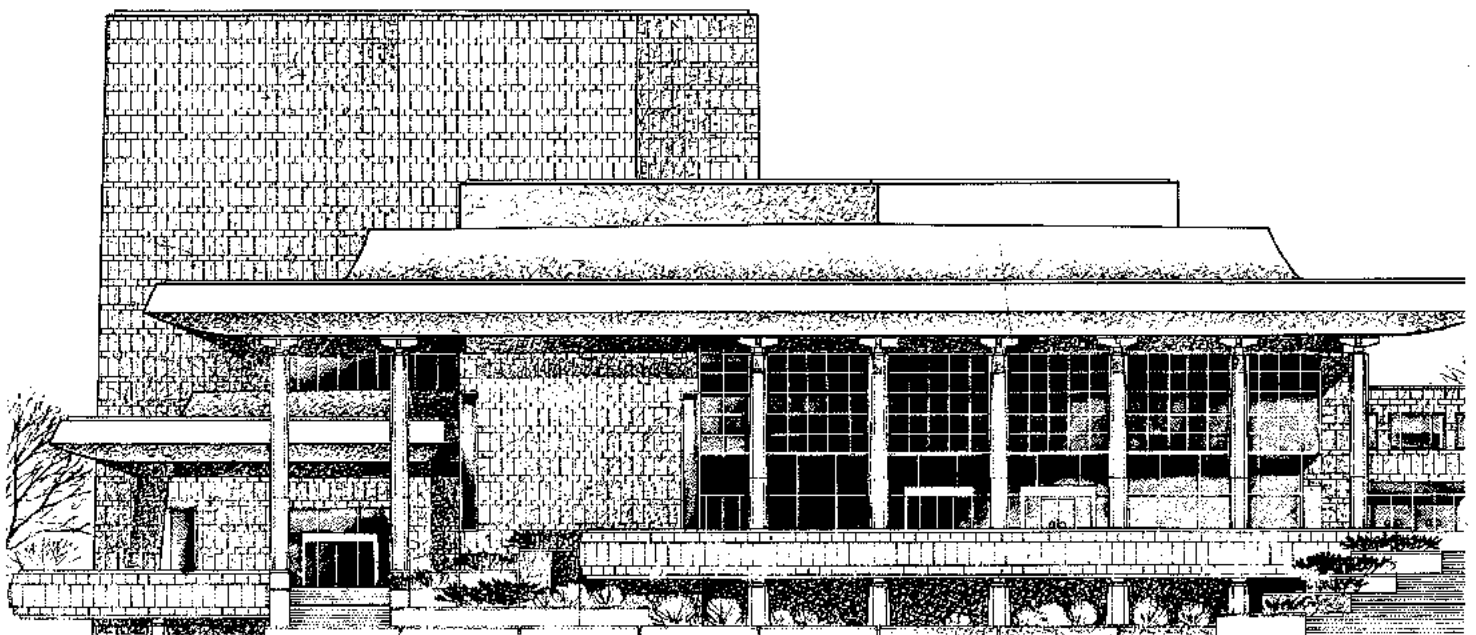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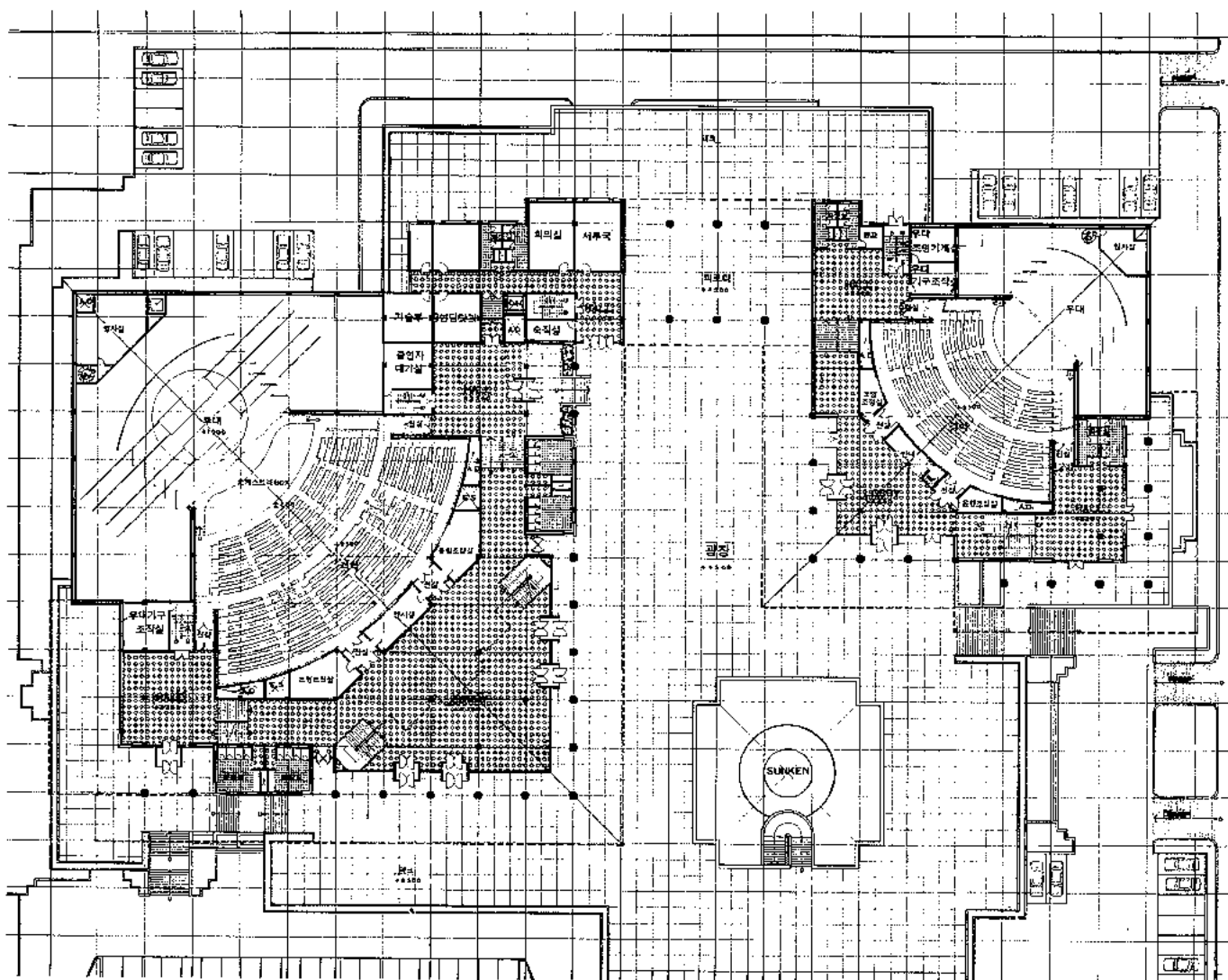
작품 한두번 응모하다 보니 그 부산물로써 되돌아온 판넬들이 제법 가득하게 되었다. 작품의 내용은 고사하고 낙선이란 명예로운 낙인때문에 선듯 벽에 걸어두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음은 비단 나만이 갖는 감정은 아닐까다. 밤을 지새운 정성이 아쉬워 버릴수도 없고 하여 창고의 한구석에 쌓이고 쌓일수 밖에.

時間이 흐르고 알팍한 나의 뇌리에서 까마득이 잊혀 버렸을때 쯤 그 처치 곤란한 천덕꾸러기들은 뽀얀 먼지속에 퇴색되어 버린채 꿈틀거리며 나타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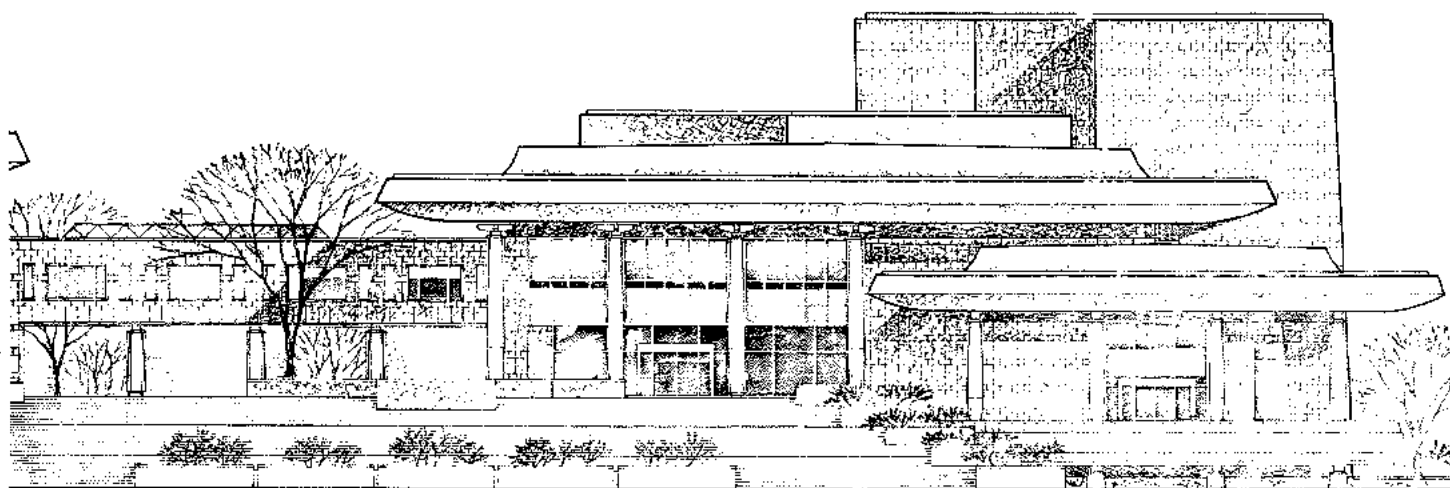
그렇다.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남은 나의 마지막 일을 말끔히 먼지를 쓸어내고 액자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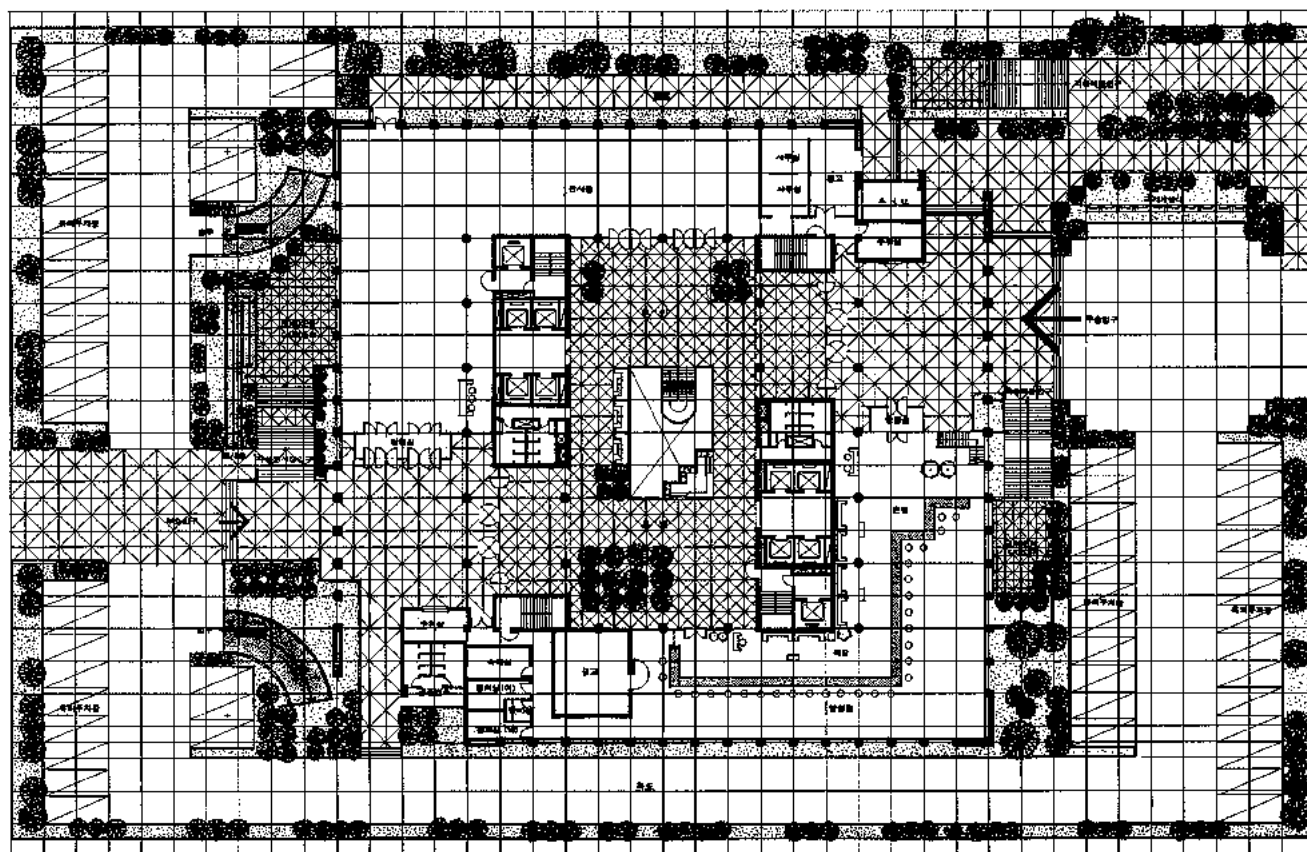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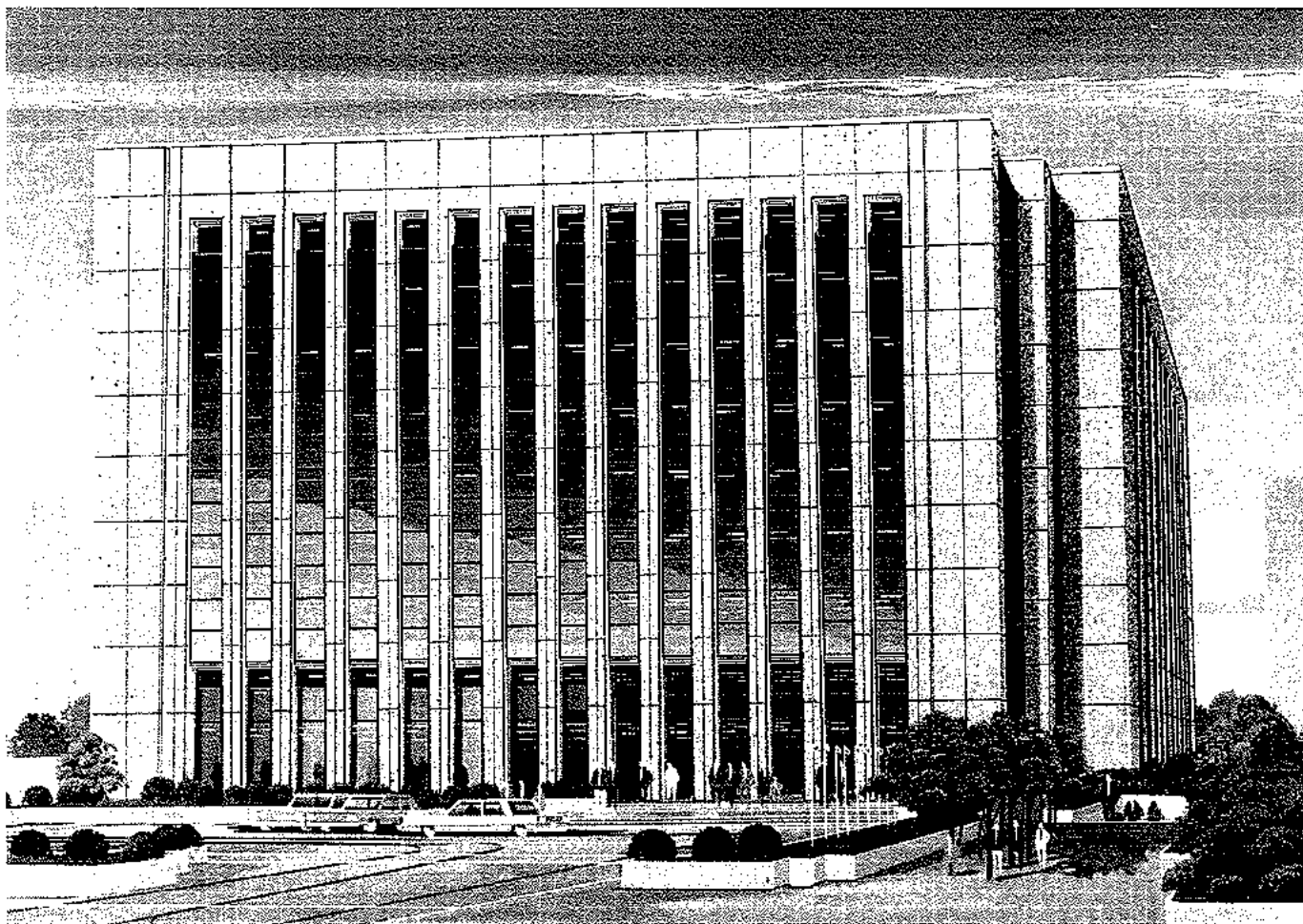
그루지 만만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아 보려으나, 그밝은 태양을 말이다.





평면도





토지이용

- 건폐율의 여유 확보 - 장차수평증축가능 장기적경제성부여
- 조경녹지공간 최대 확보 - 도시녹지휴식 공간 제공

배치계획

- 인접대지 기존건축물과의 건축선 조화
- 도시축에 부합
- 전, 후 접근동선의 성격구분
- 차량, 보행자동선의 자연스런 구분
- 옥외주차공간의 편중집약 - 보행자동선의 교란을 없앴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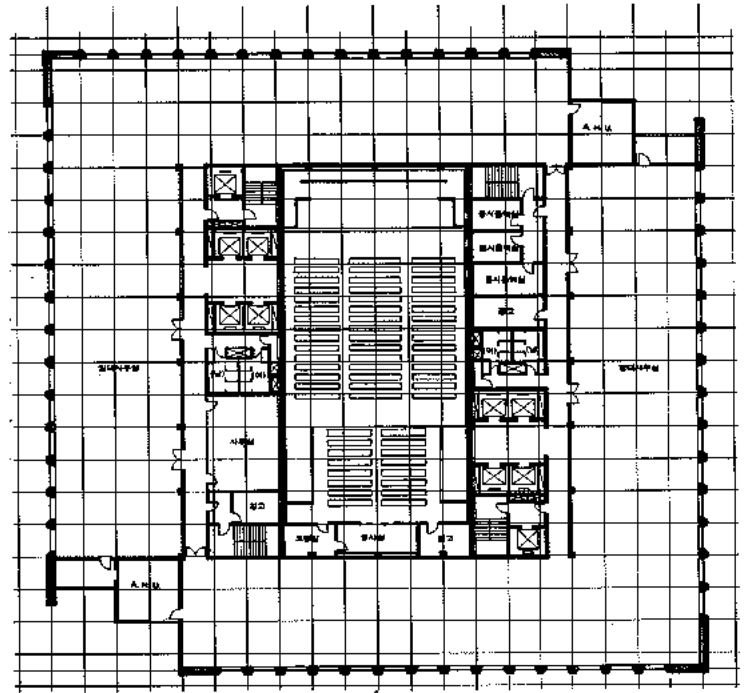
- 전용사무공간의 입대공간의 수직, 수평 분할가능 - 융통성부여
- 전시장, 점포 등의 옥외로부터 직접 접근 가능
- 집회실, 식당 등의 대중집중, 일시사용 PUBLIC SPACE의 중앙부 중층, 집약 배치 - 무주대공간 확보, 중정, 공간적극 도입
- 사무실 공간의 합리적경간 (12~10.5m) 채택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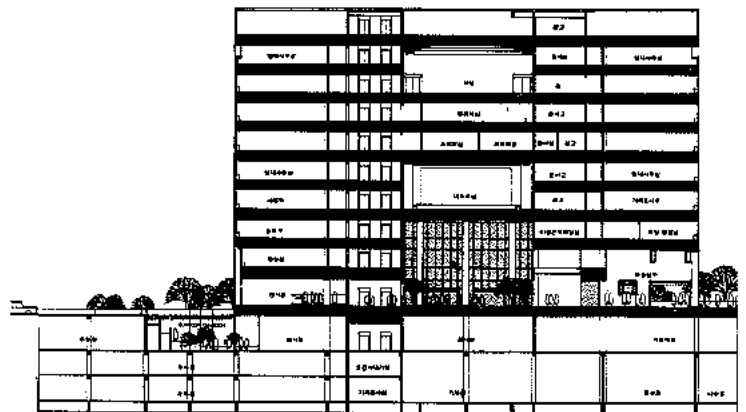
- 단순명쾌한 기능에 부합된 조형
- 경제성을 감안한 솔직한 표현 - 불필요한 요소배제
- 4면방향의 통일성 부여
- 세련된 DETAIL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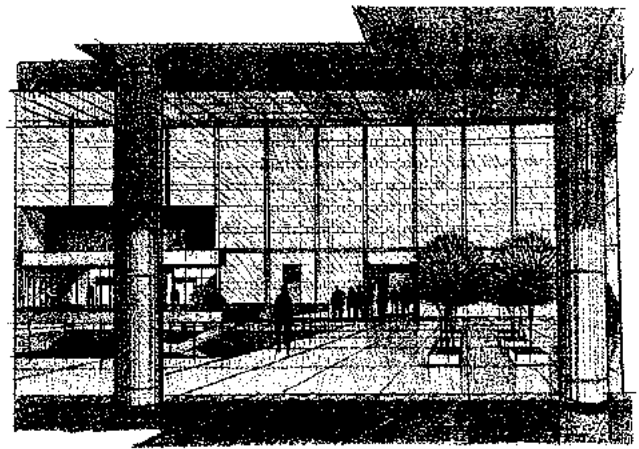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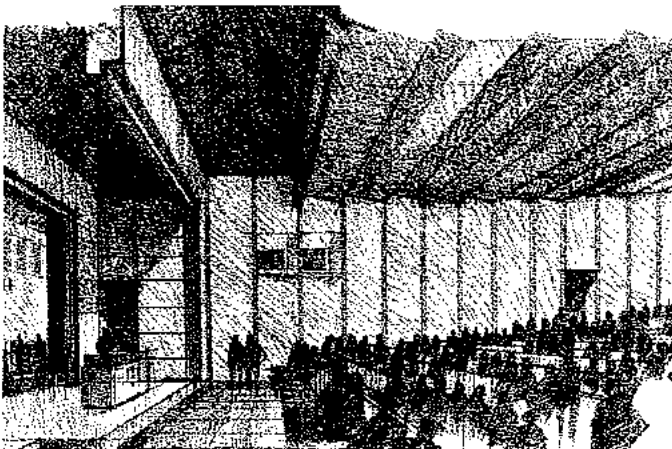
- 콘크리트 라멘조로서의 합리적층고 설정 (기준층 3.8m)
- 무주대공간 (로-비, 집회실, 식당)을 양측 CORE사이에 배치층고의 융통성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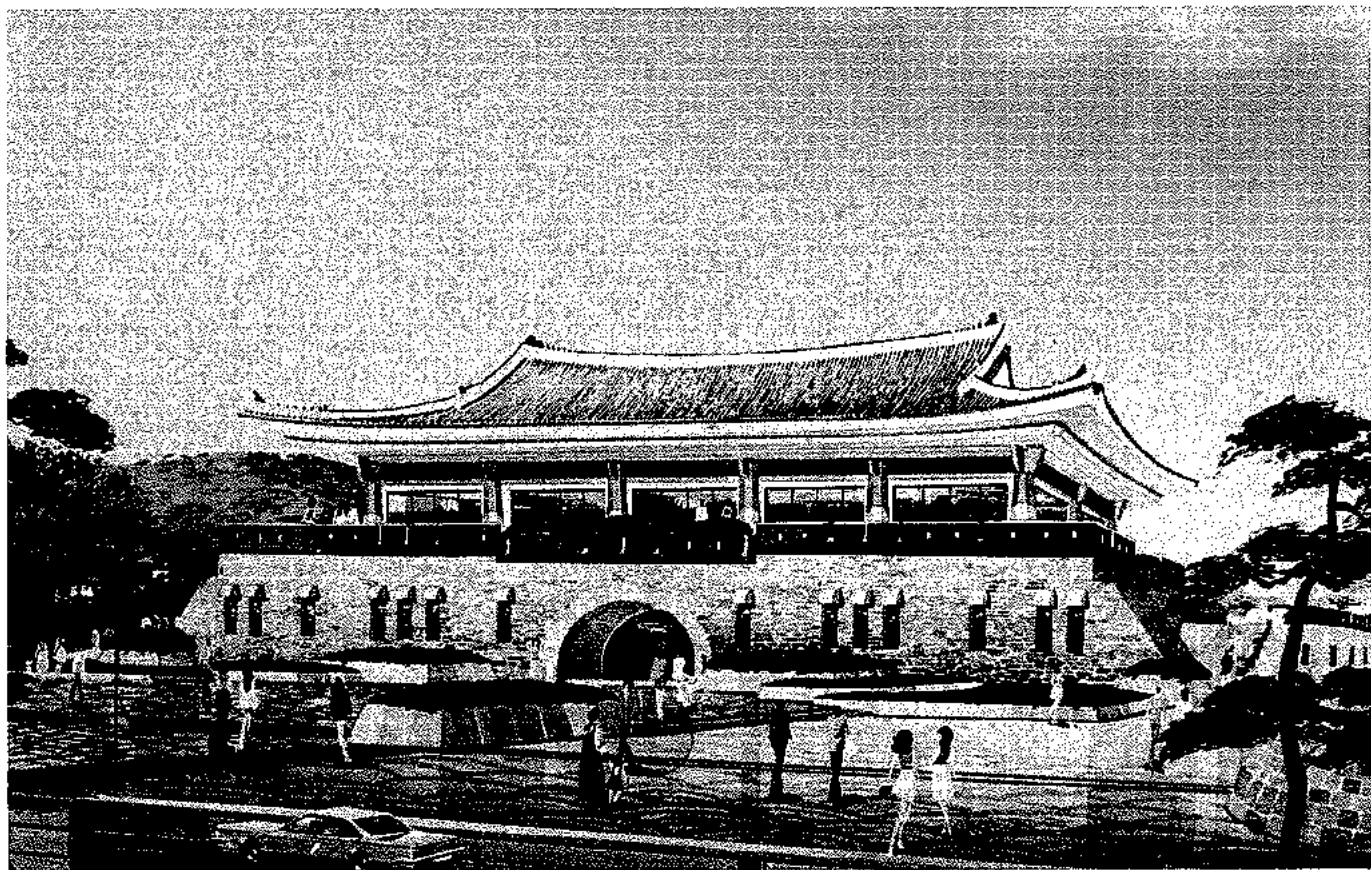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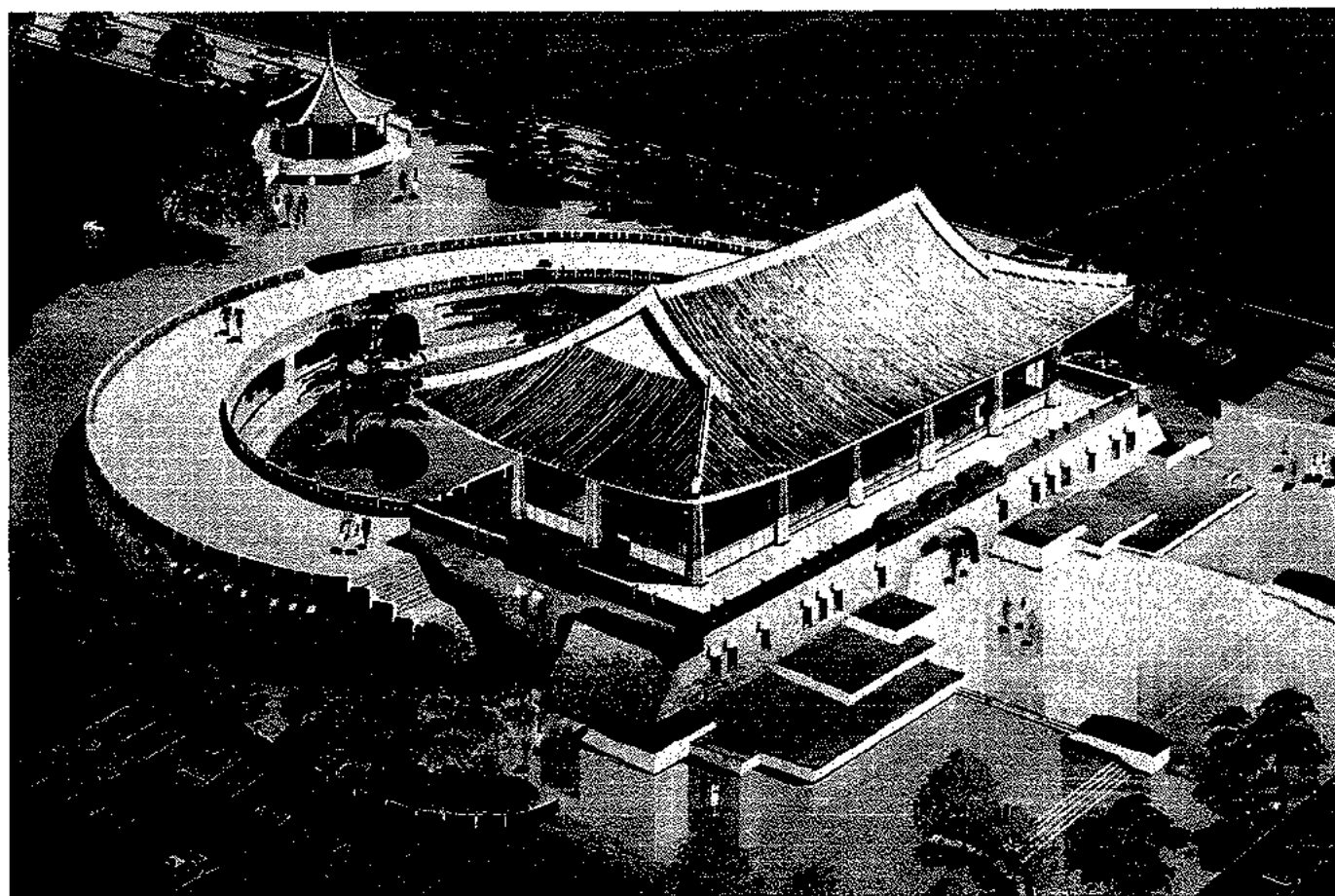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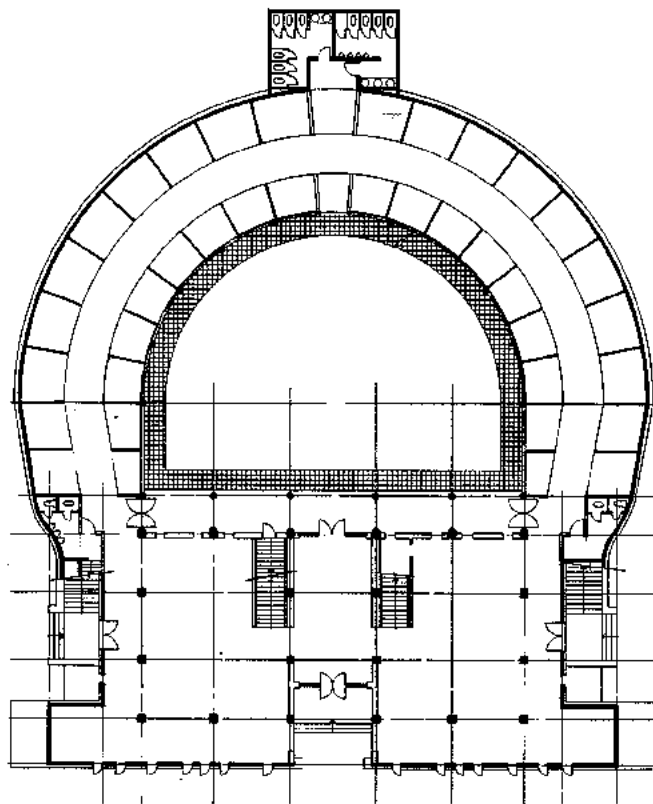




투시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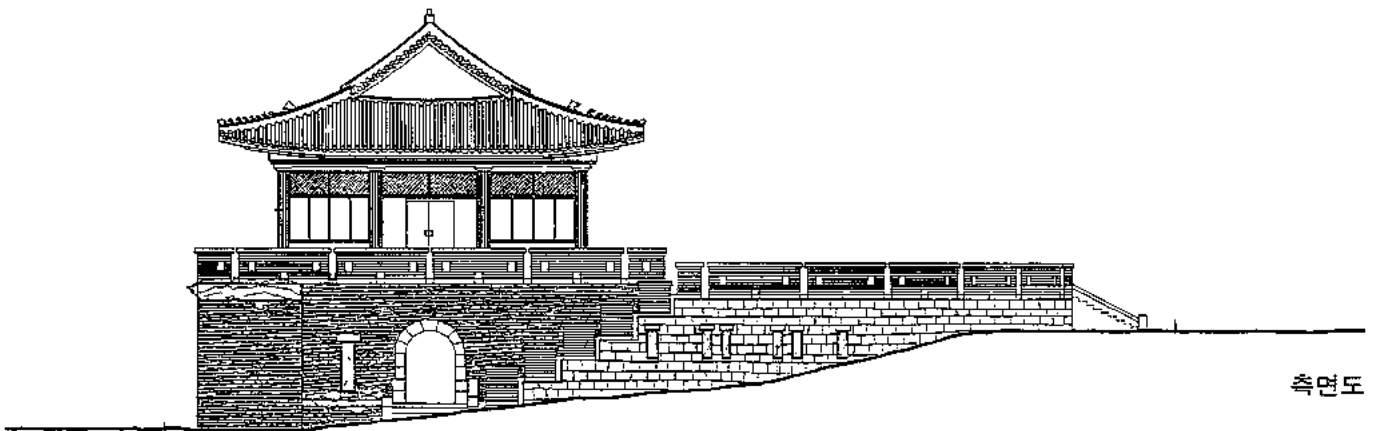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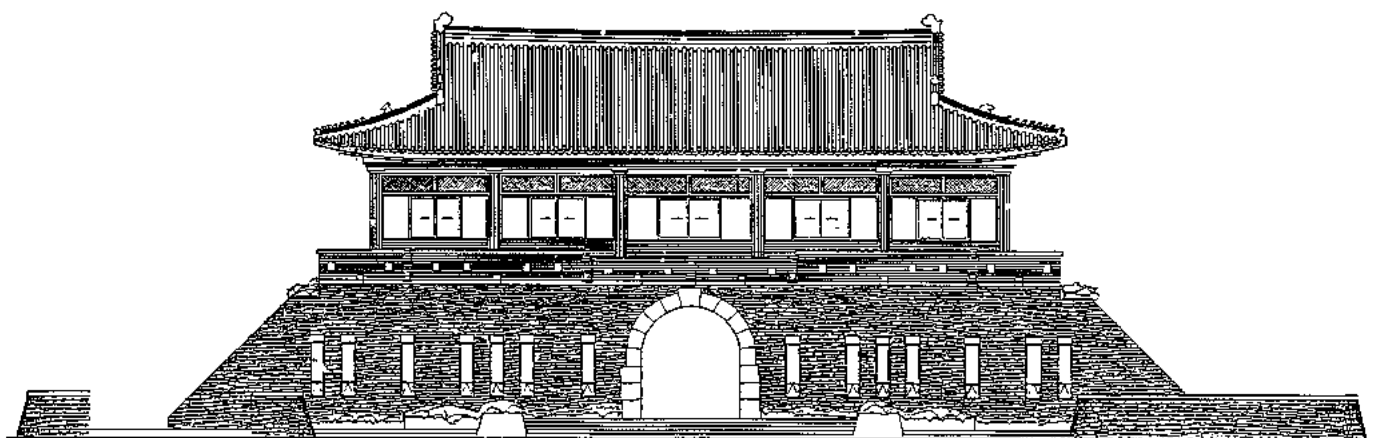
〈설계소요〉

한국의 전통 형식의 성곽 및 돈대 형식을 변형 분산하여 배치를 하였으며 강화도의 문화유적을 유기적으로 변형 조합하여 매장의 특성 및 사용 용도로서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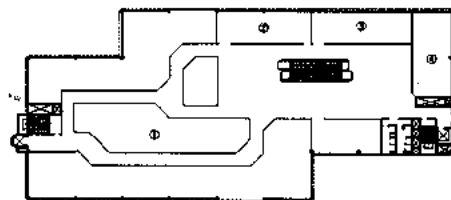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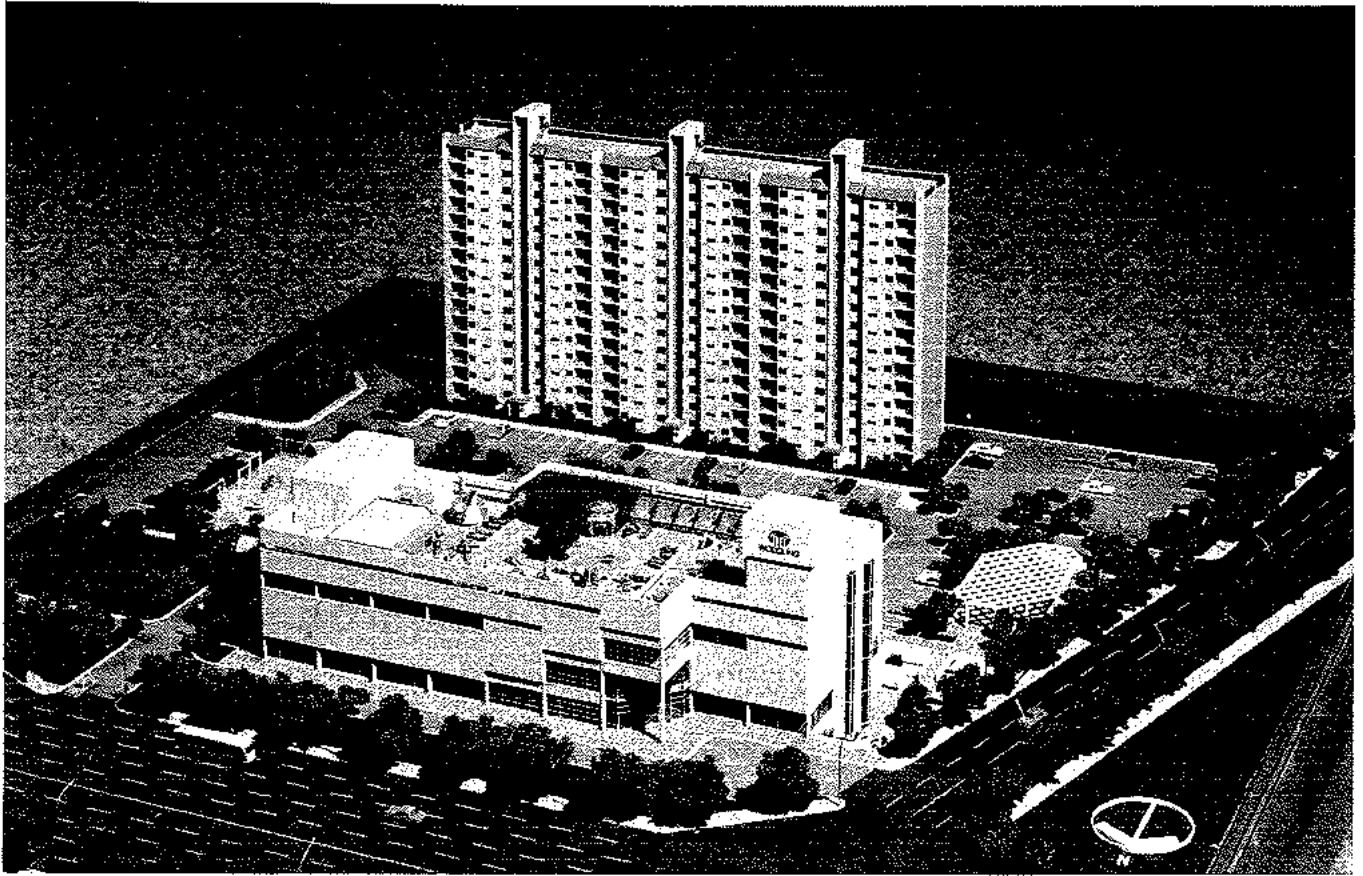
또한 돈대형식의 옥상 및 건물의 뒷부분에는 강화도 유일의 5일장터 공간을 마련하여 계속 보전 발전시키며 군민의 화합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주어 강화도의 현대 유적지를 탄생 시킨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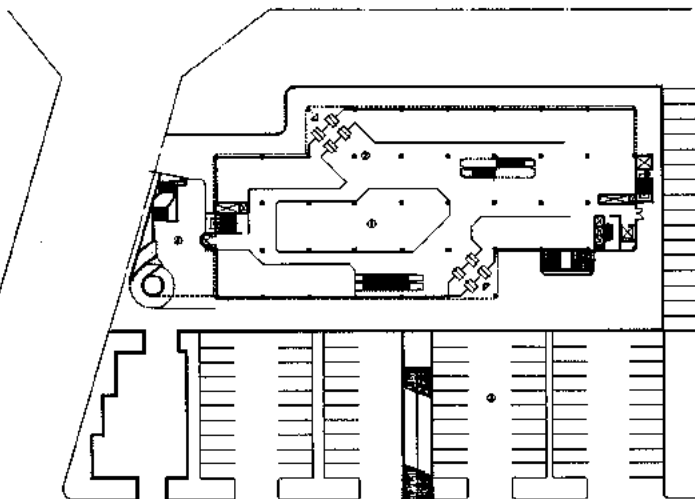
측면도



정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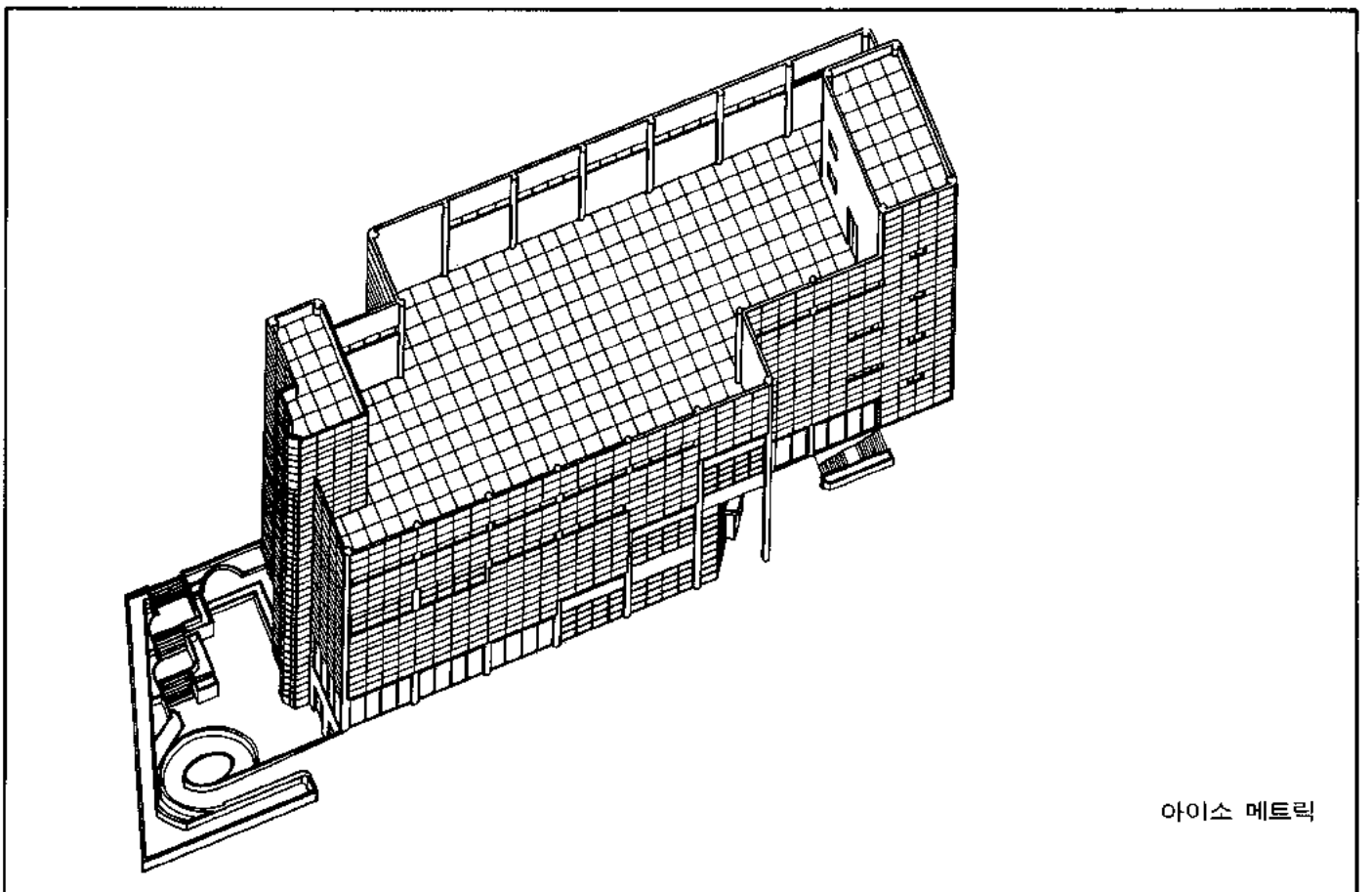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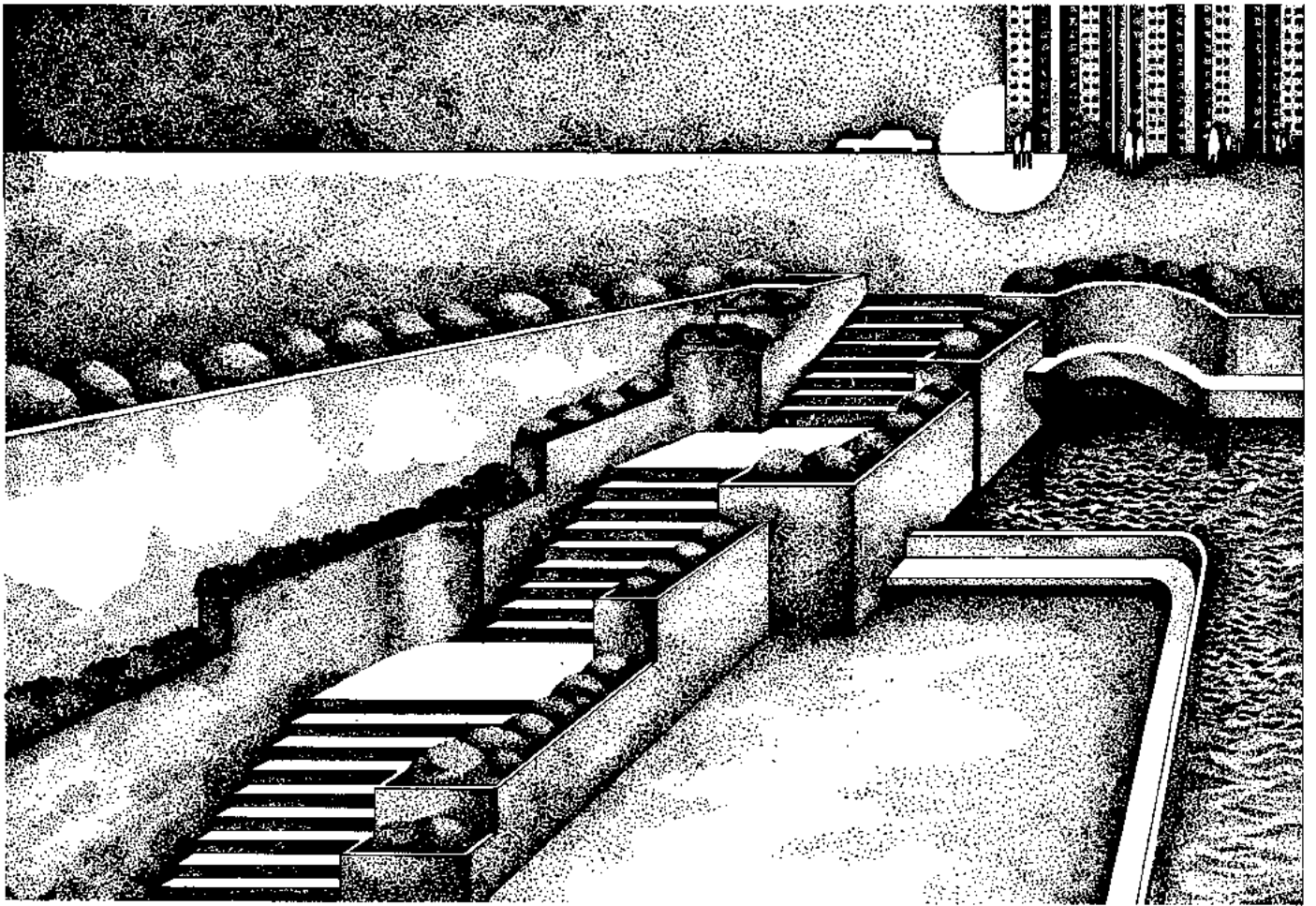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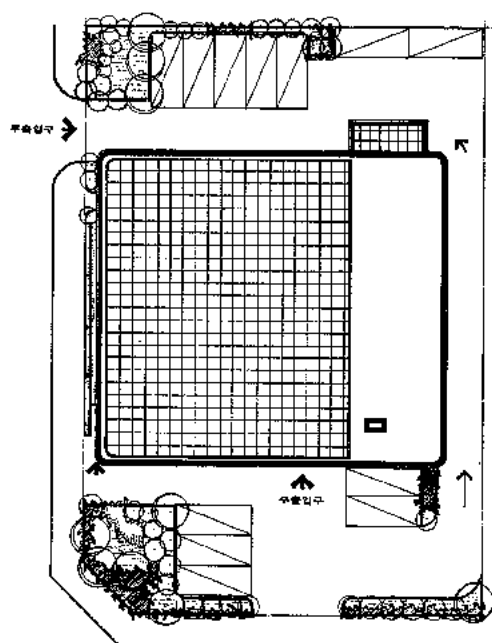
〈설계소요〉

쇼핑의 즐거움은 단순히 구매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이 연장될 수 있는 공간의 연결 또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릉가든은 쇼핑센터의 심볼로서 뿐만 아니라 객의 매장으로의 흐름을 유도시키며 휴식처로서 램프, 단상의 '단'연못등의 어메니티 요소의 제공은 딱딱한 거리와 쇼핑에 즐거움의 이질적 요소를 무마시키는 중간영역의 공간으로, 그 흐름은 지하의 상가로 되고, 다시 그라운드레벨에서, 출입구에 2층까지의 선릉의 건축외부공간의 건축화공간으로서 객의 구매욕과 더불어 상가내로의 흐름을 리드미컬하게 해준다. 건축내 공간으로의 길의 유입이라는 건축내외부 공간의 연결적 요소로서, 피로티, 선릉의 레벨차를 도입하였다.

입면은 엄격한 그라드로서 그로 인해 과생될지도 모르는 딱딱함을 입면상의 약간의 요철과 변화로 해결하였고 보다 휴머니타한 프로모션은 내장재의 타일의 비늘과 건물전체비늘과의 비례를 맞추어 거의 골든섹션의 비례로, 아담하게 느껴지게 하였다.



아이스 메트릭



배치도

*설계개요

대 지 위 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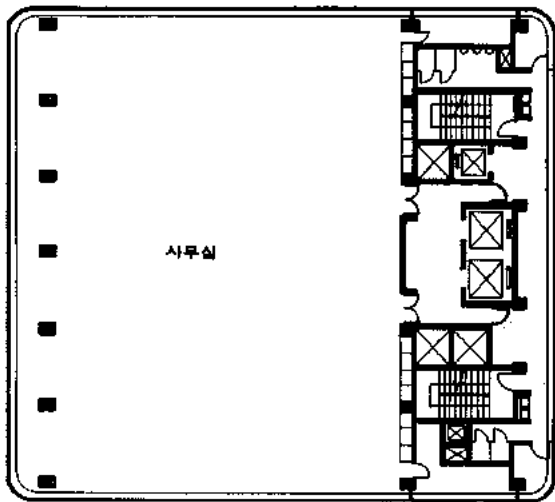
대 지 면 적 : 1486.7m²

건 축 면 적 : 69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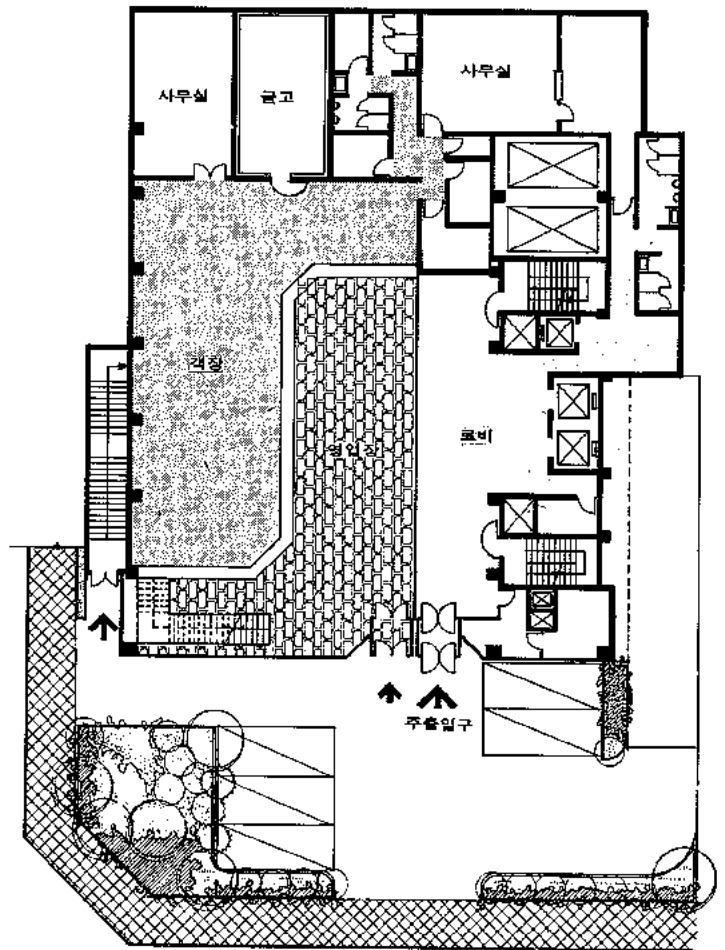
연 면 적 : 9,735m²

구 조 :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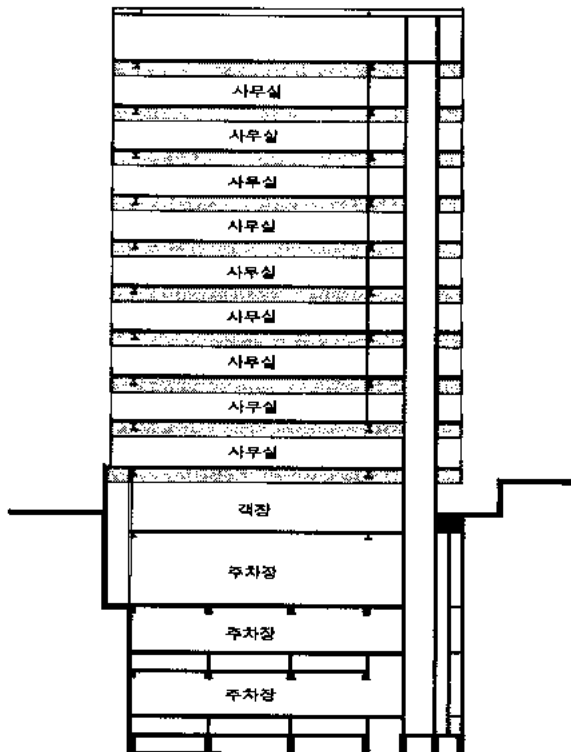
외부마감재 : 자연발색 알미늄에 열선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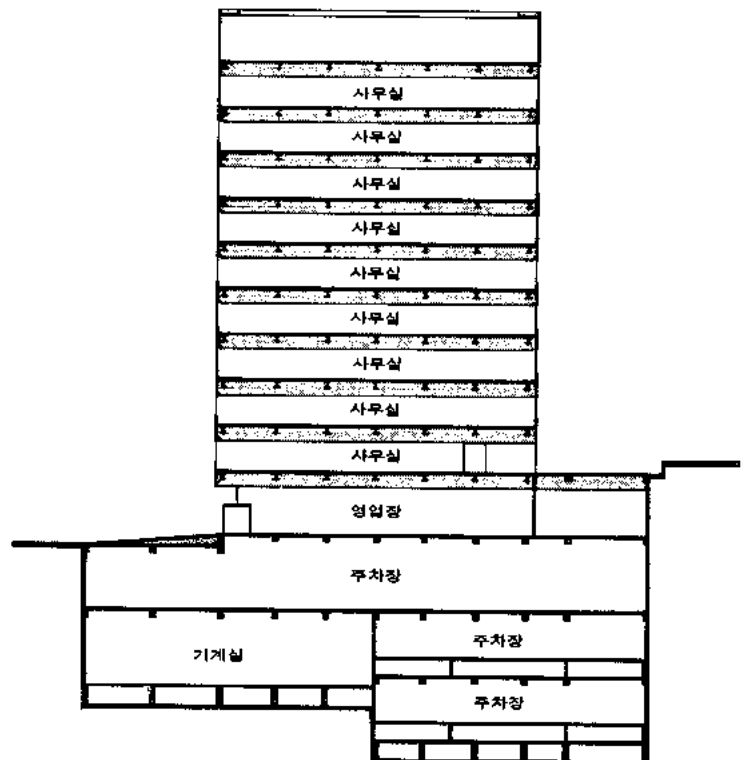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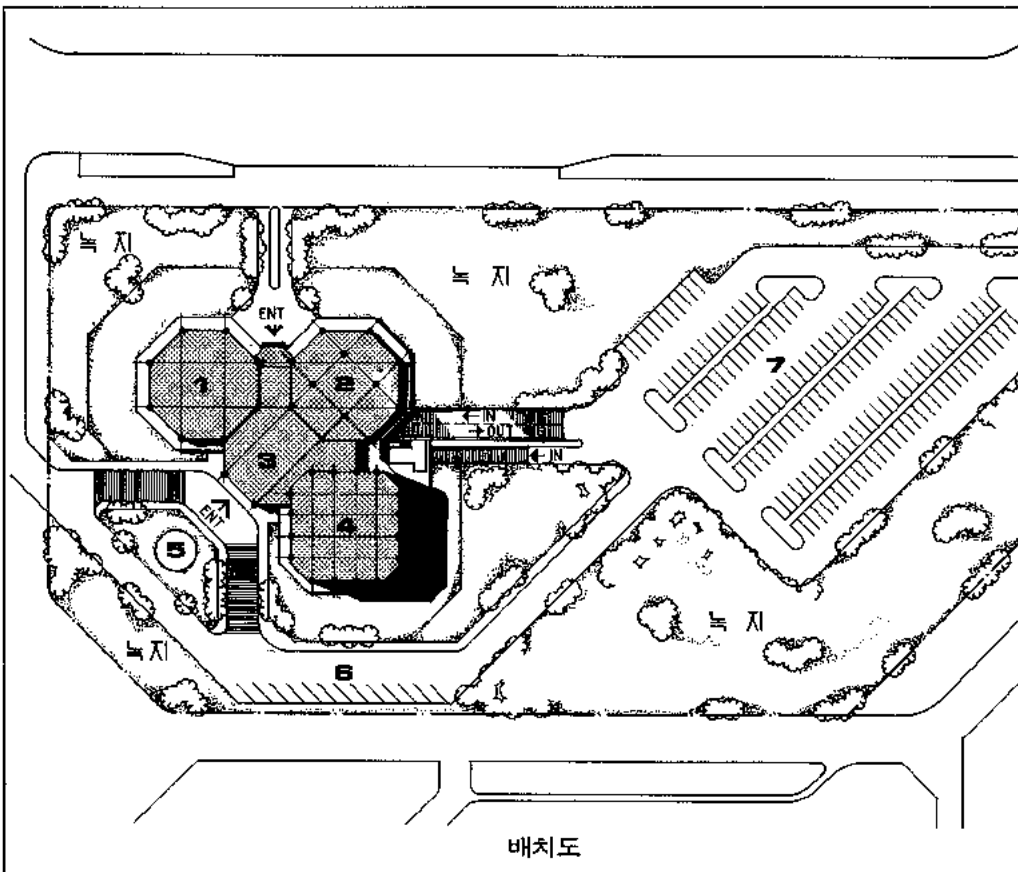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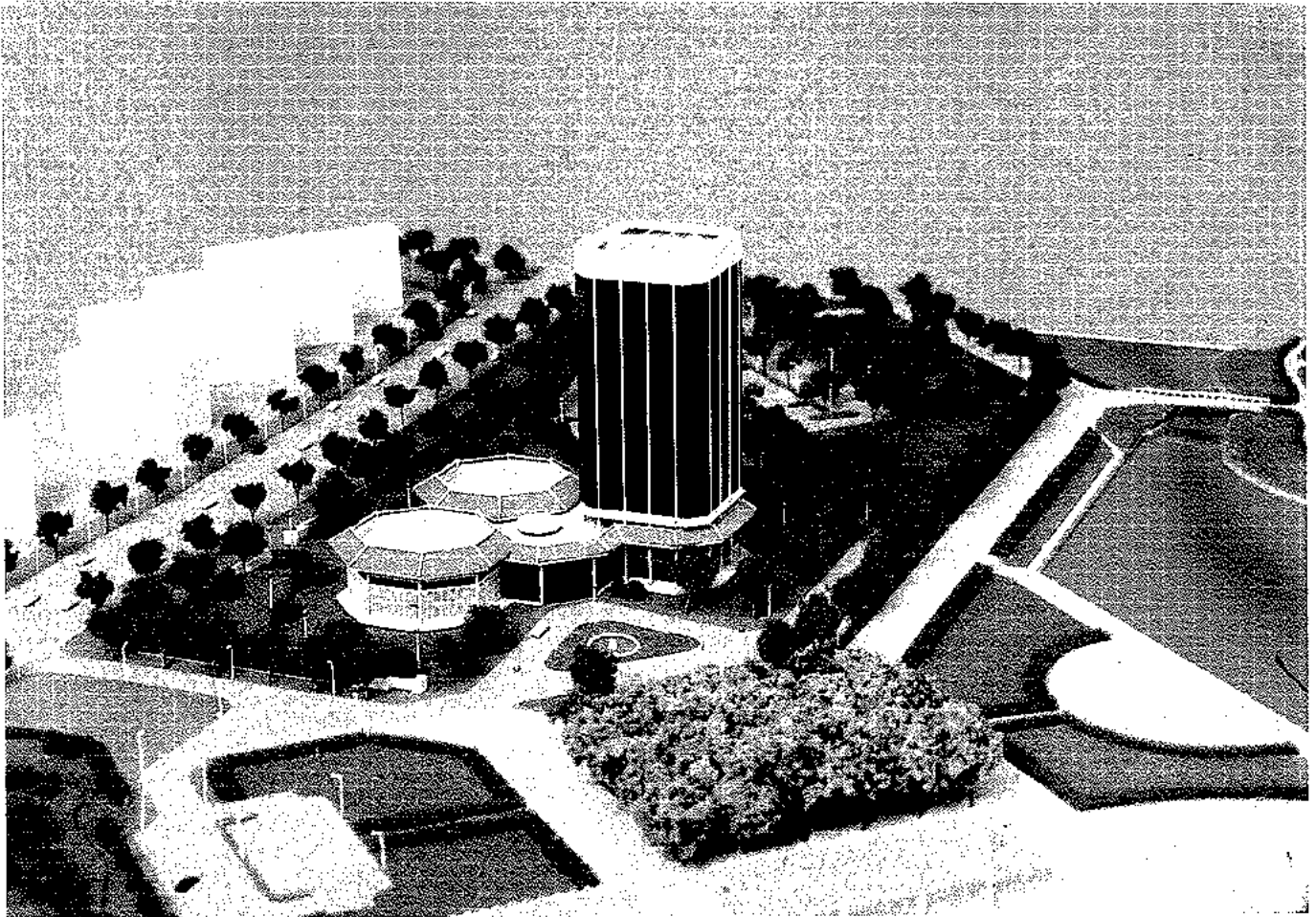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종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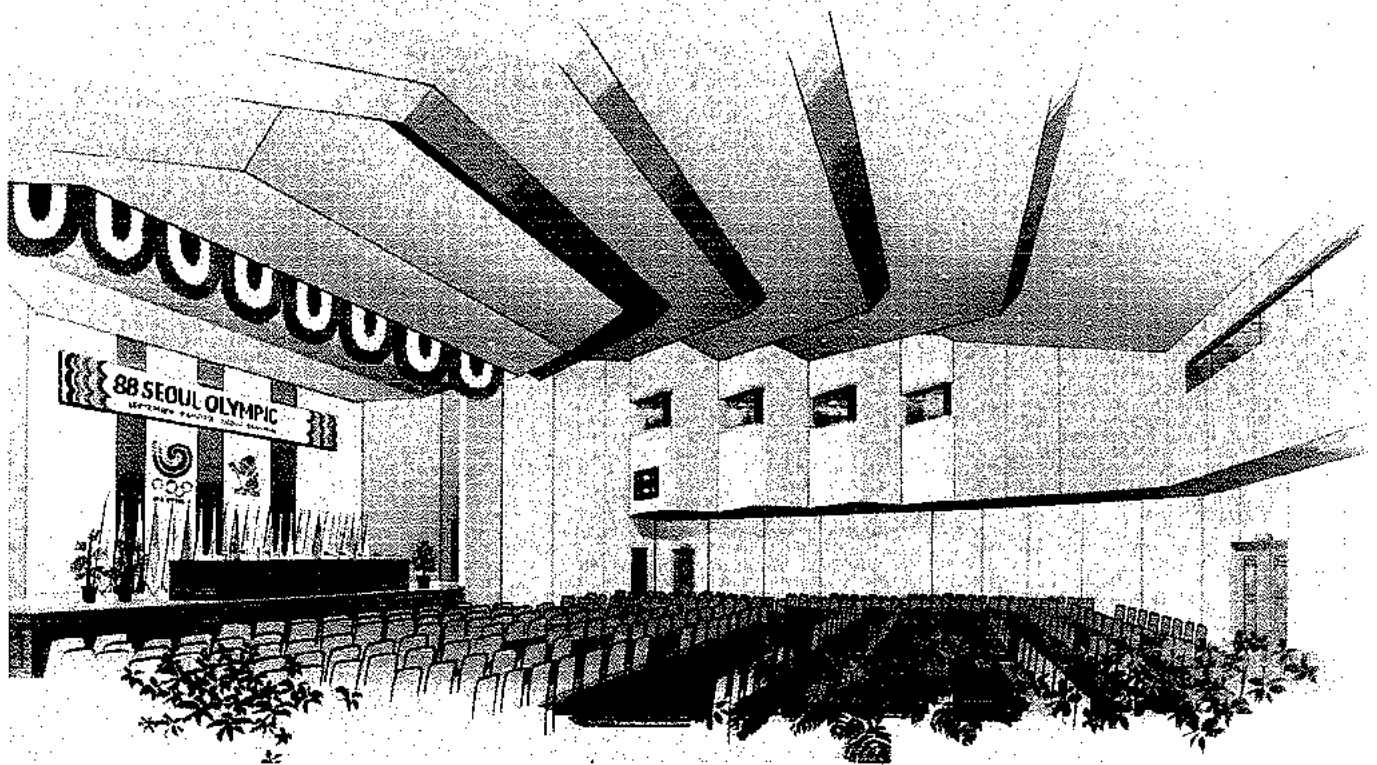
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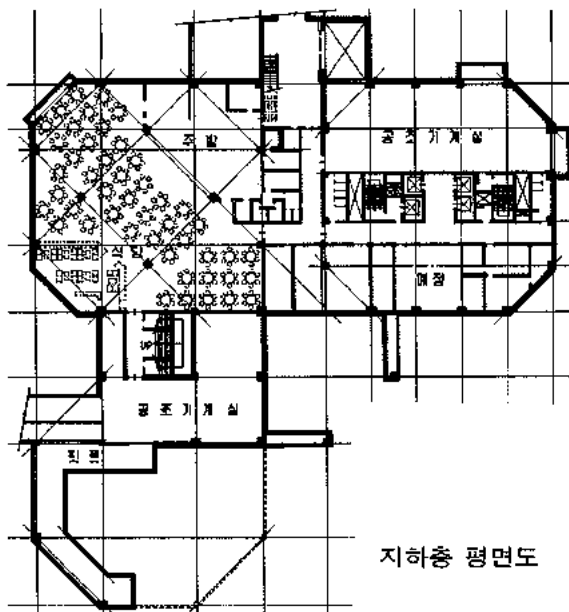
배치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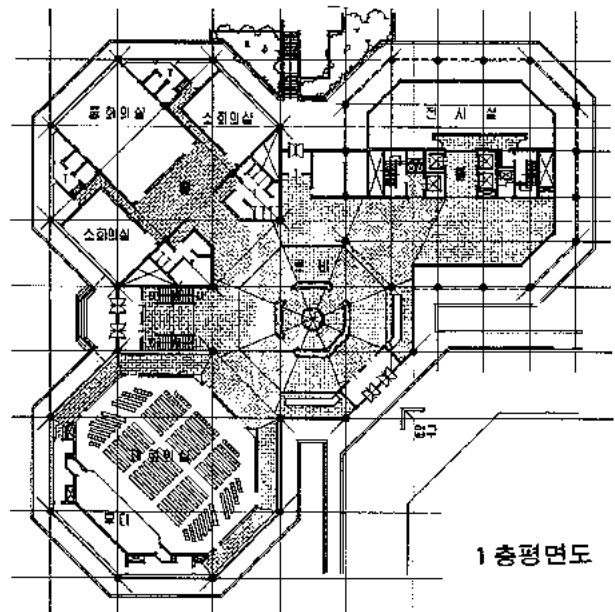
본 건물은 올림픽 경기 시 회의 및 경기주관을 위한 올림픽회관으로서 외관처리에서 저층부에 한국적 전통미를 부여하였으며 고층부에는 현대적 감각을 표출 시키므로써 기념비성을 강조시켰다. 특히 올림픽경기를 위한 대회의장 및 중소회의실의 중요성을 감안, 1층에 커다란 로비를 두었으며 1층과 2층을 오픈시킴으로서 보다 다양한 공간 구성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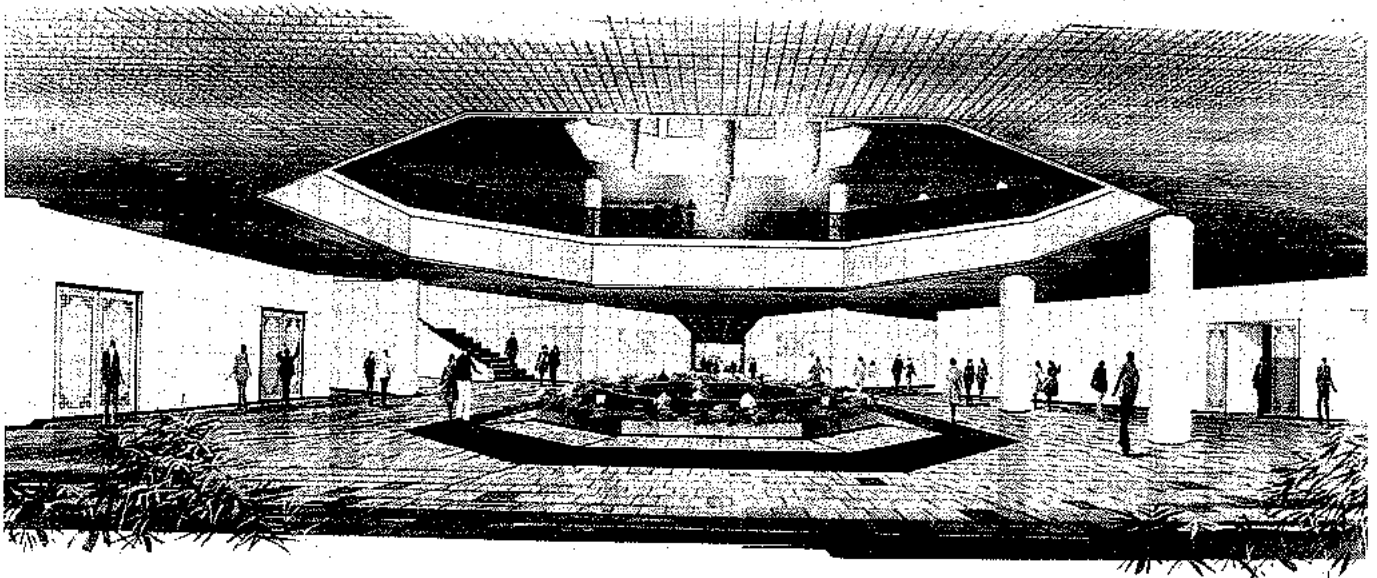
강당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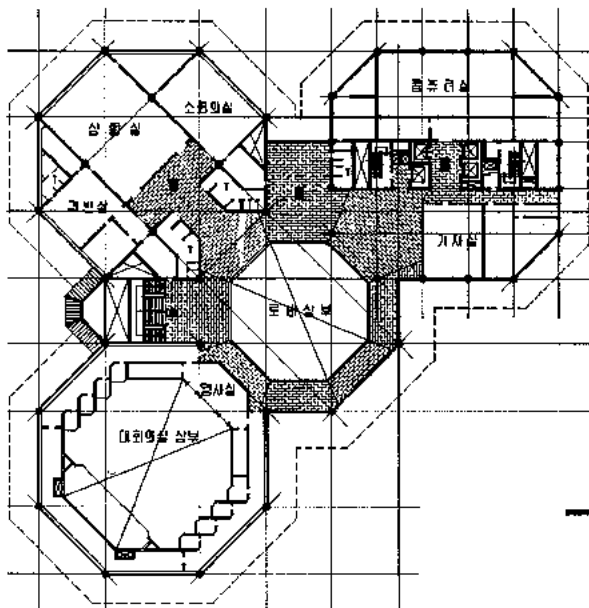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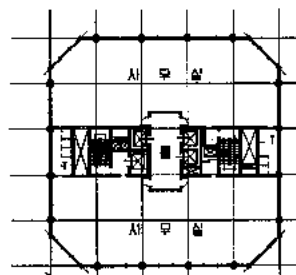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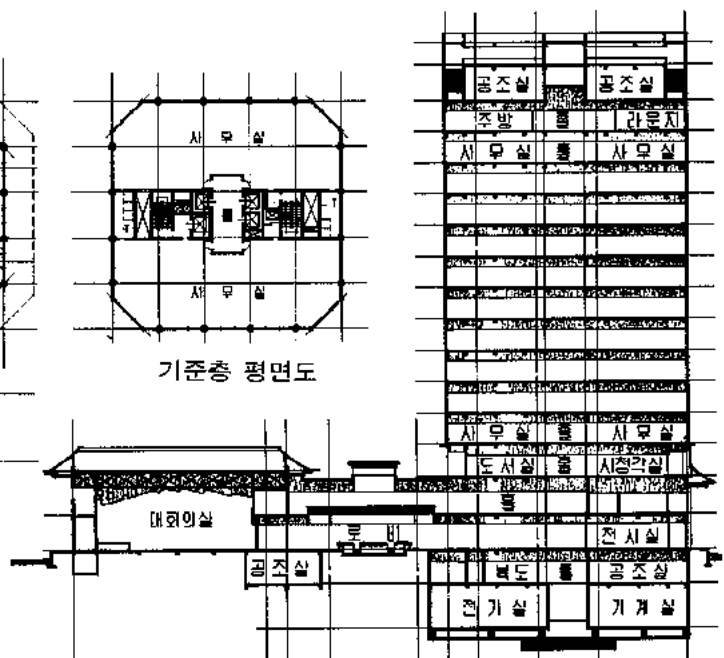
로비부분 투시도



2층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協會象徵 마크 및 로고체 현상모집

우리 協會는 創立20周年을 맞이하여 좀 더 참신하고 特性이 있는 象徵마크와 로고체를 널리 公募하여 選定함으로써 發展하는 協會와 建築士의 品位를 높이고 社會的 認識을 새로이 하고자 하오니 積極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모 내 용

1. 마 크

- 도 안 : 造形藝術 및 技術을 상징하며 品位와 멋을 나타낼 것
- 크 기 : 8 절지 켄트지에 15cm×15cm 크기로 그릴 것.
- 색 도 : 3 도 이내
- 기 타 : 제도법을 명기할 것
200자 이내의 설명문을 첨부할 것



참 고 : 현재
사용중인 마크

2. 로고체

- 도 안 : 한글, 한문 로고체 및 영문로고체
대한건축사협회 大韓建築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크 기 : 8 절 켄트지에 5cm×30cm 크기로 하되 횡조로 제작할 것.
- 색 도 : 1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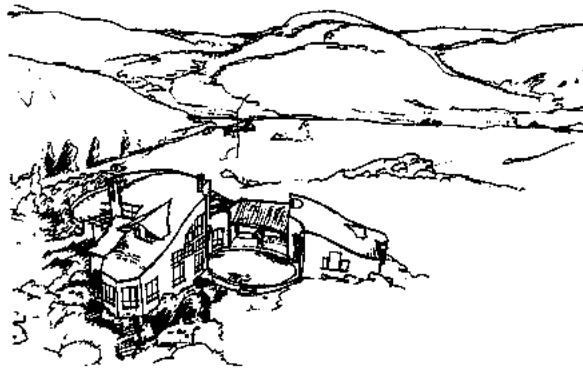
응 모 요 령

- 응 모 마 감 : 1985. 2. 11.
- 당선작발표 : 1985. 2. 19.
- 상 금
마 크 : 최우수작 1명 50만원
가 작 2명 각 10만원
로 고 체 : 최우수작 : 3명 각 20만원
- 보 낼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457-3
대한건축사협회(우편번호 135)
- 기 타

- * 당선작품의 사용권은 본협회에 귀속함.
-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음.
- * 응모봉투에는 「현상응모작품」을 명기할 것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협회 총무부나 출판사업부로 문의바람.
TEL. 584-0348, 4248, 1098, 9498, 9448, 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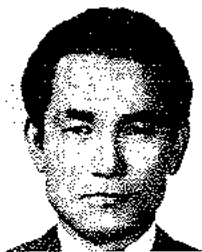
대 한 건 축 사 협 회

84년을 보내며



안타까움

한 창 진
(주)한정건축



어쩔 도리없이 또하나의 歲暮를 맞는다. 여생의 단축을 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가는 세월은 잡지 못한다.

덧없이 보낸 세월, 허둥 지둥 배우고 뛰고 시달리다 피로만 남은 지금 새삼스럽게 녀두리가 나온다.

차라리 장사나 사업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뛰었다면 뭔가 끝장이 있었을 게 아니겠는가.

先賢 先輩들이 가고있는 세월속에 그들이 남기고간 숨결같은 것, 입김에서 부터 느낌이나 생각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분명 숨쉬고 살아왔다.

한 사회에서 그 기능이나 필연성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을 갖고 닦아고

스란히 전해진 것이 〈文化〉라든가?

그속에 담겨진 〈열〉 같은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傳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리라.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건축문화의 맥이라할까 알만한 입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이 기와나 토담이나 완자나 추녀나 눈썹창살에 스며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자체는 아니다.

한국 현대건축이 태동한지 40년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사회적인 불신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 자꾸만 상업주의의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조짐이 답답하고, 극성스러운 관료주의의 횡포, 그로인한 더욱 메말라가는 인심과 자꾸만 회박해져가는 공동체애의 외식,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건축사협회 그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이나 구조상의 약점이 안타깝다.

영국 R.I.B.A도 우리와 똑같은 안타까움을 M.MacEWEN이 'rises in architecture'에서 지적한 바 있다.

두가지 구조상의 약점, 즉 건축사 직능단체로서의 건축사의 이익방위(직능방위적 역할)와 건축문화의 발전(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이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연출하려 하는데서 서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후자보다 전자를 더 큰 역할로 보완하면서 건축사의 실무적 문제도 진전시켜 나간다는 어려움이 문제인 것이다. 이 문

제의 재검토, 재정립은 필연적인 과제인 만큼 새로 추대된 오웅석 회장에 게 기대를 건다.

작금 하나의 물결같이 밀어닥친 적수입된 ERSATZ(대용품, 모조품)문화의 범람이 안타깝다. 「경험이란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부친 이름」이라고 한 오스카 와일드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더 많은 과오를 저질러야 하는 시련이 있고서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일까?

건축이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건축사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여러 건축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건축물의 정당한 質을 평가해 주지 못하는 일반 대중을 오히려 沒趣味나 無智나 하고 비난도 한다. 그들이 설계한 건물이 〈마치 동료 건축가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불유쾌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 피터 슈타야드((Pencilbania대학 미대원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경고이며, 반성과 음미의 필요를 느낀다.

이런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처지가 또한 안타깝다.

뛰기전에 준비하는 시기로삼자

徐 千 植
三一建築



아침해가 동산에 올라오면 이미 8분 12초전에 떠오른 햇빛을 보는 것이고, 저녁이 되어 서산에 지는 해를 보는 순간은 이미 몇 분전에 저버린 햇빛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경위를 따져서 감정을 정리하지는 않는다.

날씨가 맑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중에는 수 억년전에 발한 빛을 우리가 그 순간에 보고 있음도 또한 같다. 도심지 여기저기 건설되는 건물들도 공사가 진행되기 수 개월전, 수 년전부터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설계되어 이룩되는 작품임을 대개는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지금 체감하는 경기침체가 꼭 오래전부터 연유된 것일 것이고 침체기간에 여러가지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내년의 건설경기도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는 전망을 짐작하게 한다.

금년에는, 작년처럼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했던 아웅산 사건, KAL기 격추사건과 같은 몸서리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온 국민이 잠을 설치고 목메도록 그리운 모습들을 보여준 이산가족 생방송도 뜸해졌으나, 한 여름 L.A. 올림픽의 계속적인 승전보가 백의 민족의 한계레이스를 확인이나 해주듯

더위를 잊게했었다. 그렇게 뭉친 순간의 힘과 감격을 잘 승화시켜 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다 이겨갈 것만같은 희망이 솟아올랐었다.

천연자원도 많지 않고 기술축적도 깊지 않은 우리가 금년에 300억불이 넘는 수출을 하고 70년대에 이어 계속해서 성장해온 경제발전국가였으나 요즈음은 선진국가들의 자국경제 보호정책과 우리의 기술수준 향상미달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상당한 경기침체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건설경기의 후퇴는 곧 우리 건축사 업무량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뿌리깊지 못한 우리네 설계사무소에 심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식견이 높아져서 계획단계에서나 실시단계에서도 깊은 연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당국에서도 설계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철저한 도서를 작성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업무량도 많아지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져야만 하게 되었다.

건축사는 현재를 정확히 직시하고, 미래에 살고 미래를 계획하는 예술가이어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소망스러운 생활을 항상 탐구해가야하는 임무도 안고있다. 금년같이 일이 적어서 한가했던 건축사들에게는 그 동안 분주해서 밀쳐두었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때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가오는 큰 파들을 훌륭하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저력을 쌓아야 할 때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동양에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에 비하여 문명의 발전이 늦어졌다고 갈파한 어느 수학자의 논리에 동감하면서 우리도 동양의 예의범치와 체면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등한시했음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도 생각한다.

한해를 보내면서 열심히 협조해준 연구소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가난한 예술인의 소망을 위하여

金 基 雄
삼정건축



파리의 「퐁피두센터」앞 광장에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앉아서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다.

20프랑만 주면(우리돈으로 2000원 정도) 누구든지 자기 얼굴을 그려 받을 수 있다. 어떤 젊은이는 연필로 그리고, 어떤 젊은이는 「콘테」로 그려주고, 어떤 젊은이는 색연필로 그려준다. 또 다른친구들은 초상화를 만화식으로 그려주기도 하는데 코가 큰 관광객은 코를 과장하기도 하고, 턱을 과장해서 마치 시사만화에 나오는 「넉슨」같이 그리기도 한다.

그런데 참 잘도 그렇다. 선도 유연하지만 명암이 분명하고 그림의 분위기가 보통수준을 넘는 작품들이 짧은 시간에 수두룩하게 나온다.

행색은 하나같이 허름한 청바지에 낡은 「티·샤츠」, 덩수룩한 머리를 하고 눈동자만이 예리하게 반짝인다.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예술가의 긍지가 끈질기게 불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루블박물관 입구에 그림을 파는 젊은이가 있다. 「상·제디제 거리」 「개선문」같은 관광지 풍경도 있고, 「마네」 「루오」 「세잔느」의 모조그림도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삶에 찌든 아주머니들이 아가업고 팔만한 것인줄

알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직접 그린 것이다. 그런 그림이나마 관광객에게 팔아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궁색한 입장인 것은 뻔한 일인데도 그의 모습에서 비굴함을 발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의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에서 넘볼 수 없는 긍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파리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이 젊은이들에게 「예술가」라고 부르고, 그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대접한다. 알량한 그림을 팔아먹으니까 감상인으로 쳐서 우습게 대접하는 예도 없고 그래봤자 환쟁인데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에 힘주면서 그림을 사는 오만한 고객들도 볼 수 없다.

어디서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긍지를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생겼을까? 수많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무엇을 바라고 고달픈 예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세잔느」가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샤갈」이 그들과 똑같이 궁핍과 고난을 거쳐 성장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자기자신도 기회가 오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술문화창달은 하루아침에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리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몇푼의 보조금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물론 아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문화예술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 주변을 확대하는 일은 문화예술창달의 가장 빠른길이며 그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선에는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성취동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프랑스의 가난한 예술가들은 「장·꼭뜨」가 죽었을 때 국영프랑스방송이 정규프로를 중단한채 사흘동안 진혼곡을 울려주었던 사실을 당연시한다.

두얼굴

宋 皎 求
도성건축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기도 하거니와 궁금도 하여 TV의 뉴스는 빠뜨리지 않고 본다. 그 밖에 본다면 스포츠 정도이다. 그런데 11월도 다 지나가는 어느날 일론 보니 화면에 '건축은 시대의 얼굴이다. S. Giedion'이라는 말이 방영되어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대개 프로가 전문성을 띠면 밤늦게나 방영되어 예를 들면 'Silk Road' 같은 것은 절작인데도 볼 기회를 잃고 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더욱 눈여겨 보았다.

84년도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서울 시내 곳곳의 대형 고층건물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었는데 내용인즉 첨단가는 기술에 의해 컴퓨터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건축전기와 기계 설비가 제작된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가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mechanism을 건축가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품들의 제작은 건축가의 영역은 아니다. 아무래도 건축가는 건축양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보면 모습을 드러낸 고층 건축물들은 우리들이 눈잡지에서 보는 눈익은 건축들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평범한 작품들이 다라고 생각되었었다.

그런데 방영되는 화면에 간간히 잠간식 나타난 설계자의 이름을 보니 전부가 외국용역회사의 이름이었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면 소문도 났을텐데 필자는 묘한 감정에 빠져버렸다.

'건축은 시대의 얼굴이다'라는 말은 틀림없는 Giedion의 명언인데 필자에게는 그 얼굴이 두개로 보였기 때문이다.

Giedion은 Heinrich Wölfflin의 제자이며 Wölfflin은 형식주의적 이론을 미술사관에 도입한 금세기의 걸출한 미술사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Giedion의 말은 분명히 그의 예술관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이땅에 '시대의 얼굴'을 내민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갈등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설계자의 이름이 소개되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외국인들은 항상 원인행위를 가장 중요시 하여 하나의 건축이 준공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가의 이름을 절대로 남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사장 한장주는 것도 서열을 끝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가는 입에도 올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의 형편에 비추어 설계자의 이름이 소개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고급이라는 말을 '하이 칼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쿤이 어원을 따진다면, 영어의 high collar란 말에서 온 것으로 즐겨 서양화 경향을 좇는 풍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 문물을 무척 탐닉하여 소위 '하이 칼라'의 풍조를 이루었었으며 우리의 일상 언어에 까지 스며 오 염되었던 것일거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일본은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우리의 경우 건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가인 상품인데 그것이 꼭 '하이 칼라'야만 될 것인가, 일본과 같이 반세기를 지나야만 외체를 누적시키지 않고 우리 문화를 우리 손

으로 가다듬는 때가 올 것인가,

돌이켜 보면 회원들의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 것인즉 착잡한 마음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새로 임명된 여러 임원들의 가일층의 전투를 벌면서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기를 빈다.

이대로도 좋은가?

이 문 우
환경건축연구소



1984년 이 한해도 저물어 가는것을 느끼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다. 건축은 그시대 그 사회의 거울이요 또한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건축사인 우리들은 타인의 요구나 또는 사회적인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고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전문가의 역할로 만족스럽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였다 하는것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세우고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뚝뚝하게 답할 수 있을런지?

서울의 건축상을 본다면 낭만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물리적인 힘만 과시되는 괴물로 변하는 것 같고.....고층 A.P.T. 군 역시 주거환경이나 주

변환경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지 않아 개인의 인격과 자아형성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무력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인간을 난폭하게 (Vandalism) 만들고 있어 여기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의 고객인 建築主 역시 현대의 경제성만 너무 추구하여 建築士의 의견이나 조언은 계속 묵살되어지고 있으며 위법은 건축주가 하고 벌은 건축사가 중하게 받고, 당국에서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를 구분하여 놓았고..... 참으로 우리 건축사들에게 짐도 무거우며 헤치고 나아가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되며 그 시기는 바로 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위하여 정부의 모든 행정력과 모든 기술, 예술, 문화인들이 총력을 경주할 때이며 우리 건축사들이 담당할 업무는 막대하게 되어 우리의 훌륭한 기량과 역량을 기다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더욱더 저하될 것이며 발전적인 시기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믿으며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우리 建築士는 물론 우리 建築士協會도 변화가 와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곧 회관도 준공되며 기구조직도 바꾸고, 기술정보의 교환, 적극적인 홍보사업, 기타 등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法개정 문제, 보수 문제, 우리의 자질과 지위의 향상문제 등 폭넓게 다루어 후회없는 일이 되도록 계속하여 총력을 경주할 때라고 느껴지며 1984년을 보내면서 오늘도 계속하여 뜻있는 自我形式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김 남 수
(주)한미건축연구소



저물어 가는 1984년 갑자년을 바라보며 건축사 회원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과 바람을 적어보려 한다.

그 동안의 건축사의 발전상이라면 일제시의 건축행정 대서사로, 8.15해방후는 서울시 주관의 건축대서사로 그러던 것이 1964년도에는 비로소 국가 기술고시에 의한 건축 설계사, 즉 현 건축사가 탄생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건축사의 권익과 복지, 기술, 향상을 꾀하며 친목을 위한 단체로 우리의 협회가 발족하여 각 시도에는 지부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회원을 위해 역대 회장을 비롯 임원과 위원회의 임원들 모두가 바친 헌신적인 노고로 건축분야는 선진국에 버금갈 발전을 기록했다.

그런데 2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가 타 업종의 회원보다 사회에 크나큰 이바지를 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별로 환대를 못받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량하고 착실한 대다수 회원보다는 소수의 회원의 잘못에도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建築士法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 실증을 든다면 1983년도 행정처벌을 받은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4천 2백58명에 이르는데 금년도에도

10월 현재까지 1천7백85명이 행정 처벌을 받아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대로 좌시하여야 할것인지 회원 전체가 합심하여 법의 개정을 해야 한다든지 교양을 넓혀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새삼 느낀다. 그러하자면 협회의 총회나 지부 총회에 적극 참석하여 보다 유능하고 회생적이며 회원을 위할수 있는 인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임원 선출도 과거 어느 때에는 지연이나 동창이란 관계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나 이제는 참다운 우리의 임원이며 역군이며 대변자이기도한 임원들을 많이 선출하여 과거 20여년이란 세월에 걸쳐 건축설계와 행정에 맞는 업을 영위한 그 경험으로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乙丑의 새해는 건축행정 당국은 물론 우리 임원과 회원이 합심 협력하여 꼭 建築士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法으로 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6.25의 혼란기에서 부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이 시점에서 모리와 사육에만 몰입한 몇명의 악덕 건축주로 인해 사회의 비난은 크고 마치 이것이 건축사의 방조에 의한 것인양 방종이나 신문에 대서특필 되곤 했는데 그럴적마다 타 업종에 비해 수치를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불법 위법의 건축물은 금년 12월말 까지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로 구제가 됨은 물론 건축주에게만 가벼운 처벌이 가해지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최대한의 불법,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막으려면 설계상의 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법 위법을 강행하는 건축주에게 엄벌을 가한다는 방침이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건축사의 기술적 지도는 물론 시공 분야도 가일층 발전되고 향상 될 것이다.

향간에는 일부 소수의 회원들이 질적보다 양에 신경을 써 설계도서 작성을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교묘히 법을 피하게 하는등 불법 건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는 풍문이 나도는데 부디 좀더 상세하고 좀더 나은 도서작성을 하였으면 한다. 한 두사람의 행위로 여러 회원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했으면 한다.

부디 밝아 오는 을축년에는 모든 회원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박 상 호
석림건축



“事物을 관찰하거나 設計함에 있어 基本哲學이 있는 사람은 自然속에서 美를 찾게 되며 空間의 생명을 重視함으로써 創造의인 결과를 맺는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그해 살림인 경영의 實果를 생각하게 된다. 금년엔 일반적으로 전반기 보다 후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건축사들간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경기란 항상 좋을 수가 없고 언제까지나 바닥에서만 머무르지도 않는다. 최근의 어떤 경영기술자들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50~60년의 커다란 주기변동을 갖고 있으며 198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신기술의 출현과 관련된 제6기의 下降局面이 시작되고 있다하며 그 下降點은 1998년경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 앞으로 10~20년 내에 연구개발형 先取

企業인 벤처비즈니스와 서비스산업의 전성기가 온다는 것이며 산업은 정보화를 軸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싸이클속에서 건축사 사무소가 전제하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

서비스업에 속하는 설계사무소의 전전한 운영방법은 무엇일까? 대외적으로는 人脈이며 대내적으로는 人材이고 동시에 경영자의 신념과 정열이 발전에의 분기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경영의 합리화는 설계사무소의 경우 당연히 필요하며 예술가로서 기술자로서 사회에 대하여 책임있는 일을 하는 이상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영조직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인재 정보, 조직의 3요소가 건전운영의 관건인 셈이다. 또 사회적 요구에 의한 사무소의 기능 업무영역의 受注 범위가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적응해갈 것인가, 종합화의 방향이나, 求心型으로 集中指向의 전문화의 방향이나? 건축물의 용도 기능별을 선택해서 특정 전문영역의 위치를 차지한다든가? 독자적인 수주체제에 의한 업무량의 안정화 혹은 특정의 조사, 연구, 기획업무등 콘선티트능력을 전제로 해서 이에 연결될 수 있는 설계감리 업무체제의 확립등의 업무이거나 少数精銳主義에 의한 철저한 경영방식에 의한 단력적인 조직체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무실 운영의 대책이 될 것이다.

물론 건축사는 개인 또는 전문가업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의 전문가 능력의 평가와 신뢰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업으로 인한 경제면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닥아올 1985년에는 건축사협회가 발족한지 20년이 되는 성년의 해가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건축법, 건축사법의 기본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계속 변경조정되고 있으며 굳건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보장되고 있는 것이 처벌조항이고 건축사 업무단속이 연례 행사로서 신경질적으로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쥐한마리 잡으려다 공들여 담

귀문 장독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발전해가는 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서 기술개발 여건에 맞추어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의 일들은 우리들 자신들의 책임이 있으나 관계당국의 좀 더 깊은 관심속에 오히려 도심고층, 초고층 건축물들이 수 없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 건축에 따른 기술기준이나, 도시계획적 측면 사후관리문제, 고도로 발전해 가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구조안정, 시공법상의 제 기술 기준이나 규제등 많은 건축기술적인 업무의 개발, 발전, 기술지도 및 통제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 못다한 일 등을 생각하며 해마다 그렇듯이 미결의 章으로 끝나더라도 조용히 세모에 회원들의 권익, 복지, 자질향상에 어느만큼 공헌해왔고 공헌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나친 규제, 조사, 통제등의 과민적인 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어려운 살림일때 쉽게 저리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우리 조직의실정이다. 복지기금은 미래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오늘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회원, 미수금이 있으면서도 저출해야 할 금전의 시간에 쫓겨어 높은 이자돈을 써야하는 회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지회이고 친목이고 단합이 아닌가.

1985년의 신년에는 우리의 회관에서 성년 20년의 경축과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게 튼튼한 가지에 화사한 꽃과 알찬 열매가 되고 영글수 있도록 회원사무소의 운영, 복지, 친목등에 가일층 협동, 단합하여 20년 기념대축제를 전국의 전회원이 모일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계약의 종이 울리면 새해의 회원의살림살이에 밝은 여명이 오길 빌면서 가슴깊이 다가올 행운의 종소리를 기대해 본다.

미완성의 해

윤 봉 원
건축연구소 원건사



내 주변의 일들이 미완성된 상태로 인계되고 해를 넘기는 기분이어서 아쉬운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개인도 협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완성이 위하여 노력은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되나 그래도 아쉬움을 간직한채 한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다. 못다한 일들을 내년에는 꼭 이루고 또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임기를 마치면서 무엇을 했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런데로 보람도 기대도 걸어볼만 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사회의 일이거나 개인의 일들이 합쳐서 내뫼를 다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못내 아쉬워하게 된다.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어쨌든 이루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임기초에는 많은 일들을 계획했고 또 완성하리라고 욕심을 가졌었지만 차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느낄수 있었다.

개인의 욕심때문에 불편한적도 있었고 못마땅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중용의 길로 갈수밖에 없었고 또 욕심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임기를 마칠수 밖에

에 없었다. 내 뫼를 다 못하고 임기를 마쳐야 했고 또 해를 넘겨야 되는 지금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시간이 흘러 평가를 받을 때가 오면 자연 계산이 나오고 평점이 될 것으로 본다. 미완성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직들에게 바랄 뿐이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만큼 결코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결과가 부끄럽지 않게 알차게 완성하는 길만이 늦은 이유를 대변해줄 것으로 믿는다.

건축인 모두를 위한 일이고 보면 기대 또한 크다. 실망치 않음 결과를 가져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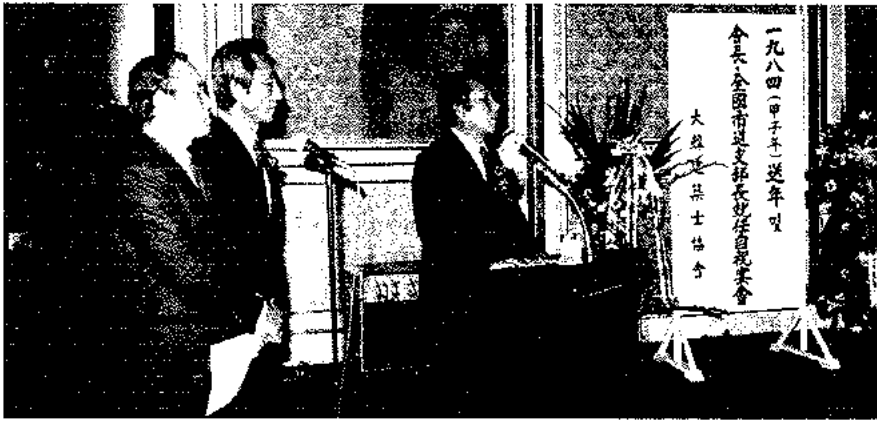
그 보다 더 좋은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수 많은 시간 고민과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멋진 열매를 딸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비로소 정겨운 자리에 옛 이야기도 담을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과거에 대한 보람 또한 느끼게 될 것이다. 공인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된다. 공인으로서의 내뫼에다 개인 일 또한 안할 수 없는 이중의 부담이 쉽게만 여겨지지 않는다.

충분한 능력을 그리고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어야 직책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억지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욕심껏 말아만 놓으면 어찌겠다는 이야기인지 한심하기도 하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지방 지부까지 과열현상으로 지나친 경쟁과 좋지 않은 풍토까지 도입이된 모양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명예직에 선거풍토가 너무 지나치다고도 느껴진다. 존경받는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결정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소신껏 회생을 부름쓰고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사안일주의로 편리하게 자리를 마치는 세월은 없어야 하겠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땀 흘린 사람은 그만큼 회생을 각오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그래도 미완성이요, 미숙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되기에 말이다.



祝辭을 하고 있는 朴權欽 國회건설위원회위원장



(좌로부터) 金基壽 부회장, 安京模 건설기술연구원장, 吳雄錫 회장, 金枝泰 전회장, 柳根淵 감사, 閔榮基 충남지부장



送年 및 會長·全國市道支部長 就任自祝宴 盛了

本會는 12월 11일 오후 6 시30분부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送年會를 겸한 會長·全國市道支部長 就任自祝宴을 가졌다.

이날 自祝宴에는 朴權欽 國회건설위원회 위원장, 李重熙 國회건설위원회 건설위원, 李聖秀 國민당 정책위원장, 安京模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羅相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계 저명인사들과 本協會 역대 會長團, 역대 임원 및 金重業 회원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제12회 理事會 개최

84년도 제12회 이사회가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吳雄錫 회장의 公務上 國會參席중에서 개최되어 金基壽 부회장의 주재하에 본협회 全任員과 서울지부 李春相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 1호 의안 특별회계예비비 사용승인, 제 2호의안 예비비사용 및 목간전용승인, 제 3호의안 각 위원회조정 및 위원선임, 제 4호의안 공사감리업무 일부 개선 시행방침 연장승인, 제 5호의안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 등 부의안건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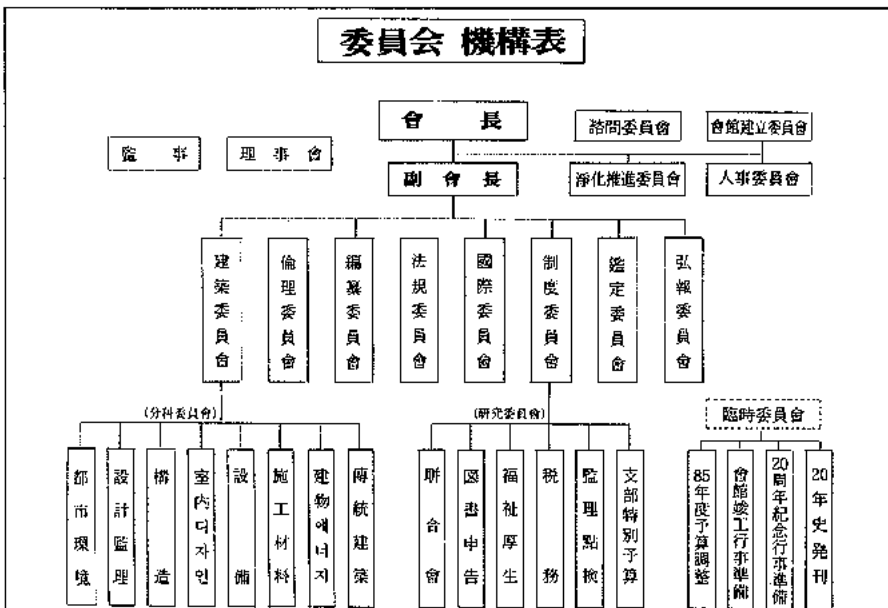
특히 이날 제 3호 의안은, 위원회 명칭과 기구는 별도 배부한 기구표대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제4회 지부장회의 및 정화중앙협의회 개최

본협회는 12월11일 오후 4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吳雄錫 회장 주재하에 全任員과 전국시도 支部長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지부장회의 및 정화중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부장 회의에서는 건축사 권익과 직접 관련된 설계·감리 문제등을 위시한 당면 현안이 진지하게 협의 되었으며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지부장들은 협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을 새로이 다짐했다.

委員會 機構表



全國市道支部定期總會 개최

본련회의 전국 13개 市道支部 定期總會가 11월10일 仁川直割市支部의 개최로 막을 올려 11월30일 忠北道支部 개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支部總會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9市道の 支部長이 새로 選出되었고 부산, 전북의 支部長이 再選되었으며 대구와 인천 支部는 支部장의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있어 支部장 개선은 하지않았다.

서울支部 支部長에 李春相 회원을 選出

서울특별시 지부의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겸한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23일 오전 10시 5백2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소재 진경면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축사, 정화결의문 채택,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전화(18회) 회의록 승인, 84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85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임원 및 대의원 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날 이상연 서울특별시 부시장이나와 시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임원개선은 임시 의장으로 지명받은 안기태 회원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支部장 선출은 2차의 투표를 거치는 열기가운데서 이뤄졌다. 2차의 투표결과 李春相 회원이 재석인원 456명중 254명의 지지표를 획득, 서울지부의 새 支部장으로 선출되었다.

간사선출은 대상인원이 2명이었으나 강태석 간사의 사임을 받아들여 3인을 선출하게 되었다. 간사와 감사의 선출은 임시의장, 현지부장, 새로 선출된 지부장 등 3명이 진행위원이 되어 선출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간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간사 / 조병관(임기 2년)
윤대웅(임기 2년)
박영식(임기 1년)
감사 / 안장원(임기 2년)

釜山直割市支部 黃在澤 支部長再選

부산직할시지부는 11월13일 조선비

치호텔 회의실에서 2백5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겸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黃在澤 支部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자율정화결의문 채택과 본회 吳雄錫 회장의 격려사, 부산직할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崔海雨 도시계획국장과 이종호 부산개방대학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黃在澤 지부장에 대한 협회회장의 공로패 수여와 84년도 건축설계작품전 출품회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모범직원 표창패 수여가 뒤를 이었다.

계속하여 신입회원 인사소개,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85년도 세출예산보고의 순서가 진행되었고 부의안건이 처리되었다.

부의안건에 들어가서 임원개선과 대의원 개선이 있었는데 支部장 개선에 있어서는 임기 만료된 黃在澤 지부장

서울支部 총회



大邱支部 총회



이 재선되었으며 2명의 간사를 비롯해서 감사 2명과 대의원의 선출이 있었다.

지부장 외의 임원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사 / 장상진, 차원일 (2년 임기)

감사 / 정환호 (2년 임기)

오천복(장윤환 잔여 임기)

大邱直割市支部 幹事2명 監事1명 선출

대구직할시지부 제3회 정기총회가 11월 24일 대구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재석회원 1백63명중 1백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전문회원 대구직할시지부 협의회 정경진위원장과 본회 오웅석 회장 및 김봉훈 이사, 김재우 이사가 참석한사로 참관한 이날 총회는 주요업무보고와 세해 세출예산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의안건으로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의 결과 장기웅, 이동근 회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으며 정본진 감사가 재선되었다.

임원개선을 끝으로 12시 55분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는 막을 내렸다.

釜山支部 총회



仁川支部 총회



仁川直轄市支部 幹事2명, 監事1명 선출

인천지부 제3회 정기총회 및 정화 결의대회가 11월 10일, 백암온천 성류파크호텔에서 4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의안전 상정결과 제1호의안(지부임원선출)은 전회원의 동의를 얻은 高昌永 지부장이 정희승·김상욱 두 회원을 간사로 지명 선출하였으며 제2호의안(감사선출)은 김정수회원의 추천동의를 받은 박순중 회원이 전회원의 찬성으로 감사에 선출되었다.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총회는 11시50분 제5호의안 기타사항의 토의를 끝으로 끝났다.

京畿道支部 支部長에 李鍾殷회원

경기도지부 84년도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 19일 수원시내 부라운관광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건축사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10시 30분부터 본협회 오웅석 회장 및 경기도 건설국장과 회원 1백91명중 1백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수 지부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최되었다. 식순에 따라 “부조리를

척결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자”는 건축사자율정화결의서를 다지는 결의문의 채택이 있었으며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용수 지부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본협회 오웅석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달라는 경기도 건설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본협회회장의 회원공로패와 직원표창패 수여, 지부장의 회원공로패 및 건축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84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85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 등의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부의안전 처리에 들어가서는 임기만료된 임용수 지부장 후임에 李鍾殷회원이 신임지부장으로 개선되었으며 간사 2명, 감사2명, 대의원 10명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새로 선출된 간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간사 / 김중권(임기 2년), 김철균(임기 2년),

감사 / 양하섭(임기 2년), 한광섭(임기 1년).

江原道支部 支部長에 閔庚秀 회원

강원도지부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 15일 강원도 어린이회관에서 재적회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는 제18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8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85년도 수지예산보고,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부장에는 閔庚秀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다. 이어 간사와 감사의 선출이 있었으며 신임 간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간사 / 조정호(임기 2년) 이국남(임기 1년)

감사 / 이찬호(임기 2년) 박세진(임기 1년)

忠清北道支部 支部長에 延寬欽 회원

충북도지부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 30일 10시부터 청석빌딩 2층·회의실에서 본협회 신정환 이사, 임인혁 사무처장, 충청북도 주택과 김기세 계장을 비롯, 관계인사 및 회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오세형 지부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83년도 사업실적 및 제18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협회 발전과 지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공로패 수여도 있었다. 본 협회로부터 오세형 지부장에게 공로패가 전수되었고 박오균, 이종만, 강계식 회원에게는 지부장 공로패가, 그리고 오세형 지부장에게는 충북 회원일동이 수여하는 공로패와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가 수여되었다.

지부장, 간사·감사, 대의원을 개선할 때는 충북 회원의 대변인을 선출한다는 각오 아래 추대와 양보의 미덕이 발휘하는 가운데 延寬欽 회원을 지부장으로 연계성 회원을 감사로, 이용철 회원을 간사로 추대하여 개선하고, 오세형 회원과 이종만 회원을 대의원으로 추대했다.

忠清南道支部 支部長에 閔榮基 회원

충남도지부의 84년도 제19회 정기

京畿支部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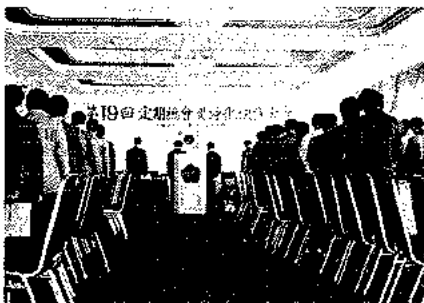
全南支部 총회



忠南支部 총회



慶南支部 총회



총회가 11월20일 10시30분부터 1백16명의 재적회원 중 1백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관광호텔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정기 총회 회의를 승인과 주요업무보고, 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임기만료된 지부장과 감사 2명, 감사 1명, 대의원 6명 등의 임원개선이 있었다.

지부장에는 閔榮基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이총회 회원과 임근수 회원이 각각 임기 2년의 감사에, 그리고 육이창 회원이 임기 2년의 감사에 선출되었다.

기타 토의를 끝으로 총회는 막을 내렸다.

全羅北道支部 全炳直 支部長 再選

전북도 지부의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겸한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29일 오후 2시부터 재적회원 55명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고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8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주요안건 처리가 있었으며 임원개선에서는 임기 만료된 全炳直 지부장이 재선되었고 조용선 회원을 임기 2년의 감사로, 송천규 회원을 임기 2년의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全羅南道支部 支部長에 趙春元 회원

전남도 지부의 84년도 제19회 정기총회가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1백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전라남도 및 광주시 건축직 공무원 6명, 소방관 1명, 회사 1개소에 대한 유공인사 및 유공기관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모범분소 1개소와 회원 2명에 대한 유공회원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또한 85년도 사업계획승인, 임원개선, 대의원 개선 등의 의결사항이 처리되었는데 임원개선에서는 趙春元 회원

을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박영희 회원을 감사로, 김성현 회원을 감사로 각각 선출하였다.

총회는 오후 4시30분 폐회선언으로 모두 끝났다.

慶尙北道支部 支部長에 金永吉 회원

경북도지부의 제19회 정기총회 및 정화결의대회가 11월27일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고려예식장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부회장, 김천시장, 금릉군수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8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85년도 수지예산보고 등의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임원개선에서는 지부장에 金永吉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이우상 회원과 조무환 회원이 2년 임기의 감사로, 이상만 회원이 2년 임기의 감사로, 조성현 회원이 1년 임기의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慶尙南道支部 支部長에 金正洙 회원

경남도지부의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21일 오전 11시 마산시 롯데크리스탈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재적회원 97명 중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는 식순에 따라 이규호 경남도지사의 치사(김기업 주택과장 대독)와 본회 오웅석 회장의 격려사(김기수 부회장 대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임기 만료된 이종태 지부장에게는 본 협회 회장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신입회원인 울산분소 이성걸 회원에게는 정회원증이, 지난 8월 건축설계작품 전시회에 출품했던 김철전, 배동권 두 회원에게는 감사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총회는 회순에 따라 업무보고가 있은 후 임원선출 순으로 옮겨갔는데 지부장 선출에서는 金正洙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김성달 회원과 이정호 회원이 2년 임기의 감사에, 이상채 회원이 2년 임기의 감사에 각각 선출되었다.

총회는 대의원 선출을 끝으로 오후

2시 그 막을 내렸다.

濟州道支部 支部長에 梁昌完 회원

제주도 지부의 제19회 정기총회가 11월15일,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로얄호텔 회의실에서 재적회원 2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회장을 대리하여 金基壽 부회장이 임석하였으며 김태환 제주도 관광개발국장을 비롯한 시·군 건축행정 실무공무원도 다수 참관하였다.

회의는 오후 3시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교육헌장낭독, 건축사헌장낭독, 정화결의문 채택이 있었고 제주도 관광개발국장의 축사가 지부장의 개회사와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행하여졌다.

식순에 따라 지부발전에 공이 많은 제주시 주택과 신원범씨, 서귀포시 도시과 오희범씨, 북제주군 건설과 양희영씨, 남제주군 건설과 강창석씨에 대한 지부장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임기 만료된 고영중 지부장에게는 본 협회 회장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모범직원 표창이 있었다.

특히 제주도 지부는 85년도가 협회(지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 "협회창립20년사"를 발간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갔는데 梁昌完 회원이 새 지부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김창우 회원과 문자원 회원이 2년 임기의 감사로, 고정식 회원이 1년 임기의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고 2년임기의 감사에는 강요준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다. 총회는 오후 7시 막을 내렸다.

全南支部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

全南支部(지부장 趙春元)는 11월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직원 7명이 광주소방서 4거리에서 나가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分科委員會活動

— 84년 결산 —

◇한국전통건축 연구분과◇

한국 전통건축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장기인)에서는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기에는 정자건축(존덕정, 청심정, 청이정)에 대하여 연구 진행하였고, 후반기에는 한국의 고건축물 중 대표적 전통 건축미를 띄고 있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동헌, 보림사 대웅전의 복원, 석가탑의 복원에 관하여 연구 추진하여 회지에 각각 발표하였다.

'85년도에는 궁궐, 사찰, 민가, 서원, 정자, 객사, 성곽에 대한 연구 사업을 전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연구분담위원은 차후 결정기로 하였다.

◇건축물 연구분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성훈섭)에서는 그동안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국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발 맞추어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하여 전회원에 배포하였으며, 회원으로 하여금 실무에 참고될 수 있도록 태양에너지 이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단열공시에 대한 표준시방 및 품셈에 관한 연구, 초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시험경과, 기존 주택의 단열 개수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여 회지에 발표하였다.

◇법 연구분과◇

법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윤봉원)에서는 연초 장단기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는데, 회원의 업무에 시급을 요하는 단기 연구사업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분리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건설부에 보고 하였으며 또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회원에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사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작성된 개정안을 건설부와 협의 후 현재 정기국회의 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 연구사업 계획으로는, 현행 건축법상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정토록 한다는 방향으로 연구 진행중이며, 차기연도 연구 계속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속 연구하기로 의결했다.

◇설계도서 연구분과◇

설계도서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한종연)에서는 '84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의하여 '82, '83연구 성과물과 구조 연구분과 위원회의 구조 표준도를 합본하여, 회원과 보조원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도서 작성 요령 제 1부」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전회원에게 배포하였다. 또 지난 75년 3차 개정이후로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을 연구 작성, 건설부에 건의하여 현재 본 협회와 건설부의 의견을 좁히는 최종 절충단계에 들어가 있다.

지난 11회 회의시 (12. 5) 협의한 '85년도 연구사업 계획으로는 회원의 업무에 시급을 요하는 각 공사별 시방서와 내역서 양식을 연구 작성기로 의결하였다.

◇구조연구분과◇

구조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이용하)에서는 회원과 보조원의 공사감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 현장감리 검사요령을 작성기로 결정하고 각 공사별로 전담위원을 두어 지속 연구추진하였으며 지난 11회 분과위원회를 끝으로 연구 완료하였다. 연구 성과물은 12월 회지에 발표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83년도 연구 성과물인 구조 표준도는 설계도서 연구분과 위원회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참고요령과 합본하여 단행본으로 발간 배포하였다.

◇설비연구분과◇

설비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박용한)에서는 9회에 걸쳐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층건물의 위생설비 연구, 히트펌프의 기본 원리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고층건물의 전기설비 연구, 고층건물의 공조설비 공간에 대한 연구, 초 고층건물의 정보설비 연구, 건축 수송설비 표준 시방서 연구, 오수 정화조 설비 연구, 고층건물의 방화구획의 착안사항 연구를 완료하여 회지에 발표하였다. 국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코자 공기조화 설비면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소비평가에 대하여 추진한 연구결과는 12월 회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85년도 연구사업 계획으로는 병원건축물의 위생·공조·전기설비 실태조사 연구, 기존 건축물의 설비 실태 조사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진행기로 결정하였다.

◇시공재료 연구분과◇

시공재료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김형인)에서는 '84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의하여 건축사와 보조원을 위한 주요 시공재료의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연구, 주요 외장 신재료에 대한 공법 소개,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첨부시켜야 할 사항과 건설공사 표준 품셈 자료조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인데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기연도 연구 계속사업으로 채택기로 결의하였다.

도시환경 연구분과◇

도시환경 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김인석)에서는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설부 연구요청 사항인 '주택단지 경관 및 주택의 질 향상 방안을 연구하여 건설부에 보고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종합설계 제도의 도입, 특색있는 단지 설계, 주택설계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회지에 발표하였다.

또 조정부문에 있어서는 회원이 충분한 예비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도시환경과 가로조형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전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사회정화운동추진실적

— 84년 결산 —

1. 자율 정화 결의 대회

의식개혁 및 무사안일 추방과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로 건축업무 풍토 쇄신을 위한 자율정화 결의 대회를 지난 10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본회 주최로 개최하여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13개 시도 지부 별로 자율정화 및 청탁 배격 결의 대회등에 연인원 3,4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30회를 개최하였다.

2. 거리질서 캠페인

질서의식 함양으로 올바른 생활,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거리질서 계도를 실시하였다.

본운동은 국민의식 개혁과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등 계도를 위한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3백40명이 연8회에 걸쳐 주변 오물수거등을 병행 실시 하였다.

3. 자연보호 운동

오염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여 선진 조국 창조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운동은 국민의식 개혁에 솔선키위한 운동으로 유원지 오물수거와 행락질서 계도를 병행하여 전국13개 시도 지부에서 연15회에 걸쳐 9백32명이 참가 하였다.

4. 농촌 일손 돕기

농번기 일손 돕기를 직장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 봉사하여 9천여평에 대한 모내기과 벼베기 지원 활동에 연인원 4백18명이 참가하여 자원 봉사 활동을 하였다.

5. 불우이웃 돕기 운동

직장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자매마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 및 자매결연 아동보조금 등을 위하여 회원 성금으로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수해지역 건축물에 대한 수해건축물 안전진단을 10만6백32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협회 홍보로 인식제고에도 일



익을 담당하였다.

6. 간담회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과 건축업무 풍토 쇄신 및 회원 권익옹호를 위하여 7월1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비롯하여 대관청 간담회 등으로 협회 및 회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7. 회원 작품순회전시회

84회원 건축설계 작품 순회전시회가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4일간 전국 5개도시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 되었다.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열린 순회 전시회로 모두 70점의 회원작품이 출품되었다.

8. 회원교육 실시

건축사 및 건축사 보조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업무 교육등이 24회에 걸쳐 3천3백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특히 지난4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2박3일간씩 6회에 걸쳐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 입소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9. 건축 행정 민원 상담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 민원 상담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건축 행정 질서확립에 기여하였으며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협회의 대외 홍보활동에 기여하였다.

다음은 본 협회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사회정화운동 관련사업 추진 실적을 집계한 내용이다. 당 협회 본부를 비롯 산하 13개 시도지부별로 실시해온 각종 정화 관련 사업은 오는 85년도에도 주요 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

1. 자율 결의 대회 : 30회 연 3,461명 참가
2. 거리질서 캠페인 : 8회 연 340명 참가
3. 자연보호 운동 : 15회 연 932명 참가
4. 농촌일손 돕기 : 9회 연 418명 참가 (9,000평)
5. 불우이웃 돕기 : 성금 5,639,000원
6. 간담회 : 22회 연 404명 참석
7. 회원작품 전시회 : 5개도시 순회 전시회
8. 회원교육 : 24회 3,331명 참석
9. 건축상담 : 각시도 지부별로 운영
10. 기타 : 정화관련 서한발송 2회

新任 市道支部長 就任所感

서울特別市支部長
李 春 相



그간 본인이 서울 지부 간사와 본협회의 이사 및 감사직을 거치면서 회원으로서 배우고 느낀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부운영에 참작하며 우리 회원여러분들의 업무에 편익을 드리도록 모순된 점을 개선해 나가아겠습니다.

물론 본협회 회장님과 여러 임원께서는 우리 전회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지만 본인은 서울支部長으로서 전국회원의 45%인 1,000여회원님과 전국업무량의 35%인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그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면서 당면한 課題는 많지만 '85支部運營의 指標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제반사항을 과감히 척결하고 대화의 광장을 가지며 우리 업무에 편익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적 외적 정화사업에 역점을 두며 官主導型을 우리의 自律的인 방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들의 작품에 대한 작업량은 가중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소득증대는 감소상태이므로 우리의 報酬費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째, 협회예산의 팽창에 있어서 서울회원의 會費負擔율이 과중하므로 예산체도의 개혁으로 우리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연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발전하는 支部, 성장하는 協會가 되도록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을 바랍니다.

- 본적 : 평북 (1936년생)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중앙산업주식회사 근무
- 신양건축사무소개설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간사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감사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釜山直割市 支部長
黃 在 淳



본인이 支部長에 연임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은 앞으로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支部의 내실있는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미력이나마 열과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언제나 회원의 입장에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收斂하고 반영하며 직원의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회원을 위한 지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 화합의 굳건한 기반은 복지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회원 모두의 결속된 힘에 의해서 우리의 지위와 권익이 보장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년을 맞는 지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건축사업부의 영역을 확보하며 또한 본연의 업무를 증대시키려면 모를지기 대민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建築主 등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축풍토를 쇄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부의 극소수 건축사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겠으며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보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회원의 기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본적 : 부산 (1922년생)
- 부산공전건축과 졸
- 국방부건설본부 3감문관
- 건축사자격면허취득
- 一民一信 건축설계사무소 개설 자영
- 부산지부장 (1982. 12)

京畿道 支部長
李 鍾 殷



이번 제19회 경기도지부 정기총회에서 본인에게 지부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얻어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에 중점을 두고 우리지부가 당면한 문제와 제반사를 처리하여 나아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힘겨웠던 문제들은 하나 하나 순서있게 처리해 갈 생각이며, 제 안업무는 회원의 편에서 힘껏 밀고 나가겠으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이익에도 힘쓰고 본 협회와의 교량역할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직: 충청남도 (1935년생)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졸
- 철도청 근무
- 경기도광명분소장 역임
- 경기도지부 간사역임
- 건축학회 정회원
- 영신건축설계사무소 대표

江原道 支部長
閔 庚 秀



미력한 본인이 지난 11월15일 지부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성원 해주신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부와 협회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단체로 이끌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건축 설계가 하나의 작품과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부실한 건축물을 자초하는 설계비나 감리비의 덤핑이 근절되어야 되겠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건축주들의 취향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미화를 위해 회원들의 분발과 새로운 구상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도내 대학들과 학술적으로 연계 의견 교환 등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여 건축기술 개발과 회원사무소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하고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위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은 저마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부 발전에 앞장서가며 그동안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보아왔고 성장을 거듭해 온 지부 복지회 활동을 강화하여 상호 친목 단결으로써 지방 분소의 활성화와 자체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더욱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 본직 : 강원도 (1942년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
- 한국화약, 경수산업, 강원교육위원회
- 대아건축설계사무소 개설
- 대아건축기술공단으로 개편
- 대아건축설계사무소 소장

忠北支部長
延 寬 欽



지난 11월30일 제19회 충북지부 정기총회에서 본지부의 지부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하오며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지부 창설 이래 19년간을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회원의 품위 보존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이룩하여 놓으신 업적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까지 본지부를 이끌어 주신 전임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동료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래 극히 일부회원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영리를 위하여 본인 스스로는 물론 타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의 품위 보존과 권익옹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댓가로 우리 회원이 모든일에 <나>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일이 아니고 내일에 우리의 품위 보존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본인과 모든 회원님들이 상부상조하여 단합된 힘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다수의 회원과 지부, 나아가 협회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소의 댓가를 치루더라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선배·동료 회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제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여러 회원님들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 본직 : 충북 (1945년생)
- 충청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근무
- 청주시청 근무
- 연흥건축설계사무소 개설 대표

忠南支部長
閔 榮 基



충남지부가 명실공히 각시도지부중 모범지부로 지칭되는 것은 역대 지부장님과 임원 및 회원 모두가 단합된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취임사에서 몇가지를 강조했습니다. 和合의 정신입니다. 발전도상의 지부 보다는 앞서가는 지부를 이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합하는 봉사정신은 절대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원도 만족하기에는 대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의 미덕으로 多議에 복종하는 민주정신이 가장 요구 됩니다.

다음은 權益保護와 權利増進입니다. 현제의 건축사는 갈 곳이 없는 고도의 방랑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와 권세가 있는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허약하고 법적 사회적 뒷받침이 없는 직업도 없을 것입니다. 권리는 거의 전무하고 책임은 무한대인 건축사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조형 창작의 예술인, 존경받는 건축사상 정립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되겠고 법적 뒷받침을 받아 우리에게 고무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미천한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는동안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협회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 활성화된 충남지부로 계속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본적 대전시(1937년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
- 대전 초급대학강사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예충충남지부장, 도정자문위원, 목원대학강사
- 뉴 대전로타리클럽회장, 충남문화상심사위원
- 충남 도정 심사위원

全北支部長
全 炯 直



1984년 11월29일 제19회 정기총회에서 불초 본인이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부장직을 다시 맡게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현시점에서 생각하여 볼 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의 향상에 주력할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신분의 보장도 없는 무기력한 지위에서 오직 무거운 책임만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우리의 현실을 하루속히 탈피하여야만 우리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할 때여야만 바로소 창작의욕이 대동할 것이고 위대한 예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내일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회원스스로의 자질향상 등 숭한 연구과제를 안고 있으며 건축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꾸준한 홍보와 연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구한 미래를 식시하고 현실의 적은 이익에는 초연할 수 있는 관용과 꾸준한 인내와 회원간의 오붓한 화합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긍지와 자부심을가지고 협회의 발전에 헌신할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우리 대한건축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축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 본적 : 전북 (46년생)
- 광주서문전문대건축과졸
- 동서건축설계사무소 대표
- 전북라이온스클럽재무이사
- 전북반공연맹운영위원
- 전북태권도협회 이사

全南支部長
趙 春 元



시도지부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본인에게 제13대 지부장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 송구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부장의 중책을 맡고보니 여러가지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마는 회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협회를 운영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는 물론, 기반없는 충고를 바라면서 본인의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가지고 협회를 운영할 계획을 다짐하면서 지부장 취임에 즈음한 소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부산하 전체회원의 협동단결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회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셋째로 회원의 자질향상에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째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과 지부임직원 일동은 전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이는 결코 지부장이나 임직원만의 힘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 전남지부 130여 회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협력해야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이에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본적 전남(1938년생)
- 전남대 건축공학과 졸
- 대원건축연구소 개설
- 전남지부간사대의원, 간사, 대의원
- 광주시도시계획위원
- 전남지부대의원
- 광주시건축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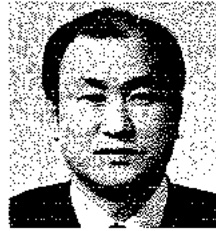
慶北 支部長
金 永 吉



본인은 지난 11월27일 본협회 경북 지부 제19회 정기총회에서 경북 지부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지방 건축사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키 위하여 주어진 건축사 본래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경북 지부회원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최초 경북지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향상과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회의 성원하에 회원 상호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헌신봉사하겠습니다.

- 본직 경북(1940년생)
- 한양대학교건축공학과 졸
- 포항시청도시계획과
- 건축사면허취득
- 신도시건축연구소 개설
- 포항 종합건축설계사무소

慶南 支部長
金 正 洙



지난 20년은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리 건축사의 활동 역시 20년 전 협회창설 이후로 성장발전된 것도 사실이며 그 속에는 많은 선배들의 정열과 고통이 있었고 이것이 오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그렇듯 아쉬운 점 없지 않습니다.

건축사는 일반직업인과는 그 개념이 달라 造形創作芸術人으로서의 긍지가 드높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기에 비추어 오늘날 외부의 認識度는 어떠하며 우리자신들은 마땅한 위치를 스스로 지켜줄 수 있었던가를 새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을 통해 익혀온 창작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단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을 언제까지나 덮어져 있도록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의 조직을 더욱 굳건히 다져서 사회로부터 당연한 우대를 받는 건축사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하겠고 더불어 안정된 복지증진의 기반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와 지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모든 건축사로 하여금 “建築士”로서의 이름을 자랑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직 경남(1941년생)
-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
- 김정수건축설계사무소 개설
- 제9대 및 제10대 경남지부장
- 도정자문위원,
도정화주진협의회사무국장
- 새한건축설계사무소 소장(현)
- 국민훈장장려상 수상(1982. 12. 17)

濟州道支部長
梁 昌 完



협회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힘쓰고 있는 때에 지부장으로 선출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부발전을 위해 그동안 선배 회원님의 쌓아올린 공적을 잘 지키고 모자란 점은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 보겠습니다.

10여년간 지부 간사로 일해온 경험을 토대로 모든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회원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인화 단결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회원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에 힘쓰고 향토 건축문화 발전에 회원의 힘을 모으겠으며 협회와 시,도, 군건축관계관과의 유대 강화로 건축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건축상담이나 전시회 매스컴을 통한 건축상담 및 계몽등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부장은 회원의 심부름꾼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조그만 일도 소홀함이 없이 차근차근 하나씩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본직 : 제주도(1944년생)
- 한양대학교 공대 건축과 졸업
- 동남건축설계사무소 대표
- 제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제주도 농구협회 부회장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

특유의 空間演出을 위한 장식소품

趙 聖 烈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현대건축이 다분히 매카니즘에 의존되어 차고 딱딱해진 후 인간적인 환경의 추구는 현대건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인간 생활공간의 의미로서 건축은 그 자체기능의 완전함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곳에는 정서와 조화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가족 한 개인의 생활공간은 고유의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대 생활의 미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할 수 있는 소재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쉽게 흐르는 유행에의 편승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둔감해져 있는 경향이 진하다.

주택의 공간에 배치되는 장식물은 정적인 전시물과 동적인 전시물로 분류된다. 정적 전시물은 부착되거나 놓여지는 것을 말하며 동적 전시물이란 공간 속에서 위치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들을 말한다.

건축이 전시공간의 성격을 가질 때 거기에 배치되는 가재도구라든지 장식품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인간이 다 같이 실내공간과 옥외공간에서 전시물로 부각된다. 실내에 배치되는 모든 전시물은 인간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윤택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이다. 건축의 옥내와 옥

외에 전시되는 기능에 치중한 것과 그림, 조각과 같은 순수 장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걸작 공예에 속하는 가구와 골동품적 가치가 있는 도기등은 감상품으로 진열하게 된다.

실내 장식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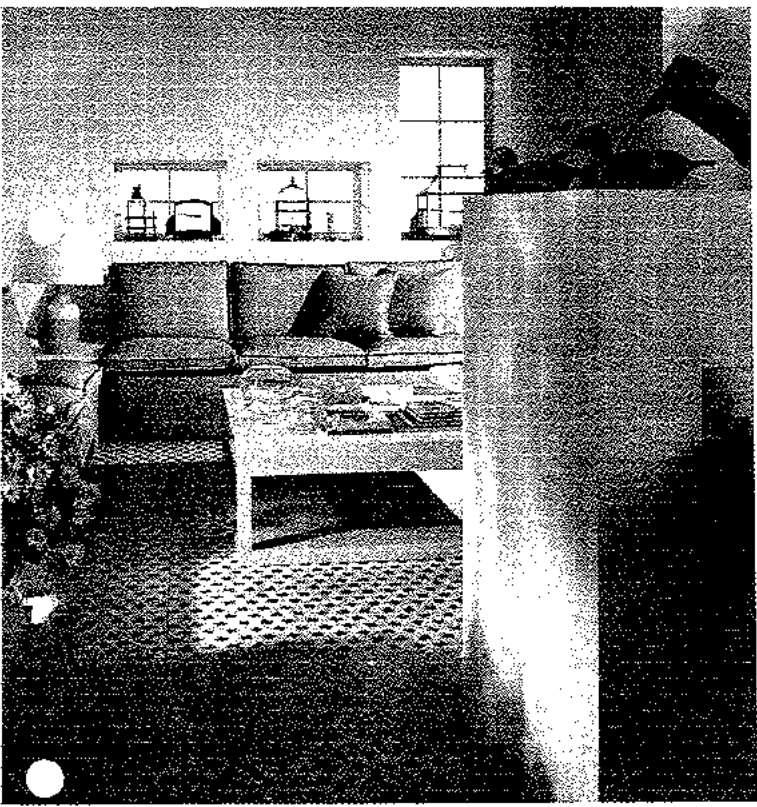
첫째,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장식품,

둘째, 감상위주의 장식품, 세째, 기념물적 장식품이다.

전통목기, 칠기등 장식가구와 도자기, 화병, 재떨이 등의 용기류, 그리고 도구류 등은 실용성을 겸비하는 장식품이며 회화, 조각, 서예, 골동품, 벽걸이 등 작품성이 강한 작품은 감상위주의 장식품에 속한다. 기념물적 장식품으로는 트로피, 상패, 메달, 뱃지, 패넌트 등이 있다. 이외에도 특별한 취미로 모은 수집품은 개성을 나타내 주는 실내장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일상용품이 장식품으로 진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내공간을 한 무대로 보고 인간생활과 관련을 갖는 모든 것들을 전시 대상으로 간주하여 하나 하나에 충실하고 전체의 흐름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흔히 허전한 곳에 무엇인가 걸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림을 찾



는다.

그러나 완성된 실내에서 진열할 장식품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실내 계획단계에서 장식품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훌륭한 작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내의 중심, 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이 제대로 진열되도록 벽의 형성이라든가, 조명계획, 그리고 다른 실내구성 요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실내의 그림진열 방향은 작품을 살리며 그것으로 해서 실내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은 장식이 없는 단순하고 깨끗한 벽에 진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림의 배경을 이루는 벽은 흰색, 백미색, 베이지색, 쥐색, 검정등 무채색 계열로 마감된 것이 좋다.

그림은 한 실내에서 선정된 벽에 걸어야 한다. 복도 끝으로 마주 보이는 벽, 파이어 플레이스가 위치한 벽의 윗부분, 침대머리의 윗벽, 응접세트의 자가 놓이는 맞은편 벽, 현관의 신발장 윗벽, 한 실내의 입구에서 마주 보이는 벽들에 단독으로 걸린 작품은 훨씬 돋보인다. 그림은 밝은 곳에 진열하여 그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조명의 경우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반사광선은 최초로 감소시켜

야하며 자연채광의 효과는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림 진열효과에는 조명에 의해 많이 달라지므로 자연채광이 없는 시간에는 집중조명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직사광선은 그림에 손상을 주기쉬우므로 강한광선의 차단을 위해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생활 환경을 정서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조각작품 배치는 도시공간, 옥외공간, 옥내공간에 전시되는 세 양상을 볼 수 있다.

도시공간에 세워지는 조각작품은 다분히 공공성을 띠게되며 도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게된다. 광장, 공원, 기념공간, 산책로, 가로등 도시계획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에 배치된다.

옥외공간에 세워지는 조각작품은 대지의 초입부, 정원부분, 산책로, 옥탑동에 배치된다.

옥내에 놓여지는 조각작품은 건축내부의 공유부분인 주 출입구, 로비라운지, 인테리어 플라자, 레스토랑 등에 세워진다.

주택의 실내공간에 전시되는 조각작품은 비교적 작고 온전한 질감의 것을 택하여 실내에 정감이 흐르게 한다.

실내 연출의 실질적인 소재가 되는 공예품의 진열은 실내기본 배치를 중심으로 실내에서의 기능, 용도계획,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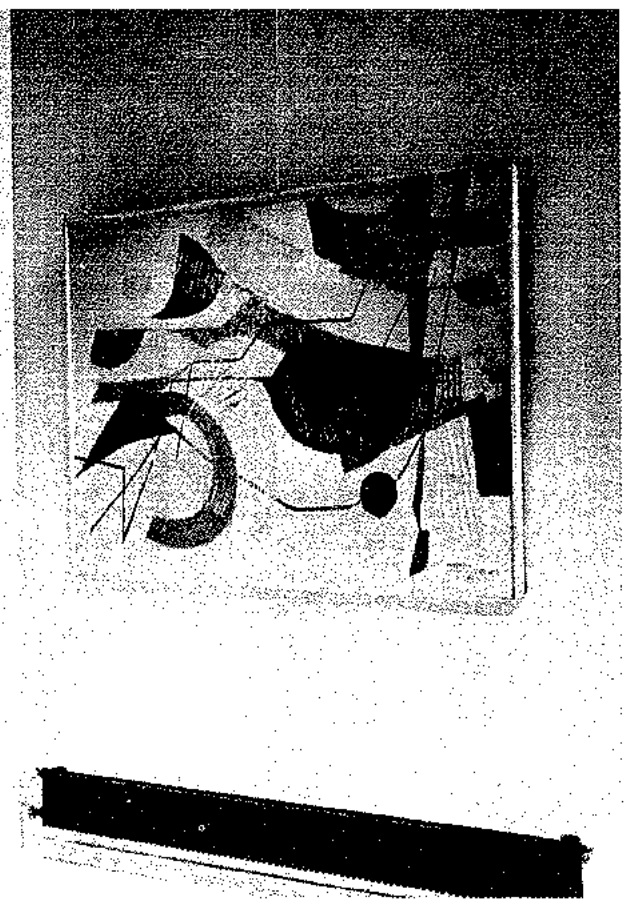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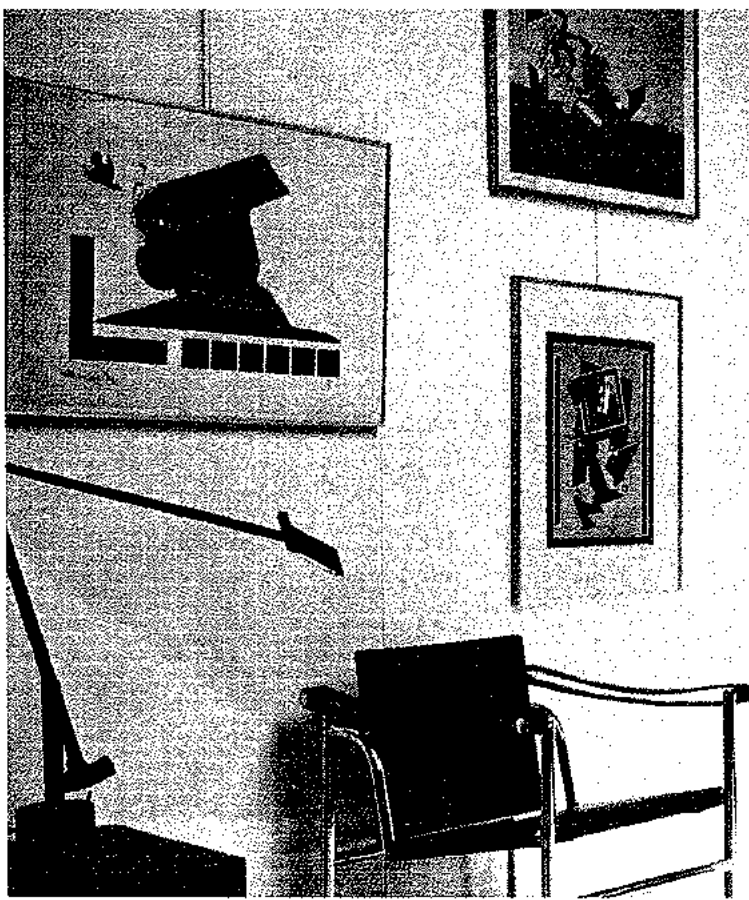
체 실내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공예가구를 진열할 경우, 공예품과 실내 이미지를 생각하여 가구의 종류와 크기를 실내규모에 맞추어야 하고 재질과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실내 장식용 공예품으로 타피스트리는 실용성보다는 감상중심의 장식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현대 타피스트리는 대형 건축물에서 전체 실내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거대한 극장의 무대막, 대형건물의 높은벽을 장식벽화하는 계획에서 타피스트리가 중요한 소재로서 이용되고 있다.

현대 타피스트리는 예술가들에 의해 주제나 소재를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타피스트리가 단순히 벽장식을 위한 직물이라는 평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입체적 직조예술을 창조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소프트 스컬프처(Soft Sculpture)의 형태로서 실내공간을 보다 입체감 있게 장식한다. 타피스트리의 특징은 섬유질의 부드럽고 유연한 질감을 살린 조직의 다양한 연속에 있다고 하겠다.

직물공예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타피스트리 작품은 다양한 형태미와 공간미를 창조해 냄으로써 실내연출이 소재가 되고 있다.



벽에 거는 염색작품은 감상위주의 순수공예품에 속하는 실내장식품이다. 염색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자기 입은 옷에 그림을 그리고 물을 들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차차 발전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실내상식물로서 염색공예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염색공예에는 기계날염과, 수공예적인 염색 방법이 있는데 실내상식물로서 염색은 수공예에 속하는 남염(Batik), 홀차기염(Tie-Dye), 풀염 등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회화적인 작품이 효과적으로 쓰인다.

특히 남염 작품은 천에 은은히 배어난 색상의 아름다움과 미묘한 조화 다른 작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균열(Crack) 기법의 효과로 장식적 가치가 높다.

현대의 실내공간에 사실주의 그림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은 조형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때문이다.

실내 이미지가 감각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데 장식소품의 분위기가 북고풍이라면 아질감을 갖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염색 작품은 실내의 장식품으로 그리 흔하게 선택되는 소재는 아니지만, 특별한 분위기를 내주는 장식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재인 것이다.

실내의 장식품으로 직물 공예품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타피스트리, 염색 작품 등의 수공예적인 공예품 외에도 기계적인 날염(PRINTING) 직물이 작품화되어 많이 쓰이고 있다.

프린트된 직물은 주로 창막, 스크린, 벽걸이 등으로 흔히 쓰여지고 있다. 한쪽 또는 두쪽으로 늘어뜨릴 수 있는 인쇄된 천을 구입하여 간단한 끝마감 처리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소재이다.

현대 실내공간의 장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포스터를 빼놓을 수 없다. 포스터는 보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명쾌한 그림이다. 또한 포스터는 복제품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식물이다. 포스터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미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포스터가 보존과 수집, 전시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포스터의 장식적 가치는 포스터가 담고 있는 뚜렷한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래픽 아트의 독특한 멋에 있다고 하겠다. 포스터 내용은 이념적인 것이든 시사적인 것이든 저의가 인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포스터는 작품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심층을 파고드는 호소력과 큰 감동을 주며 오래

두고 음미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간결한 표현, 선명한 내용, 화려한 색감, 대담한 구성, 다양한 기법등이 그래픽 디자인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이다. 그래픽 디자인은 복제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복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하게 된다.

그래픽은 현대 실내공간에서 효과적인 장식품으로 가치가 높은 소재이다.

건축공간은 넓은 의미의 전시공간이다. 장식품이 건축공간에 전시되는 일은 건축 전, 계획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고 건축후의 보완조치로 되기도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건축공간은 전시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은 그 정도가 다르긴해도 전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틀리에 같은 집, 갤러리 같은 로비, 전시장 같은 실내가 좋은 이미지를 전하는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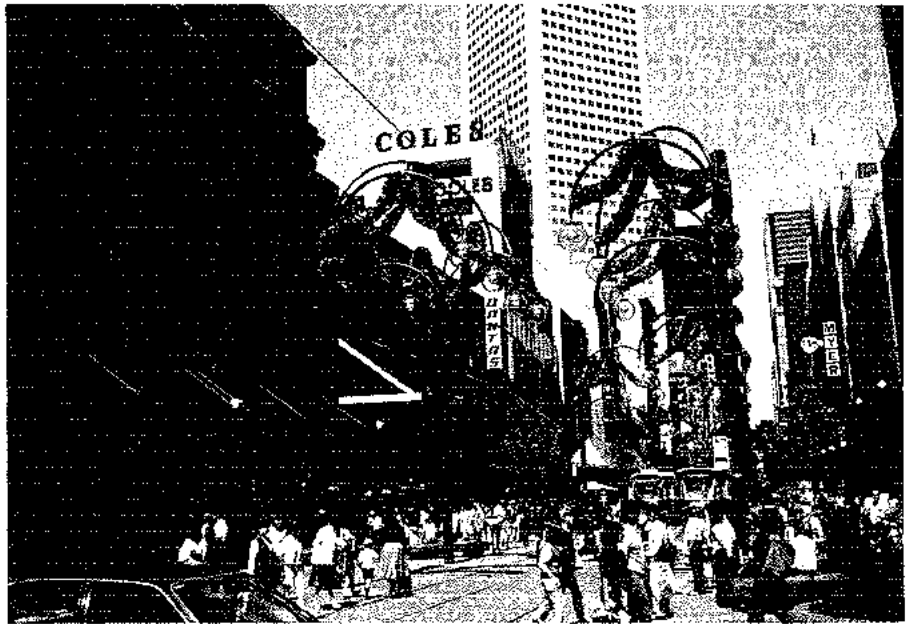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인의 생활패턴은 점차 자신의 생활감정마저 잊게하는 삭막함을 준다. 한 점의 소품이 자신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정감있게 연출한다. 특유의 연출은 복잡한 계획의 수반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화병이 어디에 놓여있는가하는 주위환경에 대한 적은 관심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外部環境의 設計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学 造景学科



호주 멜본의 Burke Mall

모든 물체는 속과 겉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들의 편리와 안락함을 주기 위한 인공환경에도 속과 겉에 해당되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있다. 이러한 내부공간은 한정적이고 정적인 반면, 외부공간은 무한하며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시켜주는 면이 있다. 내부공간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어떤 특정된 구성재료와 장치로서 어떤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 어떠한 기능을 갖추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반면, 외부공간은 내부적인 인공환경과 인공환경 혹은 자연환경과의 일련의 연속된 공간체계를 만들어주며 인간생활을 영위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외부공간 중에서 인위적으로 하나의 공간체계를 형성하는 외부환경을 주거생활 공간에서부터 공공 개개의 건물이나 건물군에서 창조되는 도시민의 생활공간까지 외부환경의 계획·설계와 구성재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학적인 측면에서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설계 지침을 만들어 보려 한다.

1. 외부환경의 설계

외부환경의 설계 다시 말하면 조정설계란 단지계획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계획의 연장이다. 이것은 설계 요소들과 건설 재료와 식물 재료들의 선택과 단지계획내에서 한정되어진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합적인 선택과 관련이 있다. 단지계획은 토지이용과 동선등을 다루는 반면, 세부적인 조정설계란 외부공간에서 높

이가 서로 다른 곳을 해결시켜 주기 위한 바닥 표면 처리 즉 계단이나 경사로의 설치, 축의 명확성과 이질적인 설계 요소들에 대한 端의 처리, 이용에 따른 바닥 표면 포장, 바닥 표면 처리와 관련하여 생태적인 상황을 고려한 표면 배수 처리와 건설되어지고 植栽되어지기 전에 만들어 질 수 있는 모든 결정적인 요소들을 다룬다.

이러한 외부환경에 계획되어진 것은 모두 그 주위 인간환경에 영향을 준다. 새로운 물리적인 계획의 적용은 부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위 환경에 대해 호응이나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계획과 설계는 합리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상력이 있어야 한다. 성패에 대한 기준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요소에 가장 잘 적용되어 지도록 어떤 기능이나 현재 혹은 미래에 기대되어지는 복합적인 기능을 만족시키도록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 환경에 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2. 외부환경의 시각적인 관계

인간은 호감이 가는 환경이면 좋아한다고 표현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란 모든 환경요소를 사이에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기능적인 아름다움이란 기능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보



호주 일본의 Burke Mall 의 도시민의 생활

가에 좋고, 편리하다거나 운영하기 좋다는 것으로 아름다움은 표현되며, 이것은 동시에 어떤 통일된 일치를 보였을 때 아름답다고 한다.

재료의 기술적인 사항이나 치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능적인 것에 덧붙여서, 조경설계는 시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설계가는 촉감과 다른 감각적인 질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경험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색·질감·端의 처리 등과 인간의 인식 능력을 파악하여 시각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조경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인간 주위의 대규모의 인공 환경으로 부터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이적인 요소를 창조하는 일이다. 전이적인 요소란 시각적인 관계에서 인공환경을 조성하는 물체 간에 상대적인 크기에 관련되어지는 촉각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서울 「타워」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의 도시 경관은 일반적으로 건물 상호간에 혹은 건물과 도시 녹지 체계간에 쾌적한 시각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부 고속도로를 들어오면서, 혹은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혹은 잠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 위압적인 경험을 도시민은 하게된다. 이것은 개인 주택이나 자연환경이 지배되는 곳에서는 덜 느껴지는 것이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가로등, 벤치와 공중전화

「박스」등 여러가지 가로 시설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樹木이다. 기후를 조절하거나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아름다움을 도시민에게 주는 수목은 한 그루 자체로 만 곳에서 보면 비교적 큰 요소처럼 보이지만, 장대한 도시 건물에 비하면 작고 또 가까이 관찰해 보면 가지·잎사귀와 꽃 등으로 연결된 것을 나누어 보면 유일하게 시각적인 전이요소에 유일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외부환경의 형태

A.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조경계획이나 단지계획에 있어서와 같이 조경설계의 형태나 모양은 계획하려는 부지의 제약요소나 부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색과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백한 정의로부터 기인된다.

형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부지의 경계선과 지형에 따른 제한적인 요소이다. 형태는 부지 이외의 외부적인 요소들 특히 기후, 전망, 이웃하고 있는 건물들과 토지이용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대지를 일부 변경하고 다뤄야 한다. 그것은 외부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내부의 端으로서 단지계획의 내용들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지형에 따라 제한적인 형태가 계획되겠지만 큰 체계 안에서 단지계획에 따라 물리적인 계획들을 위치시키고, 연결되어 질 계획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공간과 지역

들을 설계하여야만 한다.

설계에 있어 형태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계획에 수반되는 이용과 기능의 평가로부터 나온다. 계획의 요구 사항들은 연구를 통해서만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조용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설계하자면 의자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앉는 다는 것에 대한 분석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것들을 정의하고 관찰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의자 또는 벤치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앉고자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로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자 없이도 앉는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계단과 분수나 화단의 端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또 모든 연령 층에게 앉는 장소로서 제공될 수 있다.

기능과 함께 영향을 주는 것은 동선이다. 공원이나 학교들의 배치에서 각 용도지역들은 사실상 동선체계에서 결정되게 된다. 동선은 다른 장소와 시설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외에도 각 지역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한정하여 분리하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준다. 차량동선이나 보행동선은 모두 움직인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다양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친근감과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동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직선형의 동선에서는 일련의 시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계획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환경의 설계에 있어 보행인의 움직임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 점에 있어 18세기의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보행로의 설계는 장소성과 동일성, 변화성과 신비감, 그리고 圍繞됨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 동선의 폭과 바닥 표면은 어떤 시간에 특수한 통행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를 예측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형태를 결정짓는 다른 방법은 재료를 통해서이다. 예를 들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잔디는 가변성이 있는 재료이다. 즉 어떠한 틀에 넣어야 만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다. 콘크리트의 경우 표면은 균일하나 신축이음은 설계의 패턴을 제공한다. 반대로 벽돌과 포장 블록은 고정된 단위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단위 형태들은 큰 암석층으로 부터 채취하여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는 가공석과는 다르다. 벽돌이나 포장 블록은 한개의 단위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한 포장의 외곽선은 직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곡선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재료 한 개씩을 뒤로 밀어 사용하고서 잔디나 식물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환경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나 혹은 개인적인 공간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욕구와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20세기의 조경 설계가였던 미국의 「토마스 처취(Thomas Church)」는 위의 모든 요소들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욕구에 대한 사소한 만족을 벗어나서 순수예술의 영역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적인 표현의 관점으로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형태의 역사적 고찰

외부환경의 형태는 인간의 안식처인 戶外室로서 정원에서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정원의 역사를 볼 때 그 범위는 가정의 작은 뜰에서 궁궐의 구원을 비롯하여 하천 정비, 도로변의 修景등 인공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서양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정원의 의미는 유사한 것 같다. 서양의 정원(Garden)은 「히브리」語의 Gan 즉 울타리, 즉 폐쇄의 뜻을 함축한 방어나 혹은 보호로서의 의미와 Oden 또는 Eden, 즉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정원의 의미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폐쇄되어진 구획된 땅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庭園의 의미는 庭은 원래 宮中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후세에 와서 건물 앞의 뜰을 가르키는 말로 쓰였다고 하며, 園은 과일나무나 채소를 심어 가꾸는 자리로서 울타리에 의해 둘러싸인 곳이라 하였다.



호주 일본의 주택 정원

그러나 園의 규모가 커져 숲이나 연못이 꾸며지고, 禽獸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담장에 의해 한계가 지어지는 경우 이것은 園 또는 苑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윤국병 선생님은 庭苑이 타당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정원의 개념은 신화에서 시작되어 진것 같고, 그것의 배치나 조직은 고대의 경작이나 관개시설로부터 기인한 것 같다. 관개시설은 수로나 연못을 만들어 더운 기후에서는 물의 감흥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는 요소로서 사용하였다. 정원은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붙여 넣었으며, 초기 문명은 올리브나무·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특정한 나무에 특별한 의미나 중요성을 주게 되었다. 기아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때에는 인간에게 가장 오래사는 것으로 알려진 수목들이 그들이 나타내는 비옥·생명과 자양물로 인해 숭배되어 졌다.

서양 조경사에 있어 「더렉 클리포드(Derek Clifford)」는 그의 「정원의 역사」에서 정원의 형태는 르네상스 이후 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상업에 기반을 둔 질서 있는 정치체계에서 문예부흥이 일어났던 이태리에서 정원은 건축적인 伸張에 의해 강하게 연결되어져야 하고, 조망을 위해 언덕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테라스나 계단을 이용하여 평탄하지 못한 대지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길과 축은 설계의 모든 요소와 공간에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태리의 노단식 건축양식(Terrace-dominant Architectural Style)은 전체

적인 형태를 축으로 구성되어 회양목이나 관목으로 線型으로 배열하였고, 연못이나 분수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감흥을 제공하였다. 특기할 것은 주택과 정원은 한 단위 즉 하나의 과정으로 계획되었고, 출입구로 부터 언덕에 위치한 주택까지 올라오면서 방문객에게 동적이고 감흥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

17세기 정형식 양식이 발생된 불란서는 강한 축의 배열·대칭과 기하학적인 균형으로 그 당시의 富와 전체 정치 체계와 확고한 사회구조 및 인간이 자연보다 우세하다는 진화개념을 반영하였다. 정원은 축과 축의 연결에 의해 스타(star) 패턴과 같은 형태가 이용되어, 도시형태에 있어서도 방사선의 도로가 이용되게 되었다.

정치형태가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영국에서 자연 풍경식 정원 양식은 낭만주의 운동과 더불어 조망과 전망을 고려한 보행로를 통해 시각적인 감흥으로 완전한 경험을 하게 하였으며, 시각적인 단절을 제거시키는 기법들이 중요시 되었다.

그 후 예술과 건축의 발달 그리고 정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야만 하고 주택으로 부터 어느 각도로 보여졌을 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체파에 근거를 둔 이론을 전개하였다. 형태와 선과 모양의 단순함이 보기에도 더욱 휴식적이고, 유지·관리에도 더욱 쉽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기법, 기능적인 건축, 현대 운동은 조경 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브라질의 「벌 막스(Burle Marx)」는 현대 회화와 식물학에 기초를 둔 설계 접근을 발달시켰다.

CAD를 활용한 建築設計

『建築의 컴퓨터 応用』XIV.

曹 鐵 鎬

건축사 · 建國大교수

4. 設計手法과 CAD技術

지금까지 CAD/CAM기술은 지원 시스템으로서 사람이 행하는 설계·제조기술은, 반드시 종래 행해져 온 것을 답습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에 관하여 사람측의 작업이 CAD의 출현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설계로는, 말하자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情報的으로 創成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創成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표현법의 결정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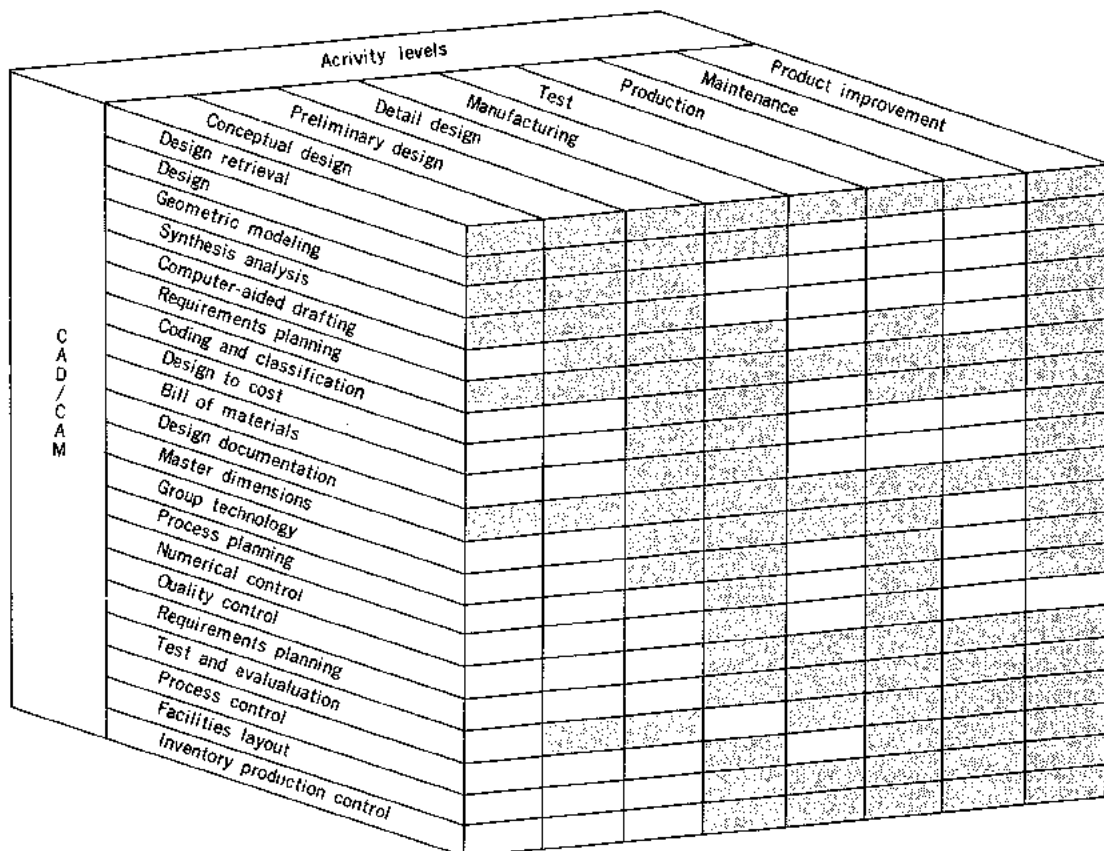
계프로세스 전체에 관계 있다.

한편, 표현법은 이용할 수 있는 표현수단에 제약된다. 종래는 이용가능한 대부분 유일의 표현수법이, 종이와 연필(또는 이것과 같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표현법으로서는 3차원물체의 표현을 2차원의 圖面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投影手法을 사용한 제도법이라는 특수한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에 수반해서 전체의 설계수법이 도면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제산기의 출현은 종이와 연필이상

의 강력한 표현수단을 제공하고, 이것에 의해 설계방식을 기본에 있어 변하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2次元情報를 주체로 한 지금까지의 CAD기술은, 도면을 중심으로 했으나, 종래에서, 이미 확립한 설계기법에 충실히 따른 것이고, 이 의미에서는 컴퓨터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CAD시스템 개발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에 대하여, 3차원 정보를 주체로 하는 지금까지의 CAD시스템은, 기본이 되는 대상의 표현방법이 종래와



『그림 - 4』 CAD/CAM 適用 例

다르기 때문에, 설계방법에 대폭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발전할뿐 아니라, 실은 장래의 설계방식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된다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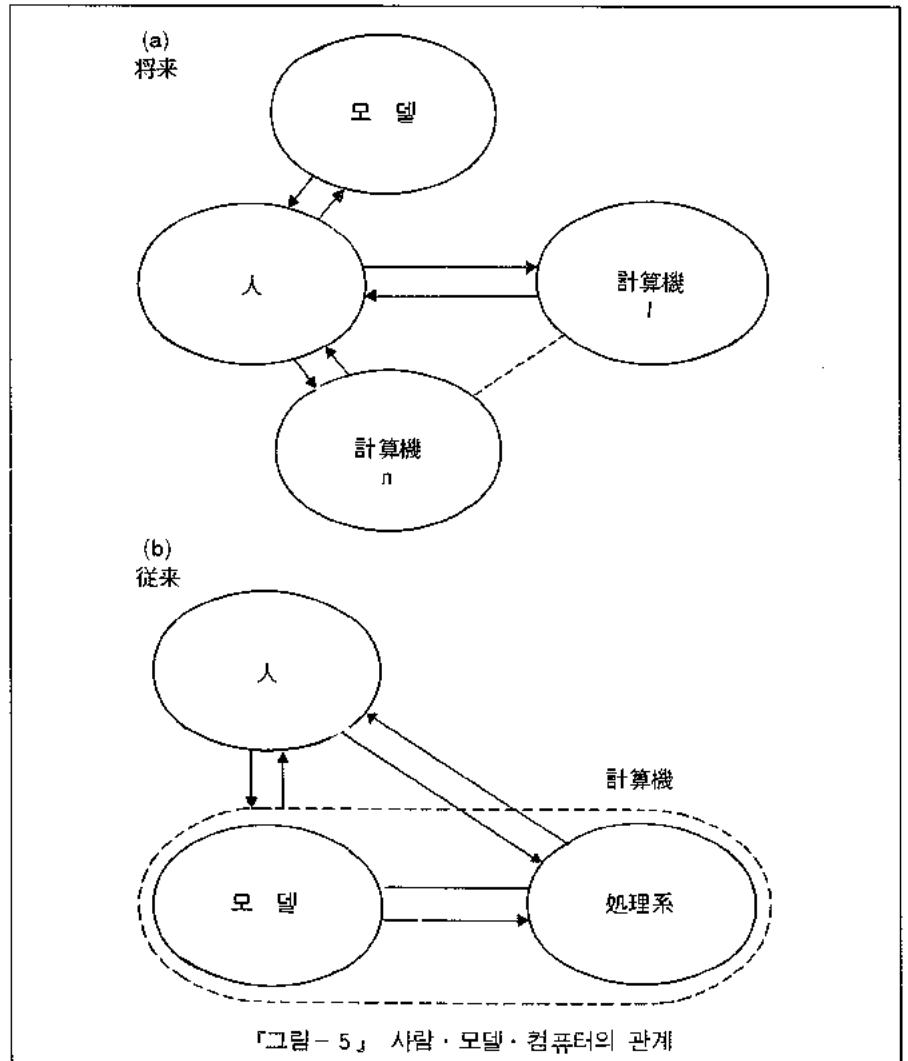
5. Man Machine 시스템

설계지원시스템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위의 새로운 설계방식의 것이고, 사람의 작업을, 설계의 전프로세스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와 같은 시스템은 실현하는 조건은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제1로 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위의 목적을 위해, 설계지원시스템은 사람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게 하는 man-machine 시스템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복잡한 대상의 설계프로세스에는, 대단히 다양한 작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미 기술했지만, 그 일례를 그림-4에 표시했다. 이것도, 항공기 설계의 경우 예이지만, 그림의 앞부터 전방으로 설계프로세스가 진행하는데 따라 행해져야 할 작업이 가려져지고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작업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man-machine 시스템으로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작업내용마다 타와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의 순서를 정의하는 듯한 방법은, 불적절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것들의 다양한 작업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사람과 CAD 시스템등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로는, 대상의 모델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모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글에서는 〈시방이 주어져서 그것은 만족시키는 대상을 설계할 때, 설계에 상반하는 해석·평가·변환등, 처리하려고 하는 면에 관해서의 전체의 정보와 그 위에 가능한 한 그것만을 포함하도록 추상화되어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이다.〉이라고 정의한다. 좀더 구체화하면, 대상의 기하학적 형상과 구조의 표현은, 대상의 성능과 구조 강도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모델의 일부가 된다. 形状表現 외에, 예를 들면 강도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재료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는, 앞서 주어진 형상정보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 성질의 사항은 아니니까, 이것도 모델의 일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모델로는 이 처리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위에 필요한情報群으로 이루어지고, 종래, 필요한 정보가 확실히 꺼낼 수 있도록 조직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은 도면 기타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었다. 이렇다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라도, 사람이 모델에서 관련정보를 추출해서 그것을 컴퓨터용의 언어로 표현할 뿐 아니라, 사람의 작업이 번잡하게 된다. 2차원의 CAD에 한계가 생기는 원인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그림-5 (a)참조)

사람과 CAD 시스템 등이, 설계의 전프로세스에 있어서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은, 사람과 모델과 컴퓨터의 관계를 그림-5 (b)와 같이 할 것, 즉, 컴퓨터내에 모델

을 구축하고, 사람과 각종의 처리프로세스가 공통으로 이 모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설계프로세스의 중에서 필요로 되는 정보로서, 정의했지만, 이것은 컴퓨터내에 구축한다라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기술에 의해 상기 모델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용어를 사용하면 “모델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라는 것이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다수이용자가 共有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된 데이터群〉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의 대개는, 적용 대상으로, 주로 비즈니스분야의 데이터를 상정해서 설계되었다. 그 때문에 이런 現用 DBMS 는 비즈니스용 데이터 및 그 처리에 고유의 성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들의 성질은 특히

(표 1) Engineering data-base와 Business data-base

Engineering data-base	一般의 data-base
○기술된 항목이 다양하다.	○기술된 항목이 균질로 미리 정의되어 있다.
○설계변경이 빈번하고, 관계가 대폭 변경된다.	○큰 변경이 드물다.
○논리적인 모순된 data의 검출이 곤란하다.	○data의 error, check는 비교적 용이하다.
○이용자는 기술자인 경우가 많다.	○이용자는 사무계통의 사람이 많다.
○data入力の 방법과 언어가 복잡하게 된다.	○간단한 入力언어가 사용된다.
○설계단계에 따라 data 관계가 動的으로 변화한다.	○data의 변경이 적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이다.

엔지니어링용의 데이터 즉 전기 모델이 가져야할 성질과 대단히 다르다. 그 이유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로서의 기본정의는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비즈니스용의 데이터 베이스와 엔지니어링용의 데이터 베이스는, 반드시 동일 DBMS의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 의미를 포함해서 후자를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CAD/CAM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델 構築의 결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된다.

7. 모델링 시스템으로의 요구

CAD/CAM을 위시하여 기술분야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汎用 모델로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조급히 확립하고 그 때문에 범용 관리시스템을 조급히 실현하는 것은 금후의 CAD/CAM 시스템 개발을 위해 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개념은 아직 충분히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계라는 자체의 성질에 의거, 모델링 시스템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가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表現能力

모델에는 각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조기술과 속성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構造記述은 대상의 형상과 구조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고, 종래의 도면은 이 표현법의 하나이었던다.

장래에 3차원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속성은 앞에서 기술한 部品재료와 같이 構造記述에는 들어오지 않는 정보이다.

설계의 목적은 후의 단계에서 기계적 가공수단과 조립수단을 사용해서 정보로서 실현된 대상을 물체라는 實體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은 대상을 정의해서 그 모델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 性能評價와 構造解析 등의 처리가 모델내의 정보를 사용해서 대상이 갖는 각각의 면(성능, 강도 등)에 관한 성질을 유도하는 처리, 즉, 모델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의 표현에서 각각의 평가치로 변환조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처리체계를 보면 가공도 모델내의 표현을 가공정보로 변환하는 조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도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는 다른 변환처리이다.

가공을 위한 변환조작은 주로 모델내의 형상·구조정보에 의해 결정되므로 형상·구조표현을 창성하는 것이 설계의 주목적이다. 단 그 구조는 소요성질(성능, 강도 등)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소요성질이 주어지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합성(신세시스)한다. 한편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갖는 성능을 구하는 것이 解析(analysis)이다.

종래 공학연구의 주류는 해석수법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서 여러가지 해석수법이 나왔지만 그것들은 프로그램 패키지로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합성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인 연구가 그다지 되어있지 않고 사람에게 맡겨지고 있었다. 장래 CAD/CAM을 고려하여 이 부분의 자동화는 큰

과제이다.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그 때문에 언어가 필요하다. 이것을 모델구축언어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 記述言語라고 부르고 있다. 모델의 표현력은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개념으로서 정의 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이 갖는 구조표현력에 관계있다.

(2) 柔軟性(動的構造變化特性)

대상구조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이 설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델의 구조표현은 그것에 대응하는 동적인 변경에 견딜 만큼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3차원 형상의 記述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연성을 충족시키는 표현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모델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곤란한 점이다.

(3) 다양한 人力形式

모델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에 의해 모델과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종래의 도면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난이해서는 안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과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를 매꿔야 하고 언어, 도형, 특히 화면상 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허용함과 동시에 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입출력방법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데이터 베이스의 統合機能

기술은 끊임없이 경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술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 Know/how 등의 연속성을 항상 갖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설계분야에 처음 CAD를 사용할 경우는 이미 얼마간의 CAD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시스템에 의존하여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 지고 있다. 때로는 설계프로세스내의 각 작업별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가 사용되는 곳도 있고 같은 종류의 작업이라도 다른 종류의 시스템을 여러셋트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다.

CAD/CAM의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기능의 통합화에 의해 발휘된다면 이들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것은 다른 종류 데이터 베이스의 모든 문제로서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maker에 의해 개발된 CAD/CAM 시스템의 互換性이 없는 것이 이미 문제가 되어 이들 사이의 형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표준적인 수법으로서 IGES (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프로젝트가 나와서 1980년 1월에 IGES 1版에 간행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보내는 측에서는 프리 프로세서를 통해 데이터를 IGES 파일이라는 표준형식으로 변환해서, 받는 측에서는 이것을 포스트 프로세서를 통해 자기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변환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IGES는 데이터의 변환 형식을 정한 것이지만 표준 데이터 베이스를 하나 정해서 전체 데이터 베이스와의 사이에 변환순서를 정하는 한편 이것에서 개발되는 처리프로그램은 이 데이터 베이스에 의거 정의하는 방식, 더우기 표준 데이터 베이스가 스

키-마 만으로 이루어진 가상 데이터 베이스로 하는 방식(그림 6)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하는 필연적으로 여러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서 CAD/CAM시스템은 分散型處理 시스템으로 된다.

(5) 데이터 체크

(2)의 유연성에서도 기술했듯이 설계에 있어서는 幾何形狀·구조의 생성이 찾아하는 부분은 크다. 이 때문에 사람이 직접 구조의 조작을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요구에 의해 그것을 충족시키도록 구조를 변화해 간다.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데이터의 투입과 갱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데이터는 모델의 정당성을 잃고 후에 그것을 내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체크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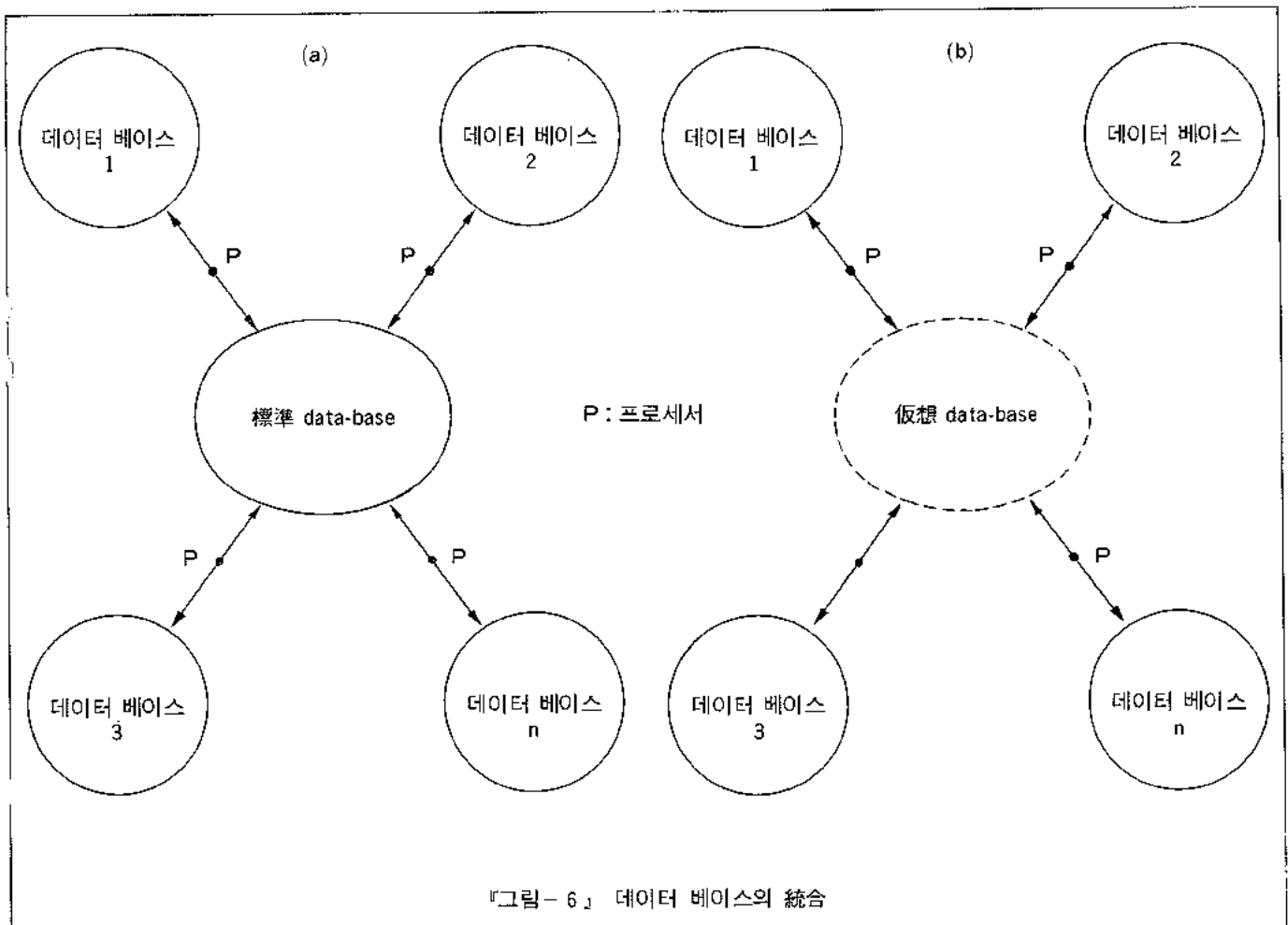
(6) 応答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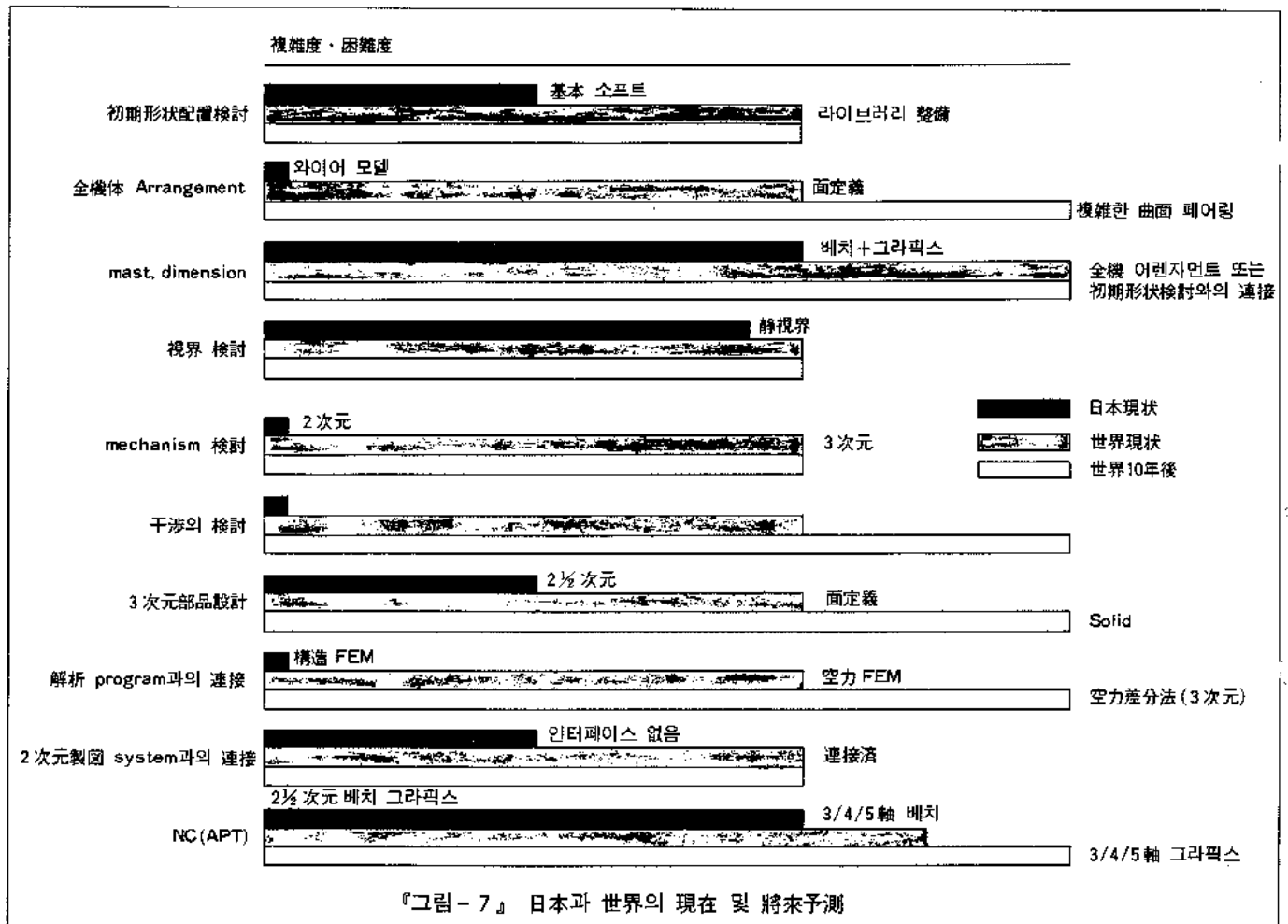
응답속도는 CAD/CAM시스템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베

이스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속도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왔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배려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들의 요구가 심하니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하드웨어의 면에서의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고 또한 가격의 저하를 고려해서 큰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高速化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데이터 베이스 처리를 고속화하는 데이터 베이스·머신과 병렬처리의 Architecture의 도입이 필요하다.

8. 國際的 開發競爭의 現狀

설계지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한국 이상으로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미 국가레벨로 개발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선두를 차지하고 이미 3차원 정보 처리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더욱 선진적인 CAD/CAM 시스템의 개발에 돌입하고 있다.





이 기술개발에 있어 일본에서는 종래의 기술개발과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 종래에는 일본의 기술은 선진국에서 도입해서 그것을 육성하는 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기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기술했듯이 오늘날 미국 및 EC국가는 선진기술의 유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고 특히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종래와 같이 設計支援技術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다행한 것은 설계지원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에 앞선 것이 컴퓨터 기술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레벨에 달해 있고 이를 구사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림 4와 같이 항공기, 설계, 제조프로세스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들은 CAD/CAM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른 기능을 요구한다. 이 그림은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은 항공기라는 특정의 분야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대개의業種에 대해서(정도의 차이는 있음) 마찬가지 이다. 그림 7에는, 형상처리에 대한 일본과 외국(주로 미국)의 현재와 미래의 예상을 표시한 것이다.

9. 컴퓨터 기술과의 관계

설계지원시스템 방식이 그것이 실현하기 위한 모델인 컴퓨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CAD/CAM시스템의 구상을 세울 때는 종래의 컴퓨터 기술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일렉트로닉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높은 기술레벨을 유지해서 그것을 산업에 연결짓고 있다. 그 분야는 금후라도 기간산업으로서 기대되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까지 말할수 있는 사정도 있고, 일렉트로닉스 기술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기술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정확히 예측되어 왔다. 종래의 예측도 정확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금후 10년 정도 가까운 장래는 거의 현상의 예측대로 되리라 생각된다. 이것에 의하면, 컴퓨터 기술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계속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 중 다음 단계의 설계지원시스템 구상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작년도 보고에는 素子·장치 등의 전망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올해는 주로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제5, 3절에서 컴퓨터 기술의 현상과 장래의 전망을 기술한다.

이것들의 상세에 대해서는 본문에 미루지만, 다음 단계의 CAD/CAM을 포함하는 시스템 설계에 금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술을 간단히 나타내고 있다. 그 전에 이들을 가능하게 한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가격 성능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는가를 대표적인 메모리 소자에 관해서 가리키고 있다. (그림 7~9) 이 그림에 나타내고 있듯이, 예를 들어 메모리 가격에 관해서는 과거 10년간 어렵잡아도 이미 비트당 100분의 1로 저하하고 있다. 응용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가능한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중요한 요소인가는, 어떤분야에 있는 것이라도, 컴퓨터 이용자는 불소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메모리 가격이 이와 같이 내폭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 하나를 잡아 보더라도, 응용시스템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가격뿐만 아니고 성능, 신뢰성이 향상하는 등, 소자의 레벨의 영향 외에 이것을 배경으로한 각종 새로운 Architecture를 볼 수 있는 이것들의 응용시스템의 성격을 더욱 기본적인 면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중 다음 단계의 CAD/CAM에 관한 것을 간단히 기술한다.

(1) 高速数值 시뮬레이터

컴퓨터 상에 물리현상이 대용한 모델을 구축해서 수치계산등의 처리를 컴퓨터로 행하고 모델의 평가와 검토를 행하는 수치 시뮬레이션은 종래에서 부터 행하여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치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자원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고 종래의 실제 메모리용량, 처리속도의 범위로서는 취급해서 얻은 문제의 범위가 비교적 소규모 혹은 단순한 것으로 되고 있다. 한편 기술의 진보에 상반해서 설계대상으로 되는 것이 대형화되고 동작도 복잡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실험설비등으로 모형실험을 행하는 것이 기술상, 경제상 곤란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그와 같은 실험방법으로는

원리적인 이유에서 실험결과와 실제와의 대응을 잡을 수 없게 되는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수치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항공우주분야에서도 설계에 있어 많은 실험을 필요로 하지만 風洞實驗 대신 수치 시뮬레이션과 非總型系의 시뮬레이션등, 초고속시뮬레이터로의 기대가 크다. 이같은 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은 톱 레벨에 달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컴퓨터계획이 달성되면 그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우위가 확립될 것이다. 그 성과를 다음 단계의 CAD/CAM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장래의 설계 지원시스템 혹은 그것을 포함하는 개발지원 시스템 기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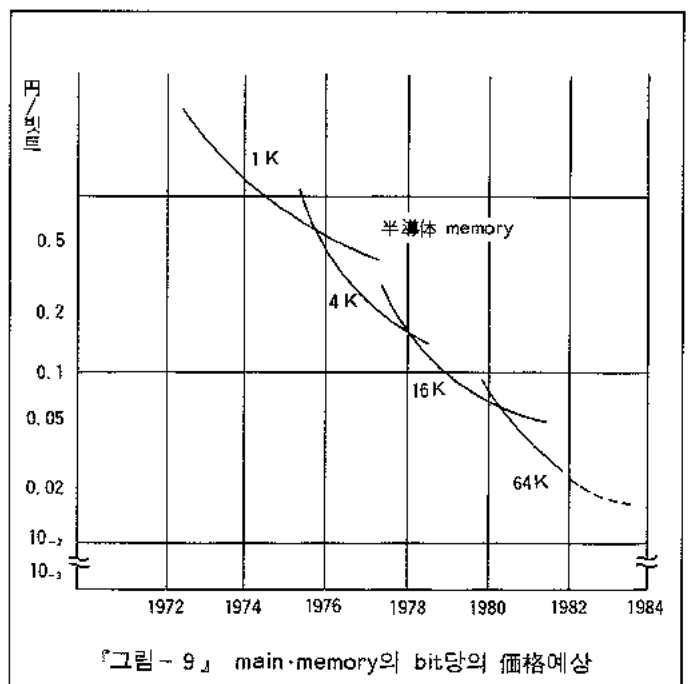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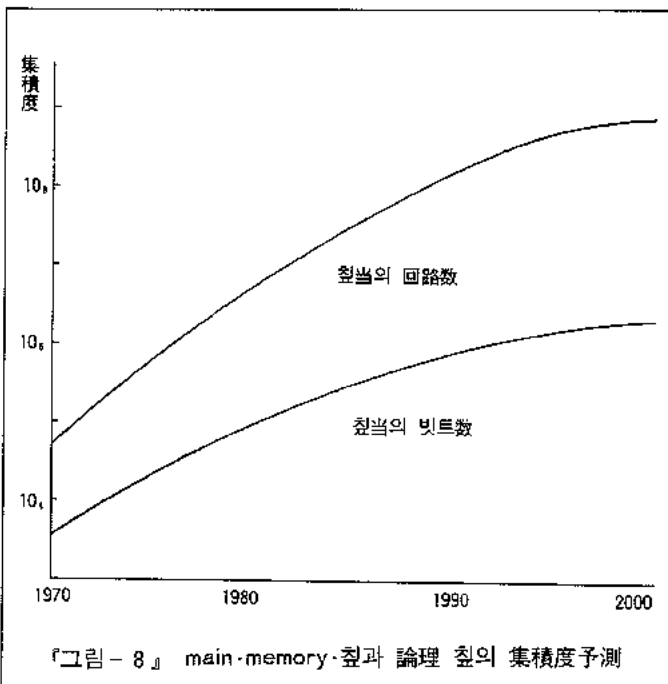
종래 컴퓨터 시스템은 대형 컴퓨터 중심으로 TSS에 의해 그것을 時分割로 사용하는 방식이 主이었다. 최근 컴퓨터·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해 우선 이와같은 대형 컴퓨터끼리를 통신선으로 묶어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더욱 로컬·에리어·네트워크(LAN)의 발달에 의해 컴퓨터 자체의 분산화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장래의 컴퓨터 시스템은 종래 컴퓨터 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정도의 범위를 아바이스 LAN과 LAN끼리 공유의 통신선을 두어 결합되어 구성된

다(그로-발). 네트워크라는 2단 구조의 네트워크·시스템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技術面에서는 광통신 기술의 영향이 크고 電電公社의 INS 구상에 의해 일본전국의 네트워크화가 시작되고 있다. 한편 LA에 관해서도 光화이버의 이용이 이미 실제운전으로 들어간 곳도 있고 급속도로 이같은 경향이 일고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편 네트워크에 수반해서 이용자 측의 영향도 크다. 네트워크와 함께 컴퓨터 자체도 다양해서 특히 소형 컴퓨터의 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현재로는 이용자의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전 소형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형 컴퓨터를 LAN으로 결합한 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의해 각 이용자는 전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전체로서의 능력은 크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분산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생산라인에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를 배치해서 그것을 LAN에 의해 설계분문의 컴퓨터와도 결합해서 총합적인 FA化가 가능하다.

(3) 知的情報処理 시스템

컴퓨터 기술에 질적인 변혁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人工知能技術이 있다. 유별하게 지식정보처리시스템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인간이 지식이라 부르고 있는 종류의 정보에 상



당하고 고도의 표현형식으로 나타낸 정보를 축적해서 그것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서는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의사의 임상지식을 컴퓨터에 주어 그것을 진료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실험시스템을 비롯해서 공학, 화학 등 타분야에서의 유사한 시스템이 실험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처리방식을 汎用의 모델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다음 단계의 컴퓨터 기술 개발의 프로젝트가 82년부터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먼저 시작했다. 이것에 의해 컴퓨터 기술은 약 40년전에 시작된 이래 비로소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의 정보처리가 실현되고 있다.

日本の 이와 같은 움직임에 자극되어 미국 및 유럽 각국이 경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와도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중요성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가까운 장래에 이 분야에서 심한 개발경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이용가치는 공학분야에서는 매우 높다. 기술은 정보

의 축적이고 기술정보를 컴퓨터로 얻는 것에 의해 설계와 제조의 Planning을 비롯하여 많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작업에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지적정보시스템을 Work Station으로 전술한 네트워크에 의해 통합하는 것에 따라 이상적인 다음 단계의 CAD/CAM시스템의 Architecture가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부언하면 이들 응용기술로 보아 요소기술로서의 컴퓨터 기술의 우위성을 단순히 컴퓨터 기술만의 범위에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각종 응용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면 그 우위성은 몇 배로 늘어 날 것이다. 설계지원기술은 컴퓨터가 가장 높은 수준인 동시에 다양한 사용방법을 갖는 전형적인 이용기술의 하나로서 이것을 확립하는 것은 이용기술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應用技術開發에 주는 이 효과도 지금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10. 결론

CAD/CAM기술이 이미 큰 효과를 올리기 시작한 오늘날, 이미 이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설계·제조를 위해 편리한 도구 또는 성력화 수단으로 간주하

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CAD/CAM의 효과"의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CAD/CAM기술의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부터는 그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CAD/CAM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CAD/CAM 이용목적은 단순히 설계·제조프로세스에 관련된 全作業量의 몇 퍼센트를 자동화하는 것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좋아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선진기술국이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고도기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능력을 갖는 우수한 인재야말로 최대의 자원이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개발에 따른 여러 종류, 그리고 다양한 루틴적 작업때문에 귀중한 人的資源이 사라지고 있다.

CAD/CAM기술을 고도화하여 사람을 이와 같은 루틴적 작업에서 해방하는 것에 의해 실질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할 것이고 이것이 CAD/CAM의 질적인 면에서의 진정한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르기 위해서는 設計技術, 情報處理技術의 양면에 걸쳐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협회창립2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 우리 협회도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수렴코져 다음의 자료를 갖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협회 창립이래 협회활동의 기록 될 만한 사진, 혹은 유인물
2. 기록되지 않았던 건축계의 활동
3. 기타, 20년 발간사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들

※송고해 주신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사 한 마디

趙 哲 源

出版事業部長

버스로 출퇴근 하는 이들은 구두 것밖히는 일쯤 비밀비재하게 경험한다. 어떤 때는 양복단추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학생가방에 양복 올꺾히는 경험도 하고 머리를 툭툭 쥐어박히는 경험까지도 한다.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인사 건네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경험도 무수히 한다.

왜 밟느냐고, 밟았으면 인사라도 한마디 해야하지 않느냐고, 항의 했다가는 바보취급 당하기 십상이다. 혼자 기분나빠 하고 혼자 속상해 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삭여야 한다.

언제부터 폐기된 사람은 입 다물고 폐 입은 사람이 참는 풍속이 생겼는지 모른다. 이제서 그런 식으로 사람 가득찬 버스 안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혜를 터득했는지 모른다. 폐 입은 사람도 언제인가는 그와 같이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때문일까? 승객이 가득찬 버스에서는 예절쯤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파격심리 때문일까?

여하튼, 그러나 버스 안에서의 그런식의 평온유지는 결코 평온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울을 씹어야 하는 사람의 침묵과 자기 행동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이기적인 침묵의 교차분위기를 평온이라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차츰 인사를 잊어가며 살고 있듯듯 하다. 남에게 인사를 별로 하지않고 지내는 사람이 눈에 띄이게

늘어가고 있고 남에게 인사를 받아도 별로 반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버스 안에서 의 냉담과 무질서가 젊은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데 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던 어느 친구의 말을 속으로 혼자 따지고 따지다 보면, 이런 서글픈 새 풍속도 때문에 수궁의 머리를 절로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만나면 인사를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은 인사로 지면을 트고, 지면있는 사람들은 인사로 친분을 두텁게 하며, 직장 동료끼리도 인사 먼저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지우지기일찌라도 만나면 인사 먼저 한다.

그래서 인사는 그 어떤 인간 행위에 앞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예의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를 분별 못하는 상태를 人事不省 이라고 표현하며, 또 그말에는 정신을 잃는다는 뜻도 있으니 실로 오늘의 실태에 대해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 달이다.

자기 일에 쫓겨 만나지 못했던 이들이 망년회를 차려 따뜻하게 손을 잡기도 하고, 헤어졌던 이들이 송년의 아쉬움을 모아 훈훈한 식탁주위에 둘러앉기도 하며, 사은회를 차려 잠시나마 스승의 노안의 주름을 펴드리기도 한다.

이들 모임의 귀중함이야 재론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짝지어진 동아리

들간의 인사 모임을 계획하기 전, 무수히 만나고 헤어지고 스쳐지나가는 우리 주위의 낯 선 이웃에게, 꼭 인사를 건네야 할 적절한 때 인식하지 않고 서슴없이 인사 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스 안의 승객, 택시 운전사, 교통순경.....신문 배달부, 우유 배달부, 편지 배달부,농부, 어부, 광부....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 양로원의 고독한 노인들, 거리에 었드린 구걸객,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인.....북녘 동태를 감시하는 우리의 육군 해군 공군용사들.....

나의 오늘이, 실로 수도 셀수 없을 정도의 저 교마운 이웃들의 노고나 혹은 또 불행한 이들의 아픔과 전혀 상관없다고 과연 누가 딱 잘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인식했던 것이다.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에게인양 냉담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12월은 ———.

사회라는 그릇 속에서 連帶를 이루며 한 덩어리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생활의 본질을 확인하는 달이 되게 하여야겠다. 그리하여

乙丑年은,

헤프게, 헤프게, 아무리 헤퍼도 덤스려울 수밖에 없는 푸진한 인사로 그 連帶를 더욱 따뜻하게 데우며, 피가 흐르는 인간의 이웃으로 가꾸어 나가는 해가 되게 하여야겠다.

乙丑年은 진정,

인간적인 이웃을 가꾸는 해가 되게 하여야겠다.

정답은 인사로 가꾸자, 명랑한 이웃 밝은 사회

既存住宅의 斷熱改修

(3)

朴 相 東

韓國動力資源研究所建物研究室長

1) 組積造 壁體

가) 內斷熱

기존 組積造 벽체가 〈그림-43〉과 같이 미장몰탈로 되어있고 벽지나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면 벽지나 페인트 위에 가로, 세로로 락지를 설치하고 락지 두께만큼의 發泡樹脂系 단열재로 채워넣는다.

만약 무기질 섬유재 단열재로 시공한다면 단열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흐르면 자연 침침으로 락지와 벽의 틈이 생겨 이 부분을 통한 열손실이 발생되어 단열효과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점에 특히 유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다음 防濕層을 설치한 후 실내의 환경에 맞도록 마감재를 선정하여 마무리 한다.

그러나 기존벽체와 마감재 사이의 깊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44〉와 같이 우레아폼 단열재를 구멍을 뚫고 시공하도록 한다.

공사를 끝낸후 구멍을 막고 그위에 최종 마감재로 마무리하며 그외의 공사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똑같이 시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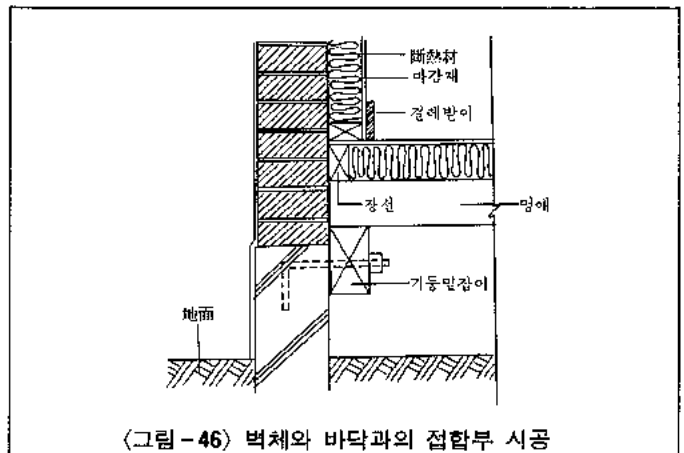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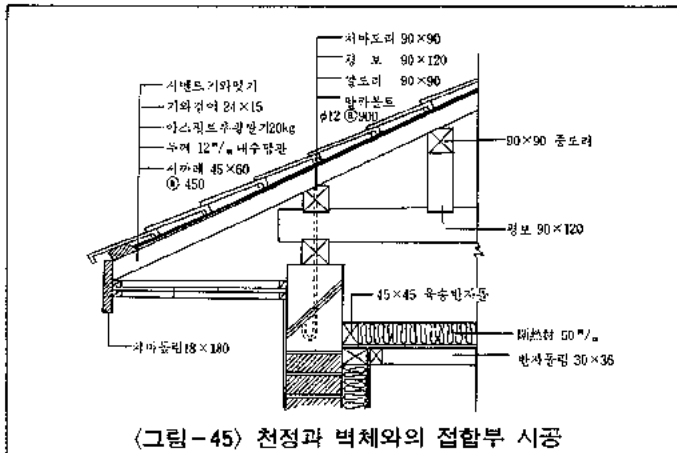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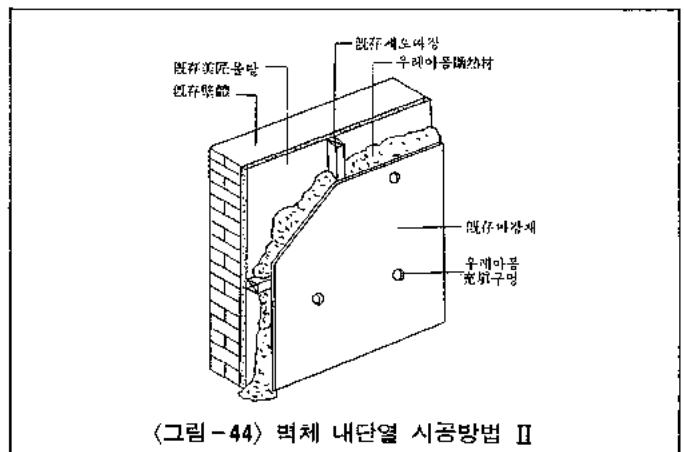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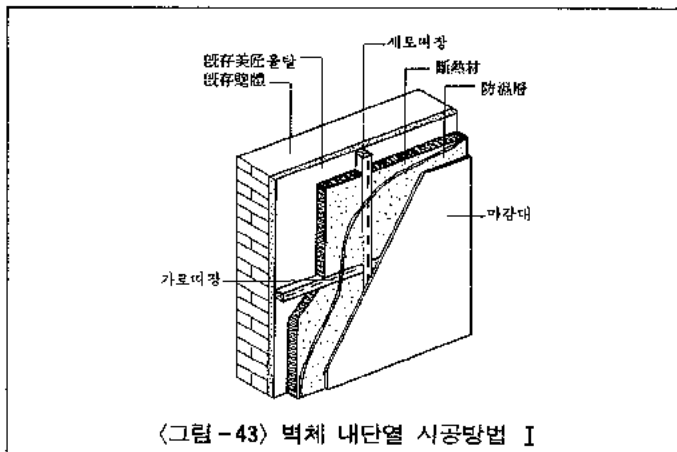
그리고 기존 구조가 〈그림-43〉과 같은 경우에 단열재를 우레아폼으로

시공하고자 할때에는 기존벽체에 락지를 설치한후 합판등으로 마감하고 〈그림-44〉 같이 구멍을 뚫고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이하게 改修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과 천정과 벽의 접합부분의 마무리가 문제되므로 결레받이와 반자돌림에 대한 細部詳細를 검토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림-45〉, 〈그림-46〉은 단열재로 시공한 후 반자돌림대와 결레받이 시공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47〉 기존 壁體가 락지에 마감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림-



48) 같이 띠장 部分에 단열재 두께 만큼의 깊이가 있는 누름대를 대주고 여기에 단열재로 充填시킨 후 방습층을 氣密하게 설치한다.

그리고 이 위에 신규 마감재 내지는 마루리 재료로 끝맺음 한다.

나) 外斷熱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外斷熱은 시행의 장점은 많으나 일반적으로 組積式 주택에서 보면 정면과 主 출입구 부분에는 치장용 돌붙이기로 마루리 한다든가 타일붙이기 등으로 마루리 하고 있어 외부 벽면에 단열재를 붙인다는 것은 이러한 마루리 재료들을 2 층으로 부가시키는 것이 된다.

인건비에 있어서도 신규 치장재료 및 단열재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므로 공사비 지출이 과다한 실정 이므로 이러한 외단열 공사를 위한 외 단열재의 개발은 물론 마감재 역시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림-49〉와 같은 既存治粧 외벽에 외단열로 시공하게 되면 〈그림-50〉과 같이 되는데 이때에 주의할점은 바로

치장재 위에 防濕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이다.

治粧壁體 외부에 防濕層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등으로 철저히 시공한후 외장재인 벽들을 쌓으면서 무기질 섬유제 단열재나 발포수지계 단열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채워넣어 마감외벽 자체에 구멍이 가게해서는 안되며 또한 發泡樹脂系 단열재인 스티로폼같은 재료의 두께와 같게 기존벽체와 신규벽체 사이의 간격을 띄워 시공하면 나중에 단열재 충전시 맞지 않으므로 이점에도 역시 유의하여 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추가로 주의할 점은 기존벽체와 신규벽체와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기존벽체에 앵가를 설치하여 신규벽체의 구멍이나 도파의 위험이 없도록 신축건물 시공시와 같이 연결벽돌이나 철물의 거리를 500~750mm 간격으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

2) 木造壁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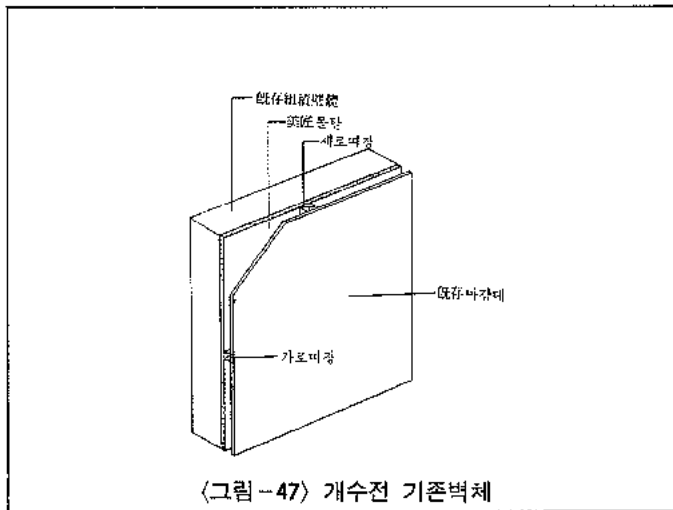
가) 內斷熱

木造壁體는 〈그림-51〉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단열개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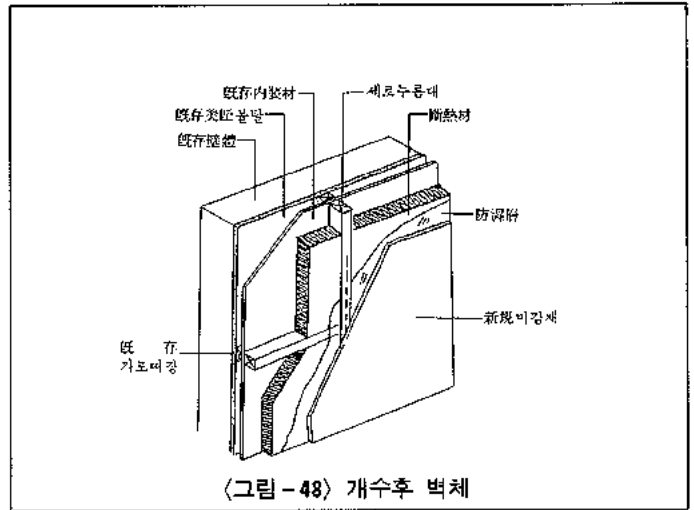
개수부분이 외부에 면해 있을 경우는 먼저 외부재료의 손상이나 결함, 누수등의 우려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셋기둥의 깊이를 제어 단열재의 두께보다 작으면 누름대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셋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꼭맞게 절단하여 충전시킨후 방습층을 설치하고 목조건물의 단점인 화재에 강한 불연재 집섬보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림-52〉 Rigid 단열재를 사용하고저 할때에는 사용단열재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직접 對象部位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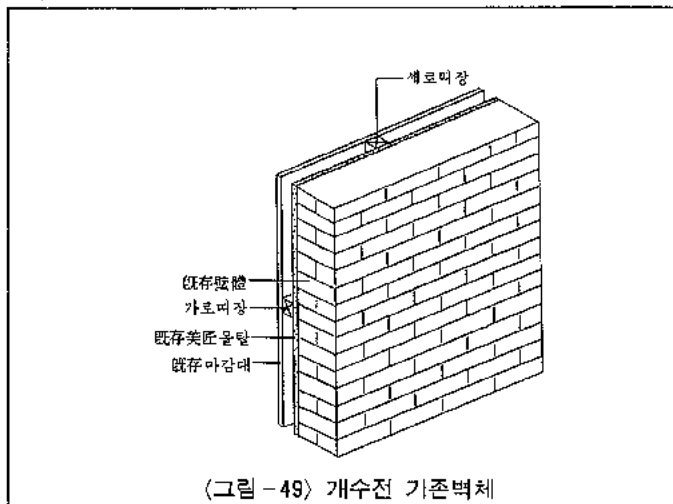
이 때 주의할 점은 단열대상부위를 깨끗이 닦아낸후 시공해야 하며 단열재에 접착제를 전체 도포하는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일정량을 부분 부분 발라 대상부위에 밀착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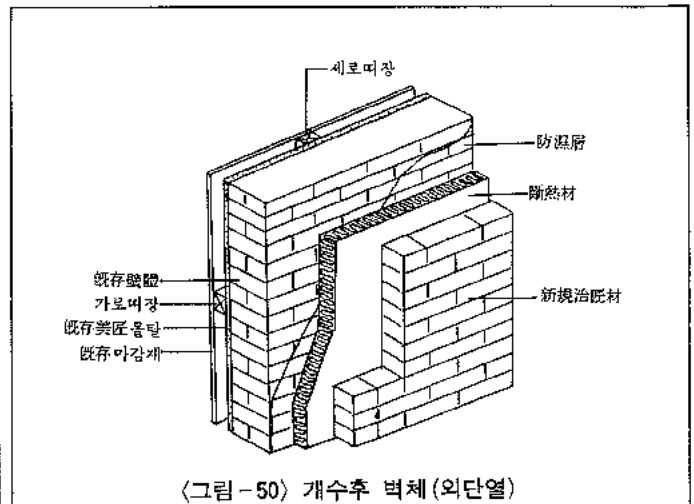
〈그림-47〉 개수전 기존벽체



〈그림-48〉 개수후 벽체



〈그림-49〉 개수전 기존벽체



〈그림-50〉 개수후 벽체 (외단열)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필름등의 방습층을 설치하여 結露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위에 마감재를 얹서 언급한 바와같이 집섬보드나 기타 불연재료로 마무리 한다. <그림-53> 그리고 <그림-54>의 같이 木造에서 기존 마감재 내부에 25mm이상 깊이의 공기층이 있다면 우레아폼 시공이 가능하므로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레아폼 시공시에는 充填구멍은 바닥에서 약 1.2m정도가 적당하나 중간 홈대가 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다면 이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 시행한다.

또한 샷기둥과 샷기둥 사이에는 2개의 充填구멍을 내도록 하며 그 지름은 25mm~50mm 되게 한다.

그리고 窓門周圍나 門周圍같은 木構造가 불규칙한 곳은 주의하여 모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점검하여 시공한다.

충진작업이 끝났을 때에는 집섬플라스틱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insert로 구멍을 막는다.

충진구멍의 방법을 위하여 방습용 페인트를 칠하고 마감 후에 한번내지 여러번 페인트를 칠한다.

우레아폼 시공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습기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페인트를 칠하기전 적어도 1주일동안 말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55>와 같이 기둥과 벽변의 차가 있는 경우에도 단열재를 시공할 수 있다.

이때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무기질, 섬유계 단열재나 발포수지계 단열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띠장을 설치할 때 띠장의 실내측 표면과 기둥의 표면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 띠장은 기존내부의 켈대와 맞추어 시공하여야 견고하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56>

나) 外斷熱

기존벽의 중공층의 상하를 막아 공기의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57>과 같은 개수는 기존외벽에 부침띠장을 설치하고 띠장과 띠장사이에 단열재를 충진시키는데 만약 무기질 섬유계 단열재로 시공할 때에는 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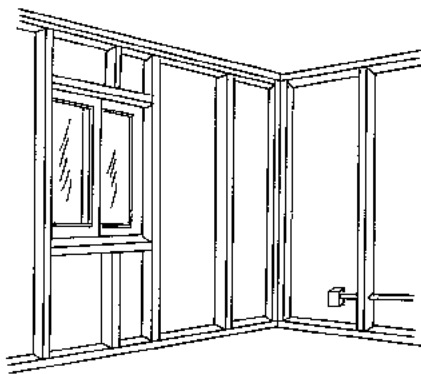
을 줄이기 위해 부침띠장의 가격을 줄여서 시공하면 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습기의 침입이나 결로의 방지를 위하여 방습층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단열인 만큼 단열재는 구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열의 신축에 강한 재료를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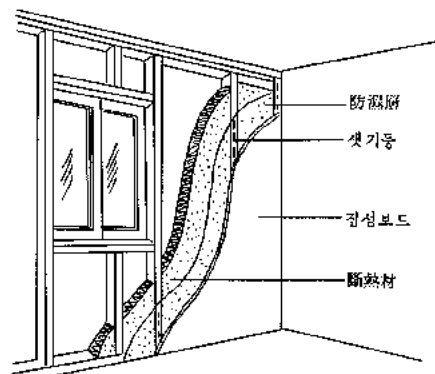
木造外部에 비닐 판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림-60>와 같이 단열재를 부침띠장으로 고정시켜주고 그위에 방습층을 설치해 준 후 외부 마감재를 선택 시공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61>과 같은 경우는 단열재 위에 목재 바탕판을 대주고 방습층을 설치해야 되나 만약 기둥이나 샷기둥에 누름대의 깊이가 所要 단열두께에 못미칠 때에는 그위에 부침누름대를 대어 적정한 단열두께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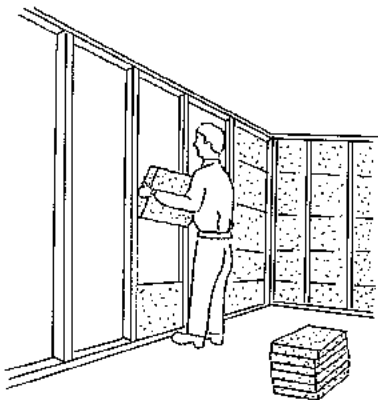
그다음 적절한 외벽재가 없을시에는 방습층 위에 metal lath (金屬網)를 설치하여 몰탈로 미장하는 방법을 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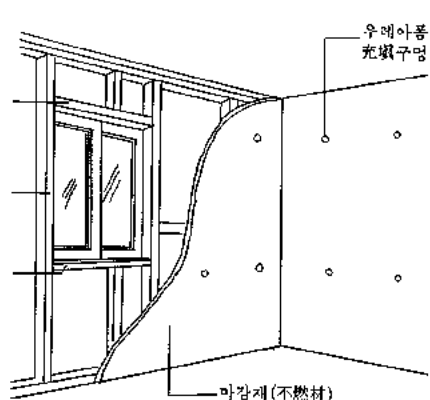
<그림-51> 개수 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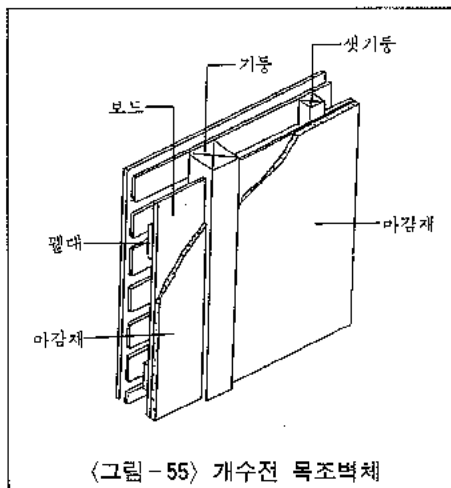
<그림-52> 목조벽체 단열재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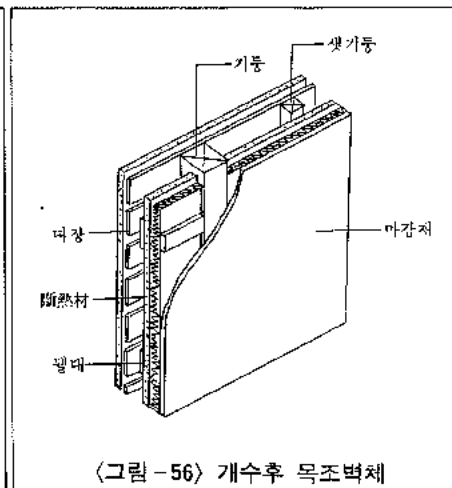
<그림-53> 목조벽체 rigid 단열재 시공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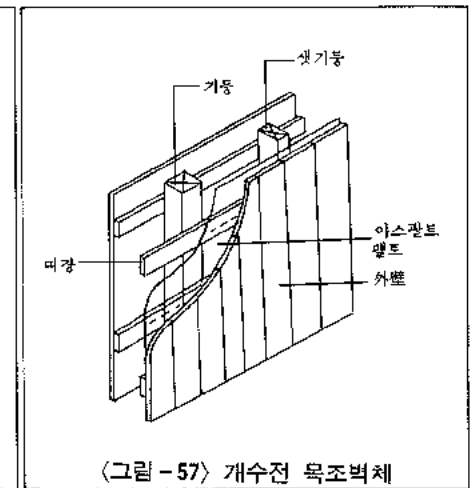
<그림-54> 목조벽체 우레아폼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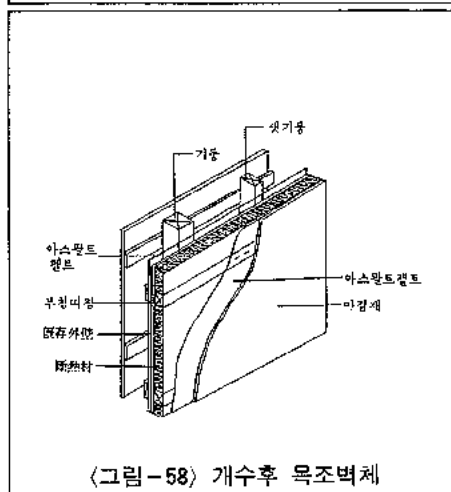
〈그림-55〉 개수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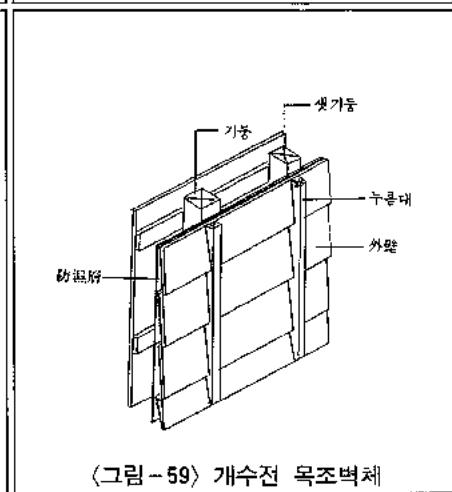
〈그림-56〉 개수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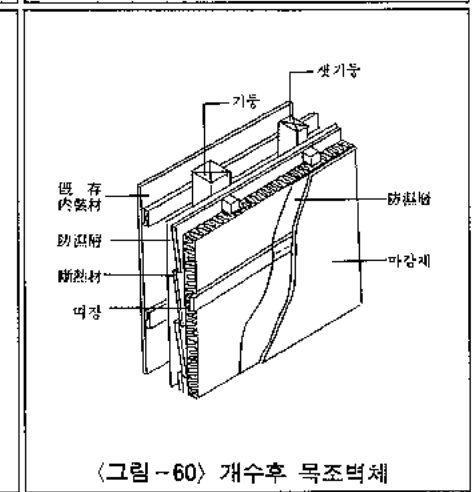
〈그림-57〉 개수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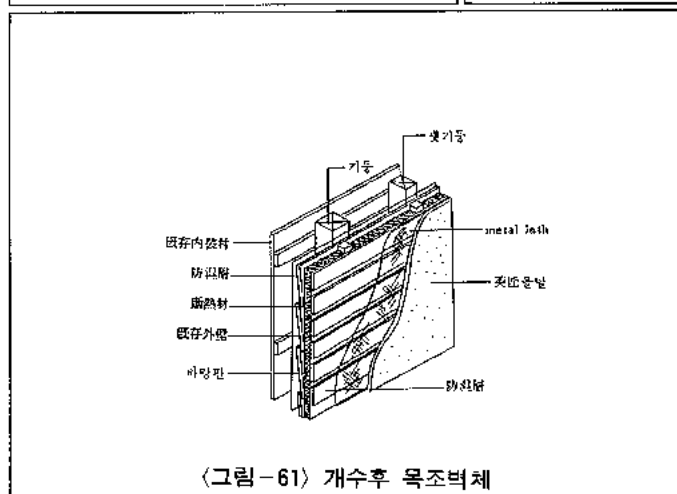
〈그림-58〉 개수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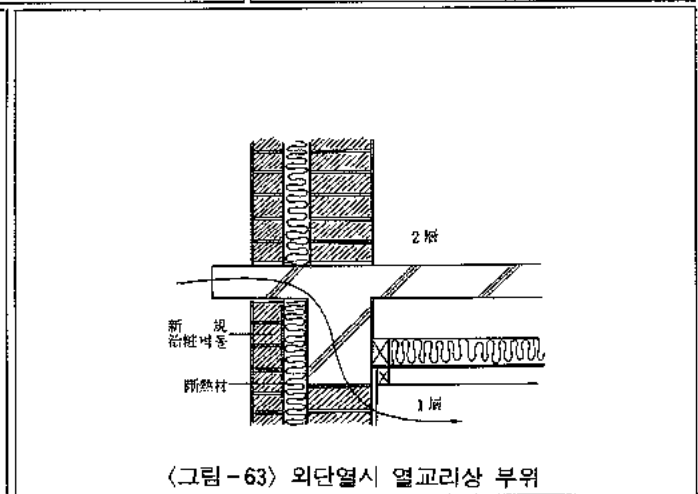
〈그림-59〉 개수전 목조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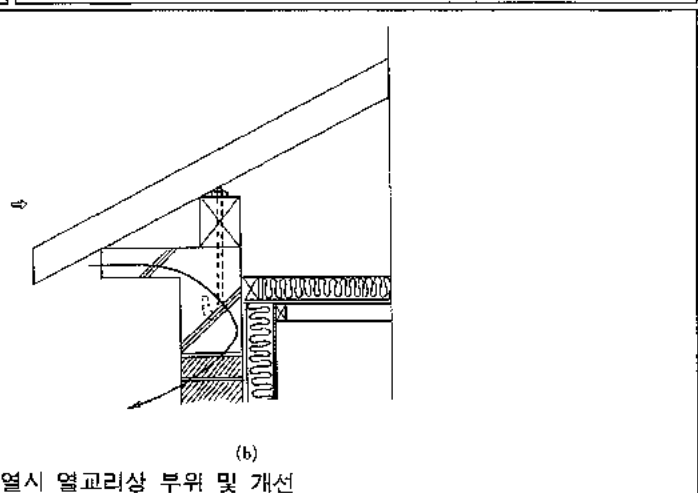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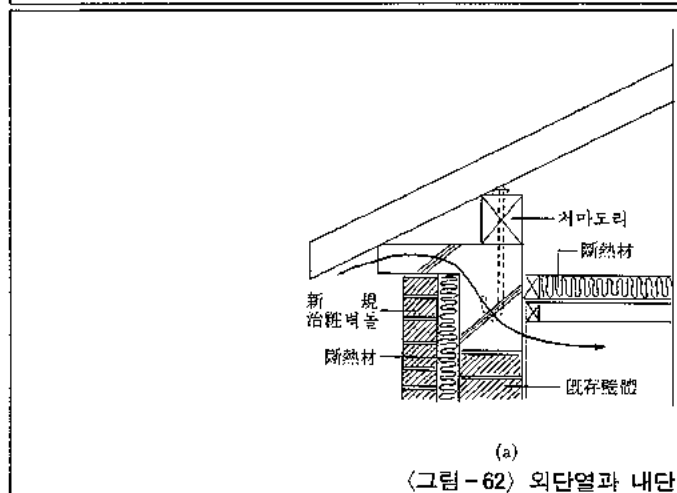
〈그림-60〉 개수후 목조벽체



〈그림-61〉 개수후 목조벽체



〈그림-63〉 외단열시 열교리상 부위



(a) (b)
〈그림-62〉 외단열과 내단열시 열교리상 부위 및 개선

다.

개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물구조상 전체의 개수를 내단열이나 외단열 한가지로 통일하여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접합부분 즉 테두리보에 열교현상 가능성이 〈그림-62(a)〉와 같이 생기게 되어 이를 통한 열손실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림-62(b)〉와 같이 내단열로 통일하여 개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기존건물 구조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외단열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그림-63〉과 같이

단열의 문제점이 발생케되므로 이 때에는 역시 내열재를 택하여 개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3) 창문과 벽체와의 접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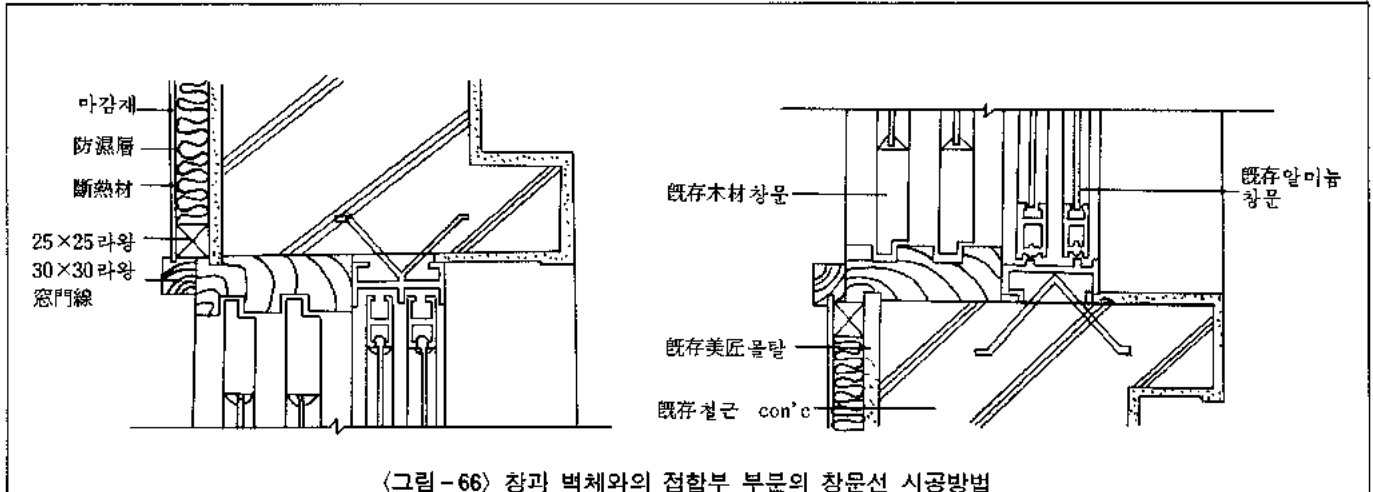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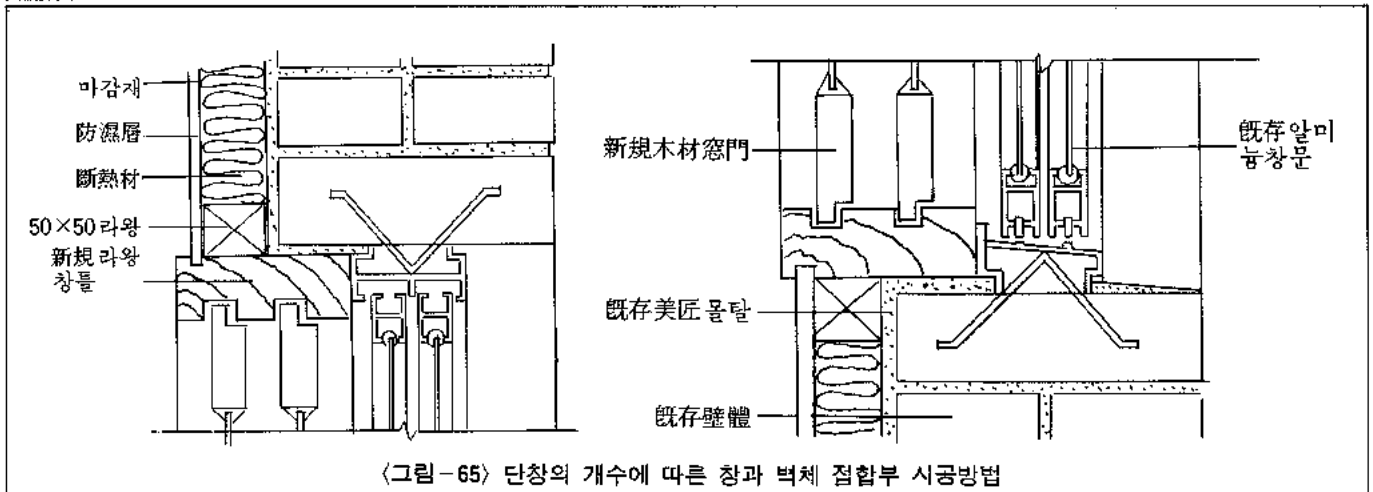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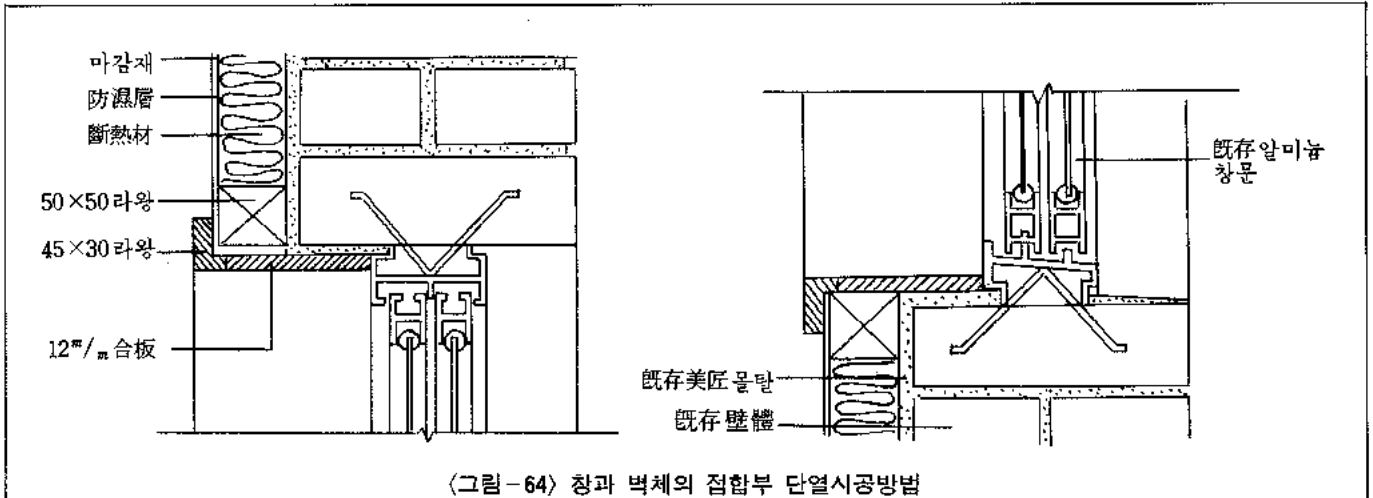
창문과 벽체와의 접합부 부분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나 單窓의 경우에 있어서 벽체의 내단열시는 〈그림-64〉와 같이 既存壁의 미장물탈위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위에 방습층을 설치한 후 창인방(아래, 위)과 뿔대의 접합部 부분에 목재(합판) 등을 사용하고 벽마감재를 시공한후 끝마무리는

목재로 이음이나 맞춤으로 끝낸다.

그러나 단창을 2중으로 개수하면서 벽체의 단열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65〉와 같이 라왕창틀을 제작하여 既存窓 인방과 신규 라왕창틀 그리고 벽체의 접합부분을 미려하게 마무리 한다.

또한 창문이 單窓이 아니고 2중창의 경우 창외 인방과 벽체의 접합부분은 단열재 두께에 따라 창문선의 크기와 제작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보통 25mm 단면의 경우 〈그림-66〉



과 같이 창문선이 36×36의 목재가 요구되나 50mm 단열두께가 요구될 때에는 36×60, 75mm인 경우에는 36×84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이상의 초과될 때에는 창문을 추가로 제작할 수 있어 단열효과 뿐만 아니라 실내장식적인 효과를 노릴수가 있으며 추가로 창문이 필요치 않을 시는 창대로써의 역할을 하여 화분등 장식용 받침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커튼박스 부분의 斷熱施工方法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그리고 창문 윗인방과 반자틀부분 사이의 美的인 면을 고려하거나 실내전체의 분위기를 위하여 개절에 따른 커튼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커튼박스 부분의 斷熱缺陷이 발생된다면 보조수단으로서의 커튼설치목적이 무산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67〉에서 보듯이 커튼박스 상부에도 천정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시공되어야 하며 기존벽체 부분에도 빈틈이 없도록 단열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結露發生의 우려가 많은 곳이므로 방습층의 설치에도 주의를 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 바닥

1) 溫突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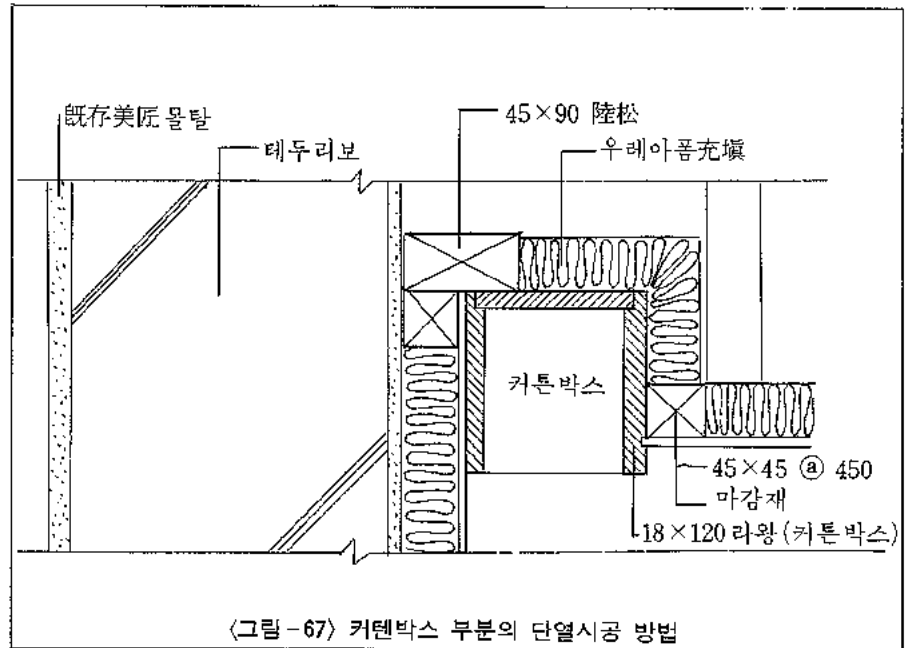
온돌바닥에서는 재래식 온돌바닥과 溫水溫突바닥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온수온돌바닥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급된 열량보다 실내로 방출된 열량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중으로 손실된 열량을 줄이기 위하여 斷熱改修를 하여야 한다.

이 부위를 개수할 때에는 바닥전체를 제거한 후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오히려 신축시 보다도 불리할 때도 있으며 공사도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다.

이 부위는 바닥이 지면과 접해 있을 때는 난방기간중 내외 온도차가 타 부위에 비하여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는 구조라 할지라도 손실열량은 적게 된다.

특히 지하 3m에 이르면 地中溫度



〈그림-67〉 커튼박스 부분의 단열시공 방법

〈表-11〉 우리나라 都市別 겨울철 地中溫度 分布

(단위: °C)

도시	깊이m	氣 溫	地 表	0.5	1.0	1.5	3.0	5.0
서울		1.0	1.8	4.2	7.0	8.7	13.4	15.0
仁川		1.0	2.2	5.8	7.8	10.0	13.7	14.8
水原		0.3	1.7	4.0	6.7	8.7	12.4	14.2
全州		2.7	3.8	7.4	9.6	11.3	14.4	16.4
光州		3.8	4.4	7.3	9.6	—	—	—
大邱		3.5	3.2	6.8	9.2	11.6	14.1	15.6
釜山		5.6	6.2	8.8	11.0	12.9	15.9	16.4
蔚山		4.4	5.7	8.7	10.1	—	—	—
木浦		4.5	4.8	8.4	10.2	—	—	—

〈표-11〉가 14°C정도가 되어 바닥단열시공은 무의미하게 되지만 보통 주택은 거의 바닥이 지면과 접해있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위의 斷熱改修 방법은 기초몰탈을 이용하는 방법, 받침재를 이용하는 방법, 熔接金網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 基礎몰탈을 利用하는 방법

기존 바닥을 제거시킨 후 바닥흙(슬라브일 수도 있음)을 평편하게 고르고 그위에 잡석을 150mm 이상 다진후 그위에 버림몰탈 60mm를 타설한다. 다만 슬라브위 일대는 성략한다.

방수처리는 내식성의 방수지, 루핑, 비닐 또는 방수몰탈로 처리하며 이때 비닐, 루핑등의 경우는 이음매나 겹친 곳으로 毛細管現象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밀봉해야 하며 벽면으로 습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바닥보다 약 100mm 정도 위까지 방수처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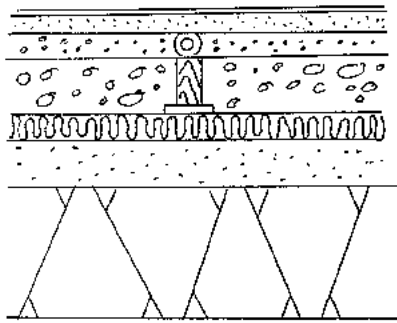
야 한다.

주택내에서 가장 뜨거운 바닥은 열손실을 줄일수 있도록 단열재 규정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며 단열재가 눌리지 않게 조치하여 단열재가 소정의 기공을 가지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또한 자갈의 충전은 축열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너무 두꺼우면 불필요한 낭비가 되며 너무 얇으면 방이 쉽게 더워지고 쉽게 식어 온도변화가 심하므로 좋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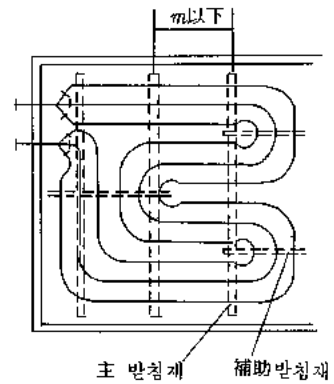
골재충진시 보온재가 상하거나 찌그러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기초몰탈을 시공해야 하는데 배합비는 1 : 4 정도로 하고 20~30mm 정도나 그이상의 두께로 시공하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주의하면서 자갈등이 중간에 끼어 관 고정시에 못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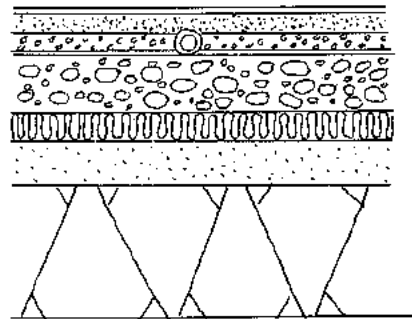


〈그림-68〉 발침대를 이용한 시공층 단면도

장판지마감
美匠몰탈 20-30 ㎜/m
잔자갈 20 ㎜/m
큰자갈 50-60 ㎜/m
保温材 30 ㎜/m以上
防濕層
50 THK STEP Con'c
雜石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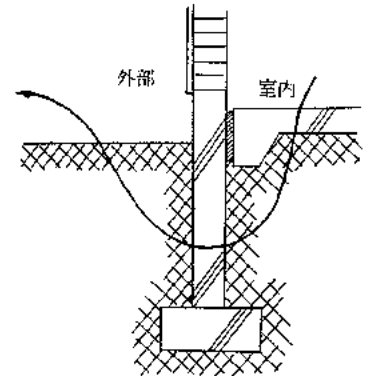


〈그림-69〉 발침재의 배치



〈그림-70〉 용접금망을 이용한 시공층 단면도

장판지마감
美匠몰탈 20-30 ㎜/m
전자갈 20 ㎜/m
熔接金網
큰자갈 50-60 ㎜/m
保温材 30 ㎜/m以上
防濕層
60 THK STEP Con'c
雜石 다짐



〈그림-71〉 기초외벽체로의 열손실 단면도

아울러 기초몰탈은 2일 이상 양생 한뒤 작업해야 판고정이 잘되므로 철저히 양생한다.

그다음 配管位置를 백묵이나 석필 기타방법으로 내략 표시한 후 관을 고정시키는데 클램프를 관에 씌워 못으로 바닥에 고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68〉

중요한 배관작업이 끝난 후에는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골재, 또는 모래를 충전하여 온수순환시험 및 경사조정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모든 검사가 순조로울 때에는 시멘트 몰타르를 1 : 3 정도로 배합하여 고르게 바르며 양생은 최소한 48시간 濕潤狀態로 자연 양생시켜 건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양생이 되기전에 불을 때면 바닥이 터지게 되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나) 발침재를 이용한 방법

기초몰탈을 이용한 방법과 비슷하나 발침대 설치부터는 약간 다르다.

이 방법은 발침재의 크기를 30mm×30mm 이상의 角材를 사용하며 45mm×30mm 角材를 세워서 사용하고 간격은 溫水파이프의 발침재 간격은 1m 이내

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발침재의 배치는 〈그림-69〉와 같이 曲管部 전부를 고정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며 支管이 많은 2支管, 3支管式의 경우에는 〈그림-69〉와 같이 보조 발침재를 설치하여 管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조발침재는 각목 외에도 철근이나 파이프 토막같은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骨材充填은 발침재의 윗면과 일치하도록 골재를 충전시켜야 하며 이때 발침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固定部를 묻는 것이 좋고 윗부분은 骨材나 모래등으로 채워 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그외의 방법은 기초몰탈을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다) 熔接金網을 이용한 방법

상기 2가지 방법과 거의 동일하나 金網 설치부분만 다르다.

金網 시공방법은 〈그림-70〉과 같이 자갈층 위에 金網을 한뒤 위의 일부분을 자갈로 덮거나 바닥에 각목등을 묻어 이 위에 금망을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야하며 連結具 등을 사용하여 방수와 폭이 어긋나지 않게한다.

또한 金網위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고정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온돌바닥 자체에 단열이 불가능할 경우 〈그림-71〉과 같이 지면을 통하여 외부로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72〉와 같이 개수를 해야 할 것이며 온돌가장자리 단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부분의 단열이라도 하여야 이 부분을 통한 열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주택에 이 공사를 하게되면 굴토하는데 보통 2~3일 정도가 걸리게 되므로 掘土途中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판사람등이 부주의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표지판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掘土前에는 이 부분에 가스배관이나 수도관 전기인입선 전화선 배수관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掘土깊이는 凍結線 밑이나 기초판 상부까지 파도록 하며 〈그림-73참조〉 掘土된 흙은 쉽게 되메울 수 있는 위치에 놓도록 한다.

물론 掘土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넓이는 인부가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판다.

掘土가 끝난 다음에는 기초외벽에 붙어있는 흙을 다 털어내고 염산이나 철술로 깨끗이 닦아낸다. 이를 시행할 때에는 간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므로써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된 기초 외벽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단열재를 빈틈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이 위에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흙을 되매운 다음에 이 斷熱材에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그림-74)와 같이 아연을 입힌 양철판등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되매울 때 흙대신에 자갈을 채워넣고 주위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주면 단열재 부분으로 침투하는 습기를 박을 수가 있으며 흙으로만 되매우는 경우에는 (그림-75)와 같이 물이 저절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평지보다 높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그림-76)과 같이 목조가

아니고 組積造壁體의 경우에는 미장몰탈이 끝난부분 밑에 강력한 Caulk 재료를 사용하여 Flaahing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장몰탈이 아니고 治粧벽돌로 마감되어 있을 때에는 약 20%의 깊이로 벽돌을 깎아내고 위에서 시공한 것과 같이 마무리하면 단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초외벽과 벽체로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시공방법은 (그림-77)과 같이 기초판 상부까지 최소한 掘土하고 기초판 상부의 흙을 깨끗이 청소하여 신규 철근 Concrete와의 접합이 쉽게 하도록 조치한다.

청소가 끝나면 거꾸질을 짜고 앵커를 설치하고 그위에 Concrete를 타설한다.

양생이 된다음 방습층이 있는 단열재를 채워넣고 외부에 치장벽돌을 쌓는다.

나머지 공사는 위에서 서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마무리하도록 한다.

2) 木造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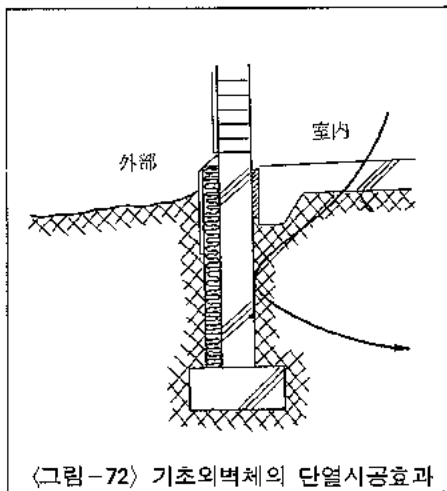
목조바닥 개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 인부가 바닥밑에서 공사할 수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고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공호로 되어 있어 출입이 가능하여 바닥에 공사된 構造體를 解體하지 않아도 시공이 용이하고 해체시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없기 때문에 개수에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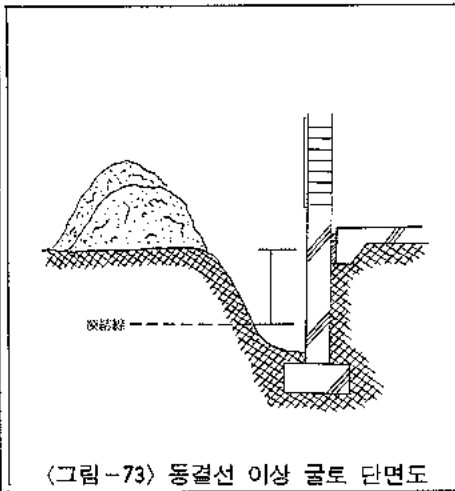
만약 바닥밑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구멍을 내어 출입구를 만들고 출입구에도 철저한 단열을 하여 이 부분을 통한 열손실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78, 79)

반면 바닥부분에 출입구를 만들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바닥 밑부분을 기초외벽에 출입구를 만들어 改修施行을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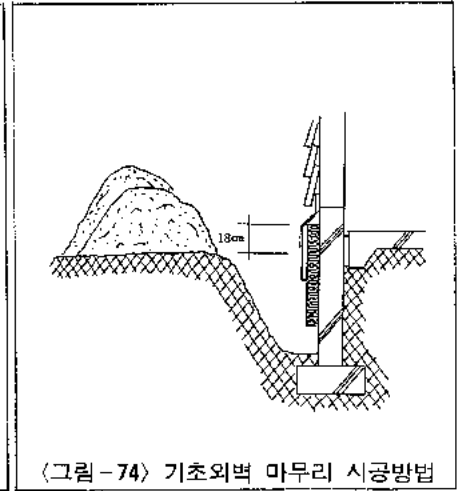
출입구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 안전한 부분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가 끝나면 출입구의 크기를 정하고 대 상부분에 백색분필등으로 표시를 하여 끝이 뾰족한 정으로 공사를 하며 벽돌조각등이 튀어 작업보조자나 공사자의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안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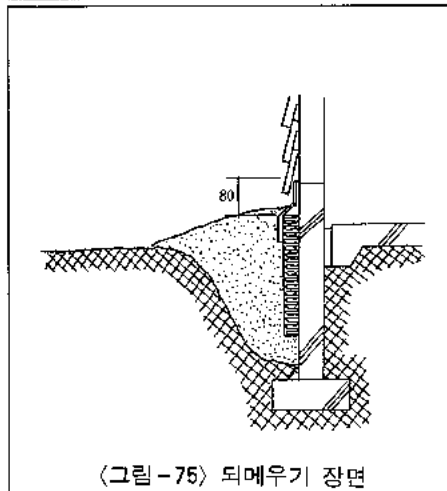
〈그림-72〉 기초외벽체의 단열시공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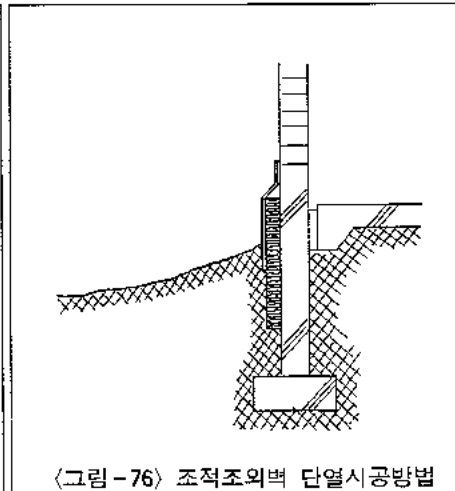
〈그림-73〉 동결선 이상 굴토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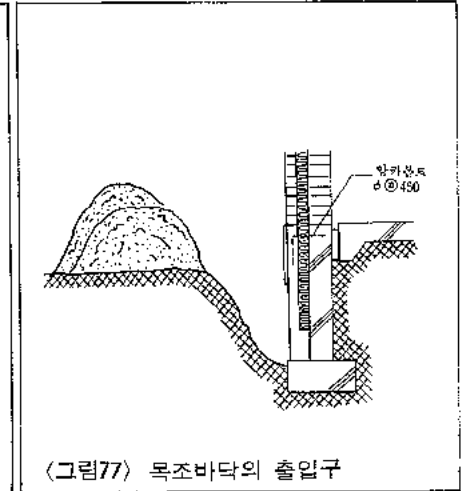
〈그림-74〉 기초외벽 마무리 시공방법



〈그림-75〉 되매우기 장면



〈그림-76〉 조적조외벽 단열시공방법



〈그림-77〉 목조바닥의 출입구

착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조체인 벽체를 제거할 때에는 <그림-80>과 같이 제일 먼저 D·F·G를 제거하고 C·E를 제거하기 전에 A·B가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구조체에 가차가 없도록 支持木을 받쳐 주어야 한다.

벽물제거공사가 끝난 다음 출입구 크기에 맞도록 문틀을 설치하고 출입문도 단열이 철저히 되도록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틈사이에도 Caulk를 하여 密實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기본적인 공사가 끝나 바닥밑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바닥에 단열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외벽기초에 단열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닥을 단열하는 경우에는天井斷熱과는 달리 시공하는 과정에서 마감재의 사용이나 접합부의 시공 등이 어렵지 않으므로 용이하게 단열효과를 낼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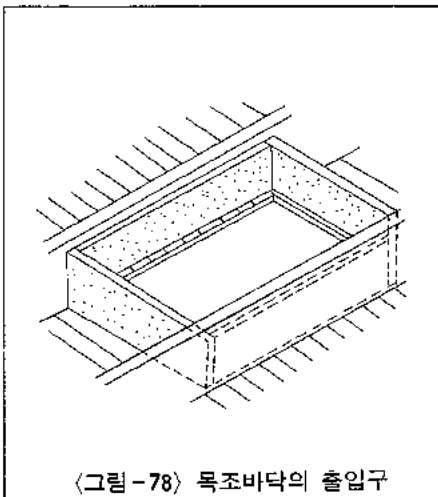
바닥밑을 단열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단열재 선택과 아울러 낭비가 없도

록 미리 장선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고 절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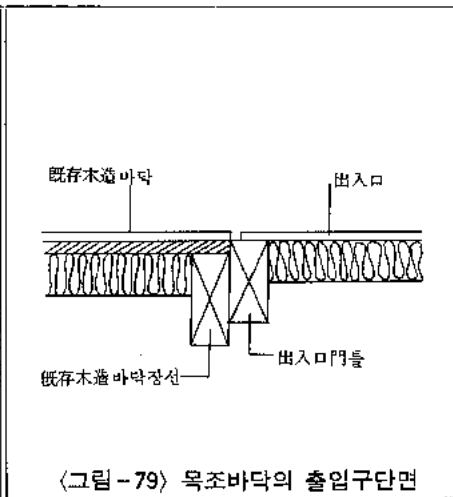
단열하는 시공방법으로는 <그림-83, 84, 85, 86>과 같이 鐵線을 이용하거나 Wiremesh, 가는 목재쥔대나, 단열재점 마감재, bridging strips (wood, wire) (그림-87) 혹은 접착제 등이 있다.

그리나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방습층 설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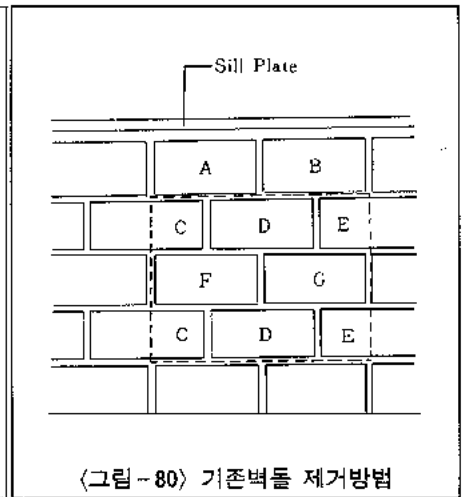
방습층 설치는 단열재를 붙이기 전에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부가시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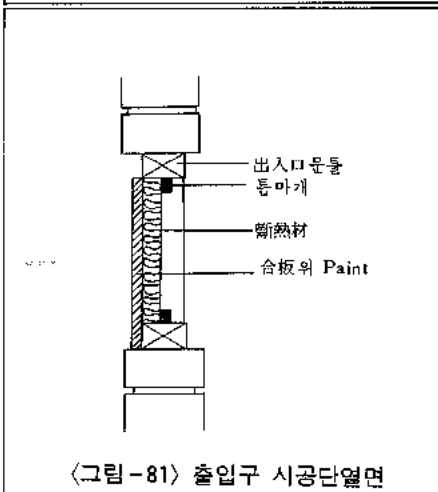
<그림-78> 목조바닥의 출입구



<그림-79> 목조바닥의 출입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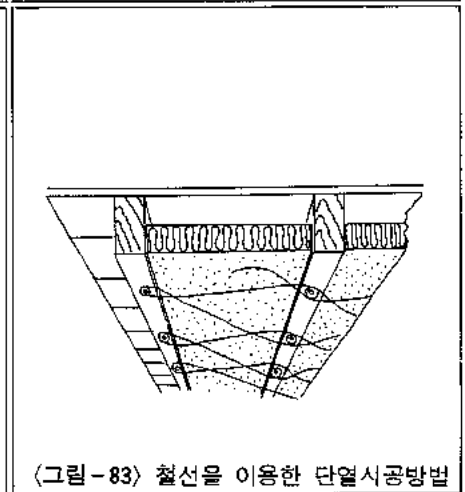
<그림-80> 기존벽돌 제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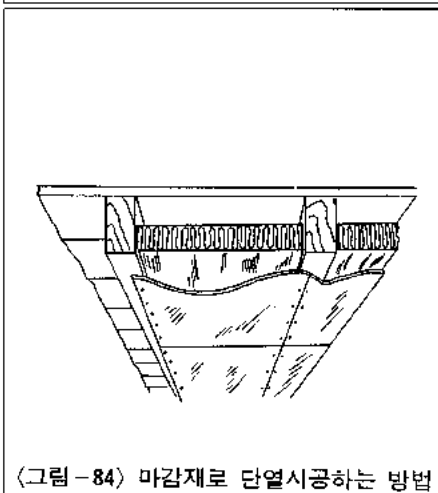
<그림-81> 출입구 시공단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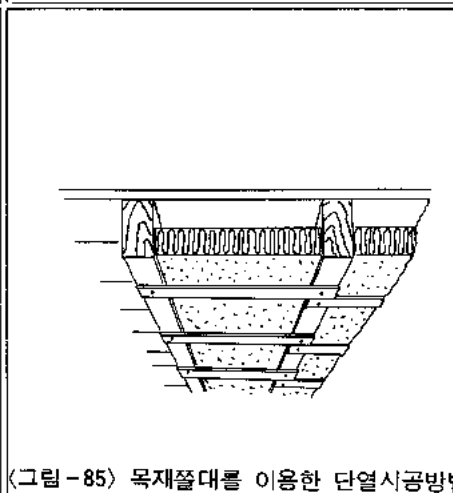
<그림-82> 목조바닥 단열시공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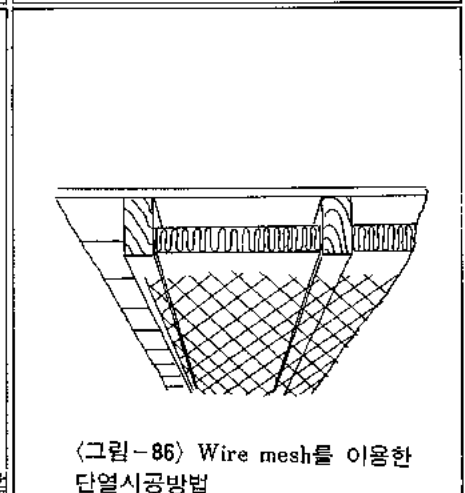
<그림-83> 철선을 이용한 단열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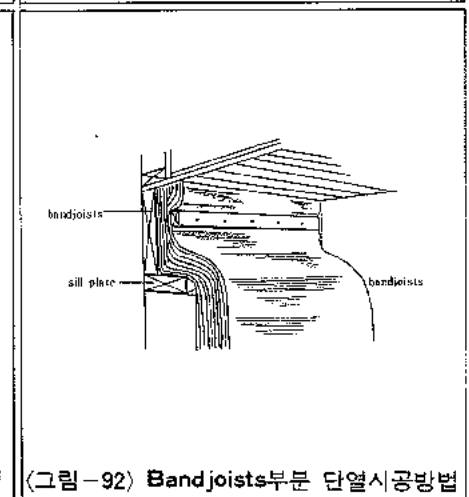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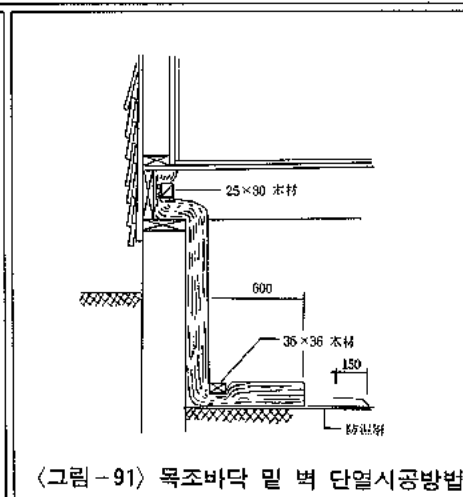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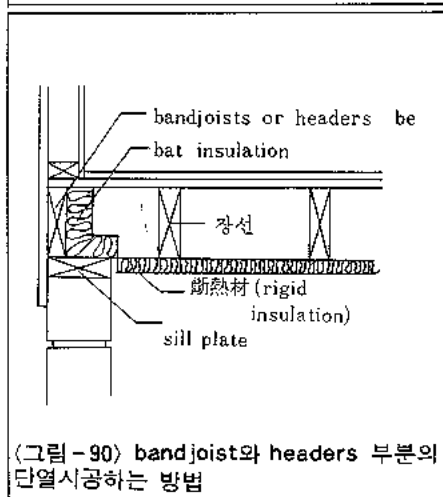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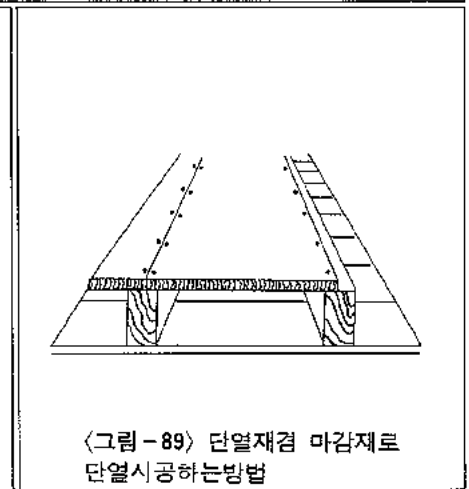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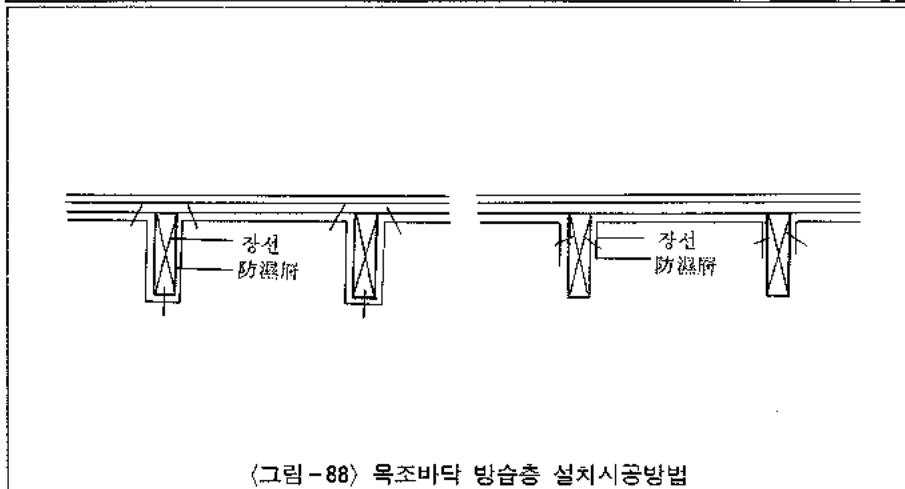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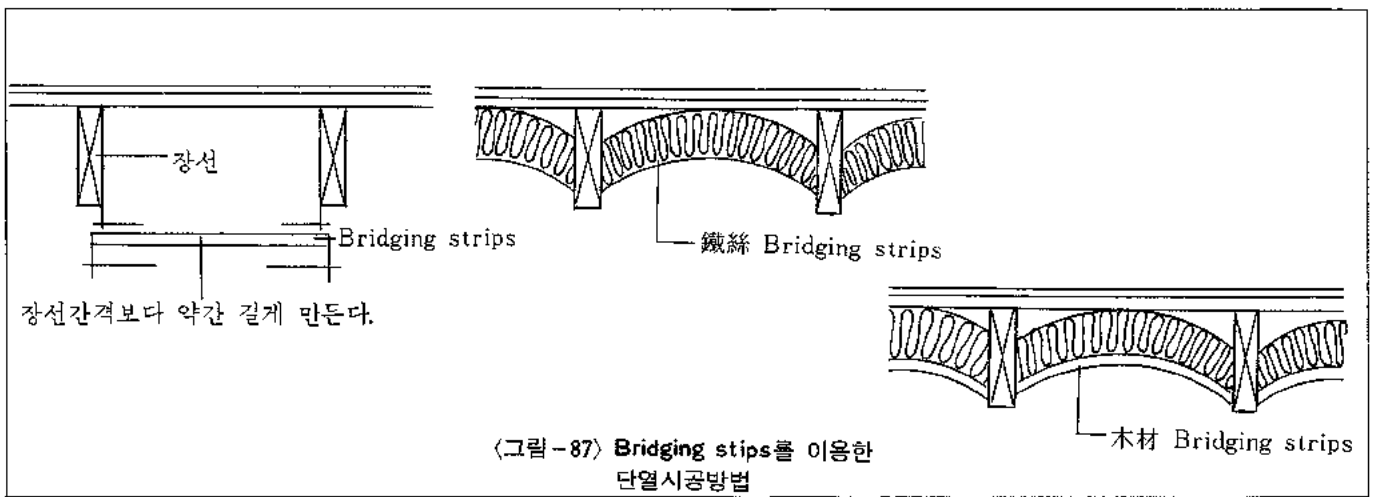
<그림-84> 마감재로 단열시공하는 방법



<그림-85> 목재쥔대를 이용한 단열시공방법



<그림-86> Wire mesh를 이용한 단열시공방법



되는데 방습층 설치시 장선까지 감싸도록 하지 말고 짧게 잘라서 〈그림-88〉와 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습기가 발생되었을 때 바닥밑을 통하여 외부 배출구로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방법중 단열재겸 마감재인 집섬보드등의 Rigid단열재는 보통 바닥단열에 사용하지 않지만 〈그림-89〉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선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큰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그림-90〉과

같이 土壤과 단열재 사이의 부분에도 철저히 단열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열재를 시공하기 전에는 필히 bandjoists와 headers 부분에 방습층이 내부로 향하게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rigid단열재가 사용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단열외에 지하기초외벽 부분에 단열과 지하바닥 개수방법 역시 크게 열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사는 일단 하게 되면 바닥방습층 설치

로 창고가 방공호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상기 방법중 무기질 섬유제 斷熱施工方法은 제일 먼저 벽체와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방습층을 설치하고 벽부분으로 50mm 이상을 올라오게 하고 바닥부분은 전체를 깔아주고 방습층과 방습층이 겹치는 부분은 150mm 이상 되도록 한다.

공사도중 방습층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되었을 때에는 테이프 등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단열재는 bandjoists나 headers와 마루밑에 설치하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림-91>과 같이 상부는 25×30木材를 사용하고 하부에는 36×36의 木材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보기 흉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림-93>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습기발생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일정한 크기의 환기구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설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선정된 환기구를 hammer로 켤때 뒤는 조각들에 의하여 손상입지 않도록 보호안경을 써야 하며 아울러 주위벽에 구멍까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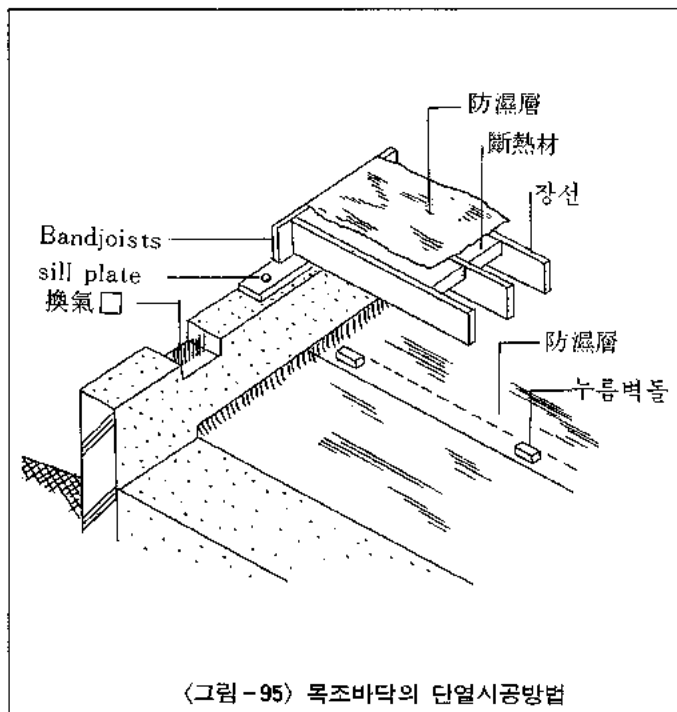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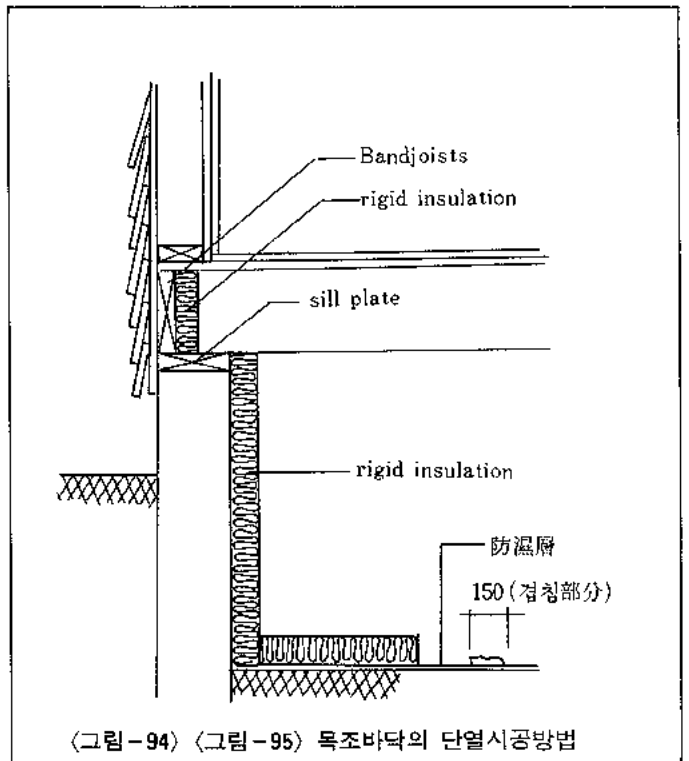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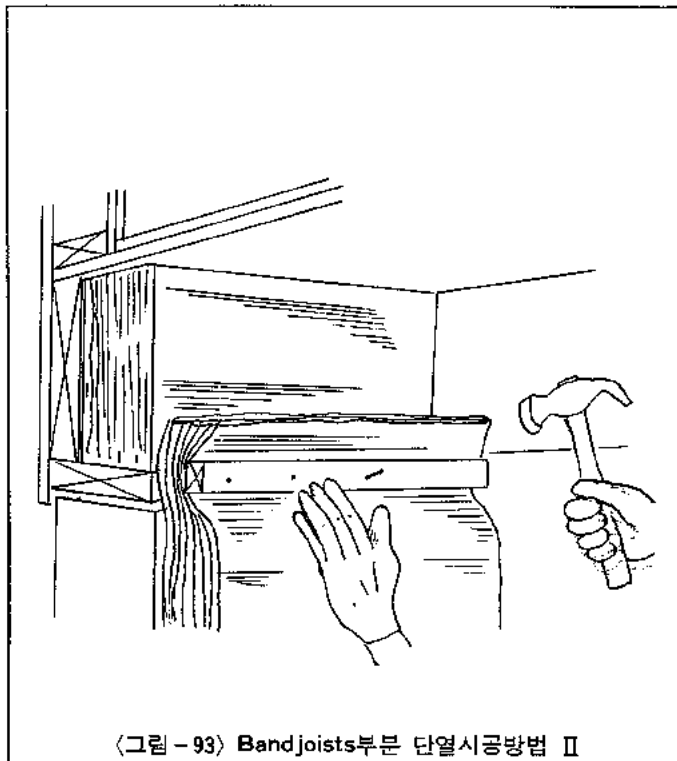
단열제외에 發泡樹脂系 단열제중 rigid 단열제를 이용하면 <그림-94>와 같이 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목조바닥 밑에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는 마루바닥을 전부 뜯어내야하므로 제일먼저 걸레받이를 제거해야 하나 만일 벽에 내부마감재가 미장합판등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천정돌림대까지 제거해야 하므로 공사가 커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또한 공사시에 마감재의 취급이 소홀하므로 손상이 많아 원형복구에 끝마무리가 미려치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95>는 목조바닥 단열시공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청탁한번 불신당고
청탁두번 과멸온다

대화의 광장

“우리들의 이야기”



金 寬 旭

서울공대 건축과 졸
서울공대 건축과 대학원졸
대호건축연구소
'84 회원건축설계작품 공모전
대상 수상.

최근 우리 건축계에 비평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는 전문적인 잡지가 등장했다. 그렇게 불문율처럼 이야기 못했던 분야가 서서히 싹이 움트는 듯싶다.

사실 몇몇분들의 좌담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인상과 그런 형태로서 比評과 評論이 이끌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깊이 빠져들지 못했고 누구하나 서로를 당당하게 이야기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동시에 뒤에서 난무하는 이야기속에 결국은 한 사람의 설계자를 깎아 내림과 동시에, 전체적인 우리 모두의 지위와 양식이 일반인들에겐 상대적으로 의심과 이해를 못하게끔 하는 풍토를 만들어 준 듯도 싶다.

우리 회원이면 누구나 시시때때로 상대적인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설명안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 못함으로써 가져오는 무능력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또한 더 직접적인 과정가운데는, 관청이나 큰 개인기업의 경우나, 우리는 항상 위원회와 같은 건축설계분야 외의 비전문인이 개입된 심사(?)제도 같은 것도 왕왕 맞닥뜨리며 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여 建築主로서의 방향의 유도나 큰 의미로서의 일반 사회·문화적인 시대의 배경을 이끌기 위한 建築史的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노력이란 생각은 되면서도, 과연 그러한 것이 옳은 대화의 기회를 통한 좋은 건축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意思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화가 과연 공통의 요구와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어 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나만의 피해의식인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모든 방향추구나 깊은 의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수용못한 우리의 개인적인 資質이나 姿勢, 그런 것들을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 인식 못한 우리

의 현 풍토에 문제도 있겠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의도대로 건축주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건축주 또는 그 집행기관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관련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깊이, 과정속의 대화의 시간과 수용의 자세를 서서히 정립하여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일부 건축인들 사이에 시도되는 比評이나 評論의 작업은 “대화의 마당이란 의미에서, 우리 건축계를 위해 보다 더 일찍 시도되어야 될 분야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곧 건축의 한 “장르”로서만 발전하여야 된다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에서 기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로 지금도 시시비비, 찬반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산 개발계획’에 대한 논쟁과 같이, 우리의 대중에게 건축행위에 대한 참여나 「대화의場」의 기초로써,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이다.

사실 경험이나 건축사적인 이론이 겸비된 지식인의 성장도 필연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자주 전달됨으로써,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나 건축이론의 일반적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된

다는 이야기이다.

대개의 건축자들, 그들의 욕망이나 의도 자체를, 서서히 우리의 필연적 발전과 함께, 생활의 필요요소인 건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상승시키자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 사고 싶은 것이다.

연극 무대에 관객이 필연적이듯 모든 예술활동도 자신의 철학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대상없이, 그 가치의 진가를 평가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우리 건축분야만큼 실생활에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밀접한 분야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일반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마당을 자주 만들면서, 우리의 개념이나 건축 이야기가 사람 모두에게 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제차 강조된다.

마침 시도되는 比評·評論의 움직임에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속에서만 움추리지 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찾아 대화의 분위기를 일으켜야 한다.

작품의 비평도 활발히, 서로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시대의 흐름이나 미래의 시간대를 맞추어, 자주 화제를 일으킴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도 무엇인가 중요한 요소를 전달하여, 전체적인 조화있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比評·評論이란 어휘 자체에서 오는 어려운 의미에 놀랄 것 없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것들을 활발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속에 대화의 문을 항상 열도록 함이 필연적인듯 싶다.

이런 「대화의場」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에 기준을 두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建築文化의 暢達은 우리의 이런 시도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가치 기준의 설정이 유도되고, 그럼으로써 건축주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자연적인 공통의 의식흐름을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좀 더 쉽게 공동 가치관의 범위를 좁힐 수 있을 듯 싶다.

素描



張起仁
三成建築設計事務所

建築士란

서울시에 처음 도시계획령이 선포되고 다음 해인 1940년부터 지금의 건축사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建築代書士 면허시기가 있었고 뒤이어 건축설계허가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전문대학을 나온 한국 건축인들로서 개인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이는 수십인정도이고 대개 官公廳에 직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때 나는 조선공영이라는 도급업권 분양주택을 경영하는 건설회사에 직을 두었기에 대서사 면허를 따는 영광을 입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전문이라기보다는 建設業에 치중하였고 건축기사로서 종사하는 일이 많았다. 후에 분양주택 또는 주택건립이 성행되면서 그 허가 업무를 전업으로 설계사무소를 차려 재미를 보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은 소규모건축 아니면 주택 정도이고, 대규모 공공건물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건축기술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建築技術의 연구와 습득에 뜻을 두었던 나로서는 고도의 기술의 정진에 힘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돈보다도 영광된 기술의 창조에 뜻이 있었다고나 할까. 건축을 하는 목적을 돈·예술·기술중 택일하라면 技術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돈벌이도, 예술의 창조도 영광된 일이지는 하나 무엇보다도 건축을 창조하는 기술이야말로 인간이 지니는 가장 우월한 品性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建築物이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이라 말했듯이 낡고 깨지기 마련인가 한다. 과거 40

여년동안 손을 댄 건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돈암동에 지은 한옥 몇채가 남아 있기는 하나 건립 당시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사고석벽에 타일이 붙혀지고 벽돌벽에 인조석을 바르는등 변모되었으나 木部만은 옛색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다.

아쉬운 것은 건축계의 선각자인선故朴吉龍선생의 명작도 사라져 가고 있어 자칫 그 발자취도 알 길이 없어 지게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회하는 세상속에 쓸모 없어져 헐리고, 변란에 소실되고 재개발에 사라져 가니 남아 있을 길이 없다. 우리 국민의 삶과 건물의 보존이 같은 운명을 지닌 것 같아서 한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본래모습대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듯이 건물도 오래 생존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의 아파트나 사무실건물이 장차에도 有能하여 활용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좁은 땅에 살아 남고자 한다면 그 무언가 독특한 優秀性, 別난 運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역지소리로 치라리 단명한 건축을 도모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듯 건축은 사라져도 기록에 남는 것만 못하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건축사지에 기록되어 남겨져야 한다. 회원 여러분께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짓기만 하면 남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덩으로써 남게 되는 것이다.

建築文化란

건축이 지니는 인류문화의 일면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韓國建築文化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 외형으로는 서구식 또는 국제적 건축기능과 재료·공법의 모사 또는 再現이라 하여도 크게 모순되지는 아니할 것

이다. 이것은 고립된 한국인이 아니며 세계속의 국제적 인간으로서의 변천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귀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생활이 그 고유의 생활형식에서 점차 국제적 생활 형식으로의 推移에 따른 것에 건축도 부합되었을 따름이다. 이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건축인의 방향도 자명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남과 함께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활내용이나 정신은 서구화 되고 국제성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住居生活에서 그러하다. 신발을 벗어야 하고 소파에 앉기 보다는 방석에 필석 앉는 것이 편하고 온돌바닥에 드러누는 것이 안락하기 때문이다.

精神生活 또한 같다. 나이가 많다고 존경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며 친족이라고 보다 친숙감을 배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孝라는 정신이 있어 미덕으로 치는 한편 지나친 어기심 배금사조로 흘러가고 있다. 앞의 것은 강요되는 儒敎式 감정이고 뒤의 것은 현대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건축도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게 마련이고, 이 향방을 그릇되지 않게 하는 것도 건축인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건축문화가 지나는 일면이 여기에서 推究되면 더욱 앞날의 문화가 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傳統建築이란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진 건축으로서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하여지는 건축을 뜻한다면 집작은 가나, 지난 세대에 대한 뿌리를 찾으면 내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내 나름대로 세겨 만들고 지녀왔기에 남의 건축과 다른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맞볼 수도 있다. 엄밀한 뜻

으로는 한국고유의 건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의 것이라도 내가 지나면서 내 나름대로 바꾸어도 보고 고쳐 놓기도 한 建築이고 또 내가 만들기도 하였다면 내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일본인의 외모가 같다고 하여 동일시할 수 없듯이 지난날의 한국건축과 중국 또는 일본 건축이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 韓國 傳統建築은 嚴存해야 한다. 그 건축이 사원이 어디에 있든간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한국땅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木造韓屋을 설계하면서 이것이 창조나 아니냐 회의하며 득의반, 혐오반으로 뒤범벅된 뇌리속에 내것을 찾아보려고 험들인 일도 적지 않다. 모방이다. 개현이다. 복원이다 하면서도 그 참뜻과 가치를 찾을 길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의 창작이란 어느 정도의 創意고 얼마만큼이나 모방이나 하면 어떤 부문 외에는 모두 모방이 아니고 재현아닌 것이 무엇이랴? 구체적으로 2만5천여語로 엮은 기록고의 성서(구약·신약성경)나, 1만5천여 단어를 구사한 셰익스피어의 글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기를 현대문학 소설 등에서 뽑아 버린다면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든 변형시켜서든간에 사랑의 이야기기를 再現·模倣·類似, 아니면 剽竊이라 하지 않고 창작이라 간주한다면 건축에서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료·구조·기능·공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意匠과 藝術性이 斬新하고 초창성을 지닌 것인지 묘연할 따름이다. 외국건물을 그대로 이땅에 세웠다고 하여 우리의 건물이라 하기에는 꺼림직하다. 그런대로 한국적이 것들이 있다면 다소나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현대건물에서도 한국적인 고유미나 특이성을 강조하여 시도는 해보았어도 성공적으로 재래 목조한국건물의 인상이 풍기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적인 풍미를 시작해보는 마음은 있어야 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하

여서는 내것을 알고 남의 것을 배워야 한다.

技術이란

물건을 만드는 솜씨 좋은 재간을 뜻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바치·장인(匠人)·공장(工匠)이라 하였다. 이들의 재간은 선인들이 남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배워 익히고 거듭 훈련되는 동안의 기층유적으로 새로운 기법이 진전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기에 선인들이 만든 것보다 더 우수하고 다 조형미를 지니는 건축물을 창안하는 오묘한 술법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러 경험을 쌓는다고 하여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自己分에 맞는 범위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축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해되면 전문적인 분야로 자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설계·시공·학이론까지 살펴보고 직접 터득도 하였지만 사실인즉 그리 많고 깊은 기술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되새겨 본다. 일반보편성이 있는 주택·아파트·사무실건축은 그런대로 누구나 설계는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독특한 내용과 관여와 조건이 수반되는 건축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선배들의 경험자료들을 모아 남기는 길 밖에 없다. 내 경험으로는 수력·화력 발전소까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술을 정리기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후배들에게도 남김이 없다. 유산을 바라는 마음에 비례하여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큰 뜻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체육장·강당·屠畜場 등등 새로운 설계일이 끝날 때마다 정리한다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한스렵기만 하다. 병원·호텔·공연장·음악당등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건물의 설계보다 더 중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의료기기 및 운영관리 기술, 호텔의 가장·집기·운영방식 등의 조사 선택이 있어야 하겠고 그 용역비는 설계비에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공장기계류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우리 무경험자로서

는 불가능한 일이고 모든 것을 외국의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設計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제작(또는 구조등에 관한 계획을 도면·시방서등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을 짓는 注文記 또는 명령서라고 할 수 있다. 주문기나 명령서가 잘못되었다면 그 건물은 이미 실패작으로 설계자는 패전장군의 초라한 모습으로 化할 것이다. 패북은 병기지상사란 말은 전국시대에도 통하는 일이지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가 실패라면 설계자는 보상할 길도 없거니와 설 땅이 없을 것이다. 불비·불충분·애매한 설계서는 설계자의 노력·시간의 부족에서 오거나, 자기 능력을 과신하거나 과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기회든 설계파제는 경험한 건물이 그대로 반복되는 일은 없고 조건이나 내용이 모두 새로운 것이어서 류형인 건물이라도 새로운 자료와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면도, 서류도 비교·대조하는 안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직접 체험하거나 많은 선지자들의 지혜를 모아 평가 응용하면서 완숙된 注文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좁더라도 깊은 우물을 파는 자는 기필코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만능설계자는 만사무능하다는 불미로운 호칭이 쓰여질 것이다.

用語란

우리가 쓰는 말로서 특히 일반사전에도 없는 전문분야의 낱말들을 가리킨다. 건축용어에 뜻을 두어 수십년이 지났으니 우리말도 미처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로는 외래용어에 대한 표기법으로 실랑이를 할 때도 있다. 도면에는 생각되는 대로 적어 넣기도 한다. 영어나 독어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한다고 해도 영어나 독어 발음으로는 필수가 없다. 또 현대는 간략화 간평화하는 추세에 있어 略語·또는 줄여쓰기도 한다. 아파트는 한국어로는 공동주택(apartment house)

을 뜻하며 또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또 漢文字를 버릴 수 없다고도 한다. 우리의 姓氏는 漢文으로 되어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용어에 있어서는 막연한 상태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赤·紅·円·朱등의 참뜻은 漢학자와에는 엄밀히 해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순 우리말을 漢文으로 옮기는 사전도 없다. 그러기에 漢文字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한글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축사라면 건축역사를 말함인지 건축설계사를 뜻하는지 분간하기에 당황할 때도 있다. 그러나 도면에 기입하는 낱말들은 정확하게 써야하고 영어등은 철자가 틀려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motar, asphalt등의 기입으로 공사

전적을 하다 말고 용어사전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mortar asphalt의 잘못이라 設計者が 얼굴을 붉히던 일도 생긴다. 설계도에는 멋진 글씨보다는 정확하고 오해가 없는 글자라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설계란

직곡선·단위 도형들을 컴퓨터로써 묘사하는 것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건축계획·설계 및 적산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정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이미 각 건설회사에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PERT 또는 CPM 라는 신기법을 실용하고 있다. 이에 생소하여 할 말은 없지만 장래를 누릴 여러분들은 쉽고 좋고간에 배워두어야 한

다. 앞으로 올 선진시대의 무식을 면하고자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의 발돋움이 필요하고, 새롭게 새롭게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많은 것이 불편하고 살아 남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建築士協會는 2000을 헤아리는 회원과 20돌 성년을 맞는 발전을 크게 치하하는 바이다. 알게 모르게 회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협심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된 내일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가 약진할 것을 다지는 바이다.

책임과 정성

아동문학가 마해송씨가 살아계실 당시 쓰셨던 글 한편이 기억나 그 내용을 소개한다.

물 줄줄 흐르고 공기 좋은 정릉 골짜기에서 노후를 조용히 지내시려 이사를 하셨다. 개천옆이라 방에 습기가 차고 장판이 썩어 구들을 다시 놓고 장판을 깔았다.

또 썩어 이번에는 수소문하여 잘 놓는다는 구들공을 불러 다시 놓았다. 그러나 또 썩어 다시 놓았다. 이렇게 열번을 하고서야 겨우 성공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간 거쳐간 기술자(?)는 하나같이

“이렇게 놓으니 썩을 수 밖에요…… 이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마해송씨는 공임에 술값을 보태며 고맙다고 인사를 톡톡히 하곤했다. 그러고 난 며칠후에는 구들을 뜯어 내고 다시 놓는 일을 계

속해야 했다 한다. 열번씩이나 다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집을 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수선하며 생활의 폐단을 일으켜트리든 것인 지 거쳐간 숙련공들은 모르는 일이다. 숙련공으로서의 책임과 정성을 잊어버린 사고이리라……

나도 저들과 같이 나만의 자만에 빠져있지나 않은지? 반성하게 하는 글이다. 이후 나는 건축에 관한 기사라면 관심을 갖고 읽게되었는데 마해송씨의 그 글은 영영 잊어지지 않는 구절이 되었다.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질서를 지키지않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수없이 접하는데도 나와는 관계없다고 무관심하여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답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직업은 물론 이들 숙련공들과

는 다르다. 자기 일과만 끝이 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일을 어떻게 이어야 하나, 하고나 생각할까?

우리는 수수받는 것은 같다고 하고, 한 프로젝트를 받으면 타당성있는 건물, 그 건물 나름대로의 특성, 주위와의 조화, 또 아름답게 하기위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여야 하나 생각하다 보면 퇴근후에도 머리가 빙빙 맴돌아 떨어버릴 수 없으며 어떤 때에는 잠도 실칠 때가 허다하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 잔의 술을 찾아 선술집에 돌르면 종종 같은 건축계의 친구를 대하게 될 때가 허다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경기가 좋으니 자주 술을 마시지,”

할 것이다. 아!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한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월요일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토요일,



李 康 植
(주)완증합건축

어? 월말…… 무더웠던 여름이 었그제 같았는데 벌써 난방걱정을 하게되고 또 몇가지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공사를 중단시키시요 하는 나라님들..

필자가 학생시절 사석에서 일본에서 갓 귀국하신 토목과 황교수님께 건축과 학생입니다 하고 인사 드렸던 일이 있는데 교수님은

“요즘 일본에서는 학생들간에 건축과 학생이 최고의 인기란다. 돈을 얻어쓰려면 의대생하고 데이트를 하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들으려면 문학청년하고 하고 결혼을 하려면 건축과 학생하고 연애를 하라는 유행어가 있단다” 하신다. 그래서 나는 “왜 토목가는 스케일이 커서 좋은데요”하고 반문하였더니 “토목가는 도시에서는 일이 적고 지방에 나가면 몇년이고 썩다가 또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때들이 갈아서 결혼상대로는 쳐주지 않는다.

이러운 수학을 따지는 학과 출신은 빈틈없고 소심하며, 실험하네 하고 실험실에만 처박혀 지내는 학과 출신은 활달하지가 않은데 건축과 출신은 미술가와 같이 괴팍한 성격을 가진것도 아니면서 멋을 아니 그얼마나 좋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교수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떼기있게 지내던 학창시절이 생각난다. 그리하여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받은 면허증……

그런데 이 모두 허울좋은 개살구였던가? 한껏 깊은 함정에 빠져든 기분을 떨어버릴 수 없다.

일에 붙혀 지내며 봉급받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주는 입장이 왜 이리 괴로운 것일까. 운영이고 수주고 참견을 하고싶지 않다. 직원들에게 좋은 경영주도 아니며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도 아니며 좋은 자식노릇도 못하는 입장이라 처량하여지기만 하다.

모르는 이는 “소장님이 무얼 직접 그리시요? 골프나 치시지”하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 측에 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틀림없이 내가 하여야 할 일 이상을 위하여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것일 것

이다.

흔히 이탈리아의 관광은 선방의 대상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탈리아로 향한다. 그리고 미케란제로의 작품을 보고가며 미케란제로를 찬양한다. 그 수입이 이탈리아 정부예산에 육박한다.

그당시 미케란제료가 아무리 재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여 주고 키워준 피란체의 성주가 없었던들, 또 로마에서 교황이 성원하지 않았던들, 지금 세계의 관광객이 그의 작품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로마로 몰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예술품의 탄생은 예술가의 열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한 정치인들의 뒷받침이 없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들의 노하우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따져질 수 없으며 따져지지도 않는다. 이해 정성 책임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가치가 빛이 나게된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정성들인 음식이 더 맛이 있는 것과 같다.

근간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는 고마움을 느낀다. 허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위여건 조성 없이는 이를 수 없다. 즉 종횡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서로 맞지않아 물과 기름같이 분리되어 돌아가며 철차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건축주나 우리 건축사들은 잘알고 있다.

근래 우리 건축은 눈부시게 발전되었으나 서로 보완적인 법적 뒷받침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모두가 소망하는 구심점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의 책임 회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건축물이 하나의 예술의 결정체로 승화되기 위하여는 모두 협심하여야 하며 어떤 제제만으로는 안되는 방향으로 이끌뿐이다. 되는방향으로, 이끄는 개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좋은 결실을 맺어 후대에게 떳떳한 선조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 건축은 외국 건축물의 흉내,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입에 오르내린다. 물론 표절이라고 물의

를 일으킨 예도 있지만 우리의 지리적인 요건이나 우리의 사상이 모방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통의 편의로 국내는 일일생활권에 속하여 있으며 외적으로는 지구촌이라는 현대에 살고 있다. 옛것만을 고집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쓰는 우리 건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우리 손 때를 묻혀 갈고 닦는다면 훌륭한 전통으로 승화될 것이며 몇년 가지않아 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면 전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훌륭한 전통을 이어왔고 훼손되지 않은 전통을 떳떳하게 자랑으로 삼고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상으로 현대건축을 현대에 맞는 건축과 우리의 이념으로 발전시켜야 후세대가 그 시대의 외국과 비교하여 모든면에서 떳떳한 선조로 판단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급속한 문명의 발달로 더욱 편하게 살려고 하고 또 복잡하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채질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스미디어는 더욱 시각적인 요소를 발전시키며 이에 부응하는 건축물로 시각적인 요소를 안고 발전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때그때 시각적인 판단으로 내면의 깊이 보다 한 때의 요령으로만 홀리 가치판단마저 호려지며 어려운 사항에 처하였을때 슬기롭게 판단처리 하는 능력마저도 저하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마저 든다.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판단되어 표현되는 작품이야말로 서로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되어지는데 한때의 시각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그때에만 만족(?)되는 작품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의 건축물은 한 때뿐이 아닌 수십년을 이어 서있고 사용되는 생활의 도구이며 작품이다. 결코 재산가치로만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편리함을 영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建築士—그 虚像과 実像

金 榮 洙
김영수건축연구소



1. 建築과 建築士

〈建築〉— 우리에겐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필생동안 아끼고 어루만져도 그 사랑스러움을 다 가져보지 못할것만 같다.

아무리 예술이 길다지만 어이 긴 인생의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아마 심령과학이 말하듯 심령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다시 心靈建築의 불을 당겨도 보리라.

정말이지 건축에 대해서 뭔가 사족을 붙인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욕이 될까 두렵기도 하지만 지면이 아깝다.

뛰니해도 우리의 종교라고 할 건축의 꽃은 바로 우리 건축사이기에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읊는 찬사만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建築士.

이는 우리가 건축사가 아니면 평생 갖지 못하는 하늘과도 같은 이름이다.

모태에서부터인지 아니면 눈을 뜨고 배우면서 인지는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값진 생명을 다할때 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버린 天職임에 고개가 숙여 진다.

가족의 등지를 지키면서 서러움과 즐거움의 영육을 살아온 그 원천도 바로 여기다. 그리고 영원히 버릴수 없었던 건축에의 계속된 사랑과 집념도 바로 이곳에서 재생산된 것. 정말 생애를 던져버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들만의 보람이요 긍지의 화신이다.

건축의 꽃인 건축사가 맺는 열매는 누가 뭐래도 역시 創作.

위대한 그 모든 예술의 탄생이 건축속에서가 아니면 부정될 만큼, 건축의 걸작품이 갖는 종주적 창조가치는 역사가 증명하고 문화사가 이를 대변하

고 있다.

불후의 명작들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건축대예술의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어디 손으로 셀수 있는 정도인가.

구데아(Gudea)의 신전평면도 이래 사천 백여년, 수메르의 도시국가 라가시의 출토품(루블 소장)부터 그 얼마나 오랜 성장인가?

그 많은 예를 생략하는 것이 상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설명이 되리라.

2. 거울속의 自己虚像

건축사는 이상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먹는 양식도 경제가 아니라 문화라야 한다.

물론 이상과 경제를 소홀히 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존의 생활과 문화의 본질이 건축의 핵심처럼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체와 부체의 혼동은 조화이전에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됨을 우려치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많은 우리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건축사도 솔직히 예외는 아닌것 같다.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면서도 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과장 또는 과소평가되는 인간의 어두운 속성이 나타나고 있음이다.

거울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허상을 보면서 좌우가 바뀐 원형을 다시 고쳐보지만, 건축사로서의 자화상을 얼마만큼 솔직하게 그려낼 수 있을지는 쉽지 않으리라. 개인, 전문인, 사회인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했는지, 특히 내가 우리 건축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모든것은 후일 나의 것으로 되돌아 온다는 적덕윤회의 순리를 살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

다듬고 거울을 보자.

창작은 과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良識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며, 功名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될때,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獨創을 즐기는 여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大作의 기업인도 소작의 기능인도 거울속에 비춰진 건축사의 허상이다. 손끝의 기교나 입끝의 명성도 마찬가지다.

단체의 사유화나 조직의 백안시도 틀릴것이 없다.

책임이 명예로 둔갑되고 의무가 권리로 전도되는 외침도 많다.

무기력이 전문시되고 활동력이 질투시되는 아집도 예외는 아니다.

신진은 복방을 기웃거리고 중진은 젓밥에 들락거리며 원로는 도장에 재미있어 하는 풍문은, 하늘거리는 허상의 촛불조차 꺼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3. 社会의 他人—그 実像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선량한 다수의 힘이다. 건축사의 전문사회 또한 다를 바 없다.

어려운 생업속에서도 선망의 적을 지키기 위해 技藝를 위해 헌신해온 다수의 에리트사회임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부터 한세대동안 쌓아 올린 都農에서의 그 공적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의 자랑이다.

反文化운운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악조건을 이기고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에, 앞으로의 채찍에 불과한 격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어려운 건축행정속에서도 건축주를 설득시키며 긍정적이고도 진취적인 사

고와 창작을 계속해와 오늘에 이르렀고, 국제사회에서도 손색없는 수준에까지 올려 놓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이상하게도 사회에서는 언제나 타인이었다.

뿌리깊은 인습의 영향과 발전도상의 전환점에서 필히 겪어야 하는 과정임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대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비해서는 항상 과소평가되었다.

그뿐 아니라 건축창작의 가치와 고되는 왜곡되고 평가절하되기 일췌였다.

건축주의 선심인양 경쟁속에서는 주객이 상반되고, 공무원의 재량인양 법운영에 있어서는 선후가 모순되는 일들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건축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국해한 건축사의 어설픈 준공무원 예우는, 처벌위주의 행정수단만을 강요하는 등, 오히려 부조리의 침병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금기야는 설계감리와 분리라는 創作分節의 칼질을 당하고 미증유의 반문화적 쇄사술에 묶여 버리고 말았으나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법제화중이라니 시대의 죄인은 모두의 것으로 변해 버릴 찰나에 있다.

그러나 책임의 전가는 악자의 전유술, 누구를 원망할 대상조차 잃어 버리고만 지금이다.

실로 창작의 수난기를 살아가는 건축사의 아픈 마음들엔 자위와 인내란

약 밖에는 없다는 말인가?

예술과 문화의 그 어떤 위대함도 사면초가된 우리의 실상을 정당하게 보여 줄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으로 밖에 돌아 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일수도 있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사회활동과 작전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앞당겨 줄 뿐이다.

4. 虛實을 딛고<아키토피아>를

건축은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사전과도 같이 건축사 개인의 창작이기에 앞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모두의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지적된 허상과 실상의 모습들은 모두의 실천사항이고 공동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선후의 순서는 우리 건축사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앞장은 언제나 외로운 고역이며 남다른 용기를 보여야 하는 법이다.

창작인 특유의 창조적 두뇌와 개척의 기상야 우리에게 충만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의 과오였든간에 지난날에 형성된 소외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우리의 접근방법과 실천의지가 더없이 귀중한 지금이다.

어려운 건축원론은 쉬운 생활건축으로 풀어서 현장에서 사회와 함께 뛰는 노력과 인정을 베풀어야 하고, 이러한 분위기의 성숙은 자연스럽게 창작의 자유로 되돌아 와서는 유기적인

상호관계의 형성과 가치체계의 정립이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의 과정이다.

들판에 수없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건축가라면 정원속에 옮겨져 활짝핀 사랑스러운 꽃들은 건축가 중에서도 바로 건축사이다.

들판의 아름다운 향기가 사회의 싱싱한 바탕이 되고, 정원의 사랑스러운 꽃잎들이 사회인 개개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때, 건축창작계의 새로운 질서는 정사의 주인공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아키토피아 Architopia>가 우리의 고향이고 이상향이라면 바로 건축이 역사의 올바른 주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건축사는 그 주역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요람이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날의 허상과 실상들을 거울삼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흔쾌히 합류하고 새로이 웃음을 여미는 창조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소라도 어지럽혀진 우리의 아키토피아를 진정 민족의 역사와 세계의 문화사속에 그 正殿으로서 훌륭히 물려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들 건축사가, 마음껏 이상과 그 가능성을 실현시킨 입지전적인 창작이란 것을 아키토피아의 正典속에 고이 남기자는 말이다.

統一된 國土를 상상 한다

建築設計라는 직업은 창조적인 보람과 즐거움 만큼이나 심신의 고통이 그칠날이 없다. 한치의 선택에 갈등을

일으키며, 설득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는가 하면, 납품기일과 자금의 압박속에 대개는 밤낮으로 시달린다. 끊임

없는 스트레스의 연속된 나날이다.

그러기에, 몇장의 원고를 쓴다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나, 이



柳春秀
空間研究

기회에 상적인 현실에서 훌쩍 도망가며 스트레스를 해소 할겸 엉뚱한 공상을 해본다.

“統一이 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을 조금은 직업적인 의식으로 「통일 이후 10여년 지난 국토의 공간구조」를 나름대로 상상해 본다.

●統一, 이 말은 國土 合一의 문제도, 역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 뿐만아닌, 누구나의 일상에서 잊혀진듯 가슴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모두를 합한 거래의 소리없는 염원이다.

인류문명의 총체적인 목표는 결국 원시시대 이래의 신비인 저 별, 우주로 향함에 있듯이, 부의식 가운데 우리 한국인의 모든 일상적인 목표의 합은 결국 미래 어느 켄가의 統一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가? 통일의 염원은 利에 있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수 천년 이어온 찢줄의 흐름이 막힌 貫性의 문제이며 본능적인 민족감정의 발로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이성으로 변수가 너무도 많은 미래에의 예측과 지루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의 조건— 예측은 우선 현실을 바탕으로 한 많은 가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南北 어느쪽이든 만족 할 수 있는 단합된 평화적 수단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역학구조의 안정속에 민주적인 국가로 이루어 짐을 전제조건으로 가정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폐망으로 자유를 박탈 당한 통일국가의 장래 예측이란 즐거운 상상을 위한 본고의 취지에 어긋 날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는 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시점은 어느때로 할까?

서기 2001년으로 하자. 그해 8월 15일 자정을 기하여, 南北 양측의 일년전 공동성명에 의하여, 전국을 진동하는 광파례의 함성과 만세소리 속에 반세기의 장벽이 헐리며, 천여만명의 뿔뿔은 인파가 휴전선 부근을 뒤덮은 그날을 상상한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세월이 흘러간 우리의 국토는 어떤 모습으로 Mapping될 것인가?

●통일 10년의 배경— 미·소·중·일, 주변 강대국의 역학균형 속에 통일된 한국은 이념적으로 자유진영에 소속하지만 경제, 문화, 사회적인 교류는 어느 나라와도 스스럼 없는 관계로 발전된 상태이며, 오히려 국경이 접한 중국이나 소련과의 육로를 통한 교류물량이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은 추세로 되었다.

●인구이동— 해방 직후 일본이나 중국 대륙으로 부터 많은 동포가 귀국한 이상으로 수 많은 동포가 국내로 이주할 것이다.

도피성 이민을 떠난 1970년대 이래의 교포들이 통일조국에 뺨을 붙고자 2 세대를 태리고 귀국할 것이며, 중국 吉林省일대의 동포들은 물론 소련의 사할린, 타시젠 지방의 동포들이 또한 자유로이 조국을 찾을 것이다.

남북인구의 합은 流入民을 포함하여 적어도 1 억이 되며 이미 소국이 아닌 세계속의 大國으로 등장 할 것이다.

다른 얘기로는, 언어, 풍습 등에서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간직한 모습이 중국이나 소련에 거주한 동포들에게서 발견 될지도 모르리라.

국내적인 이동은 어떠한 것인가? 2, 3년 동안은 정착과정을 밟느라 다소 혼돈된 상태이나 70~80%의 인구가 도시생활권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남에서 북의 고향으로, 地에서 남의 혈연을 따라 이동하는 인구도 많겠지만, 그보다도 定住空間 선택의 폭이 넓어진 탓으로 새로운 산업기지를 찾아 이동하는 취업인구와 관료및 대기업의 진출입 유동인구가 훨씬 크리라 예상된다.

또한 중요한 이동은 定住를 위한 장기 이동보다 관광인구 등의 단기이동 인구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에 좀더 빠르고 대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 System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자본의 이동— 이것은 인구이동의 同意語 일수 있다. 해방 전에는 南農北工의 단순한 산업구조 였으나 분 석 반세기동안 군수 산업의 발달로 남해가까운 중공업 단지과 동해 북쪽의

임해 공업단지로 분산, 남지 균형을 이룰 것이며, 부산-대구-대전-서울-개성-평양-신의주 및 중국의 안동을 잇는 상공업 도시의 띠를 형성할 것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도 대부분 이 띠로 들어올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서해안에도 울산, 동해, 흥남에 버금가는 항구가 조성될 것이며,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이즈때 이미 시도한바 있었던 운하가 개설, 영동의 1, 2차 산업물이 국토를 수평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국토를 양분했던 D, M, Z를 따라 이루어질 세계적인 자연공원을 水平軸으로 하며, 백두산에서 장진강을 따라오는 개마고원 일대의 내륙풍물과, 천해의 모래사장이 있는 동해안을 따라 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산을 수직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아, 백두산, 갑산, 묘향산, 구월산..... 그 이름을 筆로 쓰는 것 만으로도 마치 「스프투니크」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의 천연색 사진을 처음 본 그때의 감동이 인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개발한 서해의 대륙붕 油田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온통 뒤 바꾸어 놓을까 걱정이며, 영원한 奧地, 아오지, 함경도 내륙지방은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거나 말거나 후손을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혁신(Innovation)의 전과—한국은 이미 세계의 구방이 아니기에 세계적인 Innovation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진원지로 한 문물이나 유행의 Innovation은 신의주와 부산까지 남북軸을 따라 전과 될 것이며, 호남과 영동으로, 그리고 점차 동해를 따라 북상할 것이다.

●권력의 이동— 물론 서울이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앙집권적인 정조가 될 것이나, 지금보다는 훨씬 지방 자치적일 것이다.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간의 배타적인 경쟁이 정치,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

이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이러한 意識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계획된 대단위 인구가동이나 힘의 균형있는 안배가 요청될 것이다.

●교통 System——이상의 모든 움직임(移動)의 실제적인 표현은 교통망으로 視覺化 될 것이다.

부산-서울-신의주의 남북축과, 목포-서울-청진을 잇는 또 다른 남북축을 편의상 X-Belt라 한다면, 이 Belt를 따라 北으로는 중국 대륙과 연결되며, 남으로는 일본과 연결되는 해리터널을 따라, 북경과 동경이 지척이 되는 Ecumenopolis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X-Belt를 축으로 하여 동서를 잇는 Net-work이 형성 됨으로서 한반도 전체가 1일 생활권이 될 것이다.

●도시의 위계와 내부구조——서울이 제1의 수위도시 일것은 여전하나, 도심의 환경 변화와 지하교통망의 발달로 기존 선진도시와 마찬가지로 多核化될 것이며, 밤낮의 도심인구 변화가 너무 커질까 우려된다.

특히 평양이 서울에 대응 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부산 또한 훨씬 독자적인 규모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므로, 제2, 제3의 도시인구율이 크게 증가 하여 수위도시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지방 도시가 X-Belt 상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도시의 利點을 공유하게 되어 오히려 고유한 개성을 살리면서 발전 되리라 기대된다. 색이나 면에서도 가까운 지방 도시에 가면 대도시와 다른 도시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형태(Surface)——전술한 바와 같이 지도상에 X-Belt를 따라 都市群이 形成, 반점들이 늘어져 붙은 형상의 Megalopolis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기에 定住할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어디에서나 비슷한 생활환경과 質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국토 공간의 인식——“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저 북한”, 처음에는 화평이나 중강진 같은 곳에서 한글 간판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먼 외국에 여행 온것 보다도 신기하기만 할 그곳이 우리나라, 같은 한국이란 인식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데 놀라게 될 것이다.

우주인이 지구를 지배한 후 한달만 지나면 마치 예전 부터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적용할 것이라는 어느 S.F 작가의 말처럼, 분단 상태의 기억은 오히려 먼 옛날의 일 처럼 느낄 것이다. 마치 35년간의 일제 시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럼 말이다.

統一 10년이 지난 그때, 우리는 아마 중국,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 歐美가 태평양 저쪽이나, 중동을 돌아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인접된 지척이란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좁다고 느끼기 이전에, 넓은 세계와 만 붙어 있다는 대륙귀소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일본, 미국보다 철도로 이어지는 북경이나 유럽의 소식이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른다.

영어 일방적인 지식 계층에 다양한 국제 언어가 유입될 것이며, 동시에 세계속의 한국의 모습은 고구려 이래의 대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것이 한 낮의 공상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길 빌어 마지 않는다.

할일 많은 세상 — 논리적 백일몽

일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일이 바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난다. 일이 없어도 걱정, 일이 많아도 걱정인 것이 설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2000년 서울 마스터 플랜 시안이 발표된다. 단세포처럼 하나의 중심을 향하여 발을 들이고 비비고 섰던 도시가 감자넝쿨처럼 여러개의 핵을 달고 뻗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제시된다.

종로, 중구, 주해지역, 목동지역, 서초동지역, 신촌, 수색, 연신, 미아, 청량, 망우, 구의, 화곡, 개봉, 판악, 과천, 개포, 천호…… 도시의 활기를 결집시킬 수많은 감자들…….

서울시 도심재개발 사업 4단계 계획이 발표된다. 86년까지 완료될 소공, 동대문, 을지로 1가 구역들 32개 구역 172만 m², 87~91년 사이에 북창 건지, 관철 낙원동 19개 구역, 92~96년 사

이 인의, 효제, 종로4가, 5개동 12개 구역, 97~2001년 사이 창신, 송인, 청계천 7가동 5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 와! 할일 많다!

남의 일처럼 신문을 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다. 우리는 다른 독자들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은가?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볼 일이 아니지 않은가? 개발사업을 정부가 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金琪碩
아람건축연구소

전부 건축하는 사람들의 일이었다. 이 많은 일들을 누가 다 할까? 어느 어느 사무실 어느 어느 누가 다 할까? 어느 어느 시공회사에 어느 어느 기술이사, 부장들이 뛰어 다닐까? 생각나는 아무게 아무게의 얼굴들을 떠올려 본다. 그 사람들이 다 할까? 아니, 어렵도 없다. 내가 아는 아무게 아무게만 손꼽아보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도면이 전부 몇장이나 될까? 몇트럭이나 될까? 설계비가 도합 얼마나 될까? 누구손에 들어갈까? 기껏 십여년 사이에 일어날 이 엄청난 도시건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도대체 어떻게 그러할까? 일시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많은 일들의 용역발주를 만약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라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아마도 기질을 하고 나가 자빠지고 말 것이다. 상상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 누구를 시킨단 말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들은 해내어지고 말겠지..... 나는 지금 공연한 걱정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설계할 사람이 없어 집짓지는 적이 있었던가?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여서 늘 문제였었지. 일이 없는 것이 대체로 문제였었지. 그래서 최저요율을 정하고 예치금을 적절하고 서로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 상상만은 되지 않을 것이란 뚜렷한 논리도 있다. 서울에 지금 신임 할만한 설계사무실이 100개쯤 있다고 치고 (실은 100개도 안되리라는, 전혀 안되리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을 나는 만난 적이 있지만), 대체로 한 사무실에 한 구역씩을 맡긴다면 대충 이 일은 소화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화낸다는 뜻은 그려낸다는 뜻이다. 그냥 그려낸다는 뜻이다.

10여년 동안, 중소도시의 중심가의

크기에 해당하는 도심지를 대충 그려낼 수는 있겠지.

그런데,

대충 그려내기만 해서 될 일인가? 이 세대가 끝난 다음세대에는 손댈 여지도 없이 뻥뻥한 거대 도시가 하나 형성되겠는데, 눈 꼭잡고 밤새워 그려낸다고 될일인지?

완전히 확률적으로만 말한다면, 소인(나)에게도 한 구역쯤 일이 돌아올 수도 있을직한 일인데, 십여년의 시간을 준다고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

걱정이다.

백일몽 같은 걱정이지만, 그 걱정꺼리가 얼마전 신문에 발표되었다. 그러니 백일몽도 아니다. 백일몽이라면 논리적 백일몽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잘도 해내는 민족이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 그러니 지금 계획이 완료된 10여년 후에는 또 한번 세계 사람들이 놀라겠지.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입을 벌리고 기쁜 낯으로 놀래주기를 전심으로 바란다. 땅만 버렸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놀라주기를.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도시를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도시란 바로 사람 모여사는 재미를 의미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면 더욱 더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 생의 집합적 인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나는 오랫동안 서울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었다. 재미없는 인연이 즐거울리가 있겠는가? 인연이 재미없으면 떠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데 나는 서울을 떠나지 못하였다.

왜? 나도 모른다. 아마도 떠날 수 없는 인연이었던가 보다. 떠날 수 없는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서울에서 건축을 그린다고 끄적대는 중생들은 이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전환시켜야 할 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나간 십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십여년 동안은 아마도 한국 건축의 황금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독특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의 건축의 방법은 재래식의 방법이(다소 개량되고 쇄신 될 지라도) 역시 기본을 이룰 것이다. 건축은 주거본능을 다루는 것이므로 혁명적 이래 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며, 또 예측하기 어려운 주거방식의 혁명, 도시공간의 혁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시기에 도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우리는 벽돌을 쓰고 타일을 쓰고, 철근과 콘크리트와 철골과 유리, 합성수지를 병용하는 건축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 앞으로의 10여년 보다 더 큰 황금시기를 서울의 역사가 갖게 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이 엄청난 시기와 작업량을 우리는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습게 되지는 않을까?

도시란 비행기처럼 한 10년쓰다가 구식이라고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1000년도 쓰고 2000년도 쓴다. 1000년의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일이 없어서 걱정은 확실히 아닌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非破壞 試驗法

權 相 水
한서엔지니어링
개척담당 (252. 5144)

1. 타격방향

타격방향은 수평으로 타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구조물의 사정에 따라 이것 외의 방향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E. SCHMIDT²⁾ 및 J. KOLEK³⁾에 의하면 그림 2의 상태에서 마찰을 무시하고 또한 경사각에 의한 스프링 상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R_0 = R \left[\frac{n_1 - 2W \sin \frac{1}{R_\alpha}}{n_1 - 2W \sin \alpha} \right]^{\frac{1}{2}} \dots \dots (1)$$

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R_0 = 수평방향의 반발수치 R

R_α = 수평과각을 갖는 방향에 대한 반발수치 R

n = 스프링 상수

1 = 타격직전의 스프링의 늘어난 길이

W = 중추 (HAMMER MASS) 중량
실험에 의하면 대체로 이식을 적용하다고 하는 많은 보고가 있다.³⁾

슈미트 햄머 N Type에 대해서는 표 1의 수치가 PROCEQ S.A.의 취급설명서 (1977년판)에 나타나 있고 또한 () 내의 수치는 DIN의 소수 이하를 없애버린 보정치이다.

각도 α 의 경우반발치 (R_α)	각도 α 에 대한 수정치			
	上 向 +90°	向 +45°	下 向 -45°	向 -90°
10			+2.4	+3.2
20	-5.4 (-6)	-3.5 (-4)	+2.5 (+2)	+3.4 (+3)
30	-4.7 (-5)	-3.1 (-3)	+2.3 (+2)	+3.1 (+3)
40	-3.9 (-4)	-2.6 (-3)	+2.0 (+2)	+2.7 (+2)
50	-3.1 (-3)	-2.1 (-2)	+1.6 (+1)	+2.2 (+2)
60	-2.3 (-2)	-1.6 (-2)	+1.3 (+1)	+1.7 (+2)

표 1. N형 슈미트햄머에 의한 타격방향의 수정치, ()의 수치는 DIN규정치

2. 압정력

20센치 입방체의 공시체에 의해 반발정도를 측정할 때 그 압정 상태에 따라 반발수치 R가 변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압정력이 적은 만큼 R (반발수치)는 적어진다. 그림 3을 참고로 하여 일본 재료학회의 지침안의 보정치가 정해졌다. 한편 $\phi 15 \times 30$ 센치의 공시체의 측면을 타격하였을 때 반발치가 일정하게 되는 응력은 공시체에 따라 달라 25~60kg/cm²으로써 그것은 압축강도의 약 15%가 된다고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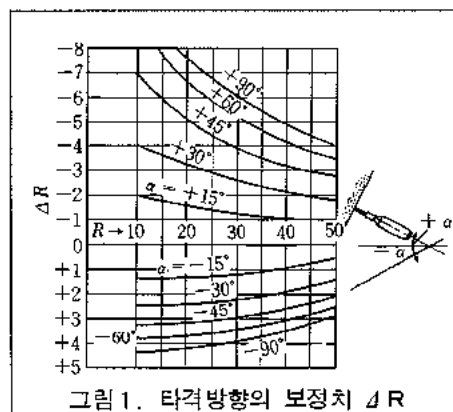


그림 1. 타격방향의 보정치 Δ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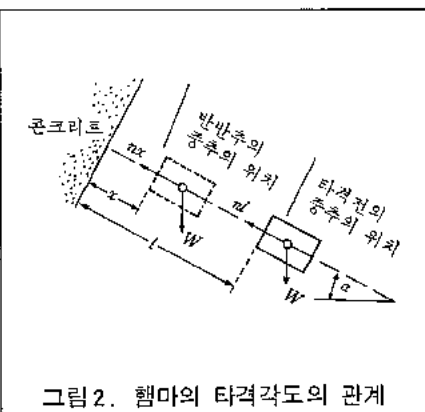


그림 2. 햄머의 타격각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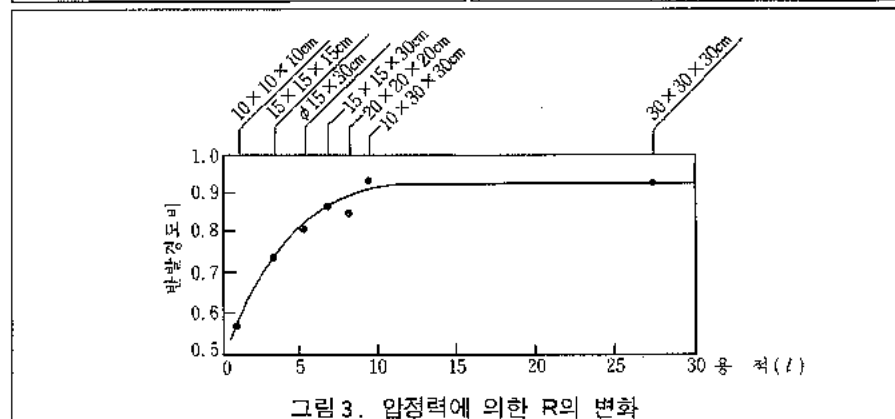


그림 3. 압정력에 의한 R의 변화

3. 공시체의 용적

공시체를 압정하지 않고 강고한 콘크리트 바닥등에 놓고 하향타격을 하였을 때 공시체의 용적에 의해서 반발치 R가 변한다.

그림 4는 (필자가 1982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서울시 토목시험 연구소(현,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실험한 결과로 공시체의 용적이 10ℓ를 넘게 되면 반발치 R는 일정하게 된다.

4. 부재의 두께

부재의 두께가 얇아지면 반발치가 적어진다. ASTM C 805에서도 10cm 이하의 두께를 가진 벽이나 또는 한변의 길이가 15cm 이하의 단면을 가진 기둥 등 굵기가 작고 지간이 긴 부재는 시험을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측정면의 상태

반발치 R의 측정은 형틀에 접해있던 평할한 면에 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서 타격면이 모르타르로 덮인 매끄러운 면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타격점의 바로 밑에 조골재 및 VOID가 있을 경우는 타격음 등으로 판단하여 그 지점의 수치는 비려야 한다.

일본 재료학회의 지침안에서는 그 편차가 평균치의 $\pm 20\%$ 이상이 되는 수치 또는 ASTM에 있어서는 평균치에서 반발수치 7 이상 벗어나는 수치는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틀이 철제라든가 목적인가에 의해 반발치가 변한다고 GREENE⁵⁾이 지적하고 있다. 흙손으로 마무리되었다든가 금속 형틀에 접해있던 면은 목재 형틀에 접해있던 면보다도 반발치 R가 10

~25%정도 커졌고 특히 그 만큼 강도가 커졌다. ASTM에서도 형틀제거후 표면을 연마한 경우 전체적으로 합판 형틀한 경우보다 2.1, 고밀도 합판 형틀한 경우보다는 0.4정도의 반발치가 증대한다. 한편 목재 형틀이라도 충분히 기름을 발라두거나 또는 강제와 같은 정도의 평활성이 있다면 양자가 반발치 R과 강도와의 검정곡선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다⁹⁾

콘크리트의 곡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만일 15×30센치의 원주 공시체를 정압하여 그 측면에서 반발치 R을 측정하여 검정 곡선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평면 콘크리트와는 차이가 생겼다. 전체의 조건을 동등하게 한 후 20센치 입방체(정육방체)와 15×30센치 원주체와의 측면에서 반발치 R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표 2에 나타냈다.

표 2. 평면과 곡면에서의 R의 상위

W/C(%)	20cm 입방체의 측면	15×30cm 원주체의 측면
50	45.1	43.7
60	43.4	39.2

6. 건습의 영향

충분하게 양생한후 건조시킨 공시체를 일시적으로 습윤하게 하면 R가 저하한다. ZOLDNERS⁷⁾에 의하면 표면만을 건조하게 하고 내부를 포수 상태로 하면 반발치 R은 약 5 정도가 저하하고 이것을 또한 氣乾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3일만에 반발치 R가 3 정도, 7일만에 반발치 R가 5 정도 회복하였다. 그러나 Young Concrete는 이러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氣乾 상태로 있다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로 되면 강도가 저하

되고 또한 반발치 R도 저하한다. 이것이 검정곡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자가 같이 저하하기 때문에 표면 건조의 영향을 과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며 표 3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濕空 양생한 것과 水中 양생한 것으로 동일 강도에 대하여 반발치 R의 차가 6~8 정도이고 또한 지침안에서도 연속수중 양생의 것은 반발치 R의 측정치에 5를 더 가산하여 검정곡선에 적용한다.

ASTM에서는 건조와 탄산화의 영향을 적게하기 위해 시험전 24시간전에 표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뒤 시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7. 장기 재령의 영향

수년을 경과하여 건조상태로 있었던 콘크리트는 탄산화로 인하여 경도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와 경도는 정비례를 하지 않는다. 만일 그 반발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강도를 추정하면 이상 과대치가 된다.

GAEDE 및 SCHMIDT³⁾에 의하면 (2)식에 나타난 α_t 를 구하기 위해 5개의 실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5로써 꽤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어 명확한 것이 판명되지 못했다.

더우기 슈미트는 재령 6개월 이상의 콘크리트의 표면부분의 반발치 R와 10mm 연마한 부분의 반발치 R를 입방체 강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림 6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재령의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BS 4408, PART 4 및 RILEM(국제 재료구조 시험연구 기관연합)의 Recommendation도 재령의 보정치 α_t 를 재령 3개월 이상의 콘크리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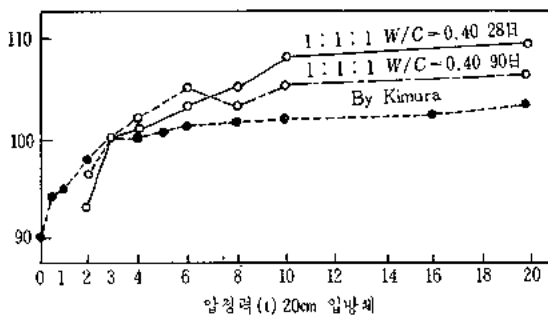


그림 4. 공시체의 용적과 반발경도비와의 관계

표 3. 공시체의 건습의 영향

配 合	W/C(%)	狀 態	強 度 (kg/cm ²)	R
1 : 1.5 : 3	50	乾	>500	45.5
		湿	>500	42.0
1 : 1.5 : 3	55	乾	368	39.3
		湿	386	38.4
1 : 2 : 4	60	乾	469	40.6
		湿	458	34.3
1 : 2.5 : 5	70	乾	275	33.6
		湿	258	33.6
1 : 2.5 : 5	70	乾	334	35.0
		湿	319	34.9
1 : 2.5 : 5	75	乾	307	34.6
		湿	292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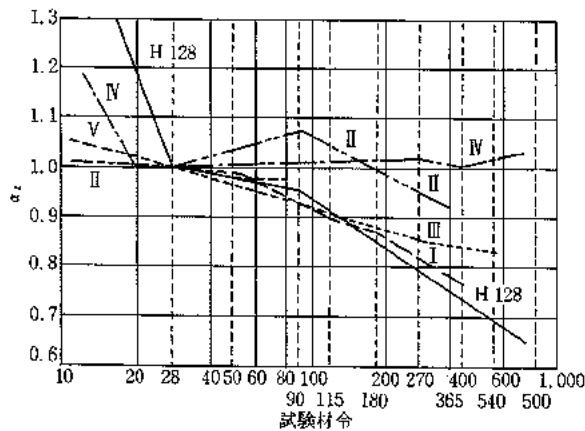


그림 5. 시험재령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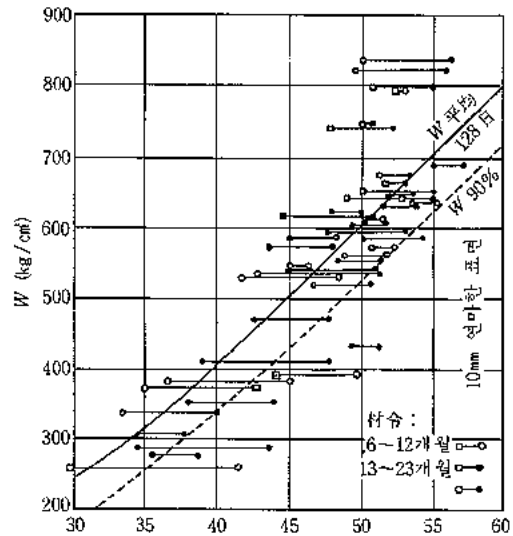


그림 6. 표면을 10mm 연마한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비교

해서 규정한 것은 그렇게 신뢰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

이상의 것에서 장기재령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10mm 정도 연마하여 조골재에 PL-UNGER (슈미트 햄머의 침단부분)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R (반발치)를 구하면 된다. 또 ASTM에서는 재령 6개월 이상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약 5mm 정도 연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마하지 않고 반발치 R을 구했을 때는 추정강도에 재령에 의한 보정계수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DIN 4240에 의한 FEDER

표 4. α_c 의 수치

材令n(日)	10	20	28	50	100	150	200	300	500	1,000	3,000
α_c	1.55	1.12	1.00	0.87	0.78	0.74	0.72	0.70	0.67	0.65	0.63

HAMMER에 의해 강도 W28을 추정할 때 재령이 n일이라면

$$W_n = \alpha_c \cdot W_{28} \dots \dots \dots (2)$$

여기에서

W_n = 재령 n일의 입방체 강도

α_c = 시험 재령에 의한 보정 계수로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의 수치는 슈미트 햄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참고가 될 것이

다.

8. 온도의 영향

0°C 이하에서 콘크리트가 얼어 있으면 대단히 높은 반발치 R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빙한 후에 시험해야 한다. 또 햄머자체의 온도도 -180°C가 되면 반발치 R가 2 내지 3 정도 작아진다.⁹⁾

太陽에너지利用시스템에 관한 研究(結)

尹榮在

濟州綜合建築設計事務所
大韓建築士協會에너지分科委員

⑤ 高密度平行光線 發生裝置

A. 고밀도평행광선의 의미

고밀도광선에는 평행광선이 여러겹으로 겹쳐진 고밀도평행광선과 비평행광선이 여러겹으로 겹쳐진 高密度非平行光線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볼록렌즈에 입사한 태양광선이 렌즈를 통과해서 초점에 모이게 될때 렌즈면과 초점사이의 광선은 렌즈면에서 초점에 가까워질수록 광선의 밀도는 증가하여 초점에서 최고밀도가 된다.

이때 렌즈면과 초점사이의 광선은 비평행광선이며 초점가까운 부분은 고밀도 비평행광선이다.

고밀도비평행광선은 직접 또는 鏡面 반사에 의해서 목적장소에 특히 위거리에 보낼 수 없다.

이에 반해서 고밀도평행광선은 鏡面反사에 의해서 방향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목적장소에 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밀도높은 평행광선이다.

光의 밀도가 높다고 하는것은 一定斷面積의 光束內에 많은 열과 많은 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많은 열과 많은 광을 가지고 있는 광선을 마음대로 목적장소에 보낼 수 있고 또 일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다면 태양에너지를 多用途의으로 효율높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한 것이 다음에 설명하는 고밀도평행광선발생장치 이다.

B. 원리 및 구조

고밀도평행광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태양의 이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위치에 고정되는 고밀도평행광선을 발생시킨

다는 것이 본연구의 초점이며, 따라서 본장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능이라 하겠다.

본 장치의 원리는 고정방향의 평행광선을 고정으로 설치한 集光반사경에 보내서 초점으로 모은 다음 초점에서 가까운 위치에 동일초점을 갖는 소형의 집광반사경을 고정설치하여 초점을 지나서 입사한 光을 반사시켜 고밀도화한 평행광선을 얻는 것이다.

이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M_1 (1차반사평면경)에서 태양광을 받아서 S.B(태양反射光路고정조절장치:본지 8월호 참조)에 의해서 일정방향의 반사광을 M_2 (대형집광반사경)에 보내고 여기서 반사한 광이 초점F를 지나 M_3 (소형집광반사경:초점F를 공유)에 입사한 光은 다시 반사해서 고밀도의 평행광선을 발생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광밀도는 M_2 와 M_3 와 의 面積比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M_2 에 입사한 자연광의 M_2/M_3 배의 밀도가 된다.

따라서 M_1, M_2 의 면적은 소요에너지량에 따라 결정되고 M_3 의 면적은 광선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C. 고밀도평행광선의 용도

a. 태양광조명 시스템의 고성능화

8월호에 소개한 태양광조명시스템은 자연광 그대로를 屋內에 입사시켜서 조명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조명일 경우에는 광입사에서 조명에 이르기까지 광의 통과를 위한 점유공간이 커지므로 조명시설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고밀도태양광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성능조명이 가능하므로 대규모의 조명에도 공간점유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즉 자연광의 n부의 고밀도광선으로 조명할경우 입사에서 조명까지의 광의 통과를 위한 공간이나 조명을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확산반사면이나 조명등의 크기 등이 $1/n$ 만큼만 중요하게 되므로 조명시설을 하는데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명 할 수 있어 태양광조명의 대상범위를 크게 넓혀 준다.

b. 태양열의 多用途化

(1) 온수난방

평판식 집열관을 이용한 온수난방에 있어서는 집열관과 蓄熱槽 사이를 물이 순환하면서 집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광집열관을 이용한 난방에 있어서는 受熱器와 蓄熱槽 사이를 물이 순환하면서 집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集光시스템 뿐만이 아니고 제타의 모든 집열시스템들도 위와 유사한 순환집열방식으로 되어 있다.

물의 순환경로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은 많은 열의 손실과 많은 하자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열의 손실요인과 하자요인을 완전배제할 수 있는 집열시스템이 고밀도평행광선의 이용으로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위에서 말한 물의 순환 경로없이 실외에서 발생시킨 고밀도평행광선을 직접 蓄熱室까지 보내서 受熱器를 가열하여 집열하는 방식으로 집열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하자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집열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태양열STOVE, 치사용RANGE

고밀도평행광선을 실내로 직접 입사시켜서 실내에 설치한 吸熱放熱裝置(태양열STOVE)를 가열 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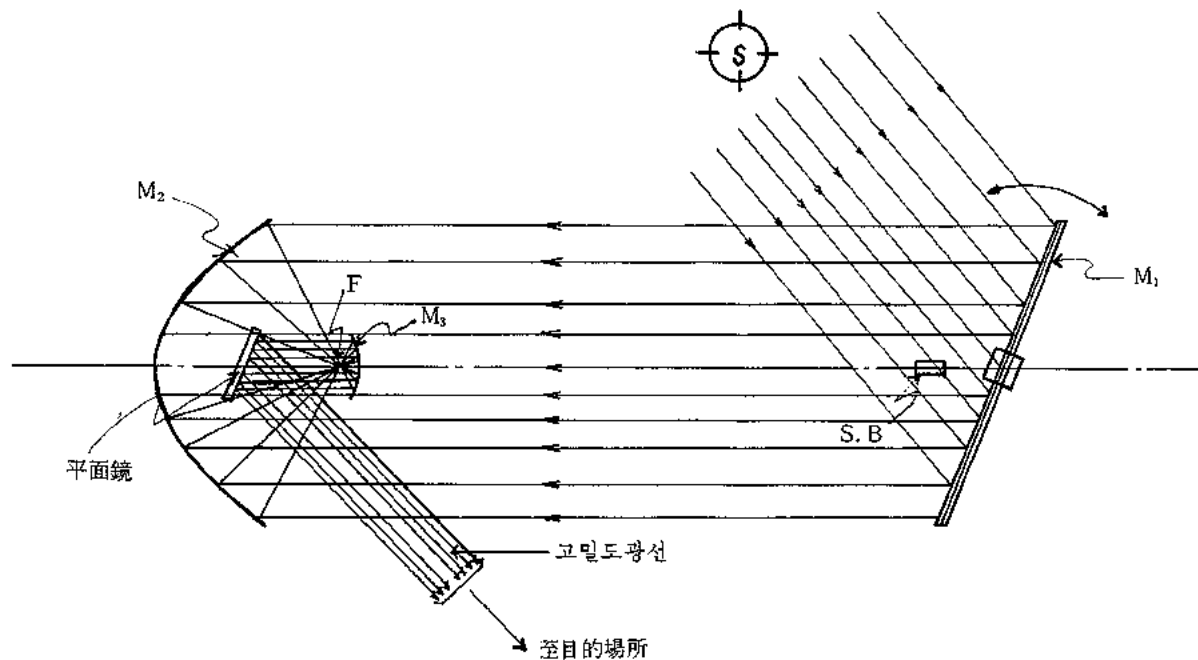


FIG. 裝置의 原理說明圖

주간의 실내난방을 할 수 있으며 여유의 光量을 입사시키면 蓄熱하였다가 야간난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고밀도평행광선을 廚房內로 끌어들여서 불목Lens를 이용하거나 오목면경을 이용해서 재집광하여 초점에 고열의 광점을 만들어 취사용RANGE로 이용할 수 있다.

3. 맺는말

본지 8월호에서부터 본호에 걸쳐서

태양에너지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였으나 이들을 이용하는데는 에너지절약면과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바꿔말하면 아무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도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널리 보급 이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시스템을 적당용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

해서는 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치에 필요한 기본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연구개발한 태양에너지이용시스템에 대한 분재를 본 호로써 끝맺기로 한다.

国民精神教育 9代德目

뽕뽕한 韓國人

主人精神
名譽心
道德心

다함께 사는 보람

協同精神
使命感
遵法精神

나라와 거래의
나아갈길

愛國心
反共精神
統一意志

建築構造 現場監理 檢事要領

이 원고는 본협회 구조연구 분과 위원회(위원장 李用夏)에서 각 위원별로 건축구조 현장 감리에대한 전반적 검사요령을 분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84년도 연구사업의 결과임.

1. 일반사항

- (1) 설계도서의 검토
- (2) 공정검토
- (3) 현장조사

2. 공사별 점검사항

- (1) 토공사
- (2) 지정공사
- (3) 철근공사
- (4) 거푸집공사
- (5) 콘크리트공사
- (6) 조적공사
- (7) 철골공사

단 원	공 사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검토	1. 1.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와의 대조	1. 설계도서와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골조공사에 관계되는 요인의 대략을 집약하고, 의장, 구조기능도 또는 마감재료, 설비에 관계되는 사항 각각 관련 설계자와 협의 확인. 3. 구조도와 관련 설계도의 대조 가) 건물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라)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마)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4. 특기시방서의 확인
	2. 공정검토	2. 1. 공정계획의 검토.	1. 입지조건의 파악 2.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3. 작업환경의 검토 가) 도로사정 검토 나) 근린 대지와 문제점 검토 4.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검토 5.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의 파악 6. 관련 별도공사의 검토
	3. 현장조사	3. 1. 대지내외 장애물조사 3. 2. 인접 건축물 등의 조사	1. 공사장 인접건축물의 하자발생 여부등의 조사 2. 본공사로 인한 인접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 1. 매설물의 조사 2. 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조사
2. 공사별검토사항	1. 토공사	1. 1. 터파기공사	1. 대지경계선과 지하외벽선 확인 2. 기초판의 바깥 단부까지의 거리와 작업공간의 검토 3. 흙막이 구조, 시공법, 시공시기 및 본 건물의 구조체와의 관계검토 4. 흙막이 주요 부분의 변위를 수시측정
		1. 2. 흙막이공사	1. 지질조사 및 흙막이공사 여부에 대한 검토 2. 터파기예정선의 확인 3. 기초판지지면의 지질상태와 설계허용 지내력도의 검토
	2. 지정공사	2. 1.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공사의 확인	1. 지반상태에 적합한 공법인가를 검토

단	원	공 사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2.2. 말뚝지정	1. 입지조건, 지반조사자료, 공기 등 검토 2. 시공기계의 선정 가) 대지조건,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사용에 적합한 기계와 대수결정
			2.3. 시공도 작성	1. 말뚝지름, 말뚝길이, 말뚝배열 및 간격 등의 명기 검토 2. 건물중심선과 기초 중심선 및 말뚝중심선의 검토 3. 기준 지반선과 말뚝머리와의 거리 명기 검토 4. 말뚝 타설 순서 명기 검토
			2.4. 말뚝재료	1. 말뚝의 재질, 치수 결함 등 검토 2. 제작공장에서의 품질보증서 확인
			2.5. 항 다	1. 원심력 P.C말뚝 가) 시험항타의 위치검토 나) 항타순서 확인 다) 이음부 설치여부 결정 다) 이음부 구조 검토 마) 이음으로 인한 허용내력 검토 바) 해머(hammer)의 적정 검토 및 타격에너지 확인 사) 최종관입량 확인(최종 10회항타의 평균값) 아) 항타시 말뚝손괴 여부의 확인 자) 말뚝 끝부분의 지지층 확인(boring data와 말뚝 타입량 등에 포함) 차) 말뚝허용 지지력과 설계허용 지지력의 대조확인 카) 말뚝머리 처리의 확인 2. 강제말뚝(H형강, 강관) 가) 제품검사 ① 길이, 각부치수, 두께 검토 ② 말뚝끝부분(先端部)의 보강방법 검토 ③ H형강 말뚝의 머리, 강관말뚝의 이음부분의 변형, 손상, 도장상태의 검사 나) 이음용접검사 ① 용접부분 상태 ② 용접공의 자격 ③ 용접봉의 종류 ④ 용접봉의 관리상태 ⑤ 용접시공 상태 다) 이음으로 인한 허용내력 검토 라) 말뚝머리처리 ① 머리 level 검토 ② 머리와 기초판 콘크리트와의 접촉부처리 확인
			2.6. 항타기록	1. 각 말뚝의 항타기록의 확인
	3. 철근공사	3.1. 설계도서및 기 타 확인		1. 사용철근의 종별확인 2. 특기사항의 유무확인 3. 특수구조 부분의 확인 4. 배근기준도의 유무확인 5. 각 스펜(span) 기둥 중심 위치 확인
		3.2. 철근가공및 조 립검토		1. 기초 및 지중보 가) 버림 콘크리트의 level검토 나) 철근 피복은 60mm 이상인가 확인 다) 기둥철근의 정착길이는 충분한가 확인 라) 기둥철근에서 X, Y방향 배근 확인 마) 철근지름, 개수, 위치 확인 바) 이음 위치 검토 2. 가둥 가) 주근의 개수, 지름, 위치확인 나) 기둥단면에서 상하가 틀릴때의 주근의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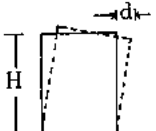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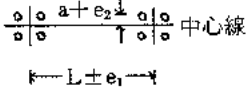
단원	공사종류	검사항목	검사내용
			다) 주근의 감소될 때의 절단위치 확인 라) 띠철근(hoop)의 간격, 위치, 특히 기둥 상하단 부에서의 간격 확인 마) 띠철근 개구부의 엇갈림(zigzag) 배근 확인 바) 띠철근 시점 및 중점위치 확인 사) 대각띠철근(diagonal hoop)의 위치 및 간격확인 아) 철근 피복 확인 자) 철근 간격 확인 차) 주근의 이음위치 확인 3. 보 가) 철근의 종류, 지름, 개수확인 나) 2단 배근시의 주근위치 확인 다) 주근의 정착위치 및 정착길이 확인 라) 단부와 중앙부의 주근수가 다를 때 절단위치 및 여유길이의 확인 마) 이음방법 및 위치의 확인 바) 굽힘철근(bent-up bar)의 위치, 개수확인 (특히 외단부) 사) 스티럽(stirrup)의 지름, 시점위치및 간격(pitch) 확인 아) 판통구멍의 보강방법, 보강철근의 지름, 개수, 길이 및 위치확인 자) 캔틸레버(cantilever)보의 배근 확인 4. 슬래브 가) 철근의 지름 확인 나) 철근의 간격(pitch) 확인 다) 주근과 배력근의 위치 확인 라) 철근의 위치가 슬래브 대하여 두께에 정확한가 확인 마) 간격재(spacer)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 바) 개구부 주위의 보강상태 확인 사) 모서리(corner)부분의 보강철근은 충분한가 확인 아) 슬래브에서 고정차가 있을 때의 배근 확인 자) 3 변고정, 2 변고정및 캔틸레버 슬래브의 배근확인 차) 집중하중을 받는 곳의 보강근 검토 5. 벽체, 계단기타 가) 철근의 지름, 간격확인 나) 출입구 등 개구부의 보강근 확인 다) 계단의 철근 및 정착길이 확인 라) 계단 슬래브 절곡부분의 배근 확인 마) 벽체의 보강근 확인 바) 캐노피(canopy) 배근 확인
		3.3. 철근의 압접	1. 압접공의 자격 확인 2. 이음위치 확인 3. 압접면 처리 확인 4. 작업환경의 양호상태 확인 5. 압접검사에 입회 및 제출된 시험기록 확인
	4. 거푸집공사	4.1. 치수및 정밀도 검사	1. 수직 또는 수평은 정확한가 확인 2. 기초, 기둥, 보, 슬래브의 위치 및 치수는 정확한가 확인
		4.2. 매입물 위치및 크기확인	1. 매입철물, 슬리브(sleeve)등은 빠짐없이 매입되어 있는가 확인 2. 매입물의 설치위치는 정확한가 확인 3. 설비담당자와의 매입물 협의 및 검사
		4.3. 거푸집 재료	1. 사용재료는 콘크리트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검토 2. 조이기 철물은 규격품인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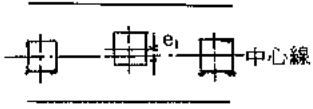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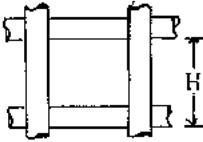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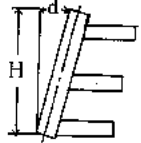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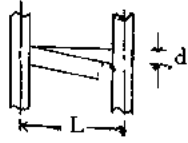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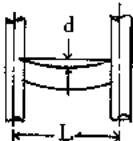
단	원	공 사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4.4. 제작 및 조립	1. 콘크리트 타설중에 변형,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검토 2. 받침기둥은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는가 확인 3. 조임철물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 4. 받침기둥의 간격 및 가새(bracing)의 간격상태 확인 5. 콘크리트 상단면의 기준선 표시 확인 6. 기상조건에 따른 거푸집 존치기간의 확인
		5. 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의 검토 승인 가) 1일 타설량 나) 레미콘의 운반거리 다) 시험편 채취개소 및 수량(타설구획의 타설량 150 m³ 당 1회) 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물시멘트비 및 슬럼프(slump) 마) 타설순서 및 타설구획 바) 작업요원의 배치 사) 콘크리트 펌프(concrete pump), 슈우트(chute) 발판 아) 진동기(vibrator)의 사용법 자) 양생방법 차) 시험방법 카) 외기온도 및 눈, 비에 대한 대비책
			5.2. 콘크리트 타성	1. 거푸집 내의 청소확인 2. 거푸집 청소구 확인 3. 레미콘 공장의 품질보증서 확인 4. 도착 레미콘의 검사 5. 매입물 이동여부 검사 6.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의 청소 및 레어턴스(la-ittance) 제거 확인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이동여부 확인 8. 콘크리트 타설, 이어붓기 처리의 검사 9. 양생방법 및 기간 확인 10. 양생중 종격 및 중량물 적재여부 확인 11. 거푸집 받침기둥 철거 기간 확인
		6. 조적공사	6.1. 일반사항및 재료	1. 벽돌과 블록의 종류, 품질 및 치수가 시방서와 동일한가 확인 2.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 확인 3. K·S규격품인가 확인 4. 치장쌓기인가 마감쌓기인가 확인 5. 쌓기용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6. 특수제품의 유무확인 7. 시공도 검토및 승인
			6.2. 쌓기	1. 세로규준틀 설치 확인 2. 벽체쌓기의 종류 확인 3. 벽체두께의 확인 4. 줄눈종류 검토 확인 5. 막힌줄눈인지 통줄눈인지의 확인 6. 보양관계 확인 7. 특수쌓기법의 유무 확인 8. 공간쌓기일 경우 연결철물의 설치 및 종류확인 9. 흡수성에 관한 확인 10. 온도에 따른 시공적합성 여부 확인 11. 지반면에서 높이에 따른 동결관계 확인 12. 붉은벽돌 치장쌓기일 경우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단	원	공 사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13. 개구부 보강방법의 검토 및 승인 14. 보강근에 대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 및 간격 확인 (세로근 800mm 이하, 가로근 600mm 이하) 15. 1임 쌓기 높이 단수 확인 (1.2m 이하) 16. 벽체의 단부 및 모서리 부분 처리 확인 17. 모르타르의 채우기 확인 18. 데두리 보의 위치 및 크기 배근의 확인 19. 설비관계 매입 확인
		7. 철골공사	7.1. 설계도서 확인	1. 도면 및 시방서의 확인 2. 특기사항의 확인 3. 재질 확인 4. 철골가공공장의 능력 검토 5. 공정검토(방법, 공사기간, 사용기계 등) 6. 공작도 검토 7. 부재 검사방법 협회 8. 도장방법 확인
			7.2. 현도장(現圖場)	1. 철골제작용 테이프(tape)와 현장용 테이프의 대조 2. 현도의 수평 수직각도 검토 3. 건물의 기본치수 확인 4. 챔버(camber)의 유무 확인 5. 조립부호 협의 6. 관통부분 보강 확인 7. 용접에 의한 수축량 고려 8. 용접 조립재의 기준선 확인 기
			7.3. 철골가공	1. 절단방법은 적당한가 2. 접합면 가공은 적절한가 3. 뒤틀림은 없는가(소재(藥材) 및 가스절단) 4. 가열방법으로 할 때 수축량은 고려하였는가. 5. 상온(常溫)가공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가. 6. 뒀 부분의 치수는 정확한가. 7. 관통구멍 위치는 정확한가. 8. 구멍(보울트, 리벳 및 교력보울트)의 크기는 적합한가. 9. 구멍 주위는 깨끗한가. 10. 용접 후 변형은 없는가
			7.4. 철골용접	1. 기능공의 자격 확인 2. 용접방법 및 순서는 적절한가 3. 용접의 이음위치 및 홈(groove)의 형태, 치수 확인 4. 용접봉의 적정 확인 5. 사용공구는 적당한가 6. 가용접 위치는 적절한가 7. 검사방법 및 회수는 적당한가 8. 용접봉의 저장방법은 적당한가
			7.5. 철골조립	1. 조립재의 치수 확인 2. 불필요한 가용접은 없는가 3. 건축마감재의 관계 확인 과 4. 설비와의 관계 확인 5. 가공 정밀도 확인 6. 이음부분의 상태 확인 7. 챔버(camber)의 확인 8. 각 부분 형상 및 치수의 정밀도는 허용오차 이내인가
			7.6. 철골도장	1.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곳은 없는가 2. 바탕은 양호한가 3. 도료의 종류 및 규격품 확인 4. 색채 및 색상의 확인

단	원	공 사 종 류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5. 도장이 필요없는 부분의 확인 6. 도장 후 부호기입의 확인
			7.7. 세우기 준비	1. 세우기 순서 확인 2. 가보강 대책은 적절한가 3. 사용 증기 계획의 수립 확인 4. 가설비계 설치계획은 적절한가 5. 재해 대책 확인(재해 및 풍해) 6. 증기운전공 및 용접공의 자격 확인
			7.8. 앵커보울트 매입	1. 보울트의 재질, 크기 및 길이의 형태 확인 2. 설치위치의 확인 3. 매입방법 및 검토 4. 고정방법 검토 5. 기초설치 몰탈(base mortar)공법 확인 6. 마감 레벨(level) 확인 7. 보울트 노출부분의 양생 확인
			7.9. 철골조립	1. 각부분 치수 확인 2. 보강재 사용은 적절한가
			7.10. 철골 세우기	1. 스패น(span), 공간확보(spacing), 높이 및 비틀림 검사 2. 기둥의 기울기 확인
			7.11. 고력보울트사용	1. 고력보울트의 재질 및 크기확인 2. 고력보울트의 개수 확인 3. 마찰접합면의 확인 4. 접합부분재질 확인 5. 가조임 보울트 개수 확인 6. 고력보울트 조임순서 확인 7. 고력보울트 조임방법 확인 8. 고력보울트 조임 검사
			7.12. 도장	1. 현장도장부분의 도장확인 2. 운반 및 세우기 공사 등에서 손상된 도장확인

〈참고〉 工事場 施工의 精度

명 칭	변 형 도	허 용 치
① 建物の 기울기 (d/H)		1/500 또한 d는 25mm 이하
② 建物の 구부림 (d/L)		1/2000 또한 d는 30mm 이하
③ 기둥設置面의 높이 및 ANCHORBOLT 位置		기둥設置面의 基準높이는 3mm 以下 隣接기둥間의 중심거리의 許容差 $e_1 = \pm 3\text{mm}$ 中心線부터의 差 $e_2 = \pm 2\text{mm}$

명칭	면정도	허용치
④ 기둥의 中心線差 (e)		中心線부터 $\pm 5 \text{ mm}$
⑤ 層 高 (H)		$\pm 3 \text{ mm}$
⑥ 기둥의 기울기 (d/H)		1/500
⑦ 보의 水平度 (d/L)		1/1000 또한 $d = 5 \text{ mm}$ 以下
⑧ 보의 처짐 (d/L)		1/100



□ 秋教準 / 55. 3. 20일생/부산 /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 환경건축사사무소 / 부산남구대연동1762-3 / 68-2952



□ 朴熙仲 / 52. 7. 6일생/서울 / 전남대건축과 / 주·동해건축 / 서울강남구방배동816-3 / 532-9312



□ 朴承圭 / 50. 1. 15일생/대구 / 영남대건축과 / 동양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중구북성로1가82-2 / 432-7222



□ 張九一 / 48. 9. 9일생 / 인천 / 인덕공전건축과 / 장구일건축설계사무소 /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191-16 / 2-5918



□ 具蒼元 / 34. 8. 6일생/경북 / 한양공대건축과 / 원일건축연구소 / 경기도고양군원당읍주교리 149-5 / 6-4253



□ 宋祥哲 / 46. 8. 14일생/전북 / 동국대건축과 / 건축연구소유원 / 서울시장동구성내동 319-17 / 478-7012



□ 金昌奎 / 55. 3. 4일생/경기 / 강원종합고건축과 / 양지건축설계사무소 / 경기도성남시태평동 3309-329 / 3-1708



□ 安化印 / 53. 12. 5일생 / 충남 / 한양대건축과 / 대우건축연구소 / 서울중로구평창동325/352-0322, 352-3153.



□ 尹煥鉉 / 서울 / 52. 2. 3일생 / 경희대건축과 / 주·부림설계 / 서울강남구잠원동64-4 / 590-1730



□ 李聖元 / 부산 / 성지공업고등학교 / 삼미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사동래구수안동 491-1/53-8648.



□ 金鍾鐵 / 경남 / 성지공업고등학교 / 동진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중구중앙동 4가81-4 / 462-8787.



□ 梁熙道 / 경남 / 경남공전 건축과 / 한길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부산진구부전1동 475-3 / 803-3400, 803-3401



□ 金鍾昱 / 경북/동아대건축과 / 한길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75-3 / 803-3400, 803-3401.



□ 沈載浩 / 경남/성지공업고등학교 / 보성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남구남천동 8-6 / 624-2026



□ 李成杰 / 54. 6. 25일생 / 경남 / 울산공업고등학교 / 동화건축설계사 / 경남울산시남외지구 / 92-4533



□ 李錫昇 / 28. 1. 12일생/서울 / 한양공과대학전문대건축과 / 동산합동건축설계사무소 / 영등포구당산 3가 228-23 / 677-7139

새 아파트團地, 독서실·水泳場等 갖춰야 건설부, 내년부터 義務독리시설強化

건축사 골프 同好人 천선경기

본협회 전국회원중 골프를 즐기는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골프동호인 천선경기가 지난 12월 7일 유성 CC.에서 열렸다. 때마침 겨울 답지 않은 화창한 날씨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는데, 앞으로 연4회 정도 골프모임을 갖도록 중론을 모았으며 85년 춘계모임은 서울지부에서 주관토록 자진 약약되었다.

이날 참석현황은

○본협임원진에서	오웅식 회장 외	7명
○서울지부에서	이춘상 지부장 외	9명
○충남지부에서	민영기 지부장 외	8명
○경기지부에서	권순재 회원 외	4명
○충북지부에서	이종만 회원 외	2명
○전북지부에서	전형직 지부장 외	3명
○전남지부에서	조준원 지부장 외	7명
○대구지부에서	김종규 회원 외	6명
○경남지부에서	이종태 전·지부장 외	3명
○제주지부에서	강요준 회원 외	2명
도 합		61명

한편 경기성적은 「피어리어」방식을 적용한 결과, 메달리스트에는 Gross80의 광주 고재선 회원이, 우승에는 Gross 90, NEt 72 타를 기록한 정병문 회원이 각각 영광을 차지 하였으며 그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준우승 G.84 HC. 10.8 Net 73.2-장학선 회원	
3위 G.85 HC. 10.8 Net 74.2-김용만 회원	
4위 G.89 HC. 14.4 Net 74.6-박몽룡 회원	
5위 G.89 HC. 13.2 Net 74.8-이용하 회원	
장차상 265.0m	-여옥동 회원
근접상 1.8M	-강은홍 회원
행운상	-김화자 회원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단지의 규모에따라 독서실 테니스코트·수영장·장거리공중전화 등 부대복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건설부는 24일 아파트단지의 체육시설을 강화하고 독서실설치, 난방방법의 개선등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초부터 시행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10가구당 1.2m² 면적의 독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 이용되도록 하고 1천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는 장거리자동차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아파트단지에서 1km이내에 학교운동장등 운동시설이 있을 때는 운동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던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5백가구가 넘는 경우 배구장 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중 1개소를 반드시 갖추도록하고 이와함께 1천가구 규모단지에는 테니스코트 1면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2천가구가 넘는 때는 테니스코트를 1천가구마다 추가로 1면적을 확보하거나 수영장이나 소년축구장 소년야구장들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중앙집중 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효과를 높이기위해 4층에서10층까지의 아파트는 2단계, 11층에서 15층까지는 3단계로 난방구획을 분리하도록 하고 15층이 넘을때는 5층마다 1단계식의 난방구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는 상가는 그동안 판매시설로만 허가돼 부동산소개업소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등 일부업종의 입주 불가능하던 것을 상가면적의 3분의1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줄기로 했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전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돼야했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을완화, 50가구미만일경우 폭 4m 이상만 확보되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 활용 市, 주차설계 의무화

서울시는 날로 늘어만 가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난을 덜어주기위해 아파트건물 내의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개조,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하구조를 주차장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아파트의 주차시설이 2백50m²당 1대꼴로 규정돼있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는 현재의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

준이 이처럼 비현실적인 점을 보완하기위해 전용면적83m²(25평) 이하짜리의 아파트단지는 종전대로 두며 83m²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선 1백50m²당 1대꼴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협의중이었다.

시가 83m²이상의 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키기로한 평수가 클수록 자가용의 보유 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기존의 아파트 지하대피소가 제대로 이용이 되지않고 방치돼 있어 이를 입주자들을 위한 가구별 창

고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대다수 아파트들이 심한 주차난을 안고있어 용도를 창고에서 주차장으로 바꾸기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아파트단 지내에서는 처음으로 옥내주차장이 생기게되며 겨울철에 사동이 걸리지 않는등 옥외 주차장이 갖는 불편을 다소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기존아파트들의 지하

대피소 구조가 주차장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돼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진입로와 램프시설등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내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개조하려면 서울시에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방침이 확정되면 신청없이 주민들의 의사대로 개조될수 있다.

종합貿易센터 設計확정 日세계이社작품 選定

貿協이 오는88년 준공목표로 서울永東의 韓國종합전시장에 서울 韓國종합무역센터의 건물규모가 54층으로 최종 확정됐다.

貿協은 26일이 트레이드센터의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난뒤 그동안 현상설계를 받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현상설계용모에는 美國의 스킵모이 오잉즈 & 머릴社등 2개社와 日本의 니켄 세계이社등 해외에서 3개

社, 국내에서 原都市건축연구소등 5개社가 참여했으며 우수작에는 日本의 세계이社 작품이 선정됐고 韓國의 原都市건축연구소와 正林建築 작품이 각각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貿協은 이들 우수작으로 결정된 설계를 토대로 오는 12월말까지 최종계획설계를 마무리 지은뒤 당선된 3개사가 공동으로 본 설계를 완성,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내년 4월께 건물을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철驛 연결아파트 건립 국내 처음 九老구역에

지하철역과 출입구가 연결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세워진다. 서울시는 대림전철역앞의 구로구 구로동 120번지일대 3천여평을 불량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키로 하고 여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함께 들어서는 복합빌딩을 지어 그 출입구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 하기로 했다.

이지역에는 대상부지의 절반인 1천5백여평을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규모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천5백여평에는 20평짜리 아파트1백50가구를 지어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상가건물 3천5백여평을 건립, 인근구로지역의 중심상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서기는 처음인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가 조성되고 그옥상에는 녹지공간등을 확보하며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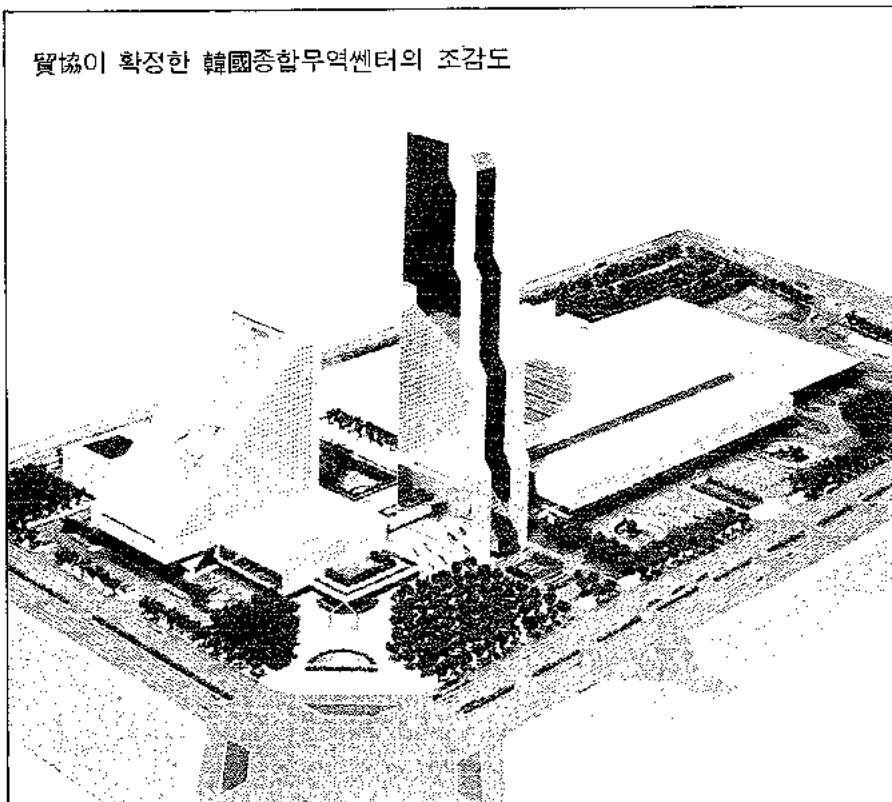
도림천위에 세워진 대림지하철역에서는 상가의 3층으로 출입구를 연결해 아파트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이 지하철역에서 곧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만큼 소음이 심할 것으로 보고 아파트의 배치는 아파트의 측면이 지하철쪽으로 배치되도록 하며 일반 아파트에 비해 벽을 더 두껍게 하고 벽면은 조각이나 벽화로 처리, 지하철노선 주변의 도시경관을 가꾸기로 했다.

지하철역 주변의 아파트건설은 이미 지하철생활이 보편화된 日本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로2구역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세권 개발측면에서도 앞으로 이같은 지하철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개발방법을 널리 도입키로 하고 옥수동·돈암동등지의 재개발사업에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貿協이 확정한 韓國종합무역센터의 조감도



建築士法改正(案)新・旧條文對比表

본협회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최종 통과 처리됨에 따라 1985. 1. 1부터 시행하는 동법률의 新旧條文 對比表를 게재하니 회원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現	行	改	正	案
<u>國家保安法·反共法</u> 이나 <u>刑法</u>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2 의 罪를 犯하여 <u>禁錮</u>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 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u>國家保安法</u> 이나…		
4. (생략)		4. (現行과 같음)		
第11條(免許의 取消 등)		第11條(免許의 取消 등)		
① <u>建設部長官</u> 은 <u>建築士</u> 가 다음各號에 1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①……………		
1. - 3. (생략)		1. - 3. (現行과 같음)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u>建築士事務所</u> 의 登錄取消處分 또는 閉鎖命令을 받고 계속하여 그 業을 營爲한 때		4. …………… …… <u>建築士事務所</u> 의 登錄取消處分을……………		
(新 設)		5. 당해 <u>建築士</u> 에게 責任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u>建築士事務所</u> 의 登錄取消處分을 3 회받은 때		
(新 設)		6. 最近 10年間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u>建築士</u> 의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期間이 通算하여 36月을 초과한 때		
第14條(應試資格) 다음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u>建築士資格試驗</u> 에 應試할 수 없다. 다만, <u>建設部長官</u> 은 第1号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次試驗에 應試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應試資格)……………		
1. (생략)		1. (現行과 같음)		
2. <u>教育法</u> 에 의한 <u>專門大學·初級大學·專門</u>		2. …………… <u>專門大學</u> 에서……………		

現 行	改 正 案
學校 또는 實業高等專門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の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7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3. 教育법에 의한 高等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の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10年 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4. (생략). 第22條의 2 (登録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 계속) ① 第11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録의 取消處分이나 閉鎖命令을 받은 建築士는 그 處分 전에 契約을 締結한 業務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建築士는 그 處分內容을 遲滯없이 建築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第23條(登録) ① 建築士가 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單獨 또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정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土木·電氣·機械·에너지·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의 技術系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建築士補로 確保하여 建築士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綜合 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한 者는 共同住宅등	 3.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學術學校에서..... 4. (現行과 같음) 第22條의 2 (登録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 계속) ①..... 業務停止命令을..... ②-④(現行과 같음) 第23條(登録) ① 建築士가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구분에 따라 建設部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② 建築士事務所는 單獨 建築士事務所 및 綜合建築士事務所로 구분한다. ③ 單獨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의 建築

現 行	改 正 案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이하 “共同住宅등”이라 한다)의 設計業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행하며, 綜合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한 者 이외의 者는 共同住宅등의 工事監理事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한 建築士業務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한 者에 限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録基準 및 登録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을 申請하는 者는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新 設) (新 設) (新 設) 第23條의 2 (檢査事務의 代行動) ①·②(削除) ③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에 대하여 建築行政에 필요한 調査 및 檢査 및 檢査業務 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u>物の 設計와 工事監理業務를, 綜合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한 者는 모든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業務를 행할 수 있다.</u> ④ 綜合建築士事務所의 경우에는 受託한 業務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 이상의 소속 建築士를 責任建築士로 정하여 業務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 이상의 建築士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建築士事務所의 名稱에는 반드시 “建築士事務所”란 用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建築士事務所의 業務 범위·登録基準 및 登録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을 申請하는 者는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23條의 2 (檢査事務의 代行動) ①·②(削除) ③.....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에게

現 行	改 正 案
<u>達하게 된 때</u>	<u>은 경우 그 停止期間 이 通算하여 12月이상 이 된 때</u>
6. 第23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怠慢히 한 때	6.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檢査業務를 태만히 한 때
7. -10. (생략)	7. -10. (現行과 같음)
11. 建築士協會가 登録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建議한 때	11.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期間 중 業務를 營爲할 수 없다.	②建設部長官은 建築士事務所의 登録取消 또는 建築士의 業務停止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建築士事務所 開設者 또는 建築士에 대하여 聽聞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參考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聽聞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2條(主事務所와 支部)	第32條(主事務所와 支部)
①建築士協會는 그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①建築士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②建築士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②(삭제)
③(생략)	③(現行과 같음)
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第39條(罰則)……… 500萬원 이하의 罰金………
1. - 5. (생략)	1. - 5. (現行과 같음)
6.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閉鎖命令에 違反한 者	6.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에………
(新 設)	7.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및 檢査業務를 행하는 者가 調査 및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不當한 金品을 收受·요구·約束한 때 또는 第3者에게 不當한 金品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約束한 때

現 行	改 正 案
第40條(罰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第40條(罰則)……… …… 50萬원 이하의 罰金
1. (생략)	1. (現行과 같음)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2. (삭제)
3. (생략)	3. (現行과 같음)
第41條(過怠料)第8條 第3項·第11條第3項 또는 第27條第1項(登録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萬원 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第41條(過怠料) ① ……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3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新 設)	②第1項의 過怠料는 建設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建設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 設)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 設)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3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建設部長官이 法 第23條의 2 第3項에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調査 및 檢査業務 등에 종사하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삭제)

建築法改正(案) 新・旧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4. - 5. (생략) 〈新 設〉		4. - 5. (現行과 같음)		
		第22條의2(非常給水設備의 <u>設置</u>) ①建築主는 延面 積 5千제곱미터 이상인 建築物(運動施設·展示施 設·倉庫施設·自動車關 聯施設·動物關聯施設· 쓰레기 오물 處理場·墓地 關聯施設 기타 이와 유 사한 用途에 쓰이는 建 築物과 人統領令이 정하 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에 는 建築設備로서 非常給 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 다.		
		②非常給水設備의 規模 및 技術上의 基準은 建 設部令으로 정하되, 住宅 建設促進法 제33條의 規 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어 建築하는 建 築物の 경우에는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1條(건축물의 높이제한)		第41條(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③ (생략)		①-③ (現行과 같음)		
④住居專用地域·住居地 및 商業地域안에서 建築 하는 建築物과 共同住宅 또는 寄宿舍의 높이는 그 建築物로부터 隣接地地 境界線까지의 거리 및 同 一基地內의 다른 建築物 (單獨住宅·共同住宅·寄 宿舍에 한한다) 까지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 建築物과 共同住宅 (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⑤ (생략)		⑤ (現行과 같음)		
第54條(罰則) 都市計劃區域 안에서 第5條第1項 本 文·第31條·第39條·第 40條 第41條 또는 第41 條의2의 規定에 違反하		第54條(罰則)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77호
1984년 11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약저축”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저축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3.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이를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상환사채매입자와 사업주체의 구성원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4호중 “20세대미만인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시설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동법 제41조와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다만,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인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에서 분양받는 국민주택사업자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의 수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분양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단서중 “3월전부터”를 “1년전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 “선매청약저축가입자”를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세대 주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⑥청약예금가입자중 청약예금계약기간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가 당해 예금만기일 이후 이를 해약하고, 해약과 동시에 동일금액의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입주자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에 있어서 최초의 청약예금가입일에 예금의 가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을 사실상 양도(매매·증여·질권설정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받아 그 가입자명의

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는 당해주택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주계약물이행시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당해 주택의 준공에 대하여 2이상의 지정업자(지정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공사의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업자”로 한다.

제7조의 2중 “선매청약저축가입자”를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분양세대수”를 “공급하는 주택수”로 하고, 제2항제2호 다음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제9조제1항 본문중 “신문”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세대당 주택면적”을 “세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주택면적”으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분양신청서”를 “주택공급신청서”로, “분양신청인”을 “공급신청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를 각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로 하고, 동항단서 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분양받고자”를 “공급받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인 때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청약저축등의 종류·납입액·가입 연월일 등을 확인받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분양신청서”를 “공급신청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분양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선매청약저축”을 각각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제15조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7. 인감증명서(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다만, 제1순위해당자 사이에 경쟁

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1)저축총액이 많은 자
- (2)당해주택건설지역안에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인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2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이하 “영구불임시술자”라 한다)를 우선 선정한다.
- (3)장기저축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 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 (4)부양가족이 많은 자
- (5)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

-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영구불임시술자를 우선 선정한다.
- (2)장기저축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

-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 (4)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3회이상 납입한 자.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순위의 경우에 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 외의 자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00만원이상”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가목중 “300만원 이상”을 “300만원”으로, 동호 나목중 “400만원이상”을 “400만원”으로, 동호 다목중 “500만원이상”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선매청약제1순위”를 “청약저축 제1순위”로, “선매청약 저축액”을 “청약저축액”으

로, “선매청약 저축가입일”을 “청약저축가입일”로 한다.

제13조제5항중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를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지역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로, “제1항제1호”를 “제1항 내지 제3항”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등)

- ①청약저축가입자가 월납입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체총일수를 총납입회수로 나눈 일수(이 경우 1일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만큼 실제납입일보다 늦게 월납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월납입금을 초과하여 선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전단 및 후단중 “특별분양”을 각각 “특별공급”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 한자

제15조의 2 제1항중 “단체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분양”을 “단체로 국민주택의 공급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공급대상주택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범위안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동기우편에 의하여 통보하되, 입주자선정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중 각호 열기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분양세대수”를 “공급세대수”로, “미분양주택”을 “미공급주택”으로, “분양”을 “공급”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분양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한다.

③주택은행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 이내에 1회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5년 이내에 1회이상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청약금과 계약금은 그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20퍼센트”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로 하고, 잔금은 입주자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금은 이를 받을 수 없다.

⑤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중 청약저축의 가입자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분양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분양공고”를 “공급공고”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한다.

④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금·중도금 및 주택가격과 그 납부시기
2. 공급되는 주택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으

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및 대지면적

3. 연체료 및 지체상금

4. 해약조건

5. 이종당첨 및 청약예금등의 양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조치사항

6. 임대주택의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임대기간 만료후의 재계약 여부

제22조제1항제3호중 “분양”을 “공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과 단서중 “분양”을 각각 “공급”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서식중 금액란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며, 동서식하단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하단중 1순위란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서식의 하단의 군별번호란을 삭제하며, 동서식의 작성상 주의사항란의 2. 주택은행란중 나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중 “분양신청서”를 “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 분양을 신청합니다.”를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로 하며, 동서식의 하단의 청약예금가입금액란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서식의 작성상 주의사항란중

사업주체란의 가목중 “선매청약저축과”를 “청약저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20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만원의 청약예금 가입자로,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300만원의 청약예금 가입자로,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의 청약예금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400만원의 청약예금 가입자로, 500만원 이상의 청약예금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500만원의 청약예금가입자로 본다.

제3조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중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한국주택은행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증액변경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감액변경의 경우에는 당초의 청약예금의 해약과 동시에 희망하는 금액의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이

(별표 1)

건 축 공 정 기 준 표

1.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의 진 척 내 용	
		아파트의 경우	연립및단독주택의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임대주택의 경우

건 축 공 정	공 사 의 진 척 내 용
50%	아파트의 경우 : 전체층수의 1/2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경우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의 부여에 있어서는 최초의 청약예금 가입일에 증감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이미 당첨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17조제 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을 “(청약저축)”으로, 동조제 1항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이하 “선매청약저축”이라 한다)제도”를 “청약저축제도”로 하고, 동조제 2항 내지 제 8항중 “선매청약저축”을 각각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 6 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 규칙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개정이유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 위장된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여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강화하여 종전보다 길게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종전에는 저축총액이 다액인 자를 우선 고려하게 하던 것을 무주택자의 보호를 위하여 비교적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다액인자 보다는 실질적인 장기무주택자에게 주택의 공급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며, 주택의 재당첨금지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투기적거래를 위한 가수요의 유발을 억제 하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소액예치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보다 많이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다액예치자는 그가 예치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의 신청을 하지 못

하도록 하며, '86년도에 개최대는 제 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및 '88년도에 개최대는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시설로 건설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주요골자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 제외범위의 확대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및 제 24회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 시설로 건설하는 주택은 소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잠실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동주택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게 되며 그 조성기금이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되어 버리므로, 동기금을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제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용등 주택의 공급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공급하게 함 (영 제 3 조제 5 호).

나. 국민주택공급대상요건의 강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3월 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위장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가수요자에 의한 투기적거래가 성행할 소지가 많았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무주택인 기간을 보다 길게하여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일 것으로 함 (영 제 4 조 제 1 항 단서).

다. 만기에 도달한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우선순위의 보장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만기가 도달되고도 당해예금이 계속 주택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입자가 당초의 청약예금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면 당초의 청약예금 가입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청약 우선순위를 인정함 (영 제 6 조제 6 항).

라. 청약저축등의 양도에 대한 제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공급우선순위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의 공급목적과는 달리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을 투기적인 거래

를 위하여 형식적인 명의만 남겨둔 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양도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행위로서 양도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등으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둔 (영 제 6 조제 7 항 및 제 8 항).

마. 주택분양요건으로서의 공사진척도의 완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지정업자의 경우 건축공정의 10퍼센트 이상, 기타 등록업자인 경우 건축공정의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각각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입주자에게 피해의 우려가 없는 한 도내에서는 주택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2 이상의 지정업자의 연대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이 있는 때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그 입주자모집요건을 완화함 (영 제 7 조제 1 항).

바. 국민주택의 공급우선 순위의 변경

국민주택의 공급의 경우 종래에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1순위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청약저축 다액예치자순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국민주택에 있어서는 제 1 순위자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보다도 3년이상 장기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지역에 장기거주한 자 순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장기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하여 영세 무주택국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함 (영 제 13 조제 1 항).

사. 청약예금가입자의 금액별 주택공급신청자격의 제한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 청약예금가입자중 고액예치자는 종래 그 예금액에 해당하는 규모또

는 그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선택적으로 공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액청약예금예치자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소액예치자의 당첨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다액예치자에 의한 하향공급신청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예치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대상주택의 규모를 정함(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아. 주택의 해당첨금지기간의 연장 주택의 해당첨금지기간이 종래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주택의 경우 10년, 민영주택의 경우 5년으로 각각 연장하되, 이 규칙 시행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영 제17조 및 부칙 제4항).

건축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78호
1984년 12월 4일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건축물대장등)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도
2. 각층 평면도
3. 2면이상의 단면도
4. 구조계산서(영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5.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6. 건축설비도(일정한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경

우에 한한다)

7. 소방설비도(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④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이하 이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또는 공연장(이하 이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떨어져 설치하되, 그 띄는 거리가 30미터에 미달될 때에는 각 출입구에서 서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택등(당해 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주택등과 위락시설 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들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비상급수설비) ① 영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는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④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 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84. 5. 7 대통령령 제11,422호)되어 도심지 재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주택·의료시설 등과 숙박시설·공연장 등을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당해 건축물에는 반드시 피난시설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대형건축물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므로 국가비상사 등에 대비하여 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급수설비의 설치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며, 또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복잡하여 설계당시의 구조 등을 모르고서는 준공이후 유지·관리에 커다란 곤란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는 반드시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는 설계도서가 반드시 첨부되도록 함(영 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나.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중 하나 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하나 이상을 같은 건축물안에 수용할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택등의 거주자의 생활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피난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새로이 정함(영 제19조의2).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의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급수 설비의 종류, 설치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을 새로이 정함(영 제22조의2).

[별지 제 1 호서식]

(제 1 면)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차 려 기 간	
1. 신청내용				일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성 명	⑥면 허 번 호		계	호
설계자	⑤사무소명	⑦동 목 번 호		재	호
	⑧주 소	(전화)			
	⑨위 치				
대 지	⑩지 역	⑪지 구			
	⑫지 목	⑬전면도로폭 (m)			
	⑭면적 (㎡)	⑮조경면적 (㎡)			
용 도	⑯주 용 도	⑰부 속 용 도			
	구분	신청부분	신청여부	⑱합 계	⑲공 사 종 별
규 모	면적 (㎡)			⑳건축면적	
	⑳건축면적			㉑건폐율 %	
	㉒면적			㉓용적률 (%)	
㉔구 조	㉕층 수		지 하 () 층		
㉖지하층면적 (㎡)	㉗주차면적 (㎡)				
㉘착공예정일	㉙완공예정일				
㉚표준설계도서번호	제	호	㉛면적 (㎡)		
㉜가설건축물면적	㎡, 구조				
㉝도로상용면적	㎡, 점유기간				
㉞배수시설배수량	구조				
㉟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㊱구내물선로설비	㊲기 타				

2806-33(2-1) 번(3)
84. 10. 20. 승인

190mm×268mm
(신용용지 54g/㎡)

(제 2 면)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신청서	
년 월 일	건축주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에의함
2. 대지의 범위란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1의 4번, 5번 또는 9번에 정하는 해당도서 각 1부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합 의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허가서 교부	검 토
	합 의
	설 세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요 건축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중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전용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오물정화시설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㉞	

(제 3 연)

신청건축물 등별개요															대 ()매출	
⑧주 용 도					⑨공 사 중 별					⑩층 수					지하 { } 층	
⑪부 속 용 도					⑫층 수					지상 { } 층						
바닥면적 (㎡)	구분	층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계	
	⑬신청부분															
	⑭신청이외부분															
	⑮합 계															
⑯기둥지수또는내벽의 두께 (cm)																
⑰창개폐장치간의 거리 (m)																
⑱층 높 이 (m)																
⑲지심의반사높이 (m)																
구 조	⑳주요구조부															
	㉑기 초															
단열재	㉒벽															
	㉓바닥															
단열재	㉔외 벽															
	㉕반 자															
㉖최고높이 (m)																
㉗재광 면적 비율 (%)																
㉘승용승강기대수																
㉙냉·난방방식																
㉚전기 설비 용량																
㉛기 타																

2806-33 (2-2)인 (3)
84. 10. 20 승인190mm×268mm
(신문용지 54g/㎡)

(제 4 연)

*작성요령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보건의 청결환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종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용 으로 삭제 표시합니다.
4. 신청건축물의 등면개요는 붙임다 마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5. ⑮ 필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벽벽의 최수층 외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6. ⑮ 필은 그 층에 있는 창개폐 장치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7. ⑮ 필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 합니다.
8. ⑮ 필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9. ⑮ 필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원상조 등으로 기입합니다.
10. ⑮ 필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합니다. (예: 원관트러스위스래이트)
11. ⑮ 필은 기초형식을 기입합니다. (예: 콘크리트말뚝위 독립기초)
12. ⑮ 필은 차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합니다.
13. ⑮ 필은 주계료를 기입합니다.
14. ⑮ 필은 콘크리트 4 주 압축강도를 기입합니다.
15. ⑮ 필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전류율을 기입합니다.
16. ⑮ 필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중기 난방등으로 기입합니다.
17. ⑮ 필은 수석식·재가석식으로 기입합니다.
18. ⑮ 필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합니다.
19. ⑮ 필은 화재 및 보안기기 등의 장치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 7 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건 축 물 대 장		대장번호 제 호	
① 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②작공년월일	년 월 일	③종공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주	④성 명	⑤주인등록호			
	⑥주 소				
설 계 사	⑦성 명	⑧건축사면허번호			
	⑨주소또는사무소명	⑩등록번호 제 호			
공사감리자	⑪성 명	⑫건축사면허번호			
	⑬주소또는사무소명	⑭등록번호 제 호			
공사시정자	⑮성 명	⑯주관등록호			
	⑰주소또는사무소명	⑱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대 지 소 인	⑲위 치	㉑지 역	㉒지 역	㉓지 구	㉔지 구
	㉕대지면적 (㎡)				
용 도	㉖주 용 도	㉗기타용도			
	㉘건축면적 (㎡)	㉙바닥면적 (㎡)			
기 준 부 분 허가부분	㉚층 수	㉛층 수	㉜층 수	㉝층 수	㉞층 수
	㉟면 적	㊱면 적	㊲면 적	㊳면 적	㊴면 적
구 조	㊵연 계 용 (%)	㊶용 량 (%)	㊷건축물높이 (m)	㊸수치강면적 (㎡)	
	㊹기둥중의 고	㊺최고높이	㊻옥 내 옥 외 계		
방 부 부 원	㊼과	㊽경	㊾계	㊿경	㊽당
	㊾공	㊿공	㊽공	㊿공	㊽공

2806-99비
84. 10. 20승인210mm×268mm
(인쇄용지(복합) 120g/㎡)

중·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변경사항

구 분	1 차 허 가	2 차 허 가	3 차 허 가
①건 축 주			
②허 가 번 호 제 호			
③허 가 년 월 일			
④설 계 자	⑤성 명		
	⑥사무소명		
공사감리자	⑦성 명		
	⑧사무소명		
공사시정자	⑨성 명		
	⑩사무소명		
용 도	⑪주 용 도		
	⑫기타용도		
⑬건축면적 (㎡)	허가부분		
⑭연 면 적 (㎡)	허가부분		
⑮면 적	계		
⑯연 계 용 (%) (기존포함)			
⑰용 량 (%) (기존포함)			
⑱주 지 장 면 옥 내			
⑲지 지 장 면 옥 외			
⑳합 (㎡)	계		
㉑건축물 최고 높이 (m)			
㉒공 공 년 월 일			
㉓당 당 과 장	㉔	㉕	㉖
공부원	㉗	㉘	㉙
	㉚	㉛	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간 일
1. 신고내용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면허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지 호
공사 감리자	⑧주소		(전화)	
	⑨성명		⑩면허번호	제 호
공사 시공자	⑪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소		(전화)	
공사 시공자	⑭성명 또는 상호		⑮건설업면허번호	지 호
	⑯주소		(전화)	
⑰대지위치				
⑱허가번호	제 호	⑲허가일자		
⑳작공일자				
㉑검사일자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같이 (□준공, □동별준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신고증사본)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동별준공에 한한다) 3. 설계도서 1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한다) 수수로 없음				

2806-91(2-1) 판(2)
84. 10. 20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구·군	업 의 기 관 관 계 부 서
신고서작성	접 수	업 외
	점 사	
	결 제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지 호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되 이 정사로 건축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오물경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불노경화조의 준공검사

☐ 전기통신공사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 설비용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장·군수·구청장) (인)

첨부서류: 설계도서 1부

2. 신청건축물 동면개요				매 ()매수	
①주 용 도		②공 사 종 별			
③부 속 용 도		④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마 다 면 적	층별	층	층	층	층
	⑤신축부분				
	⑥신설인 ⑦의부분				
⑧기둥치수또는 내벽의외구름(cm)					
⑨외벽 ⑩의거리(m)					
⑪층 ⑫높이(m)					
⑬거 ⑭실 ⑮자 ⑯높이(m)					
구 조 단 위	⑰구조구조	⑱지		층	
	⑲기	⑳지		마	
	㉑벽	㉒콘크리트설계강도		(kg/cm ²)	
단 위	㉓외	㉔바		다	
	㉕반	㉖장		호	
	㉗고	㉘마		높이(m)	
㉙배광면적비율(%)		㉚지		동 계 단 의 수	
㉛층용 승강기 대수		㉜비		상 용 승 강 기 대 수	
㉝넛·난 방 방 식		㉞번		소 형 식	
㉟전기설비용량		㊱구		내 통 신 선 로 설 비	
㊲기		타			

2806-91(2-2) 판(2)
84. 10. 20.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설계 및 시공
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중
의문나시는 일 있으시면
본회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대한 건축사 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457-3
전화 : 584-0348 / 1098 / 4248
9448 / 9498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건설부공고 제84호
1984년 11월 9일

1. 적용범위

일반공사설계,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인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내용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준하여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설계

심사위원장은 그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을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종류 및 내용

가. 토목분야

(1) 용어의 정의

나)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형식선정, 단면결정등)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제출서류

서 류 명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목적, 규모, 금액등 2. 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주요조정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라. 환경영향검토 3. 사전조사 사항 4. 주요시공계획 5. 주요자재사용계획 6. 개략공정계획 7. 개략공사비산정 8. 기타 필요한 사항	1. 공사개요 목적, 규모, 금액등 2. 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정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라. 환경영향검토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시공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공사비산정 8. 기타 필요한 사항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2. 개략토질조사(시추, 시험, 물리탐사 등) 3. 개략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1. 토질개황 2.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험, 물리탐사등) 3. 세부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수리 및 구조 계산서	설계설명서상의 계획 및 방침결정을 위한 세부계산검토자료(설계기준, 구조형식 비교내용, 수리시설물 규모결정 방법등)	세부계산서
시방서	주요시방내용	세부시방내용

(3) 설계도면의 종류 및 내용

서 류 명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위치도	주위지형지물표기 (1/50,000~1/5,000축척지형도)	주위지형지물표기 (1/50,000~1/5,000축척지형도)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도	세부시설물 계획도
종횡단면도	주요종횡단면도	세부종횡단면도
구조물도	주요구조물계획도, 표준도등	세부구조물도

서 류 명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토공도	개략토공계획도	세부토공계획도, 표준도등
부대시설물도	주요부대시설물도	세부부대시설물도
조경도	주요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용지도	주요용지계획도	세부용지계획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세부사항은 기본설계도면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용어의 정의

(가) 기본설계 : 건축계획도시의 제반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하여 배치, 평면, 단면, 입면, 구조, 재료, 설비,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제출서류

기 본 설 계	기 본 설 계
1.설계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등 나.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강수량, 바람, 동결심도, 상·하수,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지역, 지구 등 다.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시설종합배치계획, 방침, 배치·평면·입면계획, 수평·수직 동선계획, 개략조경계획, 주차계획, 기타 라. 시공방법 마. 개략공정계획 바. 개략공사비산정 사. 주요설비계획 아. 주요자재계획 자. 기타 필요한 사항	1.설계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등 나.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종 주용도등 다.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강수량, 바람, 동결심도, 상·하수,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라.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시설종합배치계획, 방침, 세부 배치·평면·입면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조경계획, 세부주차계획등 마. 세부시공방법 바. 세부공정계획 사. 공사비산정(공종별물량 및 공사비) 아. 세부설비계획 자. 세부자재계획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구조계획서 가. 설계근거기준 나.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라.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마.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구조, 지붕구조, 기타 바.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등 사. 구조안전검토 5층 이상 또는 경간 12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2.구조계획서 가. 설계근거기준 나.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라.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마.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구조, 지붕구조, 기타 바.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등 사. 구조계산서
3.지질조사서 가. 토질개황 나. 토질주상도 다. 표준관입시험치	3.지질조사서 가. 토질개황 나. 토질주상도 다. 표준관입시험치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4.시방서	라. 토질시험내용 마. 지내력산출근거 바. 지하수위면 사. 기초에 대한 의견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일 경우 이에 대한 시방내용	4.시방서	라. 토질시험내용 마. 지내력산출근거 바. 지하수위면 사. 기초에 대한 의견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사항 내용

(3) 설계도면의 종류 및 내용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도면의 종류	축척	표시해야 할 내용	도면의 종류	축척	표시해야 할 내용
부근안 내도 투시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색채사용	부근안 내도 조감도 투시도 도면목록표	임의 임의 "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색채사용 색채사용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심사대상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 담, 옹벽, 우물, 정화조배수시설, 주차장, 부수시설의 위치와 동선 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배치도	1/600 이하	축척, 방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심사대상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 담, 옹벽, 우물, 정화조배수시설, 건축물부수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내외마감표 부착시 설물계획도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부엌가구, 장식장, 신발장등	부분배치도 주차장 평면도 구적도 건물면적산출표	1/300 이상 1/100 이상 1/600 이하 임의	상기 사항(배치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축척, 주차장배치, 평면, 도로,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각 층 평면도		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기계실배치, 기타	각 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각 층 천장 평면도 지붕 평면도	1/100 이상 1/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입면도 (정면및 측면)		축척, 개구부, 외벽구조, 옥상돌출부, 지붕구성, 국기계양대, 기타	입면도 (4면)	1/100 이상	축척, 개구부, 외벽구조, 옥상돌출부, 지붕구성, 국기계양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 단 면도 (중·횡)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중·횡으로 잘라 주단면도를 그린다) 축척, 기초의 크기·재료, 각 실의 바닥 높이, 바닥두께, 재료, 반자의 구성재료,	주 단 면도 (중·횡 2면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 서 중·횡으로 2면 이상 잘라 주단면도를 그림)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각 실의 바닥 높이, 바닥두께, 재료, 반자의 구성재료,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주요구조부단면상세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의 규격 및 구조 기타		높이, 지붕의 구조·재료, 벽체의 구조·재료,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의 규격 및 구조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하나 내지 2 개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시공에 필요한 단면상세	주단면 1/50 상세도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개별실 1/30~	"
		단면상 1/50	
		세도	
		계단평 1/50	"
		면단면 이상	
		상세도	
		글 쪽 1/30	"
		상세도 이상	
		샷다, 1/30~	"
		핏트, 1/50	
		발코니	
		등부분	
		상세도	
		창호일 랑표	창호의 일람
		각층창 1/100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호평면 이상	
		도	
		창호상 1/50	"
		세도 이상	
		각부배 1/30	"
		근상세 이상	
		도	
		옹벽배 1/30	"
		근도 이상	
		각부구 1/30~	"
		조단면 1/50	
		도	
		구조부 1/30	"
		재중심 이상	
		선도	
		구조부 1/30	(P. C인 경우)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조립 이상	
		도	
		구조부 1/30~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접합 1/50~	
		상세도	
		각층기 1/30	"
		동일람 이상	
		표	
		각층기 1/100~	"
		등·보 1/50	
		위치도	
		주방기	주방기구의 목록
		구목록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표 부착시 설물상 세도 각층보 일람표 조경계 획평면 도	1/30~ 1/10 1/30 이상 1/200 이하 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 한 사항 일체	
조 경 계획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식수 면적 계산 내용					
조경시 설물공 사계획 도 (유 회, 체 육시설 포함)		잔디, 휴지통, 안내판류, 환경조각, 상징 탑, 분수, 벤치, 등산로파고라, 휴게소, 화단, 문주담장, 음료수대, 미끄럼대, 조합놀이기구, 철봉, 시소, 그네, 체육 시설 기타		조경시 설물공 사계획 도 유희및 체육시 설물공 사계획 도 토 공 계획도 배 식 평면도	1/100 ~ 1/200 1/100 ~ 1/200 1/200 이상 1/100 ~ 1/200	잔디, 휴지통, 안내판류, 환경조각, 상징 탑, 분수, 벤치, 등산로, 파고라, 휴게소, 문주담장, 화단, 음료수대, 미끄럼대, 조 합놀이기구, 철봉, 시소, 그네 기타 체육시설, 미끄럼대, 어린이놀이터, 조합 놀이기구, 철봉, 시소, 그네 등 조경단지조성에 필요한 사항 일체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 면적계산표 등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다. 기계분야

(1) 용어의 정의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제출서류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1.설계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등 나. 주요생산설비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다. 주요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공, 배선패관, 기타 설비 라. 복리후생설비 마.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바. 주요시공계획 사. 개략정공계획 아. 개략공사비산정 자. 기타 필요한 사항	1.설계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금액 등 나. 주요생산설비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다. 주요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공, 배선패관, 기타 설비 라. 복리후생설비 마.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바. 세부시공계획 사. 세부공정계획 아. 세부공사비산정 자. 기타 필요한 사항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 사항
2.설계계산서	가. 주요생산설비의 개략용량계산서 나. 주요유틸리티설비개략용량계산서 다. 작업능력, 사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	2.시방서 3.설계계산서	가. 주요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나. 주요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 정서 다. 작업능력, 사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한 계산서 라. 간이부하계산서		한 세부계산서 라. 부하계산서

(3) 설계도면의 종류 및 내용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도면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도면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일반사항	범 례 도면목록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일반사항	범 례 도면목록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배치도	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위치, 상하 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 저장소, 각종 탱크, 정화조, 연돌, 기계실의 위치, 기기반 출입구의 표시, 인근건물 및 통행인에 미치는 광해사항 등	배치도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	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기타 설비의 계통도	계통도	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기타 설비의 세부계통
평면도	각종 설비샤프트(Shaft)의 크기, 유지보수공간을 고려한 기계실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단선표시)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확대평면도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단면도 기계실입체 배관도	단면도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단면도, 기계실단면도
옥외공동구	옥외공동구관로 및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입체배관도 옥외공동구	기계실 입체배관도 옥외공동구관로 및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 도면 포함)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	상세도 기 타	각종 설비별 상세도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전기분야

(1) 용어의 정의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종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제출서류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서류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1. 서류설명서	가. 전기설비 개요 각설비(전력, 통신, 소방, 보안, 편리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나.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등에 대한 채택설명 인입, 변전설의 배치, 결선도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다. 본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라. Energy절감 및 관리유지에 관한 고려 사항	1.설계설명서	가. 전기설비 개요 각설비(전력, 통신, 소방, 보안, 편리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나. 수변전설비도와 결선도등에 대한 채택설명 인입, 변전설의 배치, 결선도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다. 본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라. Energy절감 및 관리유지에 관한 고려 사항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2.계산서	가. 각설(방)별 조도기준 나.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 용량계산서			2.계산서	가.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할 상식(또는 계수 등에 대한 채택근거서) 나. 조도계산서 다.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 용량계산서 라. 발전기용량 계산서 마. 축전자설비등의 용량계산서 바. 간선계산서 사. 수변전 설비의 기기 및 배선등의 정격 용량산출서, 단락용량계산서 등 아.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 계산서 또는 기기의 배선의 적절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계산서		
3.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정격 사용 방법, 제작기준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기시방서 : 건설부제정, 전기시방서외의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사의 범위준공기한 등의 기타 시공조건등을 설명한다.			3.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정격 사용 방법, 제작기준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기시방서 : 건설부제정, 전기시방서외의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사의 범위준공기한 등의 기타 시공방법등을 설명한다.		

(3) 설계도면의 종류 및 내용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도면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도면의종류	표 시 해 야 할 내 용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등			도면목록표	과 동		
범 레	사용될 기호			부근안내도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 치 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위치표시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도 예 : Hand hole(수공), Manhole(인공), 외 등, 2차변전소 등			범레, 특기사항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등 표시			배 치 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등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2차변전설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변전설비 결선도	수변전설비의 단선결선도(2차변전설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등(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를 제외한다)		
				수변전설비 결선도	수변전설비의 단선결선도(특별한 경우에는 3선결선도)로 각종기기,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설명등 포함		

기 분 설 계		실 시 설 계	
각종설비의 계통도	전력, T.V방재,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각종설비의 계통도	전동, 전열, 동력, T.V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의 정격, 규격과 배선의 정격규격
각종설비의 배치도	전동, 전열, 동력, T.V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경우는 단위평면도를 포함한다)	각종설비의 배치도	전동, 전열, 동력, TV 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 또는 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 등 표시(단위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단위평면도를 포함한다)
		각종결선도	•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와 배선의 정격등과 충부하표시등 • 사용한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 필요시 각 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등과 충 부하계산 • 기타 타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제작결선도는 제외한다)
기	타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3. 설계도의 규격 지질과 제출부수

가.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

구 분	규 격	지 질	비 고
기 분 설계도	A ₂ (420×594)	청사진용감광지	투시도조감도에는캔트지에그릴것.
실 시 설계도	A ₀ (841×1,189) A ₁ (594×841)	청사진용감광지	
각 종 서류	16절지 (190×268) A ₃ (297×420)	모조지 또는 갱지	

※ 단,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규격 및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의 제출부수

- (1) 토목분야(기계 및 전기분야 포함)
8부(일괄 및 대안입찰시는 14부)
단, 실시설계에서 토목공사중 기계, 전기공사 등이 포함된 경우 토목공사를 제외한 기계, 전기공사등의 설계도서는 분철하여 각5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제출부수는 변경할 수 있다.
- (2) 건축분야(기계 및 전기분야 포함)
10부(일괄 및 대안입찰시는 19부)
단, 실시설계에서 건축공사중 기계, 전기공사 등의 설계도서는

분철하여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부수는 변경할 수 있다.

- (3) 기전(플랜트)분야 (건축 및 토목분야 포함)
각 분야를 합철하여 10부(일괄 및 대안입찰시는 20부) 단, 실시설계시는 각 분야별로 분철하여 기계 10부, 전기, 토목, 건축 각 5부씩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부수는 변경할 수 있다.

특수시설공사의 범위

건설부공고 제85호
1984년 11월 9일

1. 토목분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도, 댐,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중

말처리장, 향만시설 등에 대한 공사

2. 건축분야

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단일건축물이거나

나.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관광휴식시설 등 다수인원이 수용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1) 경간 : 50m이상
- (2) 층수 : 지상 10층이상

3. 기전(플랜트)분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공해방지시설(쓰레기처리시설포함), 저장탱크, 저장기기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공기조화설비, 열병합발전설비, 열수설비 등과 이에 준한 플랜트공사설비

표준품셈관리규정

건설부훈령 제669호

1984년 11월 9일

제1조 (목적) 표준품셈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토목(건설기계, 측량 포함) 및 건축부문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품셈의 제정,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품셈의 제정) ① 품셈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② 품셈의 제정,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실장 소속하에 품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품셈관계자료의 수집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 자료를 첨부 매년 7월31일까지 장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사무소장,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장, 대한주택공사사장,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한건설협회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회장등(이하 "산하기관장"이라 한다)은 품셈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 개발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관리실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장에게 특정한 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관리실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장과 제7조 각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⑤ 기술관리실장은 안전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7조 각호의 사

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산하기관장은 품셈관계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요원에 조사연구를 위한 재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셈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기술개발관이 된다.

③ 위원은 기술관리실장의 제청으로 장관이 임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토목공사(건설기계, 측량부분 포함) 품셈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품셈에 관한 사항
3. 기타 품셈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개최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중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건설부 산하 시행청 및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상정 및 송부) ① 기술관리실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과

그 심사자료를 사전 검토후 상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과 그 심의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기능별로 토목부분은 토목품셈담당토목기좌가 되고, 건축부분은 건축품셈담당 건축기좌가 된다.

③ 서기는 기술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 및 제8조 3항에 의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심의위원회) 위원회에 제7조 각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목부분 분과위원회 : 제7조 1호의 해당 사항중 건설기계 및 측량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2. 건설기계부분 분과위원회 : 제7조 1호의 해당 사항중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측량부분 분과위원회 : 제7조 1호의 해당 사항중 측량부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건설부분 분과위원회 : 제7조 2호의 해당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기술관리실장이

임명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토목, 건축, 건설기계부문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개발관, 부 위원장은 기술관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측량부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개발관, 부위원장은 국립지리원 측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15인이내로 구성한다.

제15조 (규정의 준용)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등의 규정은 각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운영세칙중 개정령

건설부훈령 제670호
1984년 11월 9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심 의) 중앙위원회(개별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는 설계심사위원회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의 설계 또는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인 경우에는 공사내용의 설명, 질의, 검토, 의견발표, 토의 및 의결순으로 하며, 규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중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검토·제점 및 의결순으로 하며,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검토·제점, 공사내용의 설명, 질의 의견발표, 토의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다만, 규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의 설명 및 질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심의의결) ①일반공사의 설계 또는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중 원안설계 및 대안법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설계심사 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중 가목 및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계
2. “조건부채택”: 규칙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중

가목 및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

3. “재심의”: 규칙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중 가목 및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중대하여 재설계를 한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

②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중 대안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안채택, 조건부대안 채택 또는 대안부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대안채택”: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없어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2. “조건부대안채택” 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 내지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므로써 특례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3. “대안부채택”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마목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중대하여 특례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설계

제7조의 제목을“(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의 채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례규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시설공사의 내용과 별지 설계배점기준을 고려하여 당해설계총점수가100점 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장은 그 배점표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의 내용으로보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별 구성비율등에 따라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를 조정하거나 배점범위를 초과하여 배점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위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지명시지정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에 대하여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점수를 작성하여 회의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별심의회의의장은 전문분야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전문분야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 그 점수를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심의회의의장은 이를 참고로 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개별심의회의의장과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설계도서

의 설계점수로 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개별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5. 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점수가 100점만 점을 기준으로하여 60

점 이상인 설계를 특별규정 제 7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으로 본다.

⑤ 전문분야별 위원의 지명은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중 “구분”을 “입찰

자명”으로 하고 착안사항란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시행한다.
중앙설계 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설 계 배 점 기 준

가. 토목분야

전문분야	배 점 내 용	배 점	비 고
1.시설물계획	가. 사전조사사항 나. 위치 및 배치계획 다. 시설물규모 및 형식선정 라. 시공성 및 공정계획 마. 조경 및 환경계획 바. 신기술 및 에너지절약 사. 사방서 및 기타	30~60	(주) 괄호는 기본설계시적용함
2.구조계산	가. (주요) 구조물의 단면결정 및 구조물 안정성 나. (개략) 구조계산내용 다. 신기술, 전산 및 기타	15~30	
3.수문 및 수리	가. 수문 및 수리계획 나. (개략) 수문 및 수리계산 다. 전산 및 기타	10~30	
4.토질 및 기초	가. (개략)토질조사 및 시험 나. 기초구조의 선정 및 안정성검토 다. 신기술, 전산 및 기타	15~30	
5.기계설비	가. 기계설비계획 나. 유지관리 다. 에너지절약 라. 기타사항	5 ~20	
6.전기설비	가. 전력설비계획 나. 약전 및 설비계획 다. 에너지절약 라. 기타사항	5 ~20	

나. 건축분야

전문분야	배 점 내 용	배 점
1.건축계획	가. 단지계획 및 배치도 나. 평면도 및 입면도 다. 에너지절약 및 기타	28~42
2.조 경	가. 조경·계획 및 배식평면도, 토공계획도 나. 조경채육 및 유희시설물도 및 기타	2 ~ 6
3.건축구조	가. 단면도(구조부재의 결정 및 구조형식등) 및 구조도 나. 구조계산(전산이용) 구조안전 및 기타	12~18
4.건축시공	가. 공법 및 구조일반 나. 구조성능(에너지절약, 방수, 차음등) 다. 각종 상세도 및 기타	10~14
5.기계설비	가. 위생설비 나. 냉난방설비 다.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	14~20

전문분야	배	점	내	용	배	점
6.전기설비	라. 에너지절약 및 기타				9	~16
	가. 전력설비					
	나. 약전 및 소방설비					
	다. 전기자동제어					
7.토	라. 에너지절약 및 기타				3	~ 6
목	가. 상하수도					
	나. 도로 및 포장					
	다. 토공 및 기타					
계					100	

다. 기전(플랜트)분야

전문분야	배	점	내	용	배	점
1.기계설비	가. 공장배치계획				20	~60
	나. 기계선정 및 공정					
	다. 공해방지					
	라. 유지관리 및 경제성 검토					
	마. 에너지절약 및 기타					
2.전기설비	가. 전력설비계획				20	~60
	나. 약전 및 소방설비					
	다. 전기자동제어					
	라. 에너지절약 및 기타					
3.토	가. 구조계산				5	~15
목	나. 수문 및 수리계산					
	다. 토질 및 기초					
	라. 도로 및 기타사항					
4.건축	가. 건축계획				5	~15
	나.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라. 에너지절약 및 기타					
계					100	

기고안내

은혜를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입니다

기록이며
홍보매체

■ 회원작품 카드 접수

- 별첨 요령에 의한 작품카드를 항상 접수합니다.
- 접수된 작품은 최저에도 게재되고, 유관 단체(기관)의 건축상 추천자료가 됩니다.
- 자료실용 용해 영구 보존됩니다.
(작품카드 등지는 소속지부에서 별도 배부합니다.)

■ 대회의 광장〈이야기 좀 합시다〉 고정란 신설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 〈복소출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야기 보다 발전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 원고길이 : 200 자(한글) 100자 정도〉

■ 그밖에 원고도 부탁드립니다.

- 각종 문예 원고(수상·공포 등)
 - 논문·자료 등
- 〈태마에 제한 없습니다.〉

84년도 총목차

1月號

會員作品

- 28 •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 金仁錫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 30 • 공중목욕탕 및 주택 / 柳然昌 / 미도 & 류건축연구소
- 32 • 방배동 W빌딩 / 宋光燮 / 환 건축연구소
- 34 • 풍림산업(주) 본사사옥 / 金浩 · 金正植 / 주 · 부림종합설계
- 36 • 국립안동대학 교양학관 / 安將元 / 신아건축연구소
- 2 • 新年辭 / “協會歷史의 새로운 轉機마련하는 해로” / 金枝泰

特 輯 새해에 거는 기대

- “刻苦心慮의 力作을 기대하며…” / 張起仁, 無題 / 金重業
- “建築界의 폭넓은 發展을 빌며” / 李丞雨
-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 / 金根德
- “大企業 속의 設計組織에 바란다” / 李永熙
- “自慰에서 벗어나 未來를 생각해야 할 時期” / 金正浚
- “우리의 姿勢 가다듬어 權威回復에 힘써야” / 韓鍾彦
- “共感의 鳥瞰圖를 내걸자” / 金榮洙
- “바로 잡음에 서슴치 않는 해가…” / 金亨仁
- “새로운 跳躍의 해로” / 李文雨
- “內實의 눈을 키워야 할 때” / 金基雄
- “하나의 調和를 생각하며…” / 鄭求股
- “새 「建築」에 필요한 「名規」를…” / 徐千植
- “慾心껏 일할 수 있는 與件造成 이뤄져야” / 金仁喆

論文 / 기타

- 12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昶求
- 39 • 視覺障礙者를 爲한 施設의 計劃과 設計 / 朴勇煥
- 54 • 韓國의 宮闕建築(傳統建築) / 金東賢
- 59 • 수표 소공원과 마로니에 공원(서울의 도시외부공간에 대한 분석) / 金景求
- 87 • 高層建物の 衛生設備 / 朴容漢
- 91 • “高層建物에 있어서의 바레트기초 形式에 관한 小考” / 田鳳秀

連 載

- 17 • 建築文化 一般論 ③ / 박영호
- 23 •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 ② / 趙聖烈
- 71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建築의 컴퓨터應用)④ / 曹鐵鎬
- 44 • 협회소식
- 52 • 건축계뉴스 / 정보
- 99 • 자료(법개정 내용)

1월호표지



2月號

원색特輯 會員作品 / 오피스빌딩

- 4 • 인의빌딩 / 鄭時春 / 건축환경 동인
- 6 • 삼안공영본사 사옥 / 趙成龍 / 우원건축연구소
- 8 • 코리아헤럴드 사옥 / 金正澈 / 주 · 정림건축
- 10 • 창성동사무소 / 徐鎭宇 / 하나건축연구소
- 12 • 삼원빌딩 / 尹熙善 / 한인건축
- 14 • 현하빌딩 / 崔東奎 / 서인건축연구소

建築士 Plaza

- 2 • 論壇 / 『3,941件』의 罰과罪 副會長 / 金基壽
- 15 • 정화칼럼 / “우리에 대한 期待와 우리의 義務를 생각하며…” / 金枝泰
- 27 • 對話의 廣場 / “언제까지 응급조치만 해야 하나” / 李永熙
- 20 • 새해에 거는 기대
“自省으로 自求策 세워야 할 시기” / 韓昌鎭
“새로움을 위한 터전의 해로…” / 李康植
“모두의 質的 向上을 기원하며” / 柳春秀
- 22 • 協會在職 기록과 나의 提言 /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事務處長 / 任仁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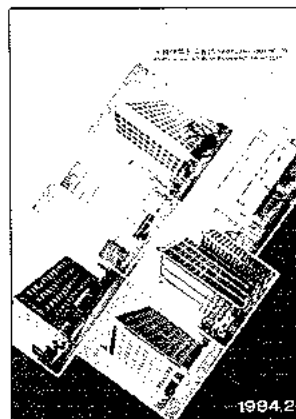
論文 / 기타

- 33 • 사무소 건축의 構造上 문제점 / 李昌男
- 40 • 事務所建築의 새로운 方向 / 金鍾男
- 48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昶求
- 58 • 肢体障礙者를 爲한 施設의 計劃과 設計 / 朴勇煥
- 67 • 韓國의 寺刹建築(傳統建築) / 金東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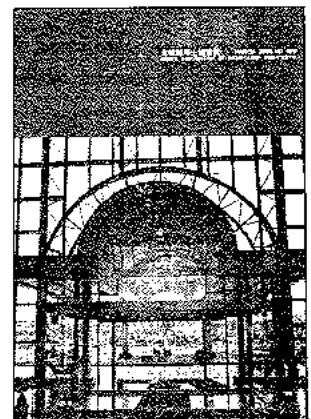
連 載

- 44 •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 : ③ / 趙聖烈
- 71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建築의 컴퓨터應用) : ⑤ / 曹鐵鎬
- 28 • 隨想 / 建築도 빛나면서 都市도 살아나고 / 元正洙
- 80 • 光化門과 柳宗悅 / 林成洙
- 94 • 建築分野 · 國家技術資格法 改正內容案內 / 이창생
- 16 • 협회소식
- 55 • 건축계뉴스 / 정보
- 99 • 자료(법개정 내용)
- 111 • 신입회원
- 114 • 회원동정

2월호표지



3월호표지



3 月號

會員作品

- 4 • 제주 K호텔 / 金武永 / 한국환경설계연구소
 6 • 한서상호신용금고 사옥 / 金永洙 / 김영수건축연구소
 8 • 장전동 K씨댁 / 柳光弘 / 광장건축연구소
 10 • 갈현동 소나무집 / 柳春秀 / 공간연구소
 12 • 한성 성결교회 / 尹鳳源 / 건축연구소 원건사
 14 • 신흥동 B씨주택 / 裴東權 / 동신건축설계사무소

建築士 Plaza

- 2 • 論壇 / 우리모두가 정성과 힘을 모을 때 / 尹鳳源
 15 • 對話의 廣場 /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련 / 李榮一
 37 • 정화칼럼 / “職業을 통한 社會奉仕만이 淨化의 지름길” / 金一鎬 歸國報告
 20 • 國際交流를 위한 訪日報告 / 金枝泰
 22 • “未來를 위한 礎石을 마련할 때” / 俞景哲
 25 • 東京建築士會 방문 서울지부장 / 吳雄錫
 68 • 일하며 생각하며 / 우리의 일이라는 것 / 金仁喆
 28 • 프리즘 / 超高層建物에 대한 雜想 / 崔昌奎

論文 / 기타

- 38 • 現代建築의 動向들 / 강 혁
 48 • 韓國의 木造建築樣式 / 金東賢
 62 • 韓國과 日本의 伽藍配置計劃比較研究 / 金奉烈
 72 • 熱펌프(HEAT PUMP)의 基本原理와 에너지 節約 / 湯滿基
 76 • 共同住居計劃에 關한 研究 / 安英培

連 載

- 31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③ / 宋旼求
 44 •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 / 장식벽 : ④ / 趙聖烈
 54 • CAD를 활용한 建築設計(建築의 컴퓨터應用) : ⑥ / 曹鐵鎬
 16 • 협회소식
 53 • 건축계뉴스
 85 • 자료(법개정내용)
 89 • 신입회원
 92 • 회원동정

4 月號

會員作品

- 4 • 제일은행 창원지점 / 金基雄 / 건축설계연구소 삼정

- 6 • 서소문 KAL빌딩 / 洪英熙 / 주·신한엔지니어링
 8 • 점포주택 / 鄭求殷 / 삼예건축
 10 • 주·세신실업 본사 및 공장 / 安日成 / 극동설계사
 12 •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 黃一仁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54 • 학봉교회 / 계획작품 / 金琪碩 / 아름건축연구소

建築士 Plaza

- 2 • 論壇 / 제 1 회 임시총회 개회사 全文 “將來를 透視하는 毅然한 자세필요” / 金枝泰
 15 • 對話의 廣場 「建築士有感」 / 姜哲求
 31 • 정화칼럼 / 歷史의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며……
 28 • 일하며 생각하며 /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 金自浩
 44 • 感傷紀行 2 / 金錫澈
 50 • 대한생명63층빌딩 / 金熙春
 56 • 아시아의 도시팽창과 미래의 환경문제 / IFLA 홍콩 대회를 마치고 / 金榮洙

論文 / 기타

- 36 • 超에너지절약형 施設에 대한 試驗成果 / 金一榮
 日本, 大林組技術研究所 연구결과소개
 82 • 尊德亭 / 金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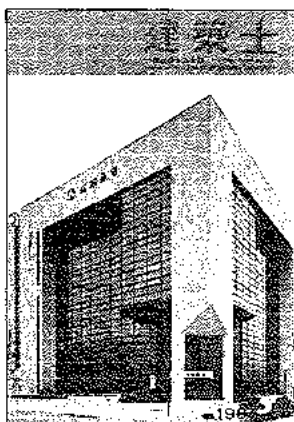
連 載

- 21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④ / 宋旼求
 32 •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 / 주택의 창 : ⑤ / 趙聖烈
 40 • 傳統建築 / 韓國建築의 平面 / 金東賢
 62 • 建築의 컴퓨터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⑦ / 曹鐵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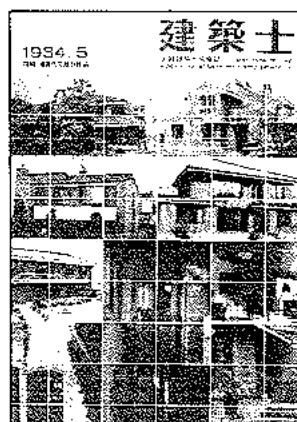
海外作品 / ARCHITECTS' OFFICES

- 70 • 建築設計事務所 꾸밈 / 6 選
 70 • ① Design Consortium
 72 • ② Patty Berkebile Nelson Associates
 74 • ③ Charles Sieger
 76 • ④ EPR Associates
 78 • ⑤ Design Consortium / Zuber
 80 • ⑥ Powell/Kleinschmidt
 16 • 협회소식
 59 • 건축계뉴스
 84 • 자료(법개정 내용)
 98 •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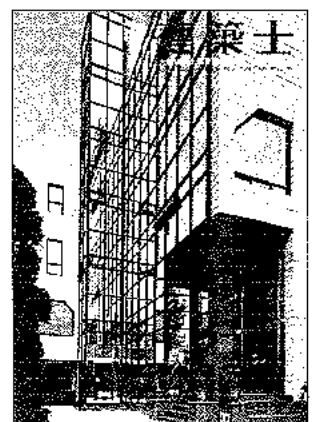
4 월호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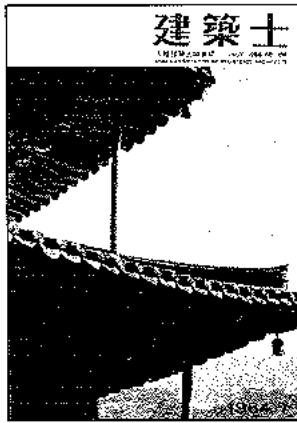


5 월호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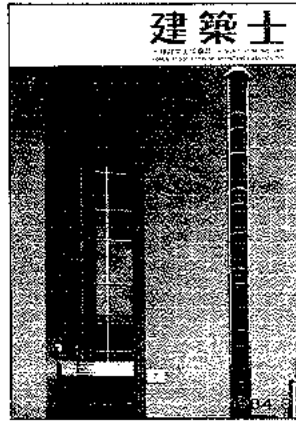


6 월호표지





7 월호표지



8 월호표지



9 월호표지

5 月號

원색特輯 / 會員住宅設計作品

- 4 • 명륜동 K씨댁 / 黃一仁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 6 • 역삼동 김사장댁 / 魏亨復 / 주·연희건축연구소
- 8 • 신영동 성사장댁 / 姜哲求 / 동우건축설계사무소
- 10 • 성북동 K박사댁 / 朱英三 / 한협도시건축연구소
- 12 • 반포동 이씨주택 / 金忠鎭 / 주·한국종합정주건축
- 13 • 우이동 양교수댁 / 朴商浩 / 석림건축연구소
- 14 • J씨주택 / 林吉成 / 건축연구소 경동마당
- 16 • K박사댁 / 金文圭 / 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림
- 18 • 유이사댁 / 林東潤 / 아진건축

建築士 Plaza

- 2 •論壇 / 다시금建築社會를 생각하며... 李永熙
- 19 •對話의 廣場 / 무엇이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가? / 金琪碩
- 38 •정화칼럼 /地位向上과 會員의 義務 / 柳光澤

論文 / 기타

- 25 •住宅의 實像과 虛像 / 崔昌奎
- 28 •住宅을 위한 斷像 / 金正澈
- 31 •生活空間으로서의 住宅에 대한 小考 / 池淳
- 34 •내가 갖고 싶은 주택 / 公日坤
- 35 •無住宅 低所得層을 위한 住宅設計의 方向 / 李珪杓
- 40 •淸心亭 / 金두현
- 73 •嬰·育兒施設의 現況과 問題點 / 朴勇煥
- 81 •吸收式 가스冷暖房裝置의 技術開發動向과 展望 / 趙興坤

連 載

- 42 •인테리어디자인 / 간막이 : ⑥ / 趙聖烈
- 46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⑤ / 宋旼求
- 53 •建築의 컴퓨터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⑧ / 曹鐵鎬
- 20 •협회소식
- 68 •건축계뉴스
- 70 •건축행정 상담
- 88 •자료<법개정 내용>
- 106 •신입회원
- 108 •회원동정

6 月號

會員設計作品

- 4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 음악관 / 金仁錫 / 건축연구소 일건
- 6 • 동의공업전문대학 제5공학관 / 安日成 / 극동설계사
- 8 • 국립의료원 / 金希洙 / 현신건축설계사무소
- 10 • 초양빌딩 / 崔東奎 / 서인건축연구소
- 11 • 중등 중·고등학교 / 李珪杓·金仁喆·鄭德薰 / 주·임&이건축연구소
- 12 • 형주빌딩 / 李康植 / 주·완중합건축

建築士 Plaza

- 2 •論壇 /協會 그리고 會員 / 李永熙
- 15 •對話의 廣場 /특별조치법과 에누리행정 / 金 린
- 22 •정화칼럼 /“한번쯤 생각해 보자” / 송승호
- 26 •일하며 생각하며
 - 지난날을 돌아보며 / 李明春
 - 여유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흐름을 만들 때” / 金寬旭
 - 우리의 일이라는 것 / 그 다음 / 金仁喆
- 43 • 프리즘 / 自己完成의 刻苦만이... / 朴性圭
- 46 •제언<提言> / 「教授文化」가 建築에도 / 金榮洙
- 56 •感傷紀行 / 金錫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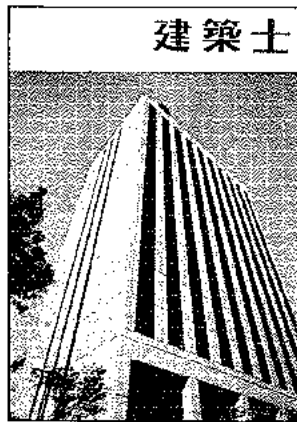
論文 / 기타

- 23 •淸漪亭 / 金두현
- 66 •서울시 四大門內에 있어서의 廣場形態別 類型分析에 對한 研究 / 李範宰
- 70 •障靄者와 住居 / 朴勇煥
- 76 •고층건물의 전기설비연구 / 이영수
- 84 •建築과 水空間 / 공원이나 광장에 있어서 물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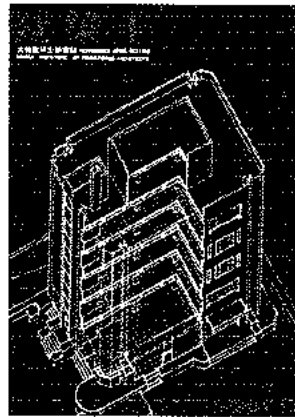
連 載

- 36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⑥ / 宋旼求
- 48 •建築의 컴퓨터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⑨ / 曹鐵鎬
- 61 •주택의 인테리어디자인 / 도입부 : ⑦ / 趙聖烈
- 16 •협회소식
- 80 •건축계 뉴스
- 90 •자료<법개정 내용>
- 97 •신입회원
- 98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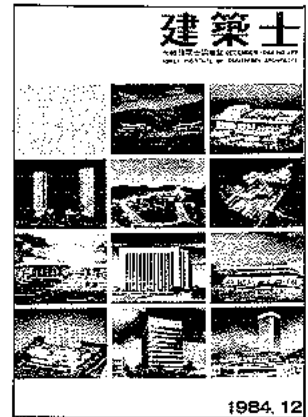
7 月號



10월호표지



11월호표지



12월호표지

會員設計作品

- 4 • 가든에식장 / 宋光燮 / 환건축연구소
- 6 • 만수동 성당 / 金榮洙 / 김영수건축연구소
- 8 • 광명종합병원 / 趙東榮 / 건축연구소 일건
- 10 • 서마산 장로교회 / 裴東權 / 동진건축설계사무소
- 12 • 경남부지사 관사 / 安日成 / 극동설계사

建築士 Plaza

- 2 • 論壇 / 建設業체들의 注文住宅 事業廣告에 대하여 / 金枝泰
- 15 • 정화칼럼 / 人間萬事 塞翁之馬 / 李世勲
- 22 • 일하며 생각하며 / 人間의 壽命 / 金熙春 • 팔방미인 / 姜純
- 26 • 對話의 廣場 / “작곡없는 저명한 지휘자가 많은 시대에서 ...” / 이상현

論文 / 기타

- 20 • 金堤 金山寺 彌勒殿 / 張起仁
- 57 • 教會施設의 適正規模와 地域的 配置에 關한 研究 / 韓圭榮
- 62 • WHEEL CHAIR 사용자의 生活空間의 實態와 디테일
動作機能과 치수를 中心으로 / 鄭慶雲
- 69 • 高層建物의 空調設備空間 / 孫章烈

連 載

- 30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旼求
- 38 •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 / 거실(LIVING AREA) / 趙聖烈
- 41 • 建築文化一般論 상이한 세계의 調和 / 박영호
- 50 • 建築의 컴퓨터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曹鐵鎬
- 16 • 협회소식
- 74 • 건축계뉴스
- 76 • 건축행정상담
- 82 • 자료 《법개정 내용》
- 97 • 회원동정

8 月號

會員設計作品

- 4 • 광주칸트리클럽하우스 / 吳雄錫 / 신조건축연구소
- 7 • 배제 중·고등학교 / 朴在煥 / 도성건축연구소
- 10 • 한국의환은행 포항지점 / 李永熙 / 회림건축설계사무소
- 12 • 행림출판사 사옥 / 鄭在源 / 라이온건축연구소
- 14 • 명륜동 흥박사택 / 表相權 / 상현건축연구소
- 16 • 청아에식장 / 金盛鐸 / 한국건축설계사무소

建築士 Plaza

- 2 • 論壇 / “跳躍의 디딤들을 ...” 〈法改正 推進強化와 企劃弘報時代〉 / 吳雄錫
- 18 • 對話의 廣場 / 거리에서 / 趙成龍
- 22 • 일하며 생각하며
• 建築家不器 / 安秉義
• 커뮤니케이션건축 · 電子的 커뮤니티 · 自由時
間都市 / 朴研心
- 51 • 정화칼럼 / 三人行이던 必有先 / 嚴泰雄
- 52 • 病든 美人=알는 建物 / 李昌男

論文 / 기타

- 26 • 宝林寺 大雄殿 復元(復元設計 作成의 概要) / 李應默
- 40 • 都市再開發事業의 效率的인 計劃方案 / 朱鍾元
- 67 • WHEEL CHAIR 사용자의 生活空間의 實態와 디테일 / 鄭慶雲
- 84 • 太陽 Energy利用 System에 對한 研究 / 尹榮在

連 載

- 56 •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 / 다목적 주거공간으로서의 식당
(DINING ROOM) / 趙聖烈
- 60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旼求
- 77 • 建築의 컴퓨터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趙鐵鎬
- 20 • 협회소식
- 86 • 자료 《법개정 내용》
- 98 • 신입회원
- 99 • 회원동정

9 月號

特輯 / '84會員建築設計作品公募展入賞作發表

- 4 • 大 賞 용평리조트컴플렉스 / 金寬旭 / 대호건축연구소
- 8 • 最優秀賞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 權棹雄 · 崔泰容
/ 주 · 정립건축
- 10 • 優 秀 賞 갈현동 소나무집 / 柳春秀 / 공간연구소
- 12 • 계명대학교 학생회관 / 林八岩 / 동인건축
- 14 • 도예가 원교수택 / 崔勝元 / 태을건축
- 16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 金仁錫 / 건축연
연구소 일건
- 18 • 부산시 중촌담 / 金重業 / 김중업건축연구소

84년도 총목차

20. 獎 勵 賞 논산 H씨주택 / 金奉燮 / 신화건축설계사무소
 21. 柳然昌 / 마도 & 류건축연구소
 22. 용인성당 / 李起範 / 주·도시건축
 24. 홍성상호신용금고 사옥 / 李相憲 / 대우건축연
 구소
 26. 호텔낙산비치 / 李仁守 / 목전종합건축사무소
 28.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 黃一仁

建築士 Plaza

2. 論壇 / 결과를 위하여는... / 尹鳳源
 41. 정화칼럼 / 자기의무에 최선을 다하자 / 채수현
 42. 일하며 생각하며
 * “보다나은 내일을 위하여” / 崔昌奎
 * 문어발 하나 / 金基雄
 * “우리의 서울을 위한 작은 제안” / 조익수
 49. 對話의 廣場 / “우리의 都市는 어디에 있는가?” / 박상호

論文 / 기타

50. 報恩東軒 / 朴泰壽
 70. 超高層建物の 情報設備 / 宋 煥
 74. 주택단지 경관 및 주택의 질 향상방안 / 趙成龍
 85. 太陽 Energy 利用 System에 對한 研究(續) / 尹榮在
 86. 既存住宅의 斷熱改修 / 朴相東

連 載

54.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政求
 59. 建築의 컴퓨터 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曹鐵鎬
 62. 주택의 인테리어디자인 / 취침공간 / 趙聖烈
 66. 건축설계사무소 자료정리 방식에 대한 제안 / 송영주
 81. 斷熱工事標準示方 및 품셈 / 에너지研究分科委員會
 93. 자료 / 초음파에 의한 콘크리트 시험법
 33. 협회소식
 69. 건축계뉴스
 101. 회원동정

10月號

會員設計作品

4. 삼부빌딩 / 李榮一 / 삼송건축연구소
 7. 김박사대 / 宋洙九 / 한송건축연구소
 9. 원앙예식장 / 車東明 / 하나로건축연구소
 11. 한일은행 북부합숙소 / 尹錫祐 / (주) 종합건축설계사무소

計劃作品

13. 교육단지조성 건물 신축설계 / 愼武賊 / (주) 서한건축연구소
 15. 국립전북대학 학생회관 / 李伯吉 / 합동종합기술공사(서울)

建築士 Plaza

2. 論壇 / 좁은門 / 宋政求
 20. 對話의 廣場 / 野話 3題 / 서찬식
 53. 정화칼럼 / 인정과 이해 그리고 신뢰 / 도부찬

論文 / 기타

27. 육아시설 르브 / 朴勇煥

31.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 朴相東
 43. 오수정화조설비 / 황원택
 54. 건축전기 설비면에서의 에너지절약기술 / 이영수
 62. 전산화에 따른 Software보급 / 전동원
 65. 태양에너지利用 System에 대한 研究 / 尹榮在
 70. 석가탑의 복원 / 姜奉辰

連 載

23.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 / 주택의 아동공간계획 / 趙聖烈
 38. 建築의 컴퓨터 應用 / CAD를 活用한 建築設計 / 曹鐵鎬
 48.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宋政求
 13. 협회소식
 67. 건축계뉴스
 76. 신입회원
 77. 회원동정
 78. 자료 / 건축허가면적 변동추세

11月號

會員設計作品

6. 삼성동 K씨주택 / 愼庚辰 / 삼우종합건축연구소
 8. 전주서문교회 / 金正湜 / (주) 청림건축
 10. 청담동 N씨주택 / 劉圭成 / 범양건축연구소
 12. 보례빌딩 / 朴英昊 / 건축환경동인 의견건축
 15. 역삼동 집포주택 / 鄭求殷 / 삼에건축
 18. 금오공대 학생회관 및 도서관 / 魏亨復 / (주) 연희건축
 연구소
 20. 한 빌딩 / 俞元在 / 범 건축

제 19회 定期總會消息

4. 吳雄錫 新任會長就任辭
 23. 金聖培 建設部長官 致辭
 24. 제19회 定期總會 開會辭
 26. 제 19 회 定期總會開催
 35. 金枝泰會長 離任辭
 64. 懇談 / 協會의 發展進路, 그 方向을 얘기한다.

特輯 / 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

36. 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참가 / 金知德
 46. 좌담 / 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
 54. 紀行文 / 넓은空間, 큰 線의 동남아建築과의 만남 / 吳文煥

論文 · 기타

82. 太陽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研究 ④ / 尹榮在
 84. 高層建物에 대한 防火計劃의 着眼方向研究 ① / 金相旭
 90. 建築輸送設備工事標準示方書 / 宋 煥
 89. 정화칼럼 - 솔잎송편먹기 / 任仁嶺
 103. 자료 -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 변동추세
 104. 건축계뉴스 / 정보
 107. 회원동정
 108. 신입회원

會員動靜

변경 □ 서울지부 = △박연심회원 / 중앙건축설계연구소 / 강남·방배동 924-19 / 581-6781

△이원무회원 / 소망건축설계사무소 / 강서·화곡동 987-2 / 604-3365

△이현동회원 / 대승건축설계사무소 / 강남방배동 18-21 / 591-9878

△서양원회원 / 원진건축연구소 / 구로구구로동 81-2 / 853-2891

△구성모회원 / 구미건축설계연구소 / 구로구구로동 99 / 863-6688

△최영진 / 한국조형건축연구소 / 강남·논현동 273-31 / 546-6639

△이영현회원 / 한국조형건축연구소 / 강남·논현동 272-31 / 546-0078

△강태석회원 / 주·한전합동건축 / 강남구청당동 1-17 / 546-0441

△김영덕회원 / 주·한전합동건축 / 강남구청당동 1-17 / 546-0442

△김기상회원 / 주·한전합동건축 / 강남구청당동 1-17 / 546-0443

△이철재회원 / 주·한전합동건축 / 강남구청당동 1-17 / 546-0444

△박대성회원 / 유성건축설계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 98-15 / 94-1949

△장상의회원 / 동양합동건축사무소 / 성동구자양동 219-5 / 445-3507

△강현술회원 / 동양합동건축사무소 / 성동구자양동 219-5 / 445-9765

△이종규회원 / 삼용건축설계사무소 / 강서구등촌동 547-3 / 603-0121

□ 충남지부 = △이기석회원 / 이기석건축설계사무소 / 대전시중구대흥동 480 /

△송규준회원 / 평화건축설계연구소 / 대전시중구대흥동 490

△이백해회원 / 문화건축설계사무소 / 서천군장항읍창선 1가 168

△조상연회원 / 동아건축설계사무소 / 서천군장항읍창선 1가 168

□ 대구지부 = △황용주회원 / 세화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중구동인 1가 235-14 / 44-0234

△이종만회원 / 세화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중구동인 1가 235-14 / 423-2992

△이무상회원 / 정원종합설계사무소 / 대구시삼덕 2가 3-10 / 423-9451

△백정흠회원 / 동국건축 / 대구시중구남산동 690-9 / 45-5500

△이홍길회원 / 대륙건축사무소 / 대구시중구남산동 690-9 / 44-0082

△김태진회원 / 신명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중구삼덕 2가 269 / 422-5445

△진병달회원 / 제일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북구노원 3가 770-2 / 32-3235

□ 전남지부 = △오무송 / 동일건축설계사무소

□ 충북지부 = △정순모회원 / 정순모건축설계사무소 / 단양군단양읍하방리 209-4 / 2912

△이지훈회원 / 남부합동건축설계연구소 / 보은군보은읍살산리 99 / 2461

□ 인천지부 = △장원선회원 / 세기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유동 2-40

□ 충북지부 = △오수복회원 / 수복건축설계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3가 87-4 / 2-0894

□ 경기도지부 = △윤덕찬회원 / 윤덕찬건축연구소 / 평택군평택읍합정리 488-6 / 3-0727

△신현수회원 / 안산전원건축 / 안양시안양동 505-15 / 3-2408

△김병률회원 / 성도건축연구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98-1 / 42-6556

△우서균회원 / 서원건축설계 / 시흥군과천면중앙동 40 / 72-2040

폐업 □ 대구지부 = △윤자균회원 / 안성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동구신원동 283-9 / 10. 24

□ 서울시지부 = △김정호회원 / 삼성합동건축연구소 / 동대문구신설동 103-3 / 11. 2

□ 전남지부 = △조동희회원 / 전남광주시북구중흥동 657-19 / 11. 13.

□ 충북지부 = △강정원회원 / 강정원건축설계사무소 / 영동읍개산리 668-9

휴업 □ 강원도지부 = △장신기회원 / 태백건축설계사무소 / 태백시황지 1동 80-1 / 84. 9. 24~85.

1. 31(4개월간)

□ 서울시지부 = △오수암회원 / 오승건축연구소 / 강서구화곡동 1024 / 84.

11. 6~85. 8. 10

재입 □ 서울시지부 = △노병우회원 / 주·서울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 11. 13 / 783-7563

△허주열회원 / 영자건축 / 강남구역

삼동 696-28 / 10. 11 / 567-2610

전출 □ 서울시지부 = △황창구회원 / 주·동해건축 / 경기도평택읍평택리 64-3 / 10. 31일 / 종로구수송동

△안상범회원 / 목화건축연구소 / 강남구역삼동 718-1 / 11. 13일 / 충북

△김재황회원 / 주·정일엔지니어링 / 용산구서계동 209 / 11. 12 / 전북

△이윤용회원 / 창조건축설계연구소 / 영등포구당산 3가 398-1 / 11. 16 / 충북

□ 경기도지부 = △이성규회원 / 제일건축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98-22 / 11. 20 / 서울

□ 경북지부 = △김용성회원 / 영주건축설계사무소 / 영주시영주동 378-18 / 11. 7 / 충북

전입 □ 충북지부 = △김용성회원 / 금성건축설계사무소 / 충북단양읍하방리 218-2 / 11. 8 / 경북 / 2526

□ 경기도지부 = △황창구회원 / 평해건축기술공사 / 평택군평택읍평택리 46-3 / 11. 16 / 서울 / 2-2224

□ 충북지부 = △안상범회원 / 목화건축연구소 / 단양군단양읍하방 1리 1반 177-5 / 11. 15 / 서울 / 2296

결혼 □ 서울시지부 = △방효훈회원 / 장녀결혼 / 10. 6 / 커피예식장

△김영석회원 / 장녀결혼 / 10. 20 / 목화예식장

△박기상회원 / 장남결혼 / 10. 27 / 원앙예식장

△김철환회원 / 삼남결혼 / 10. 27 / 이화예식장

별세 □ 서울시지부 = △정연석회원 / 부친별세 / 10. 23 / 자택

□ 경기도지부 = △최학규회원 / 11. 1 / 심장마비 / 자택

THE ULTIMATE IN INTERIOR & EXTERIOR COATINGS Fiber Tex-Cot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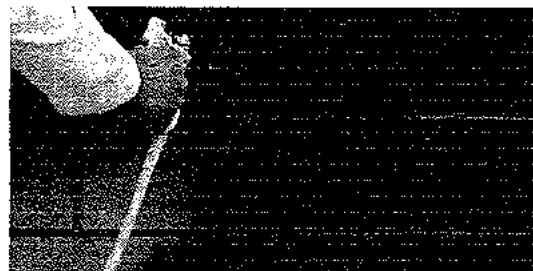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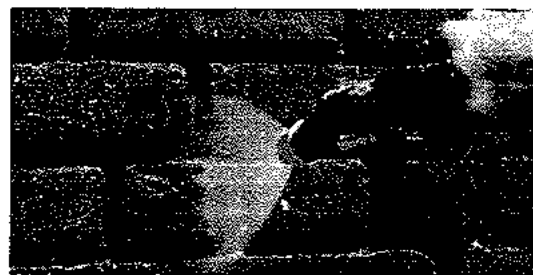
화이버 텍스코트 글래스 (FIBER TEX-COTE GLASS) 제품의 특징

- (1) 고상하고 미려한 색상을 장기간 유지한다.
- (2) 내후성 및 내구력이 뛰어나다.
- (3) 흡음, 단열 및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 (4) 구조력과 성형력이 강력하다.
- (5) 도막 자체가 통기성이 있으므로 결로현상이 방지된다.
- (6) 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 (7) 완전한 내화성으로서 방화벽의 역할은 물론 무공해성 제품이다.
- (8) 곰팡이나 부패현상이 방지되므로 건축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
- (9) 질감이 다양하며 무광이다.
- (10) 건조후 도막 신축성이 우수하다.
- (11) 시공절차가 간편하다.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레인스토퍼 (RAINSTOPPER)의 특징

- (1) 벽면의 수분침투 방지.
- (2) 건조후에 표면이 투명하고 얼룩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함.
- (3) 시공표면의 산화, 백화 및 풍화현상을 방지.
- (4) 오물접착 및 모세관 침투현상 방지.
- (5) 페인트 도장면에 시공시 페인트의 수명을 연장.
- (6) 목재부분의 수분 침투에 의한 손상 방지.
- (7) 시공에 기후조건이 없으며 산·알칼리 및 해수(海水)에 강하므로 결국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줌.
- (8) 표면내부에 침투하므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지 않음.
- (9) 내후성이 우수하며 자외선에 강함.



株式 韓國 텍스코트

(美国 T. C. A. 社 技術提携)

事務所: 서울特別市永登浦区汝矣島洞13-31

(韓國機械工業振興會館 5 層)

電話: 783-8141 ~ 3

私書函: 汝矣島 P. O. BOX 302

TELEX: K22064 KOTONCO

주요 생산제품 안내

●텍스-코트 600®

강한 접착력과 유연성을 지닌 속건수성제품. 합판이나 시멘트판 및 판넬시스템용으로 사용.

●레인스토퍼™ 스테인

페인트 도장과 다른, 위의 레인스토퍼-크리어 제품에 침투성 색이 첨가된 제품.

석공(MASONRY),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건축콘크리트, 벽돌 시멘트스타코.

●텍스 타이트

석공표면, 합판(WOOD), 수영장(P-POOL), 콘크리트 블럭, 지하실 내벽用 강력방수액

●TCA CONCRETE FLOOR STAIN

FLOOR, WALKWAYS, PATIO, DECK 등 내마모성 침투성 바닥제.

●BLACK TOPPER —

아스팔트 주차장용 상도코팅제